

새민족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자료집

새민족,
서른 즈음에...

새민족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자료집

새민족, 서른 즈음에...





새민족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자료집

새민족, 서로의 즈음에...

펴낸이 | 황남덕
 펴낸곳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새민족교회
 발행일 | 2016년 11월 6일
 주소 | 03955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7길 49
 전화 | 02-363-3236
 홈페이지 | www.saeminjok.or.kr

* 비매품

1	새민족의 삶과 신앙	11
2	새민족의 기도	183
3	새민족 3대 뉴스(2007~2016)	229
	첫 번째 뉴스 새민족교회 선출직 선출!	231
	두 번째 뉴스 신임 목회자 부임!	240
	세 번째 뉴스 새민족교회 건물을 갖다!	300
4	새민족의 오늘	309
	새민족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결과	311
	전교인 신앙의식과 교회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322
5	새민족 서로 즈음에 미래를 꿈꾸다	333
	2기 새민족3.0추진위원회 보고서	335
	창립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	354
	비전의 재구성팀 활동보고서	383
	새민족 서로 삶의 다짐팀 활동보고서	388

역사(歷史)와 고백성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빌2:13)

할렐루야!

새민족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민족, 서른 즈음에>를 발간
하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역사(歷史)는 단순히 지나 온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 속에서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성찰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민족의 역사(歷史)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더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여정을 돌아보니 30년의 광야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役事)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내다보니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새민족의 역사(歷史)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행동에 대해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며 미래를 향한 공동체의 신앙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생생한 고백적 기억들이 ‘삶과 신앙’이라는 주보글을

통하여 그리고 주일예배 때 드린 ‘기도문’을 통해 여기에 주옥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민족이 공동체적으로 기억할 만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事件)들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 책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役事)안에 있어 온 30년의 새민족의 역사(歷史)의 기억과 고백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 꿈틀거리며 이어져야 합니다.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으나 누룩처럼 번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며 시대의 아픔에 함께 하는 새민족의 역사(歷史)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금, 여기서> 미래를 향하여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30년을 맞이한 새민족이 하나님나라를 향한 <기억과 고백의 증언공동체>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9월
새민족교회 담임목사 황남덕

감사와 다짐

역사의 평가는 다양하고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작업인 만큼 최근 10년간 새민족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를 내리기엔 아직 짧은 기간이라, 이번 자료집은 역사적 평가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자료 위주로 정리하자는 것이 30주년 준비위원회의 방향이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크게 과거, 현재, 미래의 세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과거 부분은 주보에 실렸던 교우들의 ‘삶과 신앙’ 글과 주일 기도문을 통해 우리 교우들의 살아온 삶과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의 역사 중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선출직(안수집사, 장로) 선출’, ‘목회자 청빙’, ‘교회건물 구입’ 등 3가지 뉴스를 관련 공식문서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부분은 올해 실시한 전교인 설문조사에 대한 것입니다. 새민족교우들은 지금 어떤 신앙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새민족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미래 부분은 조직교회로 가게 된 지난 10년의 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고민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1993년에 만들었던 ‘새민족교회 교인 실천 규범’을 서른 살을 맞이하는 오늘 삶의 자리에 맞도록 ‘새민

족 삶의 다짐’으로 고쳐 만들게 된 데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세웠던 ‘비전 2026’을 20년의 중간지점에서 다시 살펴 우리가 앞으로 함께 만들어나갈 비전으로 새롭게 다듬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힘들기도 했지만 늘 하나님의 개선행진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곁에서 함께 한길을 가는 서로를 느끼며 든든하고 벅찼던 날들에 감사하고 행복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우리가 늘 ‘새민족 신앙고백’으로 다짐하듯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고, 정의 평화 생명의 예수살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30주년 준비위원회 역사분과장 김진오 집사를 비롯하여, 분과식구인 문종철 장로, 김군욱 집사, 김미경 집사, 이재숙 집사, 정현정 집사, 그리고 설문정리팀으로 수고하신 황남덕 목사, 김종원 장로, 마지막으로 30주년 준비위 비전분과장 김석환 집사와 박연미 장로, 한지경 집사와 비전분과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9월

새민족 3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진희



세민족의 삶과 신앙



1년 반이 지났습니다

| 강 성 배 |

어느덧... 행복하냐구요? 예. 많이 행복합니다. 저와 집사람 모두.

그래서 독백 겸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두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 다녀오는 걸 당신 삶의 의무처럼 여기시는 어머님께서도 이제 아무 염려를 하지 않으시네요.

일 년 반 전 저는 상당히 오래도록 고민해 온 생각을 행동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고교 졸업 후 30년간 다녔던 교회를 벗어나는 중대 프로젝트였습니다. 아~ 집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다녔으니 얼추 인생을 저와 같이 보냈네요. 오랜 시간을 주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저희와 어머님과 교회생활 이별이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되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작심을 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즈음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제 생각과 맞지 않는 교회상과 보수를 넘어 지독히도 한쪽으로 편향된 대부분 교회들의 정신세계와 이기심, 만사를 제쳐 둔 부의 축적을 향한 욕구.....

대한민국 교회의 위치를 여실히 느끼고 있던 젊은 제게는 차츰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이었나 봅니다. 바라지 않는 곳에서 머물러 있으며 시간을 보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역사의 한 수레바퀴 속에서 깨알 점이 되어 보이지도 않는 삶이었죠. 가장 가까운 근대사조차 소수의 이익을 위해 왜곡하고 나라의 정체성, 도덕성은 이미 눈앞에서 사라진지 오래인 이 나라를 무슨 면목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하라 말할 수 있는지 막막한 가운데 고민만 하다 행동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하다 결심하게 되더군요.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 순간 교회 내의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여러 갈래로 추측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누구와의 분란 또는 목회자와의 관계 등을 주로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원인을 물어 오는 교회 내 물어오는 분들께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제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저를 기존 교회에서 본다면 빨갱이라 명명할지라도 다른 이유를 댈 수는 없었습니다. 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몰밀 작업이 끝난 시점에서 저희의 소식을 알게 된 교감 출신 이신 한 장로님이 커피 한잔하자고 하여 동네 커피숍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그 장로님은 제게 제안을 한 가지 하시더군요. 뒤에서 힘을 실어 줄 터이니 앞장서서 교회를 바꾸라고... 허나 비교적 오랜 세월을 다녀 본 저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격도 전혀 없는 일개 평신도인 제게는 더더욱 해선 안 되는 일이었죠. 오히려 넘어서기 힘든 분란을 가져오거나 선량한 주위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건 능히 예상하고도 남는다는 결론으로 결국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제 생각을 들으신 담임 목사님이 어머님께 물어보시면서 “혹 이단에 빠진 건 아닙니까?” 하는 의혹까지 받아가며 어려운 시간들을 차차 극복해 나갔습니다. 집사람은 다소 우려를 하면서도 제 뜻을 따라 주었고, 제 능수능란한 언변(?)에 동화되어 조금씩 응원해 주더군요. 사실 저와 제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직장을 옮기거나, 진학을 하는 문제보다도 더 실감나고 흥미진진한 일이었죠.

한 달간의 교회 무단결석, 수많은 분들의 설득과 회유, 가정 방문 등의 예상되었던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어머님 설득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찾은 ‘새민족교회’는 제 꿈이었습니다. 2004년쯤인가 저와 생각을 공유하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향린, 남녘 등등 몇몇 교회와 함께 추천받은 새민족 교회를 거의 8년이 지나고야 인터넷에서 위치 검색을 하게 된 겁니다.

“어? 충청로라 했는데... 어? 그 친구가 존경하는 이근복 목사님이라고 계신다 했는데...” 이거 정보가 너무 오래되었나 생각해보니 겨우 8년 전이었던 겁니다. 8년 새에 목사님과 교회 위치가 다 바뀌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긴가 민가 하는 마음으로 망원동 어느 구석의 작은 간판을 보고

는 보무도 당당하게 쑥~ 들어갔습니다. (예쁜 아주머니가 주보도 주시고 책도 주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장로님이셨다는 이야기는 지면상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이요?

지금 저희 부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참여도 잘 못하고 많이 서툴지만 마음만은 새민족의 모든 행사를 응원하며 일원으로 소속됨을 행복해 하죠. 아직 제게 대내외적으로 숙제는 몇 가지 남아 있으나 시간이 해결해 줄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와 집사람을 받아주고 재미있게 같이 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모든 새민족 공동체 식구들에게 감사드리며, 짧은 삶과 신앙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멘.



아직 생각뿐이지만.....

| 고 경 아 |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마음까지도 설레이게 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얼었던 모든 것이 풀리는 계절이 드디어 왔다. 그리고 글을 써야하는 날도 왔다.

작년에 라디오를 듣다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잠시 해야겠다.

내 오래된 친구 중에 종로구 창신동에서 2년 전부터 마을방송을 하는 친구가 있다. 창신동 라디오 ‘덤’이라는 이름으로. 그 방송을 가끔 듣는데 방송 코너 중에 ‘산중인 프로젝트’라는 코너가 있다. 그 코너에서 남녀 두 명이 듀엣으로 노래를 부른다. 왜 코너이름이 ‘산중인 프로젝트’일까 궁금했었는데 작년 말에 궁금증이 풀렸다. 그 친구가 서울시에서 마을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작업을 한 것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산중인 프로젝트’였다.

대부분 봉제일로 바쁘게 살아가는 주민들 중에 남이나 내가 모르는 재

능(?)들을 찾아낼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였다. 살아가느라 나를 표현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도전해서 자기 음반을 낸 주민들이 몇 생긴 것이다. 어떤 종류의 노래든 악기든 쭈뼛쭈뼛하던 주민들 중 그 프로젝트에 도전해서 재미있던 삶에 생기가 넘치고, 발견한 재능으로 봉사까지 하게 된, 조금 과장해서 삶이 바뀐 주민도 있었다. ‘산 중인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무대도 만들어 공연하기도 했다. 그 중 한 여자 분이 라디오에서 부르는 노래를 들었는데 자기감정을 너무나 잘 표현하면서 맛깔나게 부른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프로젝트를 하는 중에 그 친구는 버거움을 느끼며 힘들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마무리를 잘 했다고 한다.

‘산 중인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마을무대에 섰던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뭔가 삶의 재미를 찾았다고나 할까?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방송내용을 들으면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으로 봉사도 하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가지 하고 싶은 봉사가 생각이 났다. 재능이라기보다는 조금 관심 있는 부분이랄까. 인터넷으로 살짝 알아보니 하고 싶은 봉사가 시간적으로 지금 하기는 어려워보였다. 그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간내기가 어려워,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꼭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게 된다.

애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해보아야 하면서 교회 부설인 요양원에서 언젠가는 봉사해야지 하고 남편이랑 생각했었다. 막내가 크면서 조금 자유로워지자 토요일에 교회 어린이프로그램에 봉사하게 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어느덧 지역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도 작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눔’이라는 것을 한 가지는 꼭 하겠다는 꿈을 이루리라 다짐해본다. 나도 좋고 이웃도 좋은 흐뭇한 일을...



행복이 표시된 가격표

| 김 결 |

가격표시 방법이 변하고 있다. 어릴 때 용돈을 받으면 구멍가게에 가서 좋아하던 과자를 사먹곤 했다. 구멍가게에서는 가격을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내가 사는 상품도 한정되어 있었고, 가격도 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멍가게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던 무렵, 빈자리를 대형마트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대형마트에 가면 상품 하나하나에 가격이 붙어 있었다. 대학생이 되고 엠티를 가기 위해 대형마트에 갔다. 다양한 상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던 차에 가격 표시방법이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가격만 붙어있던 것에 ‘단위 당 가격’이 추가되어 있었다. 가격표시 방법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최근 어느 마트에서 가격표 옆에 ‘CO2’라는 마크가 붙은 상품들을 발견했다.

‘윤리적 소비’가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트위터에서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으로부터 ‘이념적 소비 논쟁’이 시작되었다.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의 관계에서 비롯된 논쟁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발했다. 정 부회장이 ‘이념적 소비’라는 용어를 통해 사용한 개념의 올바른 용어는 ‘윤리적 소비’로, 이미 경제학에서 ‘실질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필두로 시작된 ‘윤리적 소비’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소비행위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는 모든 물품을 불매하고 공정무역에 기반을 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경향신문). 그러나 소비에 도덕적 가치를 접목하는 ‘윤리적 소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사람들의 소비패턴을 바꾸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나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즈에서 윤리적 소비 캠페인단에 참가해 윤리적 패션 파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캠페인단 활동은 사람들에게 윤리적 패션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친구들에게 ‘윤리적 소비’ 캠페인단을 하고 있다고 하면 보통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 첫 번째는 ‘윤리적 소비’가 무엇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통 윤리적이라는 상품들은 비싼데, 누가 그걸 사느냐는 것이다. 사실 두 번째 문제는 캠페인단 활동을 하는 나도 많이 아쉬운 점이다. 윤리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상품들은 그 생산과정 상 다른 상품들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환경을 덜 파괴하고, 노동의 가치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단위 무게 당 가격’을 표시하는 세상에서 다른 상품에 비하여 가격이 월등히 비싼 이 상품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비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관점을 제안하고 싶다. 우리가 윤리적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품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윤리적 상품은 그것의 원료를 만드는 순간부터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버려지고 폐기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고려한다. 이런 과정에서 유명 브랜드의 옷을 만들지만 하나도 구매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이 돌아가고, 환경을 파괴하는 공정을 최소화하게 된다. 이것은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구조를 더욱 착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비단 상품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다.

또한 ‘윤리적 소비’는 ‘정치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정치행동을 넘어선다고 생각한다. 흔히 우리는 투표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선택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의 투표는 우리의 바람을 현실화시키는데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윤리적 소비는 다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한다.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는 한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 윤리적 소비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가령 나는 현재의 생산 구조를 변화시키기를 바란다. 10만 원짜리 스웨터를 제작하고 6천원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대형마트에 점포를 얻지만, 권리금과 각종 규제로 몸과 마음이 고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대기업이 정점에서서 아래의 구성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내가 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투표를 한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이 구조를 깨 주리라 믿지도 않는다. 대기업의 회장이 하루 아침에 다른 마음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방법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올바른 구조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퍼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행동하기는 어려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윤리적 소비다. 단지 소비행위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다.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경제 구조가 조금 더 착해질 것이다. 그들의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추천을 통해 이런 기업의 존재와 문제의식을 알리고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주 친한 친구의 생일이 있었다. 생일 선물을 고민하다가 가방과 가죽 카드지갑을 샀다. 오르그닷컴에서 만든 가방은 분해되는데 100년이 걸리는 페트병 2개를 사용해서 만들었다. 가죽 카드지갑 역시 버려지는 소파 가죽을 사용하여 ‘에코파티 메이커’가 만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처음 구입한 윤리적 소비 상품이다. 나는 소비행위를 통해 ‘환경’을 생각하고, 의류산업의 문제를 고민하는 두 기업을 응원했다. 또한 친구에게 선물하며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무엇보다도 윤리적 소비라는 것이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친구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우리의 경제를 조금 더 착하게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에 윤리적 소비가 한 자리를 차지하길 바란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퍼지고 점진적인 변화를 불러오기를 기대한다.

최근 마트에 ‘단위 무게 당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에 ‘CO2 발생량’이 표시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가격표에 상품생산에 관계된 사람들의 행복이 표시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우리의 윤리적 소비로 경제 구조 속에서 고통 받던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얻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 주변의 이웃이고, 나 자신이다. 윤리적 소비를 통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경제활동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길 기대한다.



한 갑을 살고 나서

| 김 경 |

지금은 22일 아침 9시. 평상시라면 교회 갈 준비와 아침식사준비 하느라 바쁠 시간인데, 오늘은 12시에 일산에서 가족 행사가 있어서 (나의 환갑 기념 회식^^) 다행히 좀 여유가 있네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펜을 들었어요.

38년. 저의 직장생활 연수입니다. 77년 대학졸업과 동시에 시작한 것이 2015년 지금까지 이어졌으니, 강산이 거의 4번 바뀔 시간이지요. 제약회사 실험실을 거쳐, 세브란스병원 조제실, (주)안연케어까지... 지금은 회사에서 경영관리부서를 책임지고 있으며, 주력 업무는 의약품구매 계약입니다. 연 매출 2500억여원인 회사의 경영성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요.

난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 직업을 가지며, 경제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으니 이 점에서는 생각대로 살아온 셈입니다. 제1차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년을 불과 5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나는 한 갑을 살아내고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큰 욕심(야망)이 없었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

음뿐입니다. 물론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좋은 직장, 좋은 직원을 주시고, 좋은 상사, 동료들 만나게 하심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나의 제2의 삶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출퇴근하는 생활을 했었기에 갑자기 주어진 시간들에 적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3개월도 채 못 되어 좀이 쑤실 거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사실 2중직이어서 쓸데없는 기우일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주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일 등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조화롭게 이 욕구들을 조정해야지요. 한 갑을 살았는데, 이번 갑은 내가 주도적으로 설계해서 살았다기보다, 남들이 가는대로, 주어진 대로, 스치듯 (나름 순간순간은 최선을 다했지만요), 멀리보기 보단 바로 앞만 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일탈을 하여 궤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만, 아쉬운 점을 들자면, 결코 열정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멍멍하다고 할까요?

노자가 말하는 무위라는 개념이 나의 선천적인 성격과 잘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부려 억지로 하려하지 않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두는. (노자가 말하는 무위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실은 부지런한 것 같으면서도 게으른 구석이 많습니다. 진지한 고민을 회피하는 거 하며, 가슴 뛰는 일은 아직도 찾고 있지만 아직 안보이고, 우선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소냐 루보머스키가 『How to be happy』에서 말하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의 의도(의지)에 의해서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걸. 일반적으로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을 환경(재산 능력 외모 배경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통념에 불과하며,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로 구성된 파이 도표를 보면 환경이 불과 10%이며, 의도적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라는 건 놀라운 발견이지요. 이 파이 도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40%가 의도적 활동이며,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원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의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서 저자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원하는 목표)을 설정하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서 내가 가진 자원을 적절히 할당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경험의 학교로 보내라고 충고하는데, 나는 나를 경험의 학교로 보내려고 합니다.

좋은 말 좋은 이론은 수없이 많더군요. 단지 실천이 필요 할 뿐.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그래서 가슴까지 뛰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멍멍하지는 않게 살아 보렵니다! 나의 은퇴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함께 해~요~~”



평범한 것에 감사

| 김 군 욱 |

새민족교회에 온지 6개월이 넘는 것 같네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다가 20대 초반에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라야>라는 작은 모임을 하는데 모임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는데, 모임을 이끄시는 분이 목사님과 아는 사모님이여서 모임을 우리교회에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민족교회에서 모임을 시작하고 또 진보적 교회라는 말에 ‘한번 나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민족교회에 와서 처음 주보를 봤을 때 교인들

의 이야기가 있는 페이지를 보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도 쓰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본적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전 평범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사람들은 평범하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 다니는 것, 친구들 사귀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는 것 누구나 하는 그러한 평범한 삶이 저에게는 너무도 어렵고 또 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투석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1년은 혈액투석(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병원에서)를 했었고 집에서 병원까지 너무 멀어서 복막투석(하루 4번 집에서)를 하게 되었고 7년이라는 시간을 복막투석을 하다 복막염이 심하게 와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혈액투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아픈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변해서 친구들도 사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어서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삶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지만 가족들의 사랑이 있었고 돈을 버는 일은 못했지만, <신환모>(신장병환우들을 위한 모임)라는 카페 모임을 이끌면서 같은 병으로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라야>라는 모임에서는 장애, 인권, 인문, 진보정치와 같은 것들도 배우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도 공부를 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의미도 조금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것을 누리고 사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삶이 사라지게 되더라도 그 삶속에서 행복한 모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목발을 짚으면 보이는 것들

| 김 규 완 |

2014년 2월 4일 아침 9시

일어나자마자 한 쪽다리가 무겁다. 찌릿하며 오른쪽 종아리에 쥐라도 날것 같이 아프다. 한발로 짹짹, 바로 욕실로 향한다. 학다리 권법처럼 한쪽다리만으로 뻗뻗이 서서 먼도, 세면 그리고 잼싸게 머리감기를 해치운다. 욕실을 나오자마자 침대에 철썩 주저앉아 왼쪽 학다리를 풀어준다. 왼쪽 발 바깥쪽으로 통증이 느껴진다. 등산용 스틱을 지팡이 삼아 켑충켑충 작은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 기브스한 오른발이 바지가랭이를 찢을 듯이 통과한다. 양말은 이틀에 한 짝씩만 쓰고 있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오늘은 2주 만에 병원에 가는 날이다. 운전할 수 없어서 택시를 잡으러 아파트 앞 큰길까지 목발을 짚으며 나왔다. 간밤에 급습한 강추위에 바람이 제법 매섭다. 그나마 챙겨 나온 마스크와 귀마개가 있어 다행이다. 밖은 추위도 병원 안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환자 얼굴은 본체 만 채 얼마간 X-ray를 들여다보던 의사선생 말이 지금까지는 큰 탈 없고 앞으로 한 두 달을 지켜보잔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목발과 결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나로서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뼈 붙는데 좋은 약이 있을 법도 한데 약 한 알도 처방하지 않는다. 오로지 시간이 약이다.

지난 1월4일 아내랑 둘째 나윤이랑 칼마위 탐방로 입구까지 가벼운 등산을 했다. 돌아오는 길에 둘째랑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갑자기 따라 잡아서 놀래 줄려고 조금 무리하게 점프를 했는데 등산화가 무거웠는지 그만 착지가 불안정해서 넘어졌다. 그 후로 발 거족의 골절로 기브스와 함께 목발신세를 지며 생각지도 않던 장애인 체험을 한 달째 하고 있다.

근년에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베스트

셀러였다. 요즈음 나는 목발을 짚으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바로 지하철 리프트(엘리베이터)들이다. 길음동으로 이사 온지 일 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그 동안 수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교통 약자들을 위해 설치된 리프트가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처음엔 리프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파른 계단을 힘들게 외발로 오르내린 내 자신이 우직하다 못해 바보스럽다. 회사가 있는 서울역의 리프트는 매일 옆을 지나 다녔으면서도 있는지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지하철마다 있는 리프트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요즘 몸소 느끼고 있다. 리프트가 없는 지하철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느리게 작동하는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보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인들인데 대부분 할머니들이다. 그리고 서울역은 노숙자들도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리프트를 이용하는 짧은 시간 동안 리프트 안에 사람들은 같은 처지의 동지가 된다. 특히 할머니들에게서 잘 발견하게 되는데 목발을 짚고 리프트에 타면 초면에 다짜고짜 어찌다 다쳤는지 물어보는 분이 꼭 있다. 내가 이래저래 해서 다쳤다고 대답하면 자신도 예전에 다리나 팔이 다쳐서 고생한 애기나 본인이 아니면 아는 사람 다친 애기라도 꼭 하면서 추운데 고생이라고 공감으로 위로해 준다.

목발이라는 당당한(!) 면허증을 앞세워 지하철 리프트 안에서 그리고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노인 분들의 세계를 살짝 살짝 엿보게 되었다. 노인 분들에게 다치는 일, 아픈 일, 죽는 일들이 얼마나 가깝고 친숙한 일들이며 그 분들의 주요 화제거리임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되었다.

발목이 다쳐 경거망동(?)할 수 없게 되니 그동안 급하게만 달려왔던 내 삶과 느리게 갈 수 밖에 없는 앞으로의 나의 노년의 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야곱이 압목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 이후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듯 이번 골절사고를 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전화위복

| 김동희 |

요 며칠 가물었던 대지위에 단비가 내려 조금이나마 해갈이 되었고 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지난 가뭄으로 인해 단풍이 선명하진 않지만 이번 가을은 유난히도 저에겐 눈부시고 찬란하게 느껴 집니다. 전에는 바람에 나뭇구는 낙엽을 보면 가슴이 쓸쓸했지만 이번 가을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아마 제 정신과 마음의 세계가 보다 풍요로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아직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저희 가족부터 소개할까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근무하는 남편은 요즘 대세 첼밥통(?) 공무원입니다. 큰딸은 대학을 잠시 휴학하고 세무공무원 준비생입니다. 아들은 올해 경주 동국대에 진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제 나이(47)에도 불구하고 무릎에 물이 차고 관절통이 심해서 열흘 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병명은 관절연골 연화증. 극심한 관절통증으로 인해 한동안 잠도 못 이루었습니다. 두 달간 육체의 질병에서 오는 통증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 무기력과 우울함이었습니다. 평소 제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러한 질병을 이길 마음의 면역성을 키웠을 테지만, 그렇지 못한 저에겐 꽤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 동안 제 삶을 돌이켜 보면, 분주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 아이가 대학 진학하기까지 경제적인 일을 통해 도움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것이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남편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으로 '가족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나를 대신해 나의 육체를 별하시라'고 신앙이 부족한 가족을 향한 잘못된 기도를 했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기 보다는 가족이 변화되기만을 바라는 똑같은 요구 사항을 하나님께 수없이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니 내 자신도 지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지루한데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지루하셨을까요? 병을 얻어 일을 접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많은 대화를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을까?'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은 후 신기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남편이 지금은 저를 이해해주고 격주로 교회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동안 잘못된 기도를 했던 저는 아플 때마다 내 현실을 내 생각으로만 의지한 채 해결하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흔들리고 두려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으셨음을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였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육신의 질병은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무릎도 점점 호전되고 있습니다.

새민족교회에 나온 지도 1년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보려고 애쓰며, 불공평한 세상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그 안에 있음에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병을 얻어 우울하고 낙심했던 것이 지금 돌이켜 보면 저에게는 축복이고 하나의 기회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련들이 가는 길마다 있겠지만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곧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승주, 승우와 함께 역사 배우기

| 김명희 |

승주가 여름방학에 영화 ‘명량’을 보고 무척 역사에 관심이 많아졌다. (3번을 봤다) 아이들 관심이 높아지니 관련 동영상, 책도 찾게 되어 아이들과 같이 보게 된다. 그중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강의가 설민석의 역사 강의이다. 예전에 ‘무한도전 역사특집’에서도 나왔는데(나와 승주, 승우는 무도 광팬이다.) 역사영화가 나오면 시기적절하게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동영상은 쉽게 설명하고, 재미도 있다.

자연스레 5학년 2학기가 되면서 사회시간에 배우는 조선후기의 역사도 열심히 공부한다. 전란 이후 영조는 당쟁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책을 실시하고,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역법을 만든다.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요즘 화제의 드라마 ‘비밀의 문’에서 군역법 제정에 노론이 엄청 반대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왕 ‘정조’, 솔직히 나는 ‘이산’, ‘영원한 제국’, ‘역린’ 이런 영화, 드라마가 인기 있을 때 별로 관심이 없었다. 중고등학교시간에 배운 역사는 그저 시험 때 외우곤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승주를 통해 배우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엄마라서 그런가?). 규장각을 설치하고 실학자 정약용, 서얼 출신 등 새로운 인재를 과감히 발탁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정조. (수능시험에서 세종대왕보다 정조에 대한 문제 출제율이 훨씬 높다고 한다. 업적이 굉장히 많다.)

왕에 오르자 첫말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였으니, 노론세력은 왕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러니 왕권 강화, 호위를 위해 ‘장용영’이라는 친위부대 창설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또 하나 화성 건설이다. 추석 때 아이들과 화성에 가보았다. 당시의 화성행궁 등은 일제시대 때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거의 사라지고, 꾸준한 복원운동을 통해 2003년에 1단계 복원이 되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정약용의 거중기를 통해

건설을 하고.. 그런 기술적인 것 보다, 수원화성은 정조에겐 꿈을 만들기 위해 가는 이상향이었다. 한양이 금난전권으로 노론의 정치소굴로 변했으니, 할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곳에 있는 아버지의 묘를 찾아갈 때 배다리를 놓아 한강을 건너고, 쉬어가는 곳이 수풀이 너무 우거져 무서우니, 장승을 세워라 해서 그곳이 ‘장승백이’라는 지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들.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 자유롭게 구경하게 하며, 노인들을 모아 잔치도 하고, 또한 백성들의 억울함과 고충을 들어주고 궁으로 돌아와서 ‘민심은 천심’이라 하며 반대하는 신하들 말도 못 붙이게 한 후, 일들을 해결해 주었다고 한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어머니를 모시고 화성으로 가, 도시를 발전시켜 화성을 모델 삼아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꿈꾸었다. 그러나 정조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세계사적으로 17~18세기는 봉건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혁명의 바람이 불었던 그때이다. 아마도 그 바람이 우리 땅에서도 불었나보다. 하지만, 500년 전이나 정조 때나 현재나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만행은 변함이 없다.

훗날 승주, 승우가 아버지가 되어 아이들에게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빠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슬픈 일들이 되풀이되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앞 번호 트라우마

| 김미경 |

지난 주 저는 주일 기도당번에 반찬당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트라우마가 살아났습니다. ‘앞 번호 트라우마’라는.

제가 초등학교에(당시 국민학교) 다닐 때는 생일 순서의 반 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학기 중 누군가가 전학을 오면 겨우 끝 번호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군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철원)이라 군속의 아이가 가끔 전학을 왔었습니다. 점점 학년이 올라 고학년이 되었을 때, 아무진 어떤 아이한테 ‘언니라고 불러!’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2월25일이 생일이거든요. 12월이 아니고요. 그렇게 빠르는데 왜냐하면 일곱 살에 입학 했거든요.

중, 고등학교에 가면서 다른 분류체계가 생겨 키 번호와 가나다 번호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나 권 씨가 없을 때는 김 씨가 앞 번호에 자리하게 되지요. 고등학교 1학년 막 입학을 했는데 제 반 번호가 1번이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목에 ‘교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의 고등학생들은 처음 듣는 과목일 테지요.

남학생은 정확하지 않지만 총검술과 제식훈련을, 여학생은 응급처치와 간호, 제식훈련을 받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교련 담당 선생님은 남자선생님이시고 선도부 담당이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선생님의 포스가 남 다르다는 걸 느끼셨겠지요. 응급처치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삼각건 묶는 법을 배울 때 꼭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항상 ‘1번 앞으로!’ 하고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기본 삼각건은 매듭 묶기라 괜찮았습니다. 조금 더 진행된 수업은 머리에 하는 삼각건(머리를 다쳤을 경우)을 거쳐 가슴과 등에 하는 삼각건으로 가며 저를 수렁으로 빠트렸습니다. 사춘기 소녀의 가슴에 삼각건을 매는 시범을 보인다는 건 수치심을 갖게 했지요. 그러나 거기까지도 양반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엉덩이에 매는 삼각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육복 위였지만 엉덩이를 감싸는 하얀 삼각건은 웬지 속옷처럼 보였고 너무 창피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하고보니 제 남편의 성은 조 가입니다. 아마 약간의 무의식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원이는 오히려 자기는 강 씨나 권 씨, 고 씨를 부러워합니다. 항상 끝 번호라 안 좋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제일 앞에서 총대 메는 일은 없겠다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역시 자기가 겪

지 않으면 절대 이해불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그게 뭐 그렇게까지’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주 기도와 반찬을 하고 이번 주 주보 글을 쓰는 건 각 부서에 각각 당번을 정하는 까닭이겠지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가나다 순 하나의 분류체계를 써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른 분께 말씀드렸더니 ‘얼른 끝내고 좋지’하셨습니다. 역시 경험하지 않으셔서...물론 결과가 끝난 후에는 얼른 끝내서 후련할 수 있지만 준비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가나다순 말고 등대순이나 미모순(?) 같은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건의합니다. 저는 그나마 김규완 집사님이 계셔서 다행이었답니다. 김규완 집사님은 늘 제 앞이거든요.

김규완 집사님! 목발 줄업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 점심은 제가 집사님께 씹니다.

근황(近況)

| 김 석 환 |

삶과 신앙에 대한 원고 요청을 금요일에 주보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받고 급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새민족교회와 현재 제 삶이 그만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목부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삶도 어려운 주제이고 신앙도 어려운 주제인데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쓸려면 적어도 보름 정도의 시간은 주어져야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반나절이니 힘든 금요일입니다.

삶이든 신앙이든 망원경으로 보면 아름다운 풍경인데 현미경으로 보면 복잡하기만 합니다. 현미경으로 보고 분석할 만큼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망원경으로 대략 훑어보려고 합니다.

과천 생활 4년차인 요즈음은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떠올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침 일찍(?) 들어가는 날이 많았는데 새벽 1시 정도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눈을 뜨고 놀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놀아주고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미안함을 늦기 전에 보충하려고 지금은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4학년이 되면서 많이 변화해서 지금은 저의 좋은 말벗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몇 년 전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전제 군주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지금은 서열 3위의 처지에 잘 적응하여 두 여자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지개 교육마을과 학교 일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다른 일과 겹쳐서 집중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고사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독인연대를 통해서 교회와 신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책 읽기와 주말 축구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의 두 축은 책과 연대 활동입니다. 책을 통한 배움은 도전과 기쁨을 줍니다. 도전은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불변의 진리라고 여겼던 내용들이 실제로는 왜곡되거나 거짓임을 깨닫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독교를 내 신앙으로 받아들인 시간이 오래 되었고 또 여러 활동을 했지만 얼마나 내가 무지한 지를 책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제도 교육에 충실하던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선배들과 공부하고 난 후 ‘지금까지 속았구나.’ 하는 깨달음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제 깨달음의 깊이가 있다거나 많은 배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취미로, 야매로 배우는 것이니 현재는 좌충우돌인 상황입니다. 신앙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니 공중 기도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연대 활동은 제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준 기둥이었습니다. 세상을 여는 새로운 창이기도 합니다. 그 창이 닫힐 때 저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교회 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평신도 강단교류를 함께 하면서 강남향린교회와 섬돌향린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실 두 교회를

처음 방문한 것도 아니고 교우들은 자주 뵈었지만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배에서의 만남은 활동 속에서의 만남과는 다른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공동체-기독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만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조직에 대한 저의 생각은 늘 1/n입니다. 그 이상은 욕심이고 그 이하는 무임승차라는 생각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연대 활동도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권리들도 생각해 보면 무임승차가 많습니다. 교회는 이전에 열심히 저축해둔 것이 있어서 아직 무임승차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조용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늘에 보화가 쌓이고 있겠지요. 착취를 정당화하는 부적절한 표현인데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본질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쌓이면 신앙이 정리될 것입니다. 신앙이 정리되면 지금보다 더 힘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신앙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결국 삶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고 긴 신앙의 여정이므로 천천히 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민족 교우님들!

| 김선희 |

안녕하세요? 새민족 교우 여러분! 교우면 친구들인 거죠? 권사님, 어르신들께는 버릇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냥 딸처럼 며느리처럼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후보에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생각 못 한 일이라서 주제를 고르느라 수고와 고민이 많았음을 알아주셔도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저나 제 생활에 대해 알려드릴 기회가 너무 없었다고 판단하고 가능한 이 한 장의 글로 오랜 친구 같은 착각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선 찬양대에서 on-off로 찬양의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빠지는 날과 지각하는 날이 태반인데도 쫓겨나지 않은 것은 다른 찬양대원들의 인격수양 덕분인 것을 잘 알고 있구요. ㅎㅎ 그래도 힘껏 찬양하고 나면 많은 행복감과 뿌듯함이 드는데 그런 기쁨을 포기하고 싶진 않네요. 새 해부터는 조금 더 성실한 자세를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력한 크리스천 집안에서 자라 기독교를 습관적으로 받아드리며 살아가던 저에게, 불가지론 아님 무신론자에 가까운 저의 남편과의 결혼이 저의 무덤덤하면서도 편견에 사로잡힌 신앙관에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곧 효도인 저에게 차선책이 필요했고 그 때 새민족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교회는 남편의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어쨌든 새민족교회는 (정치 성향 탓이겠지만) 인정해 주었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걸 같이 양평에서 부터 망원동까지 태워다 주고 약 두 시간을 차에서 또는 카페에서 기다리다 또 집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사실 저도 뜨거운 체험이나 큰 깨달음은 아직은 없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도 그 동안 가져왔던 수천가지의 기독교와 인간의 삶에 대한 의문들이 새민족 교우들의 삶의 모습들과 목사님을 통한 귀중한 말씀 덕분에, 마치 기다리던 날을 향해 'X' 마크를 하나씩 그어 가는 것처럼 점점 줄어갑니다. 이것이 제 신앙의 커다란 행복감입니다.

제 직업은 영어 유치원 원장이구요. 솔직히 자랑스럽거나 보람을 느끼는 일은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과의 교감과 관찰 속에서 종종 느끼는 깨알 재미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직원들도 30명 정도 되니 고용창출에 이바지하는 건 맞는 거겠지요? 일 덕분에 알게 되는 외국인 선생님들도 아주 많은데, 정말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돈 많이 받고 싶고…… ㅎㅎ

작년에 양평에 땅 사서 전원주택을 지었는데요, 눈 올 때 약간 신경 쓰

이는 것 제외하면 정말 잘 한 일이었다는 생각이예요. 가끔 정신 나간 새가 창문에 와서 끝없이 부딪쳐서 잠을 설치기도하고 퇴근길에 고라니와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기름 아낀다고 실내온도 4도까지 해놓고 지내도 보고 마당에 화덕에서 모닥불도 피우는, 이 모든 일들이 뒤돌아 생각하면 사는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우리 교우님들 초대할 수 있을까요? 전원주택의 하이라이트는 바베큐 파티죠.

새민족 교우님들, 저랑 좀 친해진 느낌이 드시는지요? 항상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아쉬움을 가지고는 있어요. 모습은 아웃사이더 같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이 안쪽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털어놔야겠네요. 정신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듣는 음악 중에 풀이 죽었을 때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곡 Pharrell Williams의 Happy 추천하고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묘비명 쓰기

| 김성종 |

살면서 가끔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평가도 해보곤 한다. 묘비명을 써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 지금까지는 딱히 뭐라고 쓸까 떠오르지 않다가 이번에 한번 써보기로 마음먹었다.

묘비명은 보편적으로 한 사람의 일생을 상징적,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며 자신이 생전에 쓰거나 후대가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막상 쓰려니 생각만 많아지고 쉽지는 않아서 위인들의 묘비명을 찾아봤더니,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버나드 쇼)



하임이의 유치원 탐방

| 김수연 |

내년이면 벌써 하임이가 5살이 되어 유치원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된다. 영아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는 요즘 시대에 안 보내고 집에서 혼자 애 두 명을 어떻게 보느냐고 대단하다. 그런데 왜 안 보내냐? 육아가 천직인가 보다. 어린이집을 안보내면 애가 뒤처진다는 등…… 요즘은 어린이집 일 적 안 보내면 이상하다는 눈초리를 많이 받는다.

그동안 너무 소중하고 아까운 내 딸이라 사실은 원에 보낼 수가 없었다. 너무 소중해서 보잘 것 없는 밥한 끼를 차려줘도 내가 해줘야 직성이 풀리고, 천사엄마도 아니지만 내가 데리고 공원, 문화센터, 놀이터 등 같이 다녀야 마음이 편했다. 그런데 너무 소중해서 어린이집에 일찍 안 보냈는데 정작 갈 나이가 되니 갈 곳이 없었다. 집근처 14군데의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놓았으나 하임이의 대기 순번은 좀처럼 줄지 않아 입소가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유치원 추첨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인근 3km 내외의 중복 지원할 유치원을 10군데 추려놓았다. 하지만 추첨 한 달을 앞두고, 교육청에서 유치원도 대학처럼 가, 나, 다, 라군을 지정하여 각 한군데씩만을 지원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된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뜨기 시작했다. 또 아니나 다를까 성북구에 90%의 유치원이 전부 가군이였다. 우왕좌왕 유치원 추첨제도는 계속 바뀌지 내 머릿속에는 온통 유치원에 보낼 생각으로 가득 찼다. 결국, 추첨 막판에 교육청에서 가나다라 군을 다시 지정하여 나도 각기 다른 군, 총 4곳의 유치원에 지원하였다. 유치원에 원서를 넣기까지 두 아이를 이끌고 시어머니, 친정엄마까지 동원하여 총 9곳의 유치원 입학설명회를 다녀왔고 4곳에 원서를 넣었지만 장렬하게 모두 떨어졌다. 남편은 학교도 아닌데, 염려 말라 하지만 나는 마치 대학입시에 떨어진 느낌이랄까…… 내 마음은 영광 없는 상처뿐이었다. 한 번도 모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칼 마르크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아펜젤러)
“후세 사람들이여, 나의 휴식을 방해하지 마시오” (노스트라다무스)
“괜히 왔다 간다” (중광)
“귀천, 나 소풍다녀간다” (천상병)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다” (헤밍웨이)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김수환)
자신의 묘비명을 예고한 사람들의 묘비명도 있었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김미화, 개그우먼)
“결판지게 살다 간다” (이외수, 소설가)

살아있는 동안 작성하는 묘비명은 나의 가치관이며 삶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다. 이쯤 되니 더더욱 신중해지기 시작했는데 가만있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뭐지? 나는 후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평가받을만한 사람은 될까? 하다가 어느새, ‘어떻게 살아야 할까?’로 고민이 바뀌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평범한 아이아빠의 삶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동하면서 가족과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사는 게 마땅할 텐데, 요즘 나라꼴을 보면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바다 속에 수장될 때 지켜주지 못한 어른이 바로 나 자신이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그 어른도 바로 나인 것이 떠오른다. 이 땅에서 평범한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묘비명을 쓸까?

글이 판데로 새는걸 보니, 오늘도 묘비명 쓰긴 글렀다.

묘비명의 사전적 정의는 ‘죽은 사람의 경력이나 일생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세워진 작은 비석에 후대 사람들이 적어둔 글의 엄청난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끼며……

“대통령 노무현”

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에 혼란스러웠고 이제 규원이라도 건기 시작했는데 두 아이를 또 1년간 집에서 24시간 돌보기에는 이제는 내 체력이 부족하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 생각하면서부터 집근처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국공립은 거의 무료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 부모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부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다. 그런데 서류위조해서 많이들 들어간다.

나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딸을 넣기 위해 어디 회사에 유령직원으로 서류 해볼까? 잠깐 몇 개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맞벌이를 할까도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외벌이가 더 힘든데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기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이 아이와 직장을 두고 직장을 선택할 때는 직업에 대한 소명도 있겠지만 내 주위에는 수입이 좋아서, 직장이 안정적이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므로 그런 맞벌이 부부자녀를 국공립어린이집에 최우선 입소시키는 제도에 오히려 외벌이 가정이 역차별 받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 옆 동네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입소가 가능하다는 전화가 왔다. 유치원에 비해 협소하고 놀이터 등 자유롭게 놀 공간이 없었지만 일단 다 떨어졌으니 등록부터 하자는 마음에 추운 날 두 아이를 싸매고 갔지만…… 맞벌이 부부인지 알고 잘못 연락을 했다 한다. 순간 붙어도 보낼까 말까한 이런 작은 어린이집마저 맞벌이 부부타령을 하니 울컥하여 “내 사립유치원 대기자 걸어 꼭 보내고 만다!”라고 결심했었다.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믿음 하나만으로 목사님과 결혼해 세종시로 이사 간 친구에게 유하임(장하임과 이름이 같다)은 유치원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봤다. 세종시는 유치원이 없어 딱 한군데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유하임은 그 한군데에 붙었다는 것이다.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기도노트에 1년을 두고 유하임의 좋은 (유치원)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왔고 기적처럼 한 번에 붙었다는 것이다. 위조서류로 국공립 어린

이집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니 일단 어린이집 보냈다가 6살, 7살에 유치원 재수(?)를 해서 다시 보내라는 것이다. 2년을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 주시겠냐고……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따라다녔던 장하임은 “여기 어때?” 하고 물어보면 전부 “좋아.” 하고 맘에 든다고 한다. “이 어린이집은 작는데 괜찮겠어?” “괜찮아. 나도 작잖아.” 한다. 세상이 보는 관점. 어른이 보는 관점대로 크고 좋은 시설의 유치원이 아니어도 협소한 공간이라도 그저 친구들이 있는 곳이면 그만인 것이다. 나도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것을 위한 기도제목들을 깨알같이 수첩에 적어가며 기도에 힘쓰면 어떨는지 반성해본다.



나눔이 있는 목요일

| 김 정 수 |

평일에 교회에 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수요일 원전성경공부를 하면서 평일에 교회를 갔다. 요한계시록을 내가 알던 방식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말씀을 통해 나의 일상의 삶도 나누고 참여한 분의 신앙적 경험과 실제적인 체험 나눔을 통해 날 다시 바라보며 힘을 얻은 시간이었다. 잠시 방학을 한다 해 매주 오던 교회를 못 와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다른 나눔의 모임이 교회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6월 17일 야외예배가 있던 날! 예배를 드린 후 2부 순서를 뒤로 하고(교회행사에 함께 하고 싶은 맘 굴뚝 같았지만……) 교회로 삼삼오오 모였다.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한 모임이었다. 모임의 취지는 진로모색과 여러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강사분의 진솔한 삶의 나눔을 듣고 각자가 생각하는 고민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잘 책임지며 나갈지에 대한 약간의 나눔이 있었다. 편하게 교우들이 이야기를 하고 들으면서 모임의 필요성이 더 제기 되었고 후속모임을 갖기로 했다. 가장 많이 참석 할 수 있는 요일을 찾아보니 목요일이었다. 사실 목요일은 교회 목요 촛불기도회와 겹쳐서 걱정과 우려의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모임을 시작했다. 교회가 다양한 모임의 형태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이런 기도모임의 형태도 꼭 필요하리라 보았다.

모임의 형식은 예전에 한 금요일도 모임의 형태로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말씀을 읽고 묵상과 함께 일주일의 삶을 나누면서 기도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하였다. 지금까지 4번의 모임을 가졌고 모임의 진행은 돌아가면서 했다.

첫모임은 6월 21일 교회서 가졌다. 각자가 일주일 삶을 이야기하며 나눌 때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니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갔다. 그날은 특별히 맑은 물 붓기(영성훈련 때 했던 것)를 하면서 한 사람 한사람에게 관심과 정성을 쏟아 부어주니 더 값진 시간이었다.

두 번째 모임은 홍경숙 집사님의 초대로 집에서 모였다. 맛있는 밥과 이야기꽃이 어우러졌고 김현숙 집사님의 직업상담 경험과 정보를 함께 공유했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 없이 가벼웠다. 이런 모임이 있어 참 감사했다.

세 번째 모임은 우리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모임을 하다보면 어떤 형태로든(사회적 기업) 기여하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게 만들어 보자는 제의도 있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

네 번째의 모임은 자신을 충분히 바라보고 알아 가게 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다.

내가 느낀 나눔의 모임에 대한 짧은 후기지만 모인 교우들은 더 넓고 풍성함을 가져간 모임이었을 것이다. 또한 모인 교우들이 나눔을 통해 기쁨과 가벼운 여유,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믿는다. 계속 모임의 형태를 어떤 형식으로 가져갈지 정해진 건 없지만 나를 드러내고 알리는 일이 참 즐겁다.

‘괜찮아요’

| 김은경 |

지난 몇 개월 동안 난 늘 누군가의 안부 전화를 받으면 ‘괜찮아요’를 연발했다. 날 걱정하는 그들을 안심시키고서야 전화를 끊었다. 난 내가 정말로 이 상황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몇 달 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놓고서 ‘혼자 오셨어요?’라고 말을 꺼내고부터 어찌어찌 수술과 치료를 하자고 말할 때까지 무슨 말이 오고갔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겨우 버티고, 진료실 방문을 나와서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았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흘렀다. 주차하느라 뒤늦게 도착한 현수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우린 조직 검사를 받을 때까지도 별거 아닐 거라고 병원에서 유난 떠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답을 받고자 검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였다.

그때 마음껏 펄펄 울고 나서는 이내 평정상태로 돌아갔다. 수술 스케줄 잡을 때부터 며칠 남지 않은 추석은 지내고 하자, 아이들에겐 최대한 걱정안하게 평소와 같이 하자, 충격 받을 친정 엄마께는 비밀로 하자 등등. 시어머니께는 잘 이야기 드렸는데 눈물 많은 언니에게 염려 말라고 안심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다. 그렇게 내 마음 추수를 거를도 없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나로 인해 충격 받은 그들을 달래느라 난 정말 괜찮아졌

다. 그런 줄 알았다. 박연미 집사님이 추천해주신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를 읽으니 놀라울 만큼 평온해졌다.

게다가 교회에 그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교인들이 문병 오셨다. 찾아온 그분들을 안심시켜드리느라 종일 방실방실 웃었다.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유방암은 완치율이 높은 암인데다가 조기 발견하여 0기라 하니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주변에 걱정해주는 분들이 많으니 너무도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난 나를 노출시키는 걸 어려워하는 종류의 사람이었나 보다. 미안하게도 넘치는 관심과 애정을 받는 게 편치 않았고 아무에게도 나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다. 내 심리상태는 높은 파고를 가진 거친 파도였다. 혹시라도 남겨질 사람을 생각하면 수시로 연민에 빠져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바람 했다. 난 괜찮지 않았다. 나보다 더 놀랐으면서도 나와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야하는 처지인 현수씨가 환자인 나보다 더 걱정스럽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서운한 짓을 하면 두고두고 서운하고 슬퍼했다. 아이들에게 그런 상태를 들키지 않아야 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 한참 신경 써줄 게 많은 차돌이나 손가야 할 게 많은 마루에게 정말 미안했다. 심리상태까지 들쭉날쭉이었으니 더욱…… 결국 아무에게도 솔직하지를 못했다. 나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어쩔줄 몰라서 애쓰게 될 그들이 곤란할까봐 차마 터놓지 못한 점도 있고, 나를 열어 보이는 일이 통 미숙한 탓도 있다.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안정을 쉬이 찾지 못하고 방사선치료를 마쳤다.

사람의 몸은 참으로 희한하다.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방사선치료가 끝나니 몸이 매우 가뿐해지는 게 아마도 치료하는 동안 몸의 컨디션은 비교하자면 제로였던 듯하다. 원전사고를 지켜보다보니 나의 방사능 피폭량은 얼마나 될까, 정말 안심해도 될까 싶다. 내가 실감을 하고나니 원전은 더더욱 반대하고프다. 헌데 마음이란 놈도 희한하다. 몸이 돌아오니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는 거다. 서운했던 일도 아무렇지 않게 그랬었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상처가 아문다는 게 이런 건가보다.

괜찮아진 거다.

그러던 중 부인과 쪽으로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보이는 일이 생겼다. 나 이제 건강검진 그만 할까보다. 한번 할 때마다 새로운 일이 터지네. 다행히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나고 가벼운 수술을 받았다. 약간은 불안했지만 별로 염려 하지도 않았고 결과가 좋으니 어찌나 감사한지요. 이번에는 심리가 파도를 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또 감사하지요.

지금 새민족은 괜찮지 않을까 염려된다. 솔직하게 터놓고 치유되기를 괜찮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괜찮아요.



두려움을 넘어 사랑 만들기

| 김 정 희 |

드디어 올해 1월, 생일을 보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나이 50을 맞이했다. 아마도 내 인생길에 3분의 2 지점쯤 지나고 있을 것이다. 숫자가 주는 당혹감에 마음이 서글퍼질까봐 미리부터 평상시 거슬리던 얼굴의 점도 빼고 머리에도 힘을 주며 내 자신을 위로하였다. 50이라는 나이가 주는 두려움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아직도 젊음이 가득 찬 삶으로 살고 싶은 갈망이 움틀 대고 있을 때 강제적으로나마(?) 글을 쓰며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러기엔 글쓰기가 참 힘든 작업이네요.)

봄 같은 청춘시절에 결혼하여 청춘인줄도 모르고 남편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는 연습을 반복하고 살았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겠지만……) 두 아이들이 커가면서 필요한 요구에 부모의 저렴한 경제력으로 헉헉거리며 타협점을 찾아갔고 무사히 대학공부까지 마쳤다. 이 과정은 온 식구가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며 끈질기게 버텨온 인내와 노력,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오롯이 외국의 낯선 이들과 낯선 생활로 보낸 40대는 새롭고 즐거웠다. 새로운 만남, 전혀 다른 문화,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과 설렘, 새로운 직장과의 교회는 의외로 사이도 없이 바쁘게 적응해 가게 했다. 늘 가족이 함께 있었고, 하는 일이 있었고, 4군데 교회(미국에 있으면서 봉사한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난 외로웠던 것 같다. 나이 들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관계를 맺는 것이 어디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인가? 오랜 시간 속에 수많은 사건과 사연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주고받으며 쌓여질 끈끈한 관계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보고 싶었던 엄마와 새민족 식구들을 매주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를 잘 알고 우리 아이들을 신앙공동체 안에서 함께 키우며 돌보아주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 긴 시간 가나안반을 통해 독서하며 성지순례여행을 하였던 집사님들, 찬양대에서 화음을 맞추며 마음을 모았던 찬양대원들, 여름 수련회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고 늦게까지 웃고 또 웃었던 기억들이 나를 다시금 이곳으로 오게 만들었다.

분명 하나님은 영원을 살수 없는 유한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를 원하셨다. 관계를 맺는 가운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을 마음껏 표출할 대상, 사랑을 나누고 싶은 새민족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한다.

지난해부터 여성교우들과 운동 겸 등산도 자주 가고 맛집도 투어하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중년이 주는 여유를 누리고 있다. 비록 목회자 아내라는 위치변동으로 약간의 부담도 없진 않지만 주님 안에 자유함을 먼저 누리고 싶다. 젊었던 지난 9년 동안의 좋은 추억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듯이 앞으로의 시간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고자 한다.



털! 렸! 다! 하지만.....

| 김 종 원 |

성명,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회사 주소, 집주소, 회사전화, 집전화, 휴대전화, 타사카드(코드로만 표시) 보유상황(2013년 9, 10월)

털! 렸! 다! 고객님이 당황했다. L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유출된 나의 정보다. 나도 피해 갈 수 없는 전국민 정보대참사다. 압수 수색을 통해 2차 유출이 없고, 내 카드는 무사하다(?)는 카드사 홈페이지 안내문에 일단 안심은 되었다. 그런데 요즘 사나흘 전부터 하루에 몇 건씩 개인휴대전화번호를 단 이상한 문자메시지들이 들어온다. 털린 내 정보가 드디어 누군가에 의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듯하다. 다시 불안한 마음이 들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보고 있다. 카드를 해지하고 비밀번호를 바꾸느라 카드고객센터가 북새통이라는 뉴스를 듣고 서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북새통에 몇 시간을 견뎌 이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한편으론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아직 상황이 안심되지 않는다. 정부도 2차 유출은 없고 카드를 해지할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금융감독기관과 카드회사의 대응과 대책을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일상을 둔감하게 지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직 내 카드는 아직 무슨 일이 없으니까, 이런 일 한 두 번 접하나, 뭘 이런 일로 소란스럽게 호들갑이냐..... ‘둔감’하다는 것은 감각이나 감정이 무디다는 뜻이다. 무딘 감각과 감정으로 사는 우리의 ‘일상’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새삼 신용카드 사태가 일상을 돌아보게 한다. 물론

모든 일, 생활, 사건에 민감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대응하여 행동하다가
아마도 제 명에 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 자기에게 필요하거나 자신의 이익과 관계된 정보와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처하기에도 벅차다.

인간의 실존이 생략하거나 헤어날 수 없는 보고, 듣고, 먹고, 자고, 일하
는 이 ‘일상’에서 무더야 할 것과 그렇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잘 구별
하는 지혜, 즉 감수성만큼은 삶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자본, 시장, 권
력, 폭력, 탐욕, 이기심 등 감수성의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이 우리 일
상에 넓고 깊게 그리고 우리 마음과 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들은 우
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밀어내고 마치 자기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쫓는다. 이것들은 우리 내면과 정신, 신앙마저 털어내고 있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 털리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민주주의 위기와 철도파업을 통해 드러
난 자본과 시장의 마욕,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인간 정신의 가치를 전도
시키는 역사교과서 사건 등 이런 사태에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분노하
고 저항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은 여전히 미디어와 권력기관을 통해 대선
불복종으로, 민영화 아니라고 우기고, 좌파 역사교육을 끝내야 한다고 국
민을 현혹한다. 민주주의, 정의, 평등, 진리가 해킹당하고 다른 가치로 피
싱당하는 현실에 노출되어 있다. 유사민주주의, 유사 정의, 가짜 교과서가
우리를 피싱하고 털고 있다.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는 ‘진실로 정신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
로잡힐까봐 자신이 정신에 살고 있음을 숨은 두려움 속에 거듭거듭 확인
하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하느님 세계’를 살아가는 은혜의 체험을
요청한다. 하느님 세계에서 성령으로 가득한 정신의 순수한 술에 맛들여
살게 하는 그 잔(칼 라너, 日常-신학단상)을 물리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털리지 말아야 할 정보를 하나씩 찾아내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일이다.
이 정보들은……

예수, 정의, 평화, 생명, 민주주의, 인권, 연대, 진보, 겸손, 기도, 양심, 영

원, 진리, 사랑,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무한한 신비, 새민족공동체, 새민족
신앙고백, 하느님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는 성령의 은혜!



구속된 행복에게 자유를!

| 김진오 |

1. 아빠 vs. 아들

작년부터 회사에서 실시하는 스마트워킹이라는 것을 한 달에 세 번 정
도 합니다. 출퇴근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집 근처 회사 사무실이나 혹은 집에서 회사 업무를 보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스마트워킹 한다고 집에 있으면 우리 집 아들이 썩 좋아
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아빠가 집에서 식사도 챙겨주고 하는데 말이죠. 아
마 제일 큰 이유는 아빠가 집에 있으면 이런 저런 잔소리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루는 스마트워킹으로 집에 있는데 한별이가 수업 마치고 피아노학
원 가기 전 조금 남는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길래
“한별아! 집에서 뒹굴 거리지 말고, 차라리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든
지, 책을 읽든지 좀 해라.”고 한마디를 하였더니, 한숨을 내쉬며 만화책을
하나 꺼냅니다. “야, 5학년이 만화책만 보지 말고, 엄마가 사준 명작 이야
기를 읽어!”

그렇게 잔소리와 한숨이 오가다가 책을 읽는 등 마는 등 하던 한별이가
“아빠, 학원 가야 되요.”하며 집을 나갑니다. 나는 나대로 못마땅한 마음
에 마음이 불편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2. 회상

기억을 떠 올려보니, 나도 어릴 때 집에서 뒹굴 거리며 공상의 나라

를 펼치는 일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부전자전인가요?) 바로 위 누나와의 나이 차가 7살이나 나는 7남매의 늦둥이 막내로 태어난 나는 집에서 같이 놀아줄 동년배의 형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는 마르고 힘도 약해(음... 지금 모습과 매치가 안 되죠?) 그다지 밖에서 활발하게 놀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다가 밖에서 놀 때도 동네에 보통 하나씩 있는 골목대장 역할을 하는 애들이 놀이판에 끼면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힘이 약해서 싸움은 못했지만 꼬봉 역할 같은 것은 딱 질색인 성격이라.....) 그렇게 집에 들어오면 상상 속에서 나는 어느새 슈퍼맨이 되곤 했죠. 상상 속에서 나는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멋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상 속에 있던 간절함이 기도가 되어 응답한 것인지, 중학생이 되고 키도 쑥쑥 자라면서 운동도 좋아하고, 나름 건강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3. 행복 vs. 두려움

TV 드라마에서였는지, 영화에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런데, 이 행복이 언제 깨어질지 몰라 두려워.’

내가 아들들에게 잔소리 많은 아빠가 된 것은 아마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저렇게 빈둥대다가 나중에 이 경쟁의 사회에서 뒤처지면 어찌지?’ 하는 두려움. 저렇게 건강하게,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이 두려움의 출발은 아이들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우선 나 스스로가 ‘언제까지 이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아서 저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의 밑에는 결국 나의 약하디 약한 신앙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기도하면서 정작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듯 느껴지는 현실에 대한 인식, 아마도 그것이 이 두려움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우같은 마누라에 토끼같은 자식들..... 이 소중한 존재들 가운데 임재해 있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두어 두었던 행복을 이제 석방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시편 23:1)



용서 그리고..... 화해하기

| 김진은 |

“월요일, 전주 오빠 집에 갔다가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다. 나를 꼭 만나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문자가 심수통이 왔다. 지금 당장 갈테니 집 주소를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 난 한숨을 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무척 떨리고 불안해보였다. 나는 계속 그녀를 설득하여 일요일 오후에 내가 데리러 가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주일 예배 후, 세탁기 돌릴 시간은 있을까, 시간 놓치면 일주일 동안 손빨래 해야할 텐데.. 걱정하며 분당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다.

약속한 백화점 앞에 그녀는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폭 꺼질듯이..... 날 발견하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안고 한참 등을 쓸어내리고 흐느꼈다. 그녀의 친언니는 OO이가 이번 추석에 고향 내려가서 많이 회복됐다고 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의 기억과 전주 내려간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억은 돌아왔다고 했다. 지난 주 병원에서 봤을 때 보다 훨씬 좋아보였다. 우리 집에 빨리 가자고 손을 끄는 그녀를 데리고 버스를 탔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이르자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뭔가 익숙해. 나무들도 과일 파는 아저씨도. 이게 뭐라 하지?’ “가게?” “응. 이것도 너무나 익숙해.” 집에 들

어서자 그녀는 왔다 갔다 하며 살펴보더니 “너무나 익숙한 곳이야. 기억나. 기억나.”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며 환하게 웃었다. “나 잠깐 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그녀가 한동안 사용했던 방에 들어가 누웠다.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서둘러 세탁기를 돌리고 방 청소를 했다.

한 달 전, 내 룸 메이트였던 그녀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고, 헤르페스 균에 의한 뇌염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친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동안 기억상실로 가족들조차 못 알아보고 아무 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녀가 “우리 집”이라 표현하는 내 집에 돌아가겠다고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한참 후, 그녀는 금방 잊어버린다고 수첩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너 참 놀랐겠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라고 말하고 한참을 말을 잊지 못했다. “내가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전주 내려가서 우리가 살던 곳을 지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 니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너와 내가 가족은 아니지만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한순간에 깨달아지더라. 지금은 치료받느라 친언니 집에 있지만…… 많이 불편해. 언니하고 잘 안 맞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난 네 집에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고 좋아. 그래서 돌아오고 싶어. 알아…… 니가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니가 싫어해도 난 올 거야. 왜? 우리가 싫든 좋든 함께 할 거라는 거…… 난 한순간에 알았어. 니가 싫다고 짜증내도 니 속마음은 아니라는 거. 니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라는 거 난 아니까……”

그녀와 20년 가까이 연락 없이 지내다가 뉴욕으로 어학연수 가려는데 집 정리하고 마땅히 갈 곳이 없다하여 몇 개월 같이 살았다. 다시 돌아와서 어찌어찌하다가 눌러 앉은 지 벌써 3년 되었다. 같이 사는 동안 참 많이 힘들어 이참에 헤어져야겠다고 맘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그녀가 다시 들어오겠다고 한다.

“내가 지지리 가난한 집안 6남매 막내로 태어나 얼마나 악착같이 살

았는지 너도 알거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을거야. 그래서 CEO로 성공도 하고 그랬을거야. 문득 문득 삼성동 근처 사무실 건물이 선명하게 기억나고, 늘 아침에 수영했던 것도 기억나. 아무튼 지금까지는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있는 힘껏 도우며 살거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원치안튼……” 그녀는 감정이 복받치는 지 한참을 울먹이다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어갔다. “진은아…… 내가 아마도 많이 잘못했을 거야. 정말 미안해. 사과할게. 그리고…… 평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 너에게 갚으며 살게.”

그녀가 운다. 늘 나에게 매서운 눈빛으로 날 나무라던 그녀가 나의 손을 어루만진다. 늘 독한 말로 내 마음을 후벼 파던 그녀가.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얼마나 진심을 다해 그녀가 얘기하고 있는 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근데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도, 다정한 몸짓도 너무도 낮설고 당황스러웠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미워해야 할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도 환한 표정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 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 나의 가슴 속엔 여전히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혼란스러웠다.

난…… 끝내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다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나의 어린 시절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녀. 감수성 예민하던 시절. 내가 얼마나 못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 뼈아프게 나에게 각인시켜 주던 그녀. 교회가 얼마나 부조리한 곳인지, 그 곳에서 목회하시는 아빠를 부끄러워하게 만든 그녀. 평소 ‘내 인생의 악연’이라고 서슴없이 얘기해온 그녀.

그녀가 내 옆에서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으로 자고 있다.

난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린…… 그녀가 얘기한대로 남은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온고지신(溫故知新)

2015년 교회위원장이 2014년 교회위원장에게 묻다

| 김 진 희 |

김: 민혜경 집사님! 교회위원장 임기를 마친 것을 축하합니다.

민: 집사님! 교회위원장에 선출되신 것 축하(?)합니다.

(교우들의 인사를 받게 된 두 여성교우가 인수인계도 하고, 후보 글을 쓰라는 엄명도 따를 겸해서, 밤중에 전화통을 붙들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 작년에 교회위원장에 선출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민: 그때는 제게 미루는 분위기였어요. 주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압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김: 집사님은 교회위원 2년차에 위원장을 맡은 거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좀 익숙한 상황에서 위원장을 맡은 것이군요. 나는 몇 년 쉬다가 교회위원이 되자마자 장을 맡게 되니 많이 부담이 되네요. 임기가 끝난 지금 심경은 어때요?

민: 홀가분하네요. 직업이 있는 평신도로서, 교회대표라는 자리에 있으니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야 하잖아요. 교회부서나 행사들이 잘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별다른 일을 안 해도 마음에 돌덩이 같은 부담이 있었는데, 임기가 끝나니 홀가분해요.

김: 권력(?)을 내려놓는 불안감은 없나요?

민: 받는 게 없어서 그런 건 없어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만……

김: 받는 게 없었군요~! 그러면 교회위원장을 맡고서 자신이 성장했다, 발전했다고 느끼는 것은 있나요?

민: 음~ 교회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려는 눈이 생긴 것과 지금

새민족이 가는 방향이 맞는가 하는 고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성장이라고 할까요?

김: 고민해 보니 어떤 답이 나오던가요?

민: 새민족이 평신도 교회로서 목회자의 역할과 평신도 지도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평신도 교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나가야 하는데 요즈음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평신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실현하고, 성장하고,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자꾸만 위로 받는 교회, 쉬는 교회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김: 그렇지요. 새민족교회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교우들을 깨워주고,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하지요.

민: 그러려면 성서학당이나 대화의 광장 같은 기회를 통해서 성서를 끊임 없이 재해석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길은 없는지 찾아보고, 사회의 변화를 살펴야 하는데 교우들이 이런 공부하는 모임이 싫어지는가 봐요. 새민족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김: 교회위원장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민: 우선 1년 동안 교회 일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제때 진행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 어려웠던 점은 없지요?

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력사이에서 관계가 애매할 때와 위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후원단체 결정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우리교회의 선교방향과 맞아야 하고, 예산을 잘 안배해야 하는데 참 예민한 문제거든요.

김: 네~ 아마 후원 할 단체는 많고 저마다 사정이 딱 할 테고,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하니, 어디를 얼마만큼, 얼마동안 하느냐, 참 정하기 어렵겠네요. 마지막으로, 전임 교회위원장으로 당부 할 말은 없나요?

민: 고생하셔야 되는데……

김: (아~! 이 얼마나 따뜻한 말인가!)

민혜경 집사님은 “저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올해 교회위원회에는 장로님 두 분, 전직 위원장 두 분, 전직 서기 두 분, 전직 위원장 내조자, 청년 회장으로 교회위원 경력인 두 번째인 청년 등 위원들이 땡땡하다는)” 라는 사탕발림 같은 위로를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교회위원장을 맡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2015년 교회위원장으로 서 삶과 신앙을 쓰라.’는 청탁에 ‘온고지신(溫故知新):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을 앎’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수고한 민혜경 집사님과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며, 제게 맡겨진 무거운 돌덩이(?)를 잘 지고가려 합니다. 요즘 유행어처럼 ‘썰빠진 신상’ 교회위원장인 부족한 저를 위해 교우들의 따스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민족교회 교우 여러분!

| 김 찬 |

오랜 수험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속세로 돌아온 김찬입니다!

주보에 이런 대화체의 글이 올라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편지 한 통 받으셨다 생각하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오~랫동안 저를 잊지 않아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고3생활을 남들보다 조금 오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불쌍해하시거나 걱정하셨겠지만 전 그 시간들을 나를 즐겁고 보람차게 잘 보냈어요. 학원가에는 유명한 명인이 있어요. ‘재수는 실패가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는 말이지요.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은 앞으로의 인생에 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요. 한 번 실패를 해보고 나니 사람이 많이 겸손해 지더군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한방에 들어와서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버스 탈 때 교통카드를 찍으면 ‘삐빅!’ 소리가나는(만 19세 이하는 교통카드를 찍으면 소리가 ‘삐빅’하고 나거든요!) 저의 대학 동기 어린것들이 세상물정 모르고 자기가 매우 잘난 줄 아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고놈들도 언젠가 한두 번 세상에서 실패해보고 나면 깨닫겠죠? 저는 아마 그것을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경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삶에서 자신감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전 여전히 항상 그래왔듯이 밝고 건강한 정신으로 살고 있어요. 이제 저의 과거사 이야기는 그만하고 요즘 제가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대학교에 들어가니 참 재미있고 즐겁고 자유롭습니다. 왜 다들 청춘이 아름답다고 이야기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역시 자유롭다는 것은 한편으론 힘들기도 하더군요.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을 스스로 설계해야 할 텐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인문학 전공자로서 앞으로의 삶도 그럴 것이라 생각해요. 진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분야로나 진출할 수 있지만 그 무궁무진함이 한편으론 막막함으로 다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 이제 새내기입니다! 아름다운 청춘은 돌아오지 않으니 즐겨야지요! 그래서 저는 요즈음 대학교 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대학에 가면 교회에 자주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대학 새내기로 살아가는 것은 참 바쁘더군요. 애틀에, 농활에, 회의에, 각종 행사에…… 게다가 저는 ‘학번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과대’개념이죠. 나이가 많아서 선출된 감이 있지만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올 겨울에 우리 동기들처럼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재능을 보인다면 좋을 텐데요! 한 단체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책임감에서 오는 부담감이 막중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나하나 제대로 처리할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

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권력의 맛인가 봅니다. 어찌됐건 제가 이 대표 자리를 맡게 된 것은 엄청난 행운이라 생각해요. 여태까지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공부를 할 때에도 수능 공부할 때와는 다르게 ‘그래도 내가 삶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마다 공부할 의욕이 절로 생기곤 합니다. 얼마 전까지 공부를 ‘시험 잘 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와는 다른 느낌의 동기부여입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즐겁게 살아가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자라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바르게, 신나게(우리집 가훈입니다) 살고 있겠습니다!



중딩, 그 심오한 단어

| 김 하 빈 |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 옷을 사러간 적이 있는데 거기 점장분이 이제 중딩 같다고 말해 ‘이제 나도 중딩이다!!’ 하고 행복해 한 적이 있었다. 현재 무지개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배정 받았을 때 친한 친구도 같이 돼서 좋았던 적도 있었고 졸업식 날 엄마의 엄청난 파워에 화가 나 울면서 선생님이라 사진 찍었던 별로 안 좋은 기억도 있었다.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인해 중학생이 돼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이미 6년간 끈끈해진 아이들과 어울리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었다. 처음 그 아이들을 본 순간 정말 몸이 굳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안 났다. 아이들 제각각 개성과 철학이 강해서 정말 마치 무지개가 어느 색깔에 묻히지 않고 원색의 색깔을 나타내듯 무지개 같았다. 내가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버려서 원색이 거의 묻어나지 않는 탁한 색이라면 그 아이들은 내가 봐온 애들과는 달랐다.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하고, 중

고 나쁘고로 정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가 아니면 즐겁지 않은가로 정했다. 또 자신의 의사가 확고하고 여자 같은 경우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았다. 신봉선 님은 친구도(미안^^)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지 처음에는 ‘났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의 외모에 대해 이상한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일반학교에서 고민하는 성적, 외모, 왕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집단에나 왕따는 존재하겠지만 이 학교에선 왕따가 무관심 일뿐 일반학교에서처럼 맞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6년 내내 시험 걱정에도 친구들 눈앞에 벗어나면 어찌나 하는 걱정은 무지개학교에 오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곳에서는 ‘공부’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다. 영어 알파벳을 모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사회와 과학을 공부해 보지 않았단가, 사회는 나, 우리, 경제 이렇게, 즉 나에 대해 확실한 철학이라고 해야 하나?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자존감을 키운다 등의 조금 어렵지만 하나의 중요한 것을 배운다고 생각한다.

체육은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다. 여기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힘도 세다. 현재 농구를 하고 있는데 3주 사이에 벌써 4명이나 부상자가 나와서 걱정이다. 선생님은 농구하면 원래 다치는 것이라는 데 너무 큰 부상들이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축구 또한 아이들의 관심사다. 5학년 때부터 시작된 축구 열풍(?)은 현재 다른 학교 학생들을 거의 9:2로 이겼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다.

무지개학교의 가장 주된 수업은 살림수업이다. 살림은 흔히 집에서 엄마들이 하는 살림과 죽인다와 반대되는 단어로 무언가를 살려낸다는 뜻도 있다. 여기서 살림은 무언가를 살려낸다는 뜻이고 우리 주변부터 크게는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다. 배움은 하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예를 들어 국어는 국어라는 한 과목만 배운다.) 모든 것을 하나의 주제를 통해 그것을 일궈나가면서 필요한 것을 연관 지어 배운다. (물을 잇는 파이프를 만든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 원과 원주율을 배우는 식)

여기까지가 내가 이해한 살림수업의 개념이다.

올해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을 모두 고려해서 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중등무지개학교는 이번에 우리가 처음 들어온 신입생이라 아빠들이 간단한 용품들만 갖추게 도와주셨을 뿐 나머지 것들은 모두 우리가 꾸며나가야 한다. 게다가 현재 사용하는 건물은 1년 뒤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고안해낸 것이 청소도구함(완성), 배식대이다. 나는 배식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목재를 자르다가 0.5cm 정도 오차가 나서 고생중이다. 그래도 나를 즐겁게 해나가고 있다.

다닌 지 3주, 이제 4주가 다 되어가는 지금 학교 쉬고 난리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행운인 것 같다. 적응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내 자신이 변화해 무언가 큰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전거, 타 보실래요?

| 김한별 |

가을.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점점 날씨도 추워지고 기말고사도 다가오지만 자전거를 안타는 날은 거의 없었죠. 제 자전거는 '미소 바이크'회사에서 만든 'astroga'라는 명칭의 로드 바이크입니다. 딱히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35만원대 자전거 중 가성비가 제일 좋다는 평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자전거입니다. 물론 디자인도 타 로드 바이크보다 깔끔하고 예쁜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이고, 휠은 타 로드 바이크보다 조금 두꺼운

편이라 무게가 조금 더 나가지만, 지형이 그리 깔끔한 편이 아닌 저희 집 주변이나 평크를 잘 내는 제 허접한(?) 자전거 실력이라면 오히려 다행이기도 하겠죠!

자전거 자라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풍경이나 기분 등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우선 한강 주변 대교 쪽으로 나가게 되면 자전거 도로가 포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을 찾는 라이더들도 굉장히 많죠. 그 때문인지 시간이나 날짜에 따라서 한강 주변의 풍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금요일이나 주말에는 비교적 사람들이 많고, 운이 좋으면 여의도고등학교 근처 자전거 길에서 춤 연습이나 소규모 무대에서 활동하는 누나들도 구경 할 수 있죠.(구경하는 사람 수도 꽤 많은 편입니다.) 다들 자전거 타는 도중에도 멈춰 서서 주변에 세워놓고 구경하고 가죠. 평일은 대체로 사람이 적은 편이라 사람이거나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속도를 낼 수 있어서 또 좋죠. 무엇보다 한강 주변에 대교들은 야경이 정말 굉장합니다. 대교 위에서 자전거를 탈 때 빛나는 건물을 보고 있자면…… 도시에서 힐링 받는 기분이지요. 이렇게 자전거는 탈 때마다 매력적인 요소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느낍니다. '자연이라는 건 이렇게 사는 곳마다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나 농구, 야구 등 운동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지금도 없죠.) 운동을 하는 애들 사이에서 경기 구경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좋았다기보단 경기를 하기 싫었죠. 하지만 그렇게 운동을 싫어하는 저에게도 자전거라는 물건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매력에 푹 빠져들어서 지금은 체력도 좋아진 편이고, 하루에 제일 행복한 시간을 손가락에 꼽자면 그 중 하나는 '시험이 끝나고 타러 나가는 자전거'겠죠.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에, 가뭄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 조금 울적한 기분도 듭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좋아하는 까닭은 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전거 특유의 매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자전거를 자주 타지는 않지만, 가끔씩 날씨가 좋을 때 자전거를 같이 타고 나가곤 하죠. 여러분도 목허둔(?) 자전거를 꺼내서 한번 씩 강가에 나가서 타고 오시면 아마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점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줄어들어도, 저는 지금까지 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주말에 등산이나 다른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처럼 서울 도시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민족교회 여러분들도 안전한 라이딩 하시면서 추운 늦가을 건강하게 보내세요~!



나의 운전면허 취득기

| 김현숙 |

한 해가 되면 늘 소망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 5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올라갔던 것이 ‘운전면허증 취득하기’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가 운전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었고, 보기보다 순종적인(?) 저 역시 남편을 핑계 삼아 면허취득에 열의를 보이지 않아 운전면허 취득은 그저 한 해의 목표에 올라가는 목록 중에 하나로만 있었는데, 올 초에 제가 건강상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다지만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 먹지 못하고, 출퇴근도 제대로 못하여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운전면허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은 운전을 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집 식구 중에 면허를 취득할 사람이 제가 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어머니께 면허를 취득하시라 하기는 무리이고, 남편은 전기자동차 나오기 전까지는 면허 취득 안한다 하니 결국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아 큰 맘 먹고 운전학원에 등록하였습니다.

첫 도로주행 교육을 하러 갔을 때는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니 차·가·가·더·라·구·요 ㅎㅎ

너무 기뻐 나는 타고난 드라이버라고 좋아라하며 정말 7~8월 땀별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아침마다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시험은 보기 좋게 신호위반으로 실격. 시험에 실격되면 정말 공포스럽습니다(김정원이 딱딱하게 “실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대에서 내리라고 하더군요.) 허무하고 몸도 아프고, 짜증스럽고……

에잇, 그만둘까 싶었는데 그동안 들어 간 노력과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버스를 타도 운전수 아저씨 옆에 서서 운전하는 것을 지켜보고, 거리의 신호등도 유심히 보고, 택시를 타면 어떻게 해야 운전을 잘하는지 물어보고……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일이 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재도전 하였으나, 타고난 길치에 기계치인 제가 또다시 운전미숙으로 떨어지고…… 의기소침하여 엄마한테 왜 이리 운동신경이 둔하게 딸을 낳았냐며 꾸넘도 하고, 오빠는 자동기어인데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놀리고, 많이 떨어져야 안전 운전한다며 위로하는 언니와, 합격하면 집 안에 플랭카드 부쳐야겠다는 남편과……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고 다시 한 번 연습하고 시험을 본 결과, 야호~

겨우 겨우 턱걸이로 합격하였습니다.

휴우~ 막상 면허를 따고 나니 남편이 차를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안 나왔다면……(아마, 제가 정말로 합격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여름 정말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일은 작은 것 하나도 매우 즐겁습니다.

이제 가을에는 성경통독?



2011년 노란 달 뜬 봄 밤

| 나 성 립 |

뒷산의 초록이 점점 더 짙어감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워낙 강렬하여 이리 봄이 올 줄 몰랐나봅니다. 하지만 자연은 따스함을 선물해 주고 새싹을 깨워 일어나게 하며 어여쁜 꽃을 웃게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앞마당에 고추, 방울토마토, 쑥갓, 동글레 등등을 화단에 화분에 심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흙모의 눈길을 보내며 ‘하하’ 웃으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기적의 사과’에 나오는 것처럼 제게 아름다운 결실을 보여주리라 기대 고대하면서……

최근 몇 년은 농사(?)에 유난히 관심이 많아져 한 뿌리의 채소라도 키우고 싶어 안달입니다. 지지난해에는 고추를 한 100여 개 수확하였고, 작년에는 수십개 쫄 수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거두었지요……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을 챙기면서 사는 나날은 행복합니다. 많이 기다려야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멋진 공부임도 다시 깨닫게 해 주니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요.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제가 조금씩 자랍니다. 그날그날의 경우에 따라 때론 실수해서. 그 순간은 작은 보람이 있어, 하하 어떤 때는 파악 기 죽어서…… 새롭고 기이한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질 때 마다 “웬 복이람.” 혼자 중얼거리면서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교무실은 별실이라 3층이고 수업은 2, 3, 4층을 오르내리며 달리고, 큰 교무실은 1층이니 하루 종일 종종 걸음으로 오르내린답니다. 하하. 근데 운동이 부족한 지 체력의 증진엔 별 도움이 안되는 갱년기인 것은 살짝 안타깝습니다.)

작년 3월 필리핀으로 아르바이트 갔던 딸이 호주에서 1년을 보내고 이제 돌아옵니다. 제게도 아이에게도 큰 공부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바

쁜 2010년을 보내면서 행복하고 고달프고 그리고 좋았습니다.

좀 더 자신에 충실하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자주 웃으며 그리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어여쁜 언니 영자권사님, 종선회장님의 성실한 수줍은 모습의 멋쟁이 미숙님, 미숙님의 음식 솜씨 짱 좋으신 어머니 임기선님, 피아노 멋지게 치며 열정이 뜨거운 진은님, 가끔 투정부리고 싶을 때 옆에서 웃어주는 영순씨,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기쁨을 주는 경숙씨, 함께 하면 신나는 재숙씨, 가끔 눈 맞추며 사랑을 주는 경아님, 무뚝뚝한 것 같지만 맘은 솜털 같은 명희님, 멋진 목소리로 감동 주는 경한님, 해박한 지식으로 존경하게 하는 진희님, 동갑이지만 엄청 날씬하고 아름다워 기죽지만 고맙고 이쁜 윤복님! 삶을 나누면 늘 공부가 되는 옥영님, 고운 미소가 가슴에 잔잔하게 전해오는 연미님, 내가 존경하고 언제나 그리워하는 희정님, 가슴 따뜻한 동업자 은주님, 미모와 재주를 겸비한 지경님, 맵씨 좋은 홍경숙님, 환한 미소로 저를 들뜨게 하는 미경님, 저의 멘토 해주님, 미소 아름다운 경님, 든든한 혜진님, 맑고 환한 은경님,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밝은 정희님, 나누는 아름다움을 늘 기억하게 하는 미인 명희님!! 음악을 사랑하고 약자를 돕는 기쁨을 늘 지니신 현숙님! 하하~~ 이 밤에 떠오르는 어여쁜 나의 님들이 계셔 기분이 좋습니다.(헤헤~ 세월 순으로 얘기된 것 같아 송구하옵고 혹시 빠진 분은 제 가슴에서 더욱 환하게 피어있는 꽃이심을 고백합니다. 기억력의 한계를 용서하시옵소서. 젊은 세대의 꽃같이 아름다운 여성 분들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는 무지 행복해예~ 고마버예~~) 이제 고백도 하였으니 노란 달과 데이트하러 나서 보렵니다. 운동도 하고 달님도 보고 이만하면 멋진 봄 밤 아니옵니까?



류경로 집사님의 지고지순한 삶을 만나다

| 신은주 |

몇 달 전 문종철, 김정수 집사님 편 대화의 광장에서 극진한 관심을 보여주셨던 류경로 집사님께서 며칠 후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집사님 삶에 대해서 글을 한번 주보에 싣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9월중으로 인터뷰 날짜를 정하고 마침 그날이 되어 나윤이를 업고 집사님 댁을 방문했어요.

항상 밤늦게까지 다이소에서 청춘을 불태우시는 우리 류미숙 집사님도 그날은 특별히 일찍 퇴근을 하셨고, 전통 시장에 다녀오신 임기선 집사님께서 맛난 조기반찬을 곁들인 따뜻한 저녁식사를 준비해주셨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종선이는 일부러 큰방에 들러 할아버지와 인터뷰 중인 저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나갔고, 웃음이 예쁜 민주는 나윤이에게 조기를 가시 하나하나 발라가며 저녁을 먹여주고 넘 재미나게 놀아주었지요.

류경로 집사님과 한참 살아오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을 먹고 나머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그대로 옮기고 싶지만 지면은 적



고, 제 능력도 부족하여 집사님 살아오신 삶을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하고 앞으로 집사님을 더 탐구해나가기 위한 서문으로 삼아볼까 합니다.

집사님은 1934년생이세요. 우리 나이로 일흔 아홉이세요. 놀라셨죠? 요셋말로 ‘최강동안’이시지 않나요? 아들 둘, 딸 넷인 집안의 셋째로 태어난 신 집사님께서는 초등학교를 나오시고 집안이 어려워서 상급학교로 진학을 못하시고 서당에서 한학을 2년동안 수학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 집안에 우체국에 다니시는 분의 소개로 전북 김제에 있는 한 우체국과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급사처럼 청소도 하고 이런 저런 일을 도우시다 서서히 집배 업무를 배우시고 현역일에 투입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된 우편일을 이리우체국(현 익산)으로 옮기셔서 30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동안 표창장도 여러 번 받으셨다고 해요. 장롱에 고이 넣어두었던 상장들을 꺼내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중 하나는 1968년에 체신부장관에게 받은 것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냐며 환하게 웃으셨죠. 일하시는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냐고 여쭙었더니 예전에는 길이 포장 안되어 있어 겨울철에 아침에는 땅이 얼어서 할 만한테 낮이 되면 땅이 녹아서 자전거 “발통이 안 굴러가”는 일이 가장 힘들셨대요.

퇴직을 하시고 친척분의 소개로 서울로 이사를 하시고 서대문도서관 앞에 호남분식이라는 식당을 여셔서 12년을 하셨대요. “말도 마, 미숙엄마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요.”라고 표현하셨던 그 시간을 묵묵히 일하며 보내셨고, 그 시간 중에 새민족과도 인연을 맺게 되셨대요. 전 그 호남분식 덕에 새민족과 인연을 맺게 되었구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비일을 하고 계세요. 내 집일처럼 생각하며 일을 하고 계시고 월 7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데 그 가운데서 적금도 하신대요.

임기선 집사님과는 동네분이 사촌동생을 소개해서 만나게 되셨대요. 슬하에 2남 2녀를 두셨는데 그중 두 분은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시지요. 아, “너무 고마워.”라며 귀히 여기시는 며느리도 있네요. 임기선 집사

님을 꼼꼼한 사람이고 음식도 잘하고 깨끗하게 살림을 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불교신자셨던 어머니께서 몸이 아프신 것을 계기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셔서 그 이후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셨다고 해요. 이리에서는 성락교회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새민족교회에 다니시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없으셨는지 언지시 여쭙었는데 넓게 트이신 우리 집사님께서는 우리교회의 성향을 넉넉히 감싸 안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 대한 무한애정을 표현하셨구요. “우리 교인들은 참 거시기혀.”라는 친근한 말씀으로요. 새민족교우에게 바라는 점을 여쭙었더니 교회에 오시면 항상 얼마나 왔나 하고 뒤를 돌아보시는데 시작할 때는 적었다가 예배 후 점심때면 교인이 많아진다시며 “노상 교인들이 많이 왔으면” 싶다고 하셨어요.

혹시 다시 태어나시면 무엇을 하고 싶으시냐고 여쭙었더니 후회는 없으시다고 다시 태어나고 싶으시지 않다고 한 말씀으로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애들 건강하고 교회 열심히 댕기고 있는 지금이 켈로 행복하다시는 류경로집사님을 만나고 따뜻한 배움을 받고 돌아오면서 수수께끼 하나가 풀렸어요.

각기 따로 존재하던 류경로 집사님과 서울시소방공무원 중 1명 뽑는데 뽑히신 류기운 집사님과 부진을 면치 못하던 신촌 다이소를 모범 지점으로 끌어올리신 류미숙집사님과 1학기때 회장을 한 민주와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의무소방으로 군대를 가는 종선이가 하나로 연결이 되었어요. 류경로 집사님처럼 잘 살고 싶다는 소망, 가족을 잘 꾸려가고 싶다는 큰 소망이 생겼어요.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 직접 듣고 싶지 않으세요? 허욱 집사님! 다음번 대화의 광장은 언제인가요?



새민족 교우들에게 드리는 넋두리

| 류 기 운 |

여자를 만나러 갔다. 먼저 도착해서 화장실에 가는데 한 여자가 들어온다. 저 여자는 아니겠지. 그래서 난 진정희 집사의 첫 인상을 정확히 기억한다. 처음 만난 그 날, 난 별 기억이 없는데 진정희 집사는 꽤 섬세하다. 철에 맞지 않은 양복과 피곤해 보이는 얼굴, 손동작 등을 기억해낸다. 그리고 며칠 후 메일로 물어왔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이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대답을 안했는지…… 아니면 못했을 지도 모르겠다. 꽤 오랫동안 의무와 같은 생각들, 나 스스로 부과하는 숙제들이 변비처럼 시원하게 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일상이 불규칙하고 생각들도 담아두기만 하고 털어내지 못하는 천성 때문인지 더 힘이 든다. 특히 올 해는 한계가 보인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직장 일에 대학원 수업 그리고 대학 강의까지.. 그래서 이름과 달리 더 기운이 없다. 몇 달 전 건강검진 결과는 이전과 달랐다. 여기 저기 지적 사항(?)이 적지 않다. 소견서도 써준다. 나는 나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병철이 말한 피로사회 현대인들처럼 말이다.

그러는 지난 몇 년 사이 새민족교회와 너무 멀어졌다. 진정희 집사를 통해 교우들과 교회 소식을 듣는다. 애들 소식이 반갑다. 가끔은 교우들과 수다를 떨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한다. 그래도 새민족교회니까! 언제쯤 새민족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양주와 마포라는 물리적 거리 탓만은 아니다. 나 자신에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민족교회와 담을 쌓고 싶지는 않지만 그 높이가 내 키를 넘었고 그 담을 허물려는 간절함이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모모 집사가 교회를 만나 온다고 하면 안타깝다. 나오시지…… 아마 내년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나가게 될까? 진정희집사와 함께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모르겠

다. 어쨌든 새민족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는 교회로 계속 남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나도 홍제동으로 이사하고 싶다.

12년 동안 일한 구급현장을 떠나 오월에 온 서울종합방재센터는 남산에 있다. 옛날 안기부 지하 병커에 서울의 모든 119신고를 받는 서울종합방재센터가 들어서 있다. 이 지하에 작은 방들이 참 많았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인간성들이 고문으로 무너져 갔을까? 나는 아무렇지 않게 지하로 내려와 고문실이 있던 그 자리에서 하루에도 수 백 번씩 ‘119입니다.’하고 외친다. 이 외침이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되길 빈다. 그리고 119라는 외침이 어두웠던 시절 빛도 없이 암흑을 비추던 ‘그 분’들에게 위로의 기도가 되길 빈다.

요즘 나는 남산에서 위로를 얻는다. 저녁 근무 때 일찍 출근해서 산책을 한다. 꽤 무더웠던 오뉴월에도 행복을 가져다준 산책길 나무와 꽃들에게 고맙다는 말 잊지 말아야겠다. 내 인생 목표 중 하나는 평생대학 모범생이자 우등생이다. 공부하는 품새나 머리를 볼 때 우등생은 힘들고 개근은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즐겁고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학교에 놀러가는 날라리처럼……

‘예민하지만 까다롭지 않은 사람’ 진정희 집사가 나를 두고 한 말인데 나를 참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때론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선배와 잘 맞는 여자가 있다고 지 아내의 교회 언니를 소개해준 후배의 사람 보는 안목은 분명 나보다 선배다.



요즘 나는요

류미숙

안녕하세요? 새민족 교우 여러분 잘지내시나요? 저는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태풍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비가 소나기처럼 내리는 걸 보니 정말 뜨거운 여름이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다이소는 ‘다 있다.’는 뜻이 아니라 ‘창대하다, 번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뭐가 있긴 다 있어? 없는 것도 많은데’라고 말하는 고객님도 몇 명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즐거움 구매하는 즐거움을 갖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는 다이소 홍제점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직원들이 “미숙씨는 하루 일하고 못한다고 할거야.”라고 했어요. 신입직원이 입사하면 늘 하는 말이지요.

입사한지 어느덧 5년차가 되었네요. 홍제는 46평이었는데 직원모집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매장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6월1일자로 신촌3호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신촌3호점은 점장들 사이에 ‘나만 아니면……’ 그럴 정도로 직원구하기도 힘들고 로스도 많고 그래서 홍제 같은 경우 재고조사 1년에 1번 정도 하는데 신촌3호점은 한 달에 1번 정도로 많이 합니다.

저희 매장 위치는 신촌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 있습니다. 시간나면 차 한 잔 하러 오세요. 환영합니다. 감당할 만큼 고통 주신다는 말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는 엄마 사랑해요, 죄송해요. 매장에서 5분정도 가면 김정수 집사님 사무실이 있어요. 가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챙겨주시는 집사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공동체 안에서 모두모두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도 할게요.



모든 것이 감사

| 문소정 |

제목 그대로 요즘은 모든 것이 감사한 나날들입니다.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한 순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 같아 어안이 병병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새민족교회 주보에 감사의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사시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특히 ‘내가 과연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가장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소위 서울대나 고려대 등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질과 많은 양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텐데…… 나는 고작…… 건대에서……’ 하는 불안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대학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를 얹매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새민족교회에 선뜻 나오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목표와 동기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목표에 내가 중심으로 있지 않고 누군가를 위한다는 생각이 크면 안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사시를 도전했을 때 동기의 중심에는 제가 아닌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오빠를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강해져야 하고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사시에 합격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1차를 총점 0.09로 떨어졌을 때, 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았으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1차를 도전하게 되었고 그 불학격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며 내가 좋아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인간관계와 사회가 단절된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좁은 방에서 빈 박스 위에 엄마가 해놓고 가신 반찬을 놓고 책을 읽어가며 꾸역꾸역 먹었던 것도 그 때는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차 사회에 나가 취직을

해가는 동기들 소식에 스스로 동요될까봐 모든 SNS를 끊고 살았던 것도 기억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추억이 되어 평생 훈장으로 안고 갈 것들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금전적인 투자와 정신적인 지지를 아낌없이 해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릴 뿐입니다. (투자회수 보장해드릴게요.) 신림동에 있을 때나 건대 근처 원룸에서 혼자 공부할 때, 그 무거운 반찬을 먼 곳까지 캐리어로 끌고 와서 하나하나 챙겨주신 엄마, 기도로 문자로 내 곁에서 항상 응원해준 오빠,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나의 정신적 든든한 우상 아빠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조카를 믿고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신 이모께도 감사드립니다. 2차 발표 전 불안감의 최고치를 찍고 있었던 때에 아무 의심 없이 합격을 확신하시고 기도해주셨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 전술 하였던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들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위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격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많을 것임이 단언컨대 분명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법의 정의를 위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신앙적으로 더 신실한 제가 되길 다시 한 번 기도드립니다.



기다림

| 문 종 철 |

우리는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을 기다림으로 채우고 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짧은 시간을, 인생의 길목마다 만나는 시험은 결과를 알기 위해 매우 길게 초조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또,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만남과 이별,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

다. 그리고 가장 긴 시간과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한 기다림은 내가 이른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자식에 대한 것일 것이다.

버스나 지하철은 다른 생각 없이 약속된 시간만을 맞추기 위해 올라타기만 하면 이후는 큰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된 시간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기다림은 마음에 큰 부담이 없다. 사전에 반복한 경험이 많고 충분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 앞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인생의 길목마다 만난 시험은 선택에 관련한 것이 그 결과와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내가 평소 준비한 수준보다 선택한 수준이 어느 정도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았고 시험 후에도 어떤 방향을 가질지 미리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은 기다림인 것 같다. 또, 인생의 반려자에 대한 기다림은 나 자신에 대한 살아온 모습이 상대방에게 비춰진 느낌이 컸다고 본다. 이 기다림은 미지의 반려자에 대한 설렘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항상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다고 본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기다림은 복합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번 딸에 대한 기다림도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이 많았다.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도, 대학을 진학할 때도 우리 아이가 잘한다고는 하나 얼마나 잘하는 지 알 수 없었고, 내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 비해 교육환경이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 줄지 몰라, 뒤에서 심적인 위로 밖에는 별달리 도와줄 길이 없었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실망하는 딸을 볼 때 미안하고 내 마음에 담겨지는 고통은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다. 이때는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딸이 갖는 결과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더 어려웠고 긴 인내가 필요했다.

이번에도 몇 년 동안 분위기 딱딱한 도서관에서, 선배들과 생활해야 하는 불편한 기숙사에서, 좁은 원룸에서 위로 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관계도 거의 축소해 버리고, 혼자서만 버텨나가는 모습을 애달프게 쳐다보는 기

다림으로 힘든 시간을 흘려보냈다. 더 어려운 것은 마지막 시험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또 있을 지도 모르는 나쁜 결과를 대비하기 위해 딸에게는 이번으로 도전하는 것을 끝내라고 권유해 마음의 준비를 갖게 했지만, 그 나쁜 결과로 인한 딸이 가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있었다. 다행히도 결과가 좋았고 그로 인해 딸이 그 동안 갖고 있던 자존감에 대한 상처도 아물어 가는 분위기를 본다.

앞으로도 많은 기다림이 있을 것이다. 딸이 올바른 법조인이 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 아주 느리지만 그래도 자신의 인생을 꾸며가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아야 한다. 이 기다림들에는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 기다림 속에 있는 인내가 나를 조금씩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 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큰 시련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오늘의 마음 편하게 하는 결과를 위해 함께 기도와 위로를 해준 신앙의 가족인 새민족 공동체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다.



2015년 봄에

| 민혜경 |

2014년 12월로 임기를 마친 교회위원장 민혜경입니다. 교회의 권력을 내려놓으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은 예배문화부를 맞게 되었네요. 처음 맞은 예배문화부라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로도 한 센터를 맡아서 부담감이 더하네요.

삶과 신앙은 항상 딜레마입니다. 주제가 없는 글을 쓰는 것은 정말 뭘 써야 하나 고민이거든요. 또 부탁하신 분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거절도 못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항상 막판에 몰려 글을 쓰게 되네요.

지난겨울은 좀 우울하기는 했습니다. 겨울이면 심하게 도지는 비염으로 엄청 고생하고, 비염의 친구인 감기도 항상 몸에 달고 다녀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어요. 또 아버지까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입원도 하시고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겨울 같습니다. 물론 잠깐의 휴식을 위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지만요……

이렇게 정신없는 겨울을 보내다 보니 2015년을 새로운 다짐들이나 결심들을 못하고 시작했네요. 그런데 어느 새 3월이네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더니…… 이제 46살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년이라는 나이가 되었네요. 불혹(不惑)의 나이를 넘어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가 되어 가는데…… 저의 정신연령이 거기에 도달했는지 모르겠네요. 不惑이 되면 미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날마다 유혹과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에 대한 유혹, 가방에 대한 유혹, 편안한 삶에 대한 유혹, 소비에 대한 유혹 등등……

이런 유혹들에 대한 고민은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운동권 선배들을 만나 소위 사회과학학습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과연 내가 운동에 맞는 사람인가? 또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 다니면서는 내가 환경운동에 맞는 사람인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예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새민족교회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원하는 삶과 지금 나의 자리가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들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네요! 정말 유아기적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보기도 합니다.)

가끔 자유로운 영혼과 이상한 허영심(제가 좋은 가방이나 신발을 좋아해서)을 갖고 있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새민족교회에서 좀 더 앞서 나간다면, 청년 예수가 갔던 십자가의 길,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길을 간다면 저도 작은 역할이나마 담당하며 살아가야지 싶습니다. 제 고민이 부끄럽게 여러분들이 좀 세계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봄!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나라,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현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 저도 체력을 열심히 회복하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해지니 몸도 좋아지겠지요.



세 친구

| 박연미 |

1월 초에 정기검진이 있었습니다. 치료 후 3개월 마다, 6개월 마다, 그리고 1년 마다…… 그렇게 지난 것이 벌써 5년이 되었네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늘 그렇긴 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에서부터 최악의 경우까지 모든 경우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그렇게 출렁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이지요. 그리고 결과를 보는 날 의사의 한 마디, “검사 결과 깨끗합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그 한 마디에 나의 행, 불행이 결정되지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은 제게 많은 변화를 안겨 주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겪은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나약해졌고, 집중력과 지구력도 많이 떨어졌답니다. 기억력은 물론이구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약하고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욕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방송통신대에 입학해 공부하게 된 것은 그 시기에는 어찌면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용기 내어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공부에 집중하면서 내가 환자라는 것을 잊고 오히려 공부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2월이면 졸업할 하게 되는데 공부는 지난 5년간 제 마음을 다스려 준 좋은 친구

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7절 말씀을 찾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유창하고 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구요. 그저 이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평화를 기다립니다.

마지막 친구는 사람입니다. 검사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이 불안할 때 새 민족 식구들이 보여준 사랑을 확인해 봅니다. 보관하고 있는 교우들의 목적헌금 봉투를 모두 꺼내 헌금의 액수 이면에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와 사랑을 확인합니다. 치료기간 동안 도시락을 준비해 와 입맛 없는 제게 밥친구 해주던 여성 교우들의 그 절절한 마음을 확인합니다. 제가 입원 해 있는 동안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예쁘게 도배를 해 주신 남성 교우들의 그 지극한 마음을 확인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불안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런대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얻고, 교우들의 사랑에 위로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다른 아픈 이에게 베풀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 그 때의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제게 보여 주었던 사랑과 기도와 관심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고,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비우고 낮추는 연습

| 박인우 |

올해에는 동대문구에 있는 휘경여중에서 중학교 도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지요. 교직 3년차에 첫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요즘 참 어렵다는 중학교 2학년이라 개학 전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학생들이 참 착하고 순해서 걱정보다 훨씬 더 쉽게 학급 담임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서울 주변 경기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선생님에게 전해 듣기로는 학교 폭력사안을 처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생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을 만큼 일부 중학교의 교실은 매우 살벌하다고 합니다.(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월급 덜 받아도 된다고 주장 할 정도로 중학교 담임교사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에 비해 지금 다니고 있는 휘경여중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리거나 아예 열리지 않지요. 다른 학교에 있다가 오신 기간제 선생님들도 여기 학교 학생들은 희한하게 착하고 순진하다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어서 참 신기하다고 합니다. 저도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을 보면서 때 묻지 않은 순수함에 저도 더 감화됩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마냥 착하고 순수해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교 교칙에 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의 복장 및 두발에 대한 통제가 교칙으로서 가능합니다. 지금 다니는 학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학생의 모습을(양말의 색깔, 어깨 아래까지 머리가 긴 학생들은 반드시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어야 하는 등) 정확히 교칙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학교의 실세 학생인 선도부들과 생활지도부(예전의 학생부) 선생님들이 등굣길에 교

칙위반 학생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보기 드문 풍경을 매일 아침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교의 교칙을 가지고 이야기 할 때 마다 자신들의 학교는 교칙이 너무 엄하다고 주변 다른 중학교만 하더라도 이렇지 않다고 마구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럴 때 마다 20년 후 너희의 자녀가 화장하고 염색하고 파마하고 학교에 다닌다면 인정할 수 있겠니? 좀 더 나아가서 피어싱하고 학교에 나간다면 인정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학생이 어느 수준까지는 허용해준다고 하고, 소수의 학생들만 자녀의 표현은 모두 허용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왜 자녀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허용해 주면 안 될까 묻습니다. 그럼 너무 과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너희 자녀에게도 너희가 학생이 지녀야 될 모습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으며 끝을 맺습니다.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의 본분에 충실히 하는 것과 두발과 복장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충실하기 위해서는 두발과 복장이 중요하다는 것이 15세 학생들에게도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요.

요즘 수호를 보면서 제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수호가 좋은 대학 높은 성적을 받으면 좋겠지요.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이 있으면 낮은 성적을 받는 학생도 있을 텐데 수호가 혹시 낮은 성적을 받는 학생이 되면 나는 수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수호의 부모로서 살아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채우기 보다는 기준을 더욱 낮추고 나의 욕심을 비우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과 신앙유산

| 박진옥(여)|

우리 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여섯 형제로 모두 열 명의 대가족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메산골인 충청도 괴산에서 사시다가 먼저 상경했던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자 가산을 정리하고 올라와 한 식구가 되었다. 집에는 친척들의 내왕이 잦았다. 어린 우리들은 손님이 오실 때마다 즐거웠지만 어려운 살림을 떠맡은 어머니는 손님맞이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울 생활을 하시면서도 농촌에서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셨다. 집에서도 염소, 닭, 토끼 등 가축을 키웠다. 이웃 주민들이 연탄불을 때던 시절인데도 가마솥을 걸어 나무를 때고 밥을 지었다. 광목 치마, 저고리, 흰 고무신, 할아버지의 갓과 곱방대, 겨울철 방안에 둔 작은 솜화로, 호롱불, 다듬이 방망이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이 우리 집에는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생존하시던 70년대 중반까지 우리 가족들은 텃밭 농사로 일군 채소로 식생활을 자급자족하며 살았다.

우리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의 기억들이 꽤나 많다. 부모님한테 꾸중을 듣는 날이면, 두 분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고 한 것이니 잘 타이르라며 말려 주셨다. 또한 할머니는 저녁이면 우리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나는 날마다 다양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라를 떠돌았다. 그 영향 탓인지 나는 어릴 때 만화광이 되기도 하였다.

나는 또래보다 학교를 한 해 먼저 들어갔다. 어느 때인가 학교에서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이야기로 동화발표를 했다고 전해드리자 할머니는 기쁜 마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동안 자랑을 하셨다. 그게 내가 할머니를

기쁘시게 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면 몸을 정갈하게 하시고 장독대 위에 정한 수 한 사발을 떠 올려놓으신 후 온 가족을 위해 정성껏 기도를 하셨다.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나 초하룻날에는 준비한 음식을 싸가지고 천지신명과 하나님께 제를 지내러 안산(지금의 금화터널)으로 올라가시곤 했다. 우리들도 할머니를 도우려고 필요한 물건들을 들고 함께 따라갔다.

할머니의 기도내용은 우주만물과 천지신명에 간구하는 것이라서 내 귀에는 거대한 우주여행을 하는 것과 같이 들렸다. 어린 나에게 그 시간은 참으로 거룩하고 근엄할 뿐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근면과 성실을 생활신조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셨기에, 농사로 노력해 얻은 자연적인 먹거리 외에 기름진 음식이나 돈에 욕심이 없으셨다. 자연과 한 몸이 되어 생활하신 모습은 마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잊고 살지만 우리조상들이 살아왔던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일터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내몰린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재능교육교사, 용산참사 등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욕심을 부리며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보이지 않는 자본가들의 모습이 함께 떠올라 마음이 답답하고 슬퍼진다.

그럴 때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생각나고, 나는 다시 힘과 용기를 얻는다.



당신의 아들이 성소수자라고 고백한다면

| 박진옥 (남) |

해마다 6월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퀴어(Queer)퍼레이드 및 다양한 성소수자의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올해로 열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한국의

퀴어문화축제(Queer Festival)가 지난 6월11일 시청광장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청광장으로 가는 길목에는 기독교단체들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출력의 스피커에서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라는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독교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 피켓과 행사장 현수막에는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한 행동”, “아이들에겐 아빠와 엄마가 필요합니다.”, “동성애는 인권도 아닙니다.”와 같은 말이 쓰여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뭐라 하셨을까? 과연 고출력의 스피커로 귀가 따갑게 들리는 찬양처럼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 적의를 불태우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친한 목사님 한 분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내 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다셨다. 잘 모르겠다. 성전을 돈 버는 수단으로 타락시켰던 이들에게 사용했던 채찍을 예수님께서 성소수자에게도 드셨을까? 최소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행사장에 모인 모두와 함께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다. 성소수자라고 배제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 사람들이 인간취급도 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 했지 않았던가!

이번 퀴어문화축제에는 100개가 넘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멈춘 곳은 ‘무지개 예수’ 부스였다. 퀴어문화축제에서 만난 성찬식에는 당연히 성소수자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동 그 자체였다.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있는 목사님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예수님도 이렇게 성소수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지 않았을까?

국제앰네스티에서 인권활동을 하며 가장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성소수자 문제였다. 일주일 중 5일은 인권의 가치에 따라 성소수자들을 위한 인권활동도 함께 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나는 그들을 정죄해야 했다. 힘들었다. 나의 삶의 가치와 종교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참,

고민스러운 일이었다. 2년 동안 관련 책을 읽어가며 고민했다. 그 결과 이제는 나의 삶의 가치와 종교의 가치가 다르지 않게 정리 됐다. 가끔 인권 강의 할 때 질문을 받는다. “당신 아들이 성소수자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른이 된다면

| 어린이 교회 |

내가 어른이 된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보다는 마음으로 되는 어른이 되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고 웃고 즐기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 줄 아는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유병준)

내가 어른이 되면 과학자가 되어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스마트폰 컴퓨터게임을 가상현실에서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포탈같은 순간이동장치를 만들어서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김한울)

내가 어른이 된다면 대학교를 가서 피아노과를 공부하고 싶다.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언니와 함께 직장을 얻어 일하고 싶다. 나는 경제에 관한 것을 하고 싶다.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일을 하거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예금해서 돈을 불릴 것이다. (유연우)

어른이 된다면 사육사가 되어서 동물을 길들여보고 싶다. 특히 사막여우, 햄스터 등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김산)

캐릭터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카 디자이너 등의 디자인 전문회사

(하나의 회사의 공동팀 대표) 해서 나중엔 사장이 돼서 세계가 알아주는 재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재벌이 돼서 그 재벌의 힘으로 여러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할 것이다. (실패 가능성 79%) (최유현)

내가 만약 어른이 된다면 성실하고 발표 같은 것을 잘하는 축구선수가 되어, 인터뷰나 그런 것에도 당황하지 않고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처럼 가난한 이웃에게 기부하고 잘 베풀 줄 아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적어도 된다면 월드컵을 우승해 우리나라를 빛내겠습니다. (신우진)

멋진 아빠가 되고, 발명가가 되어서 도라에몽과 순간이동장치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걸로 만들거다. (손규현)

내가 만약 어른이 된다면 발명가가 될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거야. 뭐냐면 바로 저절로 나오는 돈 기계를 만들거야. (손재현)

내가 어른이 되면 BJ가 돼서 게임을 못하는 사람 가르쳐주고 게임을 재밌게 해서 사람들을 웃기겠다. (서승우)

나는 의사가 돼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학대당한 동물들을 치료해서 다시 원래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서승주)



나의 신앙고백

(입교/세례를 받은 청소년)

| 허 담 원 |

나는 나의 생활의 아주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 비록 주로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점이 죄송스럽지만,

꼭 필요한 순간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셔서 그 때 마다 항상 놀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날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도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 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동체 속에서 내가 자라 언니와 오빠들, 동생들이 생기고 매주 만나면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는 어른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나 또한 이 교회에서 필요하고,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도 소중하다. 그리고 이제 그 저 엄마 따라 처음 교회에 온 4살짜리 꼬마 담원이가 아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세례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내 모습은 어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기도드릴 때의 나, 설교들을 때의 나, 봉헌할 때, 찬송할 때…… 언제나 경청하고 경건한 태도는 아니었지만 일주일 중에서 가장 진실하고 공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내가 앞으로 더 자라면서 많이 바뀌어 다른 사람 같을지, 아님 지금과 똑같은지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고, 다른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내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란걸 안다. 그래서 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더욱 깊은 신앙으로 자신 있고 밝고 빛나게 살아갈 것이다.

| 신 하 진 |

나는 나를 만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볼 때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가난하고 꺾박받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또한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고백과 언제나 함께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 임 세 진 |

아직 내가 입교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교육을 받았지만 내가 입교를 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이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것들, 교회에 대한 것들 몰랐던 부분을 배운 것이 많다. 배운 만큼 머릿속에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 상태로 라면 금방 까먹겠지만 앞으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을 때, 다른 어렵거나 힘든 상황일 때마다 보고, 기억하고 싶다. 지금 까지 교회 다닌 것은 부모님이 보내서인 경우나 ‘가야하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가 많았다. 앞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를 나올 것이다. 그 무엇의 강요도 아닌 내 의지 대로 교회를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예배에 임한 자세는 매우 안 좋았다. 예배시간에 늦는 시간이 잦아지고, 찬양도 열심히 안 불렀으며, 설교시간에는 매번 딴 짓을 했다.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예배드리려고 노력 할 것이다. 나는 내가 입교를 받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조그만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조금씩 마음속 변화를 행동으로 내 보이려 한다.

| 임 종 업 |

때가 되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별 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입교를 할 수는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 스스로 느끼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더 미루게 되면 아예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성인이 되기 전에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입교에 대하여 목사님과 만나 공부할 때 저는 다른 것 보다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교회를 안 나오면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교회를

매우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담임목사님이 김영철 목사님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아빠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에게 직책이란 게 주어지게 되었고 아빠는 그걸 싫어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결정적인 이유는 아빠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아빠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정의하지 못했고 신앙심(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빠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가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귀찮으면 안가고 피곤하면 쉬고 게으른 출석을 반복했습니다. 중국을 갔을 때 찬양 팀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지만 한국에 돌아오고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진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버티는지 교회에 나와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얻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입교를 하는데 이 순간을 통해 앞으로의 삶과 신앙생활이 더더욱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6.15시대를 열자!

| 서상민 |

나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에서 일하고 있다. 노조에서 내가 하는 일은 산별노조를 확대 강화하는 사업과 통일 사업이다.

올해는 광복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5년이 되는 해이다. 각계의 민간 종교, 시민사회, 진보민중단체들은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중국 선양에서 회의를 열고,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해외측 준비위원회’와 6·15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합의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5.24 남북교류협력 중단

조치를 발표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 8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광복 70돌과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남북 민간의 의지 표현이다. 또한 중단된 교류와 협력사업의 물꼬를 틔으로써 남북 당국 관계의 변화를 촉발해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 민간교류를 허용하겠다고면서 남측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북측의 직총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불허하고 있다. 또한 각종 민간교류를 ‘비정치적 교류’에만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간교류를 정부의 남북관계 치적 쌓기로만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역대 정부는 임기가 꺾어지는 집권 3년 차를 레임덕을 늦추고 치적을 쌓을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는 임기 3년 차에 북방정책에 힘을 쏟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3년차에 평양을 직접 방문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순안 공항까지 나와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남북정상은 회담을 진행했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세월호 1주기, 성완중 게이트를 둘러싼 민심이반과 권력내부의 불협화음에서 벗어나고자 남북관계에서 출로를 찾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박근혜 정부는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켜서 사실상 광복 70주년 사업을 남측정부와 관련단체가 주도하는 민족공동행사로 만들고, 이 자리에 북을 끌어오고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6.15 민족공동행사 없이 남북교류는 없다.’는 입장이 다. 남측 당국의 6.15 민족공동행사 승인 여부로 남북관계개선 의지를 평가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6.15 민족공동행사의 수용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6.15 민족공동행사를 승인하자니 박근혜 정부의 첫 민족공동행사에서 6.15 공동선언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불허하자니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이 전부 무산될 상황인 것이다.

이번 6.15 민족공동행사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양상의 불순

한 배경과는 상관없이 남북해외 민간의 힘으로 반드시 성사시켜서 제2의 6.15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올해에 6.15 민족공동행사 성사로 남북화해의 물꼬가 열린다면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화해와 협력의 제2의 6.15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회장이 되고 보니

| 손다형 |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 청소년교회 회장 손다형 입니다. 사실 이렇게 후보에 글을 쓰는 것도 회장이 되고나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후보 글 섭외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후보에 글을 쓰는 것이 딱히 섭외 때 말해주신 주제는 없고 해서 그냥 제가 청소년교회 회장에 대한 느낌 등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 겨울수련회에서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거의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되었죠. 저도 사실 처음엔 회장, 총무 등 교회에서 가지는 직책이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직책을 가지게 되면 분명 다른 학생들 보다는 적어도 한 두 가지 일은 더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썩 내키지 않던 제 마음을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참여한 주니어 MBA과정에서 바뀌 준 거 같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들은 성공한 CEO들과 그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는 분들이었습니다. (꼬꼬면을 상품화하신 한국야쿠르트 F&B 마케팅1팀 최용민팀장, 뽀로로의 아버지 아이코닉스 최종일대표, 개그맨 최효종 등등 많은 분들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미래의 CEO를 꿈꾸는 중고생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선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많은 생각을 했었고 무엇이든 경험해보고 무엇이든 나서서

해보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미래의 CEO를 꿈꾸는 한 학생으로서 앞에서 말한 썩 내키지 않던 마음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 해보고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저에겐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교성이 좋지만 막상 전혀 모르는 학생들과 빠른 시간 내에 친해져야 한 단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여러 의견도 나누다보니 금방 친해졌고 남에게 먼저 다가가는 힘을 배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학생이 딱히 학교 사회를 제외하고 또 다른 사회에 참여해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기회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아버지 손정일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너무 됐나요? 다시 청소년교회로 돌아가자면 제 교회 생활도 회장이 되고 나서 바뀐 게 많습니다. 우선 지각을 안 하게 되었구요. 2부 행사나 교회행사가 있으면 뭘 하면 좋을까 선생님들과 회의도하구요. 그래도 가장 많이 바뀐 건 교인 분들이 저를 불러주시는 호칭이 아닐까싶네요. “손다형 회장님~” 이렇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벌써 2012년 새 학기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구요.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도 날아오는데 새삼 성인이 되어 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학업에도 더욱 열정과 시간을 쏟아야 할 때도 되었구요. 이제 점점 학교 선생님들도 대학 이야기를 하시는걸 보니 저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가끔은 기운도 빠지지만 이왕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간 복이 온다잖아요.

이제 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민족교회 교인 여러분 2012년 봄철 꽃샘 추위, 감기 조심하시구요.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표

| 손영주 |

퇴근길 차안 라디오에서 '길과 이정표'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길을 갈 때 이정표를 보면 이곳이 어딘지 알게 되어 안도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삶의 이정표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합니다. 더 편하고 좋은 것을 찾아 가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열정에 가능성을 묻고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한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4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흔히 표현하는 불혹의 나이가 된 것이죠. 불혹(不惑)이라…… 미혹되지 않을 나이라는 것인데 제겐 복잡한 느낌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는 말이나 손해 보더라도 열정에 가능성을 묻고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한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도 그렇게 우직하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느 정도 인생의 때가 묻어 있어서인지 삶에서 편하고 좋은 것만 찾으려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달콤하고 편한 선택의 자세와 목적지를 향한 불편한 선택의 자세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순간에서 불편하지만 우직한 선택들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내 자신의 힘도 있지만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신뢰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욱 가능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열정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돋우어주며 함께 목적지까지 뚜벅뚜벅 한걸음씩 같이 내딛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새 민족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 두산 베어스

| 손예원 (청소년교회) |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교회 손예원입니다.

저는 요즘 야구의 세계에 푹~ 빠져 지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아빠와 회사직원들과 야구장에 간 일로 부터입니다. 제가 작년에 야구장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구경만 했을 뿐인데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야구장 한 번 가고 선수들 응원가를 다 외웠답니다. 제가 제일 잘부르는 응원가는 오! 재원이 안타! 날려버려~ 오! 재원이 안타! 날려버려 오! 재원이 안타! 날려버려 예 예예예예 예 예예예예(언제 한번 들어드릴게요. 원하시면?)

그리고 저는 야구를 보면서 두산베어스 선수들이 홈런을 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면서 흥분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박이죠. (특히 지고있을 땐)

두산베어스는 제가 너무 너무 광팬이어서 매주 교회에 오면 롯데 팬인 김진오 집사님과 누가 이겼다 졌다 를 말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급식 먹기 전 두산베어스 응원가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떠들지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 바로 두산 광팬 ㅎㅎ

제가 처음에 두산베어스 선수들 중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김현수 선수는 타격기계라고 불리울 만큼 잘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또, 정수빈 선수는 정확한 수비로 모든 사람들을 기가막히게 하지요.

그리고 손시현 선수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선수인데(손씨라서) 얼마 전에 3루타를 치면서 역전을 하여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야구장에 가고 싶는데 갈수가 없어서 요즘은 텔레비전으로 꼬박꼬박 야구경기를 챙겨봅니다. 스포츠 뉴스까지도.(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원래 저는 어릴적 LG트윈스 팬 이었다고 하는데~ 저희 아빠 회사 직원이 두산팬이다 보니 저도 언젠부턴가 두산 광팬이 돼버렸어요. 그 직원은 저에게 두산 팬 복을 선물로 주셔서 제가 옆에 끼고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야구 보듯 공부하면 일등하겠다고 하지만 공부와 야구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저 다음 주에 야구장 갑니다.

넌 기대되어서 잠도 설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도 두산베어스 팬이 있다면 요번 시즌에는 꼭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 또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파이팅!!



관점을 바꿔보기

| 손정 일 |

살다보면 끊임없이 주어지는 문제해결과정을 맞이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해결과정이 천차만별 달라진다. 사업을 하는 나는 직장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해결과제를 접하는데 문제의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엉뚱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사람의 뇌는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고착화되면서 성인기에서는 자신이 엄청난 노력을 동반하지 않는 한 변화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정의를 하는데 성장기의 환경이 인생을 결정 짓는데 결정적이라 할 만큼 중요하고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심리학, 정신분석학들이 성장과정을 중요요소로 진단한다.

나는 장사를 하는 집안에서 자연스레 고객을 접하는 시간이 많았고 장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응대태도에 따라서 손님이 물리는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를 목격했던 것이 좋은 공부가 되었고 그것이 지금 사업체를 꾸려가는데 있어서 지극히 근본적인 학습이 되었던 것 같다. 평소 나는 내 주변에서 불편한 것을 찾는 습관이 있는데 불편한 것에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달리 생각하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내가 먼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좋은 사업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은가? 남이 불편한 것을 내가 채워 주고 고객을 기분 좋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해주면 그게 바로 장사이고 사업이고 먹을거리이며 그 쉬운 진리를 터득한다면 살아가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슨 걱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문제와 답은 공존하고 모든 것은 장단점을 동시에 포함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한쪽면만 부각해서 치우치다보니 균형 잡힌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도 사업초기에 직원들을 한명씩 채용하면서 월급을 주면서 내가 직원들을 먹여 살린다는 착각을 했다. 사실 직원들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인데 그릇된 관점에서 생각하다보면 직원들이 일을 잘못할 때 미워지고 짜증날 때가 많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은 생각임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부족한 제게 좋은 수고로 열심히 일하는 착한 직원들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잘 보살피는 예수님처럼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고 말이다.

회사와는 달리 새민족교회는 정말 수십년동안 살아온 환경들이 다양하고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서로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재구성할지를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교우

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하는 교우들간에 과연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찌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좋은지 정리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소한 교회를 다녀오면 평소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지 못하고 실망하고 감정의 골이 쌓이고 답답해진다면 과연 교회의 미래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우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의 교회를 바라볼게 아니라 교회일상을 점검하고 변화시켜 활기차고 즐겁고 재미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먼저 서로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보고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고백하고 개선하여, 삼십주년을 축하해주시기 위하여 두 팔을 활짝 열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맹인이 구걸하기 위하여 쓴 글이 처음에는 ‘저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에서 나중에는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볼 수가 없네요.’라고 바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새민족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가족

| 신윤복 |

요즈음 우리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면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나이 들어서까지 손자를 돌봐야하느냐며 며느리가 지방인 사람과는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쉽게들 한다. 대개 5~60대 일 때만 해도 아직 세상에 대한 자신감들이 있어서 인 것 같다.

나는 직업적으로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는 80대 후반 90대 어른들을

매일 만난다. 그 분들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과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무척 그리워한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 다들 외국에 보내고 정작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갈 자식 한 명도 없는 노인.

집안이 넉넉해서 타워 팰리스 한 채씩 사주고 나니 자신은 타워팰리스 60평에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24시간 자신을 돌봐주는 ‘타인’과 함께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

매일 백화점 쇼핑을 낙으로 삼고 콧대 높게 살아오다 자신을 이해 못하는 자식들과 언쟁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진 노인.

자신은 6.25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 독립심 강하고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으나, 며느리는 풍족하게 자라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 못해 갈등으로 홀로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지내는 노인.

또 돈을 물 쓰듯 하는 노인도 있다. 그 분은 결혼 하지 않은 딸이 벌어오는 귀한 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써댄다. 배집을 한 달에 6박스(600개)를 주문하여 이틀에 한 번 병원 갈 때마다 30개씩 이사람 저사람 나누어 준다. 받는 사람들도 무척 민망해하며 받지 않으려 하지만 막무가내다. 한 달에 수백만원씩 주고 하는 재활치료는 해야 한다면서, 정작 자신은 열심히 하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아까운 딸 돈만 축낸다. 결국 지친 딸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만난 노인들은 대개가 혼자 살거나 노부부 단 둘이 살거나, 홀로 사는 자녀와 둘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치매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환자의 짐을 혼자서 지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또 아픈 노인도 외로움과 그리움에 지치고, 그를 돌보는 가족도 지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돌보는 가족은 정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떻게 사는 삶이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취미생활에서는 5~60대를 만나고, 업무 중에는 8~90대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30대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다보니

우리 인생의 이 모습 저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 집은 지금 대가족이 함께 산다. 물론 식구는 5명이지만 3대가 살고 있다.

민지를 보면 때때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할텐데 따로 살까?”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아침에 출근 소동을 한 번 겪고 나면 우리들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들을 깨닫게 된다.

새벽 6시도 안돼서 출근하는 사위와 수호 젓을 먹이고 이유식을 만들어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민지에게 바쁜 엄마가 그나마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준다. 또한 이모보다 엄마가 더 예쁘다고 하여 이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솔이는, 아이들의 음악을 틀고 함께 춤을 추주는 이모부가 옆에 있어 행복하고 든든하다. 그리고 수호를 얼마나 예뻐하고, 수호 또한 한솔이를 보면 얼마나 병긋병긋 웃는지 아이들은 통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가족이란 서로가 필요할 때 같이 있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필요할 때 더 멀어지려 한다. 그러다보니 모두 다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닐까?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

| 신은주 |

글을 써 봐야지 하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요. 저 자신도 근 일 년 반 동안 저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스스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보에 글쓰는 순서도 이사해놓고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시점인 4월 중순으로 정하고 글 제목까지 잠정적으로 정해놓았었지요. “1가구 2주택에서 무주택까지” 이런 나름 선정적인(?) 제목까지 생각해놓았는데 생활에 쫓기다보니, 후보 편집을 하고 있다는 특권을 남용하여 편

집 마지막 날 급하게 자판을 두드리고 있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까요.

일단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짧게 저희집의 그간의 상황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인 2009년 8월,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 옆동의 32평 아파트를 계약,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1월초에 입주, 다음해인 2010년 3월, 전에 살던 24평 아파트 매도, 12월 살고 있던 32평 아파트 매도계약, 2011년 2월 24평 아파트 전세 계약, 3월 중순 24평 아파트 전세로 입주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단순한 지난 일정 사이사이에 스며있을 많은 이야기와 한숨과 잠못 이루던 순간들은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맡기구요, 현재는 뒷베란다에서 내다보이는 개나리 벚꽃 푸른 버드나무가 어우러진 안산의 봄풍경을 온전히 누리며 ‘작은 집이 역시 우리 생활감각에 맞아’ 하면서 네식구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친구에게 오랜만에 이메일을 썼어요. ‘20대 초반에 맑시즘을 만나고서도 깨지지 않았고, 대학원에서 조혜정 선생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던 나의 가치관이 집문제를 통해서 비로소 변하고 있다’고 썼어요. 저에게 이번 집문제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누군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답을 하겠어요.

작년에 제 삶을 지탱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금요기도회를 같이 했던 분들에게는 말씀드리기도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임용고시 준비를 하던 종로도서관 근처에 ‘사직동 그가게’라는 티벳난민을 돕는 조그마한 가게가 있어요. 허름한 그 건물의 2층에 8평이나 될까 한 작은 방이 보이더라구요. 작년 가을에 그 옆을 지나가는데 저기 살아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오신도신 산다면 별로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었었어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지.’ 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살던 저에게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보니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새롭게 보

게 되었어요. 한없이 베풀어주시는 부모님들의 배려와 사랑과 물질적인 지원도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답게 자립해야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10년이 넘게 아내를 뒷바라지 해주고 내조와 외조를 겸해준 규완씨의 배려와 사랑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과연 누가 그럴 수 있었겠어요. 결혼하고 다닌 대학원에서 논문도 두학기나 연장하고, 5전 6기만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임용에 합격하고 나서는 눈뜨고 그냥 나가버리고나면 남은 어린 딸의 아침과 머리 빗겨 보내는 것은 다 그의 차지였는데, 그리고 둘째를 낳고는 육아에 허덕이다보니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도 반겨주지 못했는데…… 그 세월을 그가 견뎌주었는데 많이 고맙다고 표현하지 못했어요. 때론 당연한 듯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며느리 공부하라고 몸이 힘드신데도 어린 채린이 돌봐주시고, 여러 고비고비에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철철이 김치 담아주시고, 반찬 보내주셨는데도 크게 고마워하지 못했어요. 때로 서운했던 기억들만 가슴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집문제’ 이후 제가 배운 것은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고맙고 고마워요.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는 물론이고 생일날 또는 아무 것도 아닌 날 숙 보내주시는 새민족 식구들의 문자 하나, 반찬 한가지, 점심 한끼 모두 모두 감사해요.

인생학교에 비싼 수업료 내고서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저도 새민족의 매력 넘치는 여러 교우들처럼 ‘스토리가 있는 성숙하고 멋진 어른’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보니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아닌가 하고 느껴져요. 이 정도가 아니었다면 고집불통 벽창호인 제가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맞춤형이세요.

* 추신 : 사실 우리 새민족 가족 중에 형편이 더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시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해서 집문제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저희 집 상황을 궁금해 하시는데도 차마 못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비싼 수업료 치르고 얻은 삶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여기에 적습니다. 혹시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수라 백작

| 신재필 |

제가 어릴 때 TV에서 즐겨보던 만화영화 중에 ‘로봇 태권브이’와 쌍벽을 이루던 영화가 ‘마징가Z’였습니다. ‘마징가Z’에는 얼굴의 반은 남자이고, 반은 여자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수라 백작’입니다. 만화에는 지구 정복의 꿈을 꾸던 악의 무리가 있었는데 헬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헬박사는 자신의 부하로 활용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던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합치는 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아수라 백작입니다.

요즘 제가 처해있는 현실이 이 아수라 백작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총무, 인사, 노사업무인데, 말 그대로 사측입니다. (사실 사측이란 말이 정확하진 않은데 말입니다.) 12월 5일에 민중총궐기(문화제)가 있었는데 이를 앞두고 회사에서는 공문이 하나 내려옵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 집회이며 불법행위자 등은 현장검거 및 형사처벌을 받는데, 회사의 명예를 실추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요. 저는 제 업무인 관계로 직원들에게 이 공문을 공람시켰습니다. 비슷한 시각, 새민족 카톡방에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기독교계는 아래와 같이 움직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박장로님께서 공지를 올리시더군요. 순간 제가 처해있는 입장이 묘했습니다. “가야되는 건가, 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 결국, 다른 스케줄로 인해 참석은 못했는데, 12월 5일 말고도 이전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윗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다가 TV뉴스를 접하면 그분들은 가감 없이 본인의 생각(물론 보수적입니다.)을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반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마다 마음속에서 “너 왜 너의 생각을 얘기 안하니? 말을 해야 할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 심경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회사 노사관계는 발전 5사 중 제일 안 좋은 편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발전노조가 있고, 2011년 복수노조가 합법화 되면서 발전회사별로 기업별 노조가 발족했습니다. (참고로 기업별 노조는 올해 조합원투표로 한국노총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다른 발전 4사는 기업별 노조가 8~90%를 점유하는데 비해, 우리회사는 48:43으로 양대노조가 거의 비슷한 힘을 가지게 되어 노사간 갈등뿐 아니라 노노간 갈등도 심한 편입니다. 기업별노조가 회사와 협상 중에 있으면 발전노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대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원리적으로 따지면 발전노조의 얘기가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공기업이라는 한계가 있기에 발전노조의 주장에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또한, 기업별 노조는 회사와 현실적인 입장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찾아오려고 하는 모습은 합리적으로 보이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부분에서는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사업무, 노무업무를 한다는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두서없이 현재 제가 처해있는 상황, 회사의 노조상황을 말씀드렸네요.

우리교회가 세월호 유족을 돕고, 순화동 철거주민을 위로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돌아봄에 있어 참 뿌듯하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을 바라보면서 저 또한 답답함을 느끼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과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저와 몇몇 분들과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70년대 봉제공장의 전태일 열사를 기억해 보면서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열악함을 외면하는 지금의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머릿속 고민이 다 정리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하며 사람들을 만나가며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난데없이 어떤 노래가사가 입안에서 뱀도네요.

“내꺼인 듯 내꺼아닌 내꺼같은 너~~”

“사측인 듯 사측아닌 사측같은 너~~”

이상으로 이래저래 고민 많은 이수라 백작이었습니다.



내겐 특별한 가족, 그리고 여행

| 신 하 진 |

5월 1일, 고등학교에서 치른 첫 시험이 끝난 다음 날 우리 가족은 3박 4일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가 여행한 곳은 서천, 군산, 해남, 보길도, 그리고 강진이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곳은 서천과 해남, 보길도, 강진이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서천이었다. 막히는 고속도로를 달려 겨우 서천에 도착한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고 ‘동백정’으로 갔다. 해변을 끼고 솟아 있는 동백정은 작은 언덕이었는데 예쁜 동백꽃이 핀 동백나무가 많이 있었다. 동백꽃은 떨어질 때 꽃잎 하나하나 지지 않고 꽃 자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그 모습은 마치 동백꽃이 땅에서 바로 자란 것 같았다. 동백정에는 민들레 씨앗도 아주 많았다. 우리 가족은 너나 할 것 없이 민들레 씨앗을 찾아 후후 불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한 뒤에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자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맛있는 해산물로 식사를 끝낸 후 근처 해변으로 가서 모래밭에 그림을 그려놓고 ‘오징어 놀이’를 했다. 나는 아빠가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아빠가 게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나를 가차 없이 내팽개치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게임에 몰두한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났다.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를 가족이 함께 해 보니 신기했고 앞으로도 종종 그 놀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날, 우리는 해남으로 향했다. 우리는 해남에 도착하자마자 캠핑장에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끼리만 텐트를 쳐 본 것은 처음이라서 조금 불안했지만 옆 텐트 아저씨의 도움으로 다행히 텐트를 잘 칠 수 있었다. 저녁식사를 하고 나니 비가 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노래를 틀어놓고 둘러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빗소리 덕에 분위기가 좋기도 했지만 비에 젖은 텐트가 몸에 닿아서 불안하게 잠을 청했다.

다음날 우리 가족은 보길도에 가기로 했다. 보길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큰 섬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이 없는 곳은 처음 가 봤기 때문에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나기도 했다.

차를 타고 한참을 헤맨 끝에 우리는 ‘보길 윤선도 원림’에 도착했다. 겨울방학동안에 고전문학을 공부하다가 윤선도의 시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괜히 그 곳이 반갑게 느껴졌다. 세연지라는 연못 옆에 있는 나무와 유채꽃이 연못과 함께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글을 썼기에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 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에 들렀다. 다산 초당은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며 지냈던 곳으로, 많은 책을 써 내고 제자를 길러낸 곳이다. 그 곳에서 쓴 대표적인 책으로는 ‘목민심서’가 있다고 한다. 다산 초당에 방문함으로써 정약용이 어떤 곳에서 생활했는지 알 수 있었다.

3박 4일의 여행 동안 많은 곳을 방문했고, 많은 것을 체험했다. 호화로운 여행은 아니었지만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편한 것만 찾았던 나와 현진이, 우진이가 힘을 합쳐 텐트를 치고 저녁을 준비하는 등 우리 힘으로 일을 해서 뿌듯함이 느껴지는 여행이었다.



내 생활

| 신 현 진 |

내 생활은 학교를 갔다 와서 조금 쉬다가 학원을 가고 그다음은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 예전에는 숙제가 많아서 9시정도에 할 일이 끝났는데 요즘은 숙제가 없어서 할 일이 끝나면 5시 30분정도가 된다. 그래서 요즘엔 할 일이 끝나고 영화를 본다.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은 학원을 안가서 친구들과 야구를 하거나 줌비게임을 한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생활하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서 지루하기도 하다. 토요일은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더 지루하다. 그래서 요즘 티볼(티볼대에 공을 올려놓고 배트로 치고 전원타격제인 야구와 비슷한 운동)부를 다닌다.

그래도 일요일은 교회를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면 영화도 보아서 재미있고, 예배는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설교해 주셔서 재미있다. 또 밥을 다 먹고 영화도 다보면 동생들과 놀 수 있어서 재미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가는 것이 좋다.

나는 새민족교회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지났다. 맨 처음에는 동생들과도 어색했는데 지금은 많이 친해졌다. 이제까지 내가 다녔던 어린이교회 인원은 제주도에서는 60~70명이었고, 청주에서는 100명 정도 있었는데 새민족 어린이교회 인원수를 보고 적어서 깜짝 놀랐다. 하지만 나는 어린이교회 인원수는 지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어린이가 적으면 다 알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제주도와 청주교회에서는 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새민족어린이교회는 방에서 그냥 선생님과 가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다. 서울에 와서 교회를 정할 때 다른 교회는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와 비슷했는데 새민족교회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2014년에는 예배시간이 조금 앞당겨졌는데 나는 앞당겨진 것이 더 좋

다.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면 영화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예배인도를 하는데 나는 예배인도를 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야외예배는 싫다. 왜냐하면 웬지 야외에 나가는 게 싫다.

새민족어린이교회의 동생이나 친구들은 밝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서 좋다. 이제 내년에는 청소년교회에 들어가는데 청소년교회에 들어가면 형, 누나들과 잘 지내야겠다. 앞으로는 교회생활도 더 잘 지내고 학교생활과 평소생활도 더 잘 지내야겠다.

기도손

| 오 지 연 |

산이가 2주전 유치부에서 자신의 손을 본떠 만든 ‘기도손’을 가지고 왔다. 밥을 먹을 때, 자기 전 기도를 하고 스티커를 한 장씩 붙이는 것으로 부활주일날 장식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집에 오자마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바로 시작에 들어갔다. 의욕에 찬 우리 산이 밥 먹기 전 기도하고 스티커 한 장, 밤에도 자기 전 기도하고 스티커 한 장, 그렇게 기분 좋게 시작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빼격거렸다. 정신없이 밥 차리고 먹이고 나면 그제서야 산이가 “엄마~ 우리 기도 안했어.”라고 알려준다. 잠자고 다음날 아침 산이가 “엄마~ 우리 어제 자기 전 또 기도 안했어.” 이른다.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된다. 머리속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리 잘 까먹을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 산이에게도 너무 부끄럽다. 이제는 산이도 반복되는 엄마의 행동과 자책하는 모습이 재미있는지 웃어댄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애들 아빠는 늦게 들어오고 평일 애들 육아는 나의 몫이니 이래저래 정신이 없는데 원인이었겠다. 또 하나는 습관. 습관이란게 무섭다고 나 언제부터가 하루에 1번 기도한다. 밥

에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나도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밥 먹기 전 기도했었고, 한때 직장 다니면서도 퇴근 후 교회 성경대학도 다녔었는데 그 열정은 어디 갔는지…… ‘기도손’이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한다.

나도 산이처럼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일 학교에 대한 단상 하나.

초등학교 5학년때쯤이었던 것 같다. 교회에 달란트 제도가 있었다. 교회 출석하면 달란트 한 장, 성경책 읽으면 달란트 몇 장, 성경 만화 읽으면 또 몇 장, 이런 식으로 달란트를 모으면 몇 달 후에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떡볶이와 순대 같은 분식, 학용품, 머리핀 등 내 기억으로는 참 행복했던 그날. 그 날은 내가 모아둔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축제의 날이었다. 그 날을 위해 열심히 달란트를 모았다. 주일에 교회 빠지지 않는 건 기본이고, 주일학교 선생님께 만화성경이야기를 빌려서 읽고, 무엇보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다. 친구들과의 경쟁도 한몫 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어려운 성경책을 매일매일 많이도 읽었다. 그때 짧아서 달란트 획득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시편, 잠언. 그때도 의미는 다르긴 하지만 열정이 있었다. 달란트가 주목적인……

지금 생각해보니 나에게 주일학교는 여름성경학교와 성가대란 이름만으로도 마냥 즐겁고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다. 그렇게 물 흐르듯이 교회에 출석을 해왔고, (물론 뜨거웠던 적도 미지근했던 적도 있다) 남편과의 만남도 당시 다니고 있던 교회 언니가 소개팅을 해주며 이루어졌다. 만날 당시 남편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았지만 SCA활동을 하고 있었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했다. 교회도 안다니고, 특히 대형교회에 대해서 왜이리 부정적인지, 그런 남편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다. 주일에 만나 데이트 하고 교회 함께 가면 되는데 안 간다고 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 교회 앞에서 헤어지는 것인데, 처음에는 교회 큰 거리까지, 그 다음에는 골목 안으로, 다음에는 교회 앞, 어느새 남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 강남 온누리교회 3부 예배드리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당시 예배드리면서도 남편은 자신의 실수라고 했다.

부부는 같은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에 찾아온 곳이 새민족교회이다. 어렵게 선택한 이곳, 남편은 성가대에 들어가면서부터 금요일 밤이면 성가연습을 한다. 연애할 때 그리 노래 불러달라고 해도 안 불러주더니 요새는 자주 남편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직은 누가 보아도 신앙적으로 초보인 우리 부부와 우리 아이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가족 이제 기도손을 모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란다.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밥 먹기 전 기도, 잠자기 전 기도, 아이와 함께 시작한 ‘기도손’. 우리 가정에도 새로운 가족신앙의 시발점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한다. 또한 산이와 강이에게 나의 어린 시절 주일학교의 즐거웠던 추억을 이곳 새민족교회에서도 맘껏 누리게 되길 바란다. 얼마 안남은 부활절을 위해 기도, 기도를 외쳐볼란다. 그래서 산이의 ‘기도손’에 스티커 열매를 가득 채우리라 다짐한다.



한뼌잠을 자는 즐거움

| 유무상 |

옛날 어른들이 들으시면 한심하다거나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올 일이지만, 나는 일주일에 한번은 한뼌잠을 자고 싶다.

닭장 같은 사무실 공간을 벗어나, 혹은 냉난방이 뽕뽕한 건물을 떠나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운 곳에서 하루를 지내고 싶다.

왜냐고?

잃어버릴 것만 같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야성’을 지키고 싶어서……

지난 주말에는 둘째 병준이와 같이 한뼌잠을 잤다. 낮에는 한낮 뽕뽕을 느끼며, 텐트를 치고, 야구를 하면서 내 몸 속에서 죽어 있는 것만 같은 세포들을 깨우고 땀을 흘리고, 나를 깨웠다.

한밤의 한뼌잠은 평소에 아빠와 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마냥 어릴 것만 같은 아들에게서 평소에 보지 못한 면들을 보고, 평소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같이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눈다.

나는 아들에게 물어본다. 아니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여 주지 않은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기대했지만 끝내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한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아침의 찬 공기는 한뼌잠의 백미다.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별 볼일 없는 야구실력으로 같이 야구를 하다 철수를 하고 교회로 향한다. 간밤의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는 얼굴과 옷매무새지만 한뼌잠의 즐거움과 함께 예배의 즐거움도 같이 누리는 호사를 선택한다.

주말 한뼌잠쟁이인 나는 얼토당토 않게 서른살 예수도 한뼌잠을 무지하게 많이 잤을거라 생각해 본다. 그리고 한뼌잠 속에서 세상을 좀 더 알아 갔으리라고 무리하게 추측해 본다.

나도 아이들도 한뼌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일깨운 것들을 같이 깨우치면 좋겠다.

박제되어 책 속에서 잠자는 ‘정의’가 아닌 살아있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정의’, 부당함에 맞서 저항하는 ‘정의’.

중년의 남자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보수적으로 변한다고 한다. 한뼌잠은 그런 나에게 그러지 말라고 뿌리는 하늘의 방부제 같다.

믿거나 말거나…… 알랑가 몰라……

아침이면 알람에 맞추어 일어나 딱딱 맞추어진 일정에 따라 5일을 사는 나에게 서른살 예수가 잠을 잤을 법한 ‘한뼌잠’은 토요일 밤의 또 다른 복음이다.

잘못하면 복음을 사칭했다고 이단으로 몰릴라……



<설국열차>가 던진 질문: 나는 누구인가?

| 유민지 |

추석 연휴가 끝나던 일요일 밤. 2년 가까이 출입하지 않았던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들이 참 많았지만, 임신 중에는 태교에 안 좋다는 이유로, 출산 후에는 수호를 두고 나가야한다는 죄책감에 영화관 나들이는 늘 좌절되곤 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기필코 보리라 다짐하며 엄마께 수호를 맡기고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봤다는 <설국열차>를 보러 말입니다. 꼭 보고 싶었습니다. 황남덕 목사님의 설교 중에도 ‘계급투쟁을 보여준다.’며 언급됐던 영화였지요? 인터넷에 넘쳐나는 리뷰를 이미 모두 섭렵해 스토리를 알고 있었으나 풍문이 아닌 직접 내 눈으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습니다. 이미 영화가 개봉한지 두 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지난 설교에서도 많은 내용이 드러난 관계로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 없이 글을 쓸 예정입니다. 혹여 스포일러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 글은 읽지 않으시는 게 좋겠네요. 영화를 보는 내내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역시 오래간만에 영화관을 온 남편이 들뜬 마음으로 카라멜 팝콘과 양념감자를 준비했지만 영화가 시작되자 어떤 것도 입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오고, 유일하게 생존한 인간들이 타고 있는 17년째 달리고 있는 설국열차입니다. 그 열차는 각 칸마다 계급이나 역할이 정해져있고, 꼬리 칸에는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우선 꼬리 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꼬리 칸은 한마디로 통제받는 빈민굴입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수시로 점호를 하고 양갱처럼 생긴 단백질 블록이 그들의 유일한 식량입니다. 종종 앞 칸에서 다섯 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이들을 뽑아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왜 데려가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꼬리 칸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숨기고 저항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구타와 팔절단 등의 폭력뿐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터져 오르는 꼬리 칸의 반란. 앞 칸을 향해 전진합니다. 설국열차의 룰을 지배하는 ‘엔진’을 접수하러 말입니다. 전복하려는 자들과 막으려는 자들의 살육전이 이어집니다. 영화는 꼬리 칸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 하는 과정에서 살육전 뿐 아니라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학교, 군대 등)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이 부분은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게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꼬리 칸에는 꼬리 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자(?), 정신적 지도자인 길리엄이 있습니다. 이번 반란의 주도자인 커티스도 그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과거 꼬리 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을 때, 길리엄은 아이 대신 자신의 팔을 먹으라며 내놓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추앙받는, 꼬리 칸 사람들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지요. 그런데 ‘길리엄’은 ‘엔진’을 향해 전진하는 커티스에게 “이제 그만 가도 되지 않겠나,” “사람들의 희생이 너무 많다,” “여기서 협상하자”며 막아섭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죽는 걸 원치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영화 마지막에는 길리엄이 열차의 주인인 월포드와 협력관계(?)였음이 드러납니다. 설국열차가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는 인구를 줄여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때에 꼬리 칸에서 반란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 반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구수를 조정하는 것이지요. 길리엄은 월포드의 정책에 호응해 때마다 꼬리 칸 반란을 주도해 왔던 것입니다. 길리엄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길리엄은 열차가 계속 달리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동의한 것입니다. 꼬리 칸 사람들이 적당히 목숨부지하고 살게 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댈수도 있겠지요. 길리엄을 보면서 예전에 『예수전』을 썼던 김규항씨를 불러 독서토론을 벌였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시민사회 혹은 개혁세력을 두고 ‘바리새파’라고 했었습니다. “개혁 세력은 언제나 있어 왔으며 지배세력은 악의 팽배가 파멸을 가져오지 않도록 조금의 개혁을 허용하고 오히려 지향한다.” 예수의 변혁이 아닌 지배세력과의 적절한 긴

장 관계 속에서 안주하는 바리새파라는 공격이었지요. 새민족교회를 향해 서도 ‘바리새파’가 아니냐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길리엄은 김규항 씨가 규정한 바리새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회년이라는 것을 정말 바랄까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과 나온 사람이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나는 정말로 반대하고 있을까요?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누구나 살 집이 있는 세상을 나는 바라고 있을까요? 나는 정녕 사람을 ‘돈’으로 치환시킨 이 ‘핏빛 자본주의’가 뒤집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적당히 ‘상식’이라는 선에서 이 열차가 계속 천년만년 달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요? 휴우…… 기도하게 만드는 날이네요.^^



2011년에는 꼭 이루어져야 할 세 가지

| 유연수 |

어느 날이었다. 미술 선생님께서 토끼 그림을 들고 계셨다. 웬일로 토끼그림을 그리셨는지 궁금하여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다. 신묘년을 기념하는 그림을 부탁받으셨다고 한다. “이런 내년이 토끼의 해, 신묘년이잖아! 휴~ 그리고 보니 드디어 나보다 어린 띠동갑이 탄생하는 해였군!” 싶어 한껏 들떴다. 한편으로는 어린이 교회에 들어올 우리 교회 장난꾸러기들이 생각나는데다가 6학년,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높은 학년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리가 아팠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까지 느낀 바 중 가장 이루고 싶었던 몇 가지 소원을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로, 행복한 한해를 보내고 싶다. 아무리 시험 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도, 체육 수행평가를 망쳐도(사실 내가 가장 못하는 과목은 체육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넘어가고 싶다. 자꾸만 별것도 아닌 것에 실망하고, 우울하고, 짜증난 2010년을 보낸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분명 평생 성격도 바뀌어 버릴 것이다.

내가 이 글 속에 통일을 원한다고 실어도 “과연 통일을 2011년에 급격히 좋아진 남·북 관계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 싶어 일단 그 이야기는 접어두기로 하고, 최소한 사람들이 전쟁이 날까 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험을 통해서 깨우친 사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다. 어느 날, 병준이와 연우가 싸웠다. 여느 때처럼 연우를 울리지 않고 병준이만 살짝 혼내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병준이와 연우한테 평등하게 대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의자에 동생들을 앉혔다. 평소 혼낼 때의 목소리와는 달리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생각할 것만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야기를 끝내고 나니 모두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 사이에는 서로의 말을 경청해주고 자신이 겪었던 일도 이야기해보았더니 자신의 잘못이 보였나 보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안하다며 서로 안아주었다. 정말 짹~짝 놀랐다. 앞으로도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처럼 국가 관계에서도 말로 해결하면 서로 피해도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2011년에는 6자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조금이나마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남북 관계에 대한 소원을 적다 보니 모든 단체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분명 모두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다. 하지만 만약 모두가 가족이고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그 누구가 친구나 가족과 전쟁을 벌이며 피터지게 싸우고 싶을까? 모두가 가족이고 친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 또한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간 적도 있었다. 이러한 나를 돌아봤을 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절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사실, 나는 완벽해졌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다. 역시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해진다(물론 완벽할 수

는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목표도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확실히 완벽해지는 것보다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못하는 것은 못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은 것 같았다.



내 인생의 전성기

| 유희정 |

수년전에 언젠가 주혜주 사모님이 육아와 직장일에 치여 사는 내게 해주신 격려 말씀이 있었다. “3~40대에는 해야 하는 일도 산더미처럼 많고, 해도 해도 끝없는 일더미에 치여 살게 되지만 여자 나이 50대에 접어들면 드디어 전성기가 시작되더라” 50대에는 육아부담에서도 벗어나고 사회적 성취에서도 진전이 있게 되면서 젊어서 보다 오히려 자신을 더욱 잘 돌보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설명을 들려주셨다. 그때는 그저 꼭 참고 현재의 어려움을 직면하라는 응원 정도로 이해되었었다. 그런데 어느덧 내 나이가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전성기의 50대’의 첫 해를 시작한다. 이제는 명명백백한 50대 중년 여성이 되어가는 거다.

내가 나이 든 사람이란 느낌은 일상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다. TV에서 <시네마 음악 명작 200선>에 흘러나오는 음악들은 모두 내가 2~30대 시절에 한창 좋아했던 음악들이다. 내가 청년 시절 좋아했던 영화음악이 이제는 명작 반열에 올려져 있다는 것이 낯설다.

새로 입을 옷을 사러 옷가게에서. 이전 같으면 손이 가는 옷들을 거울에 비쳐보고서는 어색한 내 모습에 내가 놀랄 정도이다. 젊은 감각의 옷들과 주름진 내 얼굴이 생똥맞다.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점은 50대 여성에게는 멋진 스카프가 패션 필수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나이든 얼굴에는 멋진 옷 한 벌 보다는 얼굴 피부색에 잘 어울리는 스카프가 화사한 느낌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 늙어 가면서 옷차림에도 얹고

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을 보면 한없이 사랑스럽고 풋풋하다. 한번은 업무 미팅이 있어서 국방부 건물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출입확인을 해주는 헌병대 군인들이 우리 아들 친구 같아서 허그해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한마디로 주책스런 충동이 수시로 발생한다.

나이 먹어 좋은 점도 있다. 일단 퇴근 이후에 불안에 쫓기는 마음을 줄였다. 아이들이 어려서 저녁 챙겨 먹여야 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요즘에는 퇴근 후에 지친 나를 위해 담원이 ‘김치수제비’를 직접 만들어 주는 호강을 누리기도 한다. 아이들이 자란 덕이다. 무엇보다 이전보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

오늘에 이를 수 있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과연 주혜주 사모님 말씀처럼 ‘여자 나이 50대’가 전성기라면 적극적으로 인생의 ‘햇빛’을 찾아 누리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다. 온전히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나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은 새롭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될까 싶은 정도. 이런 시간조차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흠뻑 충만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앞으로 나의 과제이다.



교회로 향하는 새벽길

| 이경아 |

새벽기도 5일째(12월 4일).

눈이 많이 온 후라 하늘이 깨끗하여 예쁩니다.

이쁜 하늘이 새벽에도 보이는 것은 반달인 하현달이 있어서입니다.

다 채워지지 않은 그 부족함이 꼭 찬 보름달보다 더 멋지게 느껴지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왼손잡이인 저는 상현달보다 왼편이 불룩해져 있는 하현달을 더 좋아합니다. 이 하현달 덕분에 달 옆에 있는 별도 보이고 하얀 구름도 보여 예쁜 새벽하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하라는 일기예보로 평상시에는 필요 없어서 떼어 놓았던 모자를 겨울 점퍼에 붙이고 입어보니 달 착륙한 우주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역시 신소재가 좋네요! 머리도 훈훈하고 허리도 따듯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털실 옷을 입어서 몇 해만 입으면 낡아져 여기저기서 바람이 승승 들어왔었는데……

5시 38분. 지하철 4호선의 새벽 첫차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지하철 첫차 시간을 다 외우게 되었네요.

우르르 사람들이 타서 좀 밀려났습니다. 첫차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이른 출근족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새벽부터 어디를 향하는지 할머니 그룹도 꽤 많은 수를 차지하여 전철이 꽉 찹니다. 앓을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동대문운동장을 지나 서울역에나 와야 앓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 탄 후에 교회에 도착하니 6:35. 바로 기도회가 시작되려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영자언니, 성림언니와 나. 이렇게 5명으로 시작.

영자언니(권사님)의 충만한 영성의 표출과 우리들에의 환원, 일상생활에서 동행하여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등의 열기로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로 연장을 하였고, 이 은총은 끝마친 날 아침 권사님의 뜨겁고 힘찬 식사 시간의 기도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불교 집안인 저는 새벽기도회를 특별히 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사순절 기간에도 이를 정도). 어린 시절 외가집 여인들이 새벽에 찬송을 하는 모습을 가끔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사촌들 집에 가면 큰어머니께서 열심히 불경을 새벽에 읽으시는 모습을 잠결에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holy해 보여 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지인(知人)들을 보면 중요한 일들이나 심란한(?) 일들이 있을 때 한 달 쯤 작정하 시면서 새벽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흥내를 내어 보았습니다.

어떠한 응답을 해 주실까…… 일주일 동안에…… 글썄……

새벽기도 = 접촉+준비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지 못해 다른 세상의 여러 분주한 일들의 옆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교회로 가는 스스로가 정한 강제성에 매인 기도회에 참여함으로써 내 몸과 내 생활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서 여는 것.

이렇게 하루가 시작됨으로써 많은 사건과 생각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응답을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성을 갖는 몸과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새벽을 여는 기도도 가능하겠지만 기도 동료인 성림, 영자, 정희가 있었기에 일주일을 지켜내는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나백수’라고 불리는 현재의 제 이름과, 아침 5시면 원래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 스타일이 새벽기도회를 훨씬 쉽게 결심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저녁형 인간’들은 다음 기회에 “1주일의 심야기도회”를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요? 은혜가 쏟아져 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에 관한 몇몇 단상들

-그리 심각하지 않은

| 이 경 한 |

1989년 6월(내 나이 25살, 이제까지 26살로 알고 있었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 우리집 객관적인 상황이 누가 봐도 허를 찔끔 찔만 했다. 시집 안 간 딸이 여섯에(변변한 직장이 있던 사람은 하나, 본인은 학습지 방문 교사로 일하고 있었음), 유일한 아들인 막내는 삼수생이었다.

그때 우리집 조문객들의 표정은 자못 비장했다(일산에 신도시가 들어서기 직전 89평의 농가에 살았었음). 그러다 몇 분 안 돼 표정을 바꿔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몇몇은 코를 싸쥐고, 몇몇은 옆 사람들에게

마당 가득한 냄새의 정체에 대해 듣고 입도 코도 싸쥐며 웃어댔다. 우리 집 마당 가득히 진동하던 냄새는 우리 집 여자 여섯(셋은 따로 살았고, 고모할머니 한 분이 우리집에 같이 살았음)과 두 남자가 겨울내내 허실 없이 요강에 받아 거름되라 뿌려 댄 오줌냄새였다. 우리 자매들은 그때 흰 블라우스에 까만 스커트를 통일해서 입었고, 대다수 젊었기에 예쁘고 처연한 외양은 갖췄으나, 진정될만하면 집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에 엄숙함을 시종일관 유지할 순 없었다.

아버지 묘소가 남대문교회 동산 묘지 내에 있다. 아버지 묘소를 처음 10 년여는 알뜰히 돌보고 지켰다. 아니 옆 묘소 후손들과 영역 다툼을 심하게 했다 이를 테면 옆 묘소에서 자기들 영역을 넓히느라 우리 묘역에 더 가깝게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더 키가 큰 나무를 심는 식이거나, 성묘 때마다 상대방 나무를 심하게 흔들어 놓거나, 큰 가지 하나를 불품없이 잘라내는 식으로 못되게 굴었다. 그러다 차차 성묘 가는 식구 수나 횡수가 줄어들자 힘쓰는 일, 못된 짓도 줄었다. 짓궂은 일도 한 때인 것이, 성원 각자가 힘이 있고, 패거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 신나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예 아버지 묘소도 올라가 보지 못했다(일행들보다 늦게 도착한 나와 이인근씨는 올라다 보기만 했음). 연로하신 어머니 핑계를 대며 교회 묘역 가장 낮고 평평한 자리에 돛자리를 펴고 가족이 둘러앉았다. 추석이 한달 남짓 남았으므로 교회 묘역 전체가 풀이 무성했지만 우리는 폭신한 것에 만족했다.

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장만하느라 누군가는 분주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짐을 옮기느라 어깨 빠근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벌초 도구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식구들 일반의 무심함을 탓했을 것이지만 이날은 달랐다. 날씨에 감격하고(태풍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비가 온다던 날이었으나 그때까지 비가 오지 않음) 많은 식구들에 새삼 놀라워했다.

우리는 어머니께 받고 싶은 유산에 대해 얘기했다. 나는 어머니와 닮은 내 외모에 안도하고 만족한다고 했고 막내는 추도 예배 때 부를 찬송가를

짧고 그리 구슬프지 않은 것을 지정해 줄 것을 어머니께 주문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남편보다 23년이나 더 살았다” 라고 짧게 말씀하셨다. 나의 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모현 호스피스로부터 방문간호를 받기 시작했다.



어느 멋진 오월, 이근복 목사님과 인터뷰

이근복 목사님께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회원장으로 시무하시게 된 후 목사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곳에 한번 찾아가서 점심을 함께 해야지 하는 오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계기로 뵙게 되었으면 했는데요, 인터뷰는 일정상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인터뷰로 진행이 되었구요. 대신 2월에 김영철 목사님께서도 받으셨던 랜드마크 포럼이라는 수련을 지난 주말에 같이 받으면서 목사님과 3일간 점심과 저녁을 같이 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럼 늘 선한 웃음과 따뜻함과 강직함이 함께 하시는 이근복 목사님을 함께 만나 뵈어요.

1. 유년시절과 소년시절, 목사님은 어떤 아이, 어떤 소년이었나요? 또 꿈은 무엇이셨구요?

■ 충청도 산골에서 일하고 자연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산과 나무, 꽃을 좋아하나 봅니다. 학교에서 별 자극도 못 받고 부모님은 서울에 계셔서 할머니의 돌봄을 받아서인지 별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집안이 망하여 땅을 다 잃는 것을 보고 농장을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2. 목사님과 책을 떼어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책벌레신데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을 세권 고르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영화도 두편 말씀해주세요.

■ 책벌레까지는 아니구요, 될 수 있으면 책을 잘 읽으려고 노력하지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책은 이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 헨리 나웬 신부의 『안식의 여정』, 독일성서공회관 『성경』. 인상적이었던 영화는 <사막의 라이언>, <인빅터스>(만델라 전기영화).

3. 목사님께서 지금 시무하고 계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훈련원은 어떤 곳인가요? 또 올해 중점을 두어서 하시는 사업은요?

■ 교회협 선교훈련원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을 확장하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문학독서모임과 지역사회 심포지엄을 통하여 건강한 목회자들을 훈련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사회의 리더십을 회복하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도력인 신학생들을 건강한 지도자들로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 외 한국교회가 홀리스문제 등 가난한 이들을 껴안고 선교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사역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해온 사역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4. 그동안 선교훈련원장으로 활동해 오신 소감은요? 그리고 일반 교회 목회자와 기관 목회자로 각각 사역해오시면서 느끼는 차이점은요?

■ 아무것도 없이 선교훈련원을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조금씩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한국교회를 염려하며 도와주려는 분들이 많다는 것과 새로운 의미있는 모험은 늘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건강한 목회자들이 더 많이 있어서, 이들을 묶어세우는 과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목회와 기관목회의 차이는 선교훈련원의 사역은 아무래도 일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목회에서 갖는 친밀한 관계형성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목회와는 달리 폭넓게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더 넓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기관목회는 복잡하고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관계가 많습니다.

5.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가장 기뻐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 1차 대학입시에 떨어지고 2차 대학에서 맞이한 대학생활의 시작은 견디기 힘든 일여서 삶에 아무런 의미를 느낄 수 없었는데, 너무 친구들과 비교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장 즐겁고 좋았을 때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새민족교회를 세워갈 때였습니다.

6. 목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새민족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새민족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시무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새민족교회에서 비로소 제대로 목회를 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부족하였지만…… 새민족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와 함께 교회사역하는 것이 참 의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민족교회는 평신도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는 ‘공동목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나 평신도에게 존재의 의미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하나님나라를 위해 긴밀하게 결합하는 공동목회는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라고 봅니다.

7. 새민족교회의 공로 목사신데 책임을 너무 소홀히(?) 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웃음), 앞으로 새민족교회를 위해 기여하실 부분은 없으실까요? 요즘 재능 나눔 이런 것들도 활발한데 분기별로 한번 씩이라도 설교 기부를 하신달지요?

■ 저는 새민족교회가 선교훈련원으로 파송한 목사입니다. 밖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공로목사의 존재이유라고 봅니다. 매일 새벽시간에 새민족공동체 지도자들과 교우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가

장 큰 기여라고 봅니다.

8. <내 인생에 있어서 주 예수 사모님은 000이다.> 000 안에 들어갈 말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그리고 사모님께 이 기회를 통해 한 말씀 하신다면요?

■ 가장 확실한 동반자입니다. 저를 늘 든든하게 잡아주었고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9.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 지금과 같은 목회자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봅니다.

10. 끝으로 새민족 교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새민족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주일마다 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에 갈 때마다 새민족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생각이 더욱 짙어집니다. 교우들께서 김목사님과 함께 내적 영성과 외적 실천이 결합한 삶을 살고, 무엇보다 새민족공동체를 더욱 즐겁게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도전과 그리움 그리고 길동무

| 이 명 희 |

2015년의 시작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나 어릴 적 꿈은 조그마한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 간호학을 전공하고 5년 동안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나의 길이 아닌 듯 적성에 맞는 듯하면서

도 힘들게 일하면서 결혼 후 그 일을 그만둔 게 홀가분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꿈 같은 걸 꾸어보았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40대 중반에 정신건강을 위해 악기를 배우려고 꿈꾸었을 때 스쳐지나간 간판에서 본 아코디언이라는 악기에 꽂히게 되었다.

하루에 3~4시간 연습하면서 어깨와 손목 통증으로 한의원을 다니다가 그만 포기하려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용납되지 않아 지금껏 잘 하고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맛보면서 지금의 학원에서 공부하다 강사 제의를 받고 실력은 부족하지만(?) 기초반은 꼼꼼하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재능을 노후에 취미활동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나 자신의 일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싶었다.

마이크 울렁증이 심하여 앞에 나서서 하는 일은 자신이 없는 성향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추천으로 하게 된 친교봉사부장의 일 또한 도전이었다. 부서원으로 성실히 묵묵히 맡은 일 하면서 지원하는건 자신이 있는데……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이 두 가지의 일은 나에게 삶의 변화와 더불어 나 스스로 나를 발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나에게 아코디언은 그리움이다.

문득 그리움이라면 떠오르는 사람 친정아버지. 딸이 하는 일을 알고 계시면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실 아버지가 그림다. 딸의 연주 모습 한번 보시지도 못하고 떠나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가끔 딸의 반주에 “청춘을 돌려다오.”를 부르실 아버지를 상상하며(눈물난다……) 아버지 같으신 수강생 어르신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스스로가 대견하다.

평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악기를 익힌다는 게 멀고 험한 길이라 생각되지만 난 긍정적인 꿈을 그리고 있다. 목표를 정하게 하고 함께하면 즐거움이 배가 되고 정신건강에 참 좋다는 말로.

친교봉사부 일도 그리움이다. 가끔 앨범을 꺼내보면 출산 때, 아이들 돌 때, 특별한 행사에 교우들의 편지글로 가득한 카드나 사진을 보며 아름다

운 추억을 떠올린다.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가정의 달 행사 또한 나에게는 먼 훗날 그리움으로 기억될 것 같다.

아코디언을 처음 배울 때의 목적은 치매예방과 아코디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파서 시작했는데 직업이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내 인생길에 동무가 되어있는 아코디언이 넘 좋다.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 더 좋다.

수업이 비는 시간에 인사동 어느 찻집에 앉아 이 글을 쓰면서 글 쓰는 거 싫어하는 이명희에게 새민족은 새로운 나를 또 찾아준다. 고마운 일이다. 그냥 감사하면서 나랑 함께 살아가주고 길동무가 되어주는 새민족에게 감사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 글이 감동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가족을 꿈꾸다

| 이미옥 |

안녕하세요. 7월 5일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이미옥입니다.

3주전에 제가 글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주제로 쓸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이야기를 쓸까? 내가 좋아하는 문화예술 이야기를 할까? 어떤 주제가 가장 저의 진실을 담아 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내가 결혼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롭게 맞이할 가족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과 다짐에 대해서 써야겠다.’ 라는 마음이 섰습니다.

모두 그렇듯이 저도 아직 종룰씨 집에 가면 늘 두근두근 합니다. 편하게 대해 주신다고 하셔도 혹시 실수 하지 않을까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따뜻한 가슴의 정이 흐르는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저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렵기만 하고 버텨내야만 하는 분 들이 아니라 저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은 역설적이게도 결혼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였습니다. “최대한 멀리 서로 터치 하지 않고 살아야 편안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왠지 슬펐습니다.

“축복된 결혼으로 만난 가족들이 꼭 그렇게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로 귀찮은 존재로 나뉘어져야 하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첫 번째는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자였습니다. 피하지 말고 함께하자! 이렇게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기’였습니다. 아직은 어려운 분들이지만요. 가슴 뜨겁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 받고 싶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뜻함이 흐르는 가정 신뢰가 흐르는 가정이 되는데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부모님께 예쁘고 향기로운 모습으로 신앙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사는 잘 지낼 생각입니다. 제사 음식도 정성껏 만들 생각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숭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준비를 하는 제 마음에는요. 그래서 흔히 교회에 다니는 머느리가 들어오면 하시게 되는 고민을 부모님께 안겨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저 됄을 잃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가정 안에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고민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최대한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편이라

서 가족 안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맞추려고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대신 가족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 주고 그 안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 스스로 인정하며 맞추어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설레고 떨리는 새로운 나의 가족.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010년의 대학생

| 이민하 |

월요일 아침, 익숙하게 학교 건물 앞에 놓여있는 ‘대학 내일’이라는 잡지를 집어 든다. ‘대학 내일’이라는 잡지는 대학생들이 무료로 읽는 잡지다. 그 안에는 대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 예를 들어 시사(아주 조금), 패션, 인기 있는 블로그 이야기, 유명인사들의 직업이야기 등이 실려있다. 하지만 어느 새부터인가 기사보다는 광고가 더 많다. 거기에 실린 광고는 어느 잡지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대부분이 인턴십, 공모전, 홍보대사 등에 관한 광고 글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요즘 대학생들 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런 활동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든지, 뜻 깊은 활동이었다든지 등의 반응은 저런 광고 글처럼 쉽게 접할 수 없다. 뭘 위한 활동이지?

열심히 대학내일에 실린 광고글을 뒤적뒤적 거리던 중 내 마음에 쏙 든 문구를 발견했다. ‘오지탐사대’. 이름부터가 뭔가 매니아틱하다. 붙으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산에 보내준다고 쓰여 있다. 이미 ‘오지’라는 단어에 끌린 나는 시험기간에 부랴부랴 지원서를 썼다. 알고 보니 그 프로그램은 한 해에 65명 보내주는데 4000명이 지원하는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1300명이 지원해 예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율을 보였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시험기간에 서류신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게 뭐 그리 대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데모가 일상이었던 시절에 대학교를 다녀 수업거부, 심지어 시험거부가 자연스러웠던 시대를 살았던 분이라. 지금 대학생들의 시험기간은 수능의 연장선같이 보인다. 외우고 또 외운다. 특히 요즘 들어온 새내기들은 선배들의 취업난을 익히 듣고 들어왔기 때문에 고3때 공부했던 버릇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마치 고등학교 4학년 처럼 독하게 공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이 1/3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프로그램에 합격한 사람들이 내야 하는 돈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 것 때문이다. 70만원을 벌려면 편의점에서 시급 4,5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156시간 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짜로 보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물론 합격하기 정말 어렵지만) 70만원이나 내야 하는 현실이 버겁다. 학자금대출 때문에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빚쟁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대학생이라면 더더욱 버거울 것이다.

4학년 즈음 되니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꼭 취업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는다. 취업하기 어려워 고시에 너도나도 달려드는 것을 보면 이제 취업고시라는 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와중에 나는 오지에 가겠다고 안하던 운동까지 하고 있다. 그래도 ‘저 새들도 다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는데 나를 굶기시진 않겠지.’ 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으며 살고 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고3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나 보다.



“안돼요 선생~~님”

| 이영순 |

나는 1997년 7~9월에 걸쳐 두 번의 수술을 받고 교우 분들의 기도와 주님의 사랑 속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

역력이 약한 나는 조금만 피곤해도 코피가 나고 감기도 자주 걸리곤 하였습니다. 일하면서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면역력이 생겼는지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검사를 할 때마다 불안과 두려운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3년 전 교회에서 하는 영성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성수련을 통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말씀과 수련을 통해 두렵고 자신감 없이 살았던 나는 씩씩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고 평안한 마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보이지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상상으로 힘들게 한 나의 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합병증으로 인해 좋지 않은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영성수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려오는 두려움…… CT촬영, 조영술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또 받았습니다. “증상을 더 지켜보자.”며 “일년 후에 다시 검사해보자.”라는 교수님의 말씀, 또 다른 기적을 간구하면서 수련을 통해 배운 것을 시도하고 기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즈음 다시 영성모임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안 할꺼야, 하고 싶지 않아.”하면서 저는 마음문을 닫고, 참여하지 않은채, 첫째날 수련은 지나갔습니다.

둘째날은 웬지 집에 있기가 아쉬워, 나도 모르게 준비된 마음없이 나의 발걸음은 터덜터덜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닫힌 마음으로 갔으니 수련이 잘될 리가 없었습니다. 시간내내 말씀이 부정적으로 들렸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하였습니다. 둘째날, 셋째날, 그런 마음이 계속 되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날 “들을 귀 있는자는 들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아! 그렇구나!”하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생각으로 듣고 머리가 시키는대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만 커져갔던 나 자신을 마지막 수련회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생각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순간 평

안이 넘쳤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두 번째 검사를 하는 날 그냥 느낌이 좋았습니다. 일주일후 병원을 다시 찾았을때 교수님께서 “이제 안와도 돼요, 증상이 오면 바로 오시구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안돼요. 선생님 검사받아야해요. 선생님……”하고 졸랐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오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련을 통하여 삶속에 나의 생각이 아닌 일어나는 일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마음이 다시 힘들어지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발자국 남기기

| 이 인 근 |

요즈음 나는 토요일에 주로 산행을 한다. 근래에 자주 다니는 산은 충남 예산에 있는 산이다. 예산에는 400~500m 고지인 관모산, 용굴산, 토성산, 덕봉산, 도고산이 이어져 있다. 아침 8시 30분경에 수원역에서 기차를 1시간 정도 타고 가면 예산역에 도착한다. 예산역에 도착하여 20분쯤 걸어가면 금오산 자락에 이르고 그로부터 30분쯤 더 오르다 보면 땀에 흠뻑 젖어 금오산 정상에 있는 정자에 다다르게 된다.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정신이 나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산에 오르는 것은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내 경우는 산에 오르다 보면 세상살이를 하다가 생긴 양심(兩心)을 일심(一心)으로 모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땀이 나고 숨이 가빠오기 시작하면 맘을 아프게 했던 학생의 말이나 행동들, 서운했던 동료들, 그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상처를 주었던 일과 상처를 받았던 일 등으로 인해

심란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일심으로 검은등뼈꾸기의 울음소리와 소나무, 잣나무 향에 취해 버리곤 한다.(검은등뼈꾸기는 일명 ‘홀딱새’라고도 함.)

내가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한 때는 20대 후반, 하늘의 것에 몰입되어 땅의 것과는 서서히 결별할 때 즈음이다. 그 해 1월, 단신으로 버너 등의 장비나 식량이 전혀 없이 라면 몇 개와 약간의 여비만 가지고 구례 화엄사에서 시작하여 당일 저녁에 연하천 산장에 도착하였다. 그날 구례 화엄사에서 노고단으로 가는 노정에서 보았던 황금빛 아침 햇살, 다음날 새벽에 보았던 달빛에 비친 지리산의 전경은 이후 내가 줄기차게 산을 찾게 된 인상(印象)이다. 중산리 마을에 이르게 되면 한 발도 더 떼기 힘들 정도로 몸은 피곤하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아서 과랴게 될 정도가 된다.

그 후로 지리산 종주는 5회 정도하고 주왕산, 태백산, 설악산, 소백산, 덕유산, 속리산을 오르고 인천에 살 때는(총각 때) 매달 1번꼴로 마니산에 올랐다. 마니산은 강화도에 있는 해발 500m가 안 되는 산이지만 정상에서 함허동천으로 이어지는 바위능선을 걷노라면 강화 갯벌이 그려 눈 반짝이는 그림을 보면서, 내가 평지를 걷는 지 바위능선을 걷는 지 구분이 안 되어 발을 헛딛을 때도 있다.

수원에 살게 된 다음(이경한씨와 같이 살게 됨)부터는 계룡산을 자주 다녔다. 공주까지는 수원에서 1시간 30분 정도면 갈수 있기에 하루 산행으로는 적당한 코스이다. 봄에 자연이 그린 수채화를 감상하려거든 이른 봄에 자연성능 길을 걷기를 추천한다.

요즘 들어서는 낮은 산도 찾고 트래킹도 즐긴다. 아내와 함께 제일 처음 걸은 곳이 해남 일대다. 그 후 보성, 순천, 경주 남산 일대, 제주 올레, 지리산 둘레, 남해 바랭이 길을 걸어 보았다. 남보다 앞서 봄을 맞으려거든 이른 봄 남도 일대를 걸어보시라.

누군가는 살아서 발자국을 남기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이 산천에 나의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가능한 많이 남기고 싶다.



평생공주, 맑은 시선을 회복하다

| 이재숙 |

갑자기 마음이 환하다. ‘안 가’에서 ‘가자’로 생각을 바꾸는 순간, 파주 교하에서 양평 가시오산염연수원까지 가는 길이 확 열린다. 며칠 한반도가 다 떠내려 갈 듯 퍼붓던 하늘이 잠잠하다. 뉴스에 긴장한 주변 사람들의 염려를 뒤로 한 채 한산한 도로를 달린다.

반가운 히치하이크! 차안에서 뛰어나와 온몸으로 안기는 어린 마음, 무거운 짐 받아들며 내미는 따뜻한 손, 편안하게 자리를 내주는 자상한 배려 그리고 헤리포터에서 무너도까지 각종 이야기를 싣고 차는 경쾌하게 달려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다. 아, 그렇게 안 보이던 여름해가 짹짹하니 새민족 수련회의 시작을 알린다.

새민족 비상사태를 감지한 영민한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씩 둘씩 풀리기 시작한다. 살짝 창의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리더십에 유쾌하게 따르며 순간순간 할당되는 일들을 펼친다. 저녁밥은 없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마법처럼 푸짐한 식탁이 마련된다. 힘들게 보낸 살들이 돌아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 예구구 큰일 났다.

짐 풀고 몸 풀고, 찬양으로 소리를 깨우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몸을 깨우기 위한 공동체놀이, 진짜 몸이 말을 안 듣네. 우두둑우두둑 굳어진 근육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만 야속하여라.

삼삼오오 강당으로 들어서며 웃는 교우들, 평화와 생명을 향해 한 마음으로 시작 예배를 드린다. 흐르는 땀을 선풍기로 씻고, 중미산의 계곡바람 푸른 바람으로 마음을 씻는다. 아침을 위하여 흠어져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펜션 앞마당을 흐르는 계곡 물소리가 어찌나 큰지. 으앙, 아가도 잠자리가 낯설었나보다. 이래저래 아침이 오고 있다.

해가 뜨려나? 밤새 뒤틀린 몸을 펴기 위하여 다양한 몸동작을 따라한

다. 둘러보니 여성 교우들의 몸매가 예쁘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예년과는 달리 남성교우들의 수가 적다. 여성들이 예뻐진 것을 보니 곧 멋진 남성들이 찾아올 듯. (믿음대로 될지니, 필자부터.^^) 정성스런 아침상에 앉는다. 교우들의 손맛이 꿀맛이다. 항상 빗진 마음이다. 이런 빛은 저도 저도 망하지 않고 흥하리라!

강의의 결과는 상관없이 잠시 졸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 강의 시간이다. '성경원전에서의 생명 평화'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깨어나는 시간,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었기를 바라며, 가을에 주원규 목사님의 원전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니 궁금하신 교우들은 수요일에 함께 하시길.

또, 맛난 밥을 배불리 먹고 계곡으로, 냇강으로 일부는 중미산 자연 휴양림으로 헤쳐 모여를 한다. 중미산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풀어놓는 숲해설가, 척척 장단을 맞추는 우리들에게 보너스 시간까지 더해가며…… 해박하게 넘나드는 숲과 사람들 이야기…… 백 년 사는 나무는 죽는데 이백 년 걸린단다. 완전히 존재를 비울 때까지, 숲의 평화를 위해 사회 환원하며 구도자의 삶을 살다가는 나무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하며 빠이빠이. 저녁이 오는 동안 계곡으로 가~요. 가슴속을 관통하는 쉼-한 물소리와 바람, 뜨거워진 열기를 식히기 위해 그녀들에게는 특별한 비타민 음료가 필요했다. 주님처럼 계곡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없어 2층 냉장고의 음료가 바닥을 보일 때까지 오르락내리락. 힘차게 흐르는 계곡물에 여성교우들의 낯선 마음이 단힌 관계의 고리가 확 풀어졌음을 믿으며, 이 에너지가 널리 발산되기를.

배를 든든히 한 후 찬양으로, 생명 평화를 위한 감수성 워크숍으로 생각을 열어보는 시간. 바닥을 본 자는 올라야 할 높이를 재는 법이다. 새민족 회복을 위한 속 깊은 이야기가 꽤 털렸나보다. 뒷풀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필자가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니……

새빨간 숯불 위에서 구워진 살들이 우리들의 살을 찌운다. 절정의 시간, 낮에 맞이한 주님을 위해 자리를 피했건만, 헛수고. 중미산 자락을 뒤흔드

는 사자성어에 이끌려 합석한다. 여성주도로 이루어지는 판이 무척 유쾌하다. 진행자의 카리스마 작렬. 듣고 싶었던 농부가를 부분적으로 들으며 그간 쌓인 감정탑이 와르르 무너지다. 주(?)님의 힘은 때로 위대하다. 새민족이여 영~원하라. 무릎팍 도사가 남셨나보다.

기타줄이 끊어지고, 내 안에 너무 많은 나를 방출하고, 주(?)님이 비워지고, 70 80식의 노래가 계속 되는 동안 웃음이 터지고, 더덩실 어깨춤이 터지고, 마음이 터지고, 세대 교체의 외침이 커질수록 살아나는 살아나는…… 그래 다시 시작이다.

대단했던 밤이 가니 어김없이 아침이 오더라. 후다닥 시간이 가고 있다. 콩나물 해장국으로 시원하게 속을 달래고, 브레인스토밍으로 새민족 희망을 말하다. 쏟아져 나온 의견들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실을 것을 약속하며 한마디만 쓴다.

“여기서 나온 의견 무조건 믿어보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단체사진을 찍는데 빗발이 점점 굵어진다. 해를 안고 왔다 비를 안고 떠난다. 평생공주의 수련회는 끝났다. 그러나 평생공주의 삶은 계속 된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

| 이재황 |

“눈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늦봄 문익환 목사님이 예전 평양을 방문하셨을 때 도착성명에서 인용한 한시로 백범 김구선생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하지만 아직도 그 한길을 걷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다.

예전 민중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 대학로를 썰렁썰렁 울리던 이. 황석영, 고은과 함께 재야의 3대 구라로 불리던 이. 『자주고름 입에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라는 책을 통해 딸에게 아니 이 땅의 여성들에게 많은 울림을 전해주던 이 노나메기-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하여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올바르게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지금도 애쓰는 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엄청난 축구광인 그. 바로 백기완 선생이다. 황해도 은율에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남으로 내려 온 그는 2002년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 선수를 상대로 특강을 하였고, 그 인연으로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한국에서 만난 가장 한국적인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기도 했다. 얼마 전 백기완선생이 팔순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알았다. 성치않은 몸을 이끌고 지금도 민중의 삶이 고난받는 현장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시는 백기완 선생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릴 뿐이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뭐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해직된 언론인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뉴스 ‘뉴스타파’의 첫머리에 나오는 한 문장. 어눌하지만 그러나 깊은 울림을 주는 말썹의 주인공 바로 리영희 선생이다. 『전환시대의 논리』 등 수많은 저서를 통해 우리를 허위에서 벗어나 진실의 마당으로 나오게 했던 분. 일생을 한 길만을 걸으셨던 분. 어느 샌가 조중동은 군소매체로 불리우고 기자들은 ‘종업원’으로 불리우는 사이비 언론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리영희 선생의 빈자리는 참으로 크다.

회사에서 점심 식사 후에 갖는 티미팅 시간은 여기가 회사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잘 안간다. 사장과 고문님 모두 교회 장로이시다. 한데 그중에서도 고문님에게 요즘 참 많은 것을 배운다. 회사에서 공무(말이 공무이지 온갖 공사를 도맡아서 하는 분이시다.)를 맡고 계시는 고문님은 전직 장(김세준 집사가 다니는 회사)에서 은퇴하신 후에도 중장비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셨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성경공부를 꾸준히 하셨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술도 일체 끊으셨다고 한다. 지금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아침에 출근하셔서 명상음악을 틀어놓고 계신다. 며칠전 아침

식사시간에 내 스마트폰의 Daily Bible의 데살로니가전서 5:16 이하 말씀을 읽어드렸더니 오늘 아침 라디오 설교시간에 마침 그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매우 좋아하시던 모습은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올해 1월 장로임직을 하신 후에 더욱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는 고문님의 뒷모습이 참 아름답다.

안치환의 노래 가사처럼 “살아 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요즘 내 소박한 소망이다.



이종률, 그리스도인 되기

| 이 종 료 |

한 사람이 종교를 가지는 과정, 특히 개신교로 들어오는 과정은 개개인마다 참으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그 길로 들어섰을 것이다. 누군가는 진리탐구의 과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가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 또한 자라오면서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과 마주했다. 유치원 때는 1층에 세든 내 또래의 여자 아이가 항상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같이 갔었고, 못 살던 형편에 초코바와 요구르트를 주는 것이 넘 좋았다. 고등학교 때는 미션스쿨의 강압에 반항하던 시절이었고, 대학 때는 어쭙잖은 철학적 지식으로 유물론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멀리 했었다. 그래도 항상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었고,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집 1층의 주인집 아주머니였다. 부부가 두 분 다 교회 건축헌금 내신다고 적금까지 들 정도로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니셨지만 한 번도 교회를 다니라고 강요도 하지 않으셨고 주변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면서 항상 모범적인 삶

을 살아가시는 분이셨다. 우리가 세입자였지만 항상 이웃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아주 좋은 분이다. 그런 분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지금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시지 않는다. 강북의 가난한 동네에서 일산에 부자동네로 이사 간 교회의 목사님은 헌금을 더 많이 내는 새 신자를 더 챙기시고 차별하시는 모습에 수십 년 다니던 교회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발길을 끊으신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개신교를 믿는 여자와는 사귀지 않겠다고 하던 나는 지금 여자 친구의 손길에 이끌려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지금이나 개신교에 부정적이던 과거나 내가 마음을 바꾸는 계기는 사람을 통해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종교가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기 보다는 배척하고 구별지으려할 때 나는 거부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선 것은 어쩌면 평화와 사랑의 길로 가는데 이 길이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배척하고 탄압하는 자에게 멀리했던 마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로 들어섰듯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전파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단 한번뿐인 삶

| 이지현 |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십대의 저 자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십대 때보다 더 많은 기회와 다양한 경험이 찾아올 것이고, 그로써 더욱더 성장하리라고요. 후회 없는 오늘과 빛나는 내일을 위해선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지현의 십대는 어땠나 곰곰이 되짚어봅니다.

또래와는 조금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도망치듯이 학교를 나온게 시작이었군요. 방황을 거듭하다 미디어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미친 듯이 영화 찍고 놀았어요. 영화를 좋아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좋아했던 오빠보러 학교 가는 날이 더 많았던거 같고요. 그 뒤엔 제가 진정 하고 싶은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고민해봤자 소용없단 걸 점차 깨닫게 되고, 대학부터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토익을 공부했네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시작했고 많이 배웠지만 결국 남은 건 스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된 거 같습니다. 금전적인 한계나, 스펙 같은 것들이요. 제 친구가 매일 노래처럼 하던 말이 떠오르네요.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다고.

작년 초까지만해도 자기계발서에 심취해서 뭐든지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뽕양계만 보였던 세상이었었는데, 자기계발서에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이 점점 또렷해지고 슬럼프도 찾아왔던 거 같습니다. 오히려 천진난만하게 꿈을 꾸던 때가 좋았으려나요? 어느새 목표를 상실한 저를 보게 됩니다. 의욕은 사라지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저를요. 사실 저의 십대 말의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5개월동안 알바해서 모은 200만원으로 2주 동안 몬트리올로 도망치기도 했죠. 후회는 전혀 없지만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어도 여행의 달콤함을 진정으로 맛봤던 거지요.

계속해서 일탈을 꿈꾸다 현실로 돌아오면서부터 결국 19세의 최대 고민인 ‘대학’을 놓고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어 대학에 지원을 했고, 운 좋게 덜컥 붙어버렸는데……

배부른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대학을 갈지 말지를 두고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가 확신할 수가 없어서요. 신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요. 토익점수를 어떻게든 써먹어보고자 썼던 전형은 오로지 경영학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평소에 관심 가져본 적도 없는 전공이었고요. 이 나이대엔 누구나 대학을 가니까 간다면 후회할 것 같고,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껏 참 다르게, 나

름 뻔뻔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점점 현실과 타협하는 제가 되어갈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웃긴건 배짱있게 걷어찰 자신도 없었던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이유가 있다고 믿기에, 그 기회가 찾아온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치금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어느 날,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심에 마음이 가장 흔들렸던 거 같아요.

단 한 번도 제 갈 길을 강요하지도, 막지도 않았던 부모님이셨는데 합격 발표 날, 그날 만큼은 하루동안 너무나 행복하셨대요. 그제서야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대학에 가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게 옳은 선택이길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 인생은 정말 하루 앞둔 내다보기가 힘든 거 같아요. 사실 한 달 전만큼만 해도 지금쯤이면 인도에 가있는 거였거든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듯, 앞으로 혹시나 대학을 안 간다고 해도 저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자알 나아갈랍니다.)

길었습니다. 제 십대 시절도 참 다사다난했던거 같아요.

다이나믹하고, 독특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는 그 아팠던 순간들마저 웃어넘길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네요. 어느새 이십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고요.

각오는요, 앞으로도 ‘지금 이순간 나는 단 한번뿐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요. 정말 알차게 살아내고 싶어요. 죽기 전에 “아~ 잘 살았다!”하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헤헤. 앞으로 참 많은 고비와 가로막이 있겠죠? 이십대 청춘은 실패해 볼 시기라고 해도 두렵고 떨려요. 반대로 그만큼 제가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 내니까요.(도중환, ‘흔들리며 피는 꽃’). 항상 감사하면서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려!”요~

| 임 성 은 |

요즘은 하늘이 무척이나 높아지고 파란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을 느끼게 합니다. 올 해 저에게는 여느 때와 달리 아름다운 계절과 시간의 풍요로움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 정말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서, 내 나름대로의 계획된 시간 속에서 챗바퀴 돌듯이 한 해 한 해 보냈습니다. 아침엔 두 아들의 엄마로 남편의 아내로 나름 잘 챙기면서 등교와 출근을 시키고, 오전 시간에는 집안일과 먹을거리 준비와 수업을 위한 체력보충을 하면서, 오후부터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새벽에도 수업을 하며 많은 수업을 하면서 정신없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제한된 날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만날 수 있었고, 여행은 많은 시간의 준비 속에 갈 수 있었고……

그러나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려’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답니다. 두 아들도 제각각 바쁜 생활로 아침과 저녁에만 만날 수 있고, 저의 본의가 아니게 수업 시간표가 여유 있는 시간표로 바뀌었습니다. 그 덕에 아름다운 계절을 느끼면서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새민족 여성교우들과 산책도 하고, 데이트도 자주하고, 책도 읽고,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저런 일로 예전과는 또 다른 ‘누~려’의 생활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저에게 뜻 깊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저에게는 처음 해본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받기에 참여한 것과 시민광장 현장에 참여한 것과 박연미 장로님의 권유로 게릴라 세월호 콘서트에 참여한 것 등이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항상 멀리서만 바라보며 TV로만 지지하던 소극적인 저에게는 큰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 해 새민족 여름수련회에도 참여하여 대학시절 이 후에

정말 오랜만의 단체 수련회인 2박 3일 시간들! 교우들과 2박 3일의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보낸 시간들도 저에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새민족교회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새민족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과의 귀한 만남도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범하고 분주하게 느낀 시간과 자연과 가족과 친구들……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중하고 행복한 것들로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어느 덧 중 후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으니 이 정도 누림은 괜찮겠지요?

교우님들도 일상의 분주함에서 ‘누~림’의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생활하기를 강추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시 한편이 생각이 나서 적어봅니다.

속도

유자호

속도를 늦추었다.

세상이 넓어졌다.

속도를 더 늦추었다.

세상이 더 넓어졌다.

아예 서 버렸다.

세상이 환해졌다.

(시집『심장과 뼈』중)



기다림 #2

| 장 성 희 |

“엄마, 비와?”를 세상에 나와 외친 첫 문장으로 하던 하임이가 어느새

수다쟁이가 되고, 조금 나오던 아내의 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안해 할 정도로 많이 나온 요즘, 저희 가족은 둘째(태명 ‘돌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은 지난 여름처럼 계속 집에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 일주일에 두어번 정도만(!) 외박하고 웬만해서는 집에서 출퇴근하며, 여전히 이곳저곳 운동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아내는 하임이와 땃거리하며 가끔 제게 투정도 부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요.

며칠 전 나온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외국국적으로 군 면제 받은 기사를 보면서, “돌쇠는 가야겠군.” 하다가도,

“체력 좋은 하임이를 군대 보내면 돌쇠는 안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며, 돌쇠를 기다립니다.

하임이 녀석도 제 어미 뱃속에서 41주를 채우고 나오더니, 돌쇠도 아마 그럴 듯 싶네요. 이 주보를 보시는 10월 13일, 아내가 교회에 있다면 말이죠. (이 글을 쓰는 10일 현재, 아내는 13일 오후로 유도분만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제 곧 두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고교시절에는 그저 ‘멋있는 삶(그것이 무언지도 모르면서)’만을 생각하다가 스무살이 넘어가며 ‘참된 삶(이것도 아직 명확하게 모르네요.)’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부모된 입장에서의 느낌은 또한 다르게 다가옵니다.

폐친(‘페이스북 친구’의 약자)인 어떤 분은 부부가 자녀와 함께 투쟁현장에 밥차를 끌고 다니면서 연대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을 만든다든지, 예전에 하던 망치 잡고 시설물을 만든다거나 하는 일인데, 하임이나 돌쇠가 크면 “같이 다니면서 일을 가르치는 건 어떨까?” 하다가도, “이 녀석들이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시킬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그저 저만 생각하지요. 머릿속으로 이 녀석

들의 성장한 모습을 상상하는거지요.

대학시절, 후배들의 생일이 되면, 늘 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라!”였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하면서도, 부모의 입장은 다른가 봅니다. 남의 자식은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되고, 제 자식은 무언가를 잘해야한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아무튼, 그 손에 망치같은 연장을 잡건, 연필을 잡건 일단 아내를 더 힘들게 하지 않고 언능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스시쟁이에서

| 정선희 |

지난 주 금요일은 굉장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두 달 간 준비했던 커피 바리스타 2급 실기시험이 있었고, 다음 국비훈련 수강생 최종선발, 수료식, 프로그램팀 독서스터디 등 하루 종일 긴장되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팀 스터디에서 팀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과 그걸 도달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가지고 3시간동안 열띤 토의를 벌였습니다. 예정된 2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걱정과는 다르게 다들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갔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가고파서 급하게 마무리 짓고 다음 스터디를 기약했습니다. 스터디를 마치고 회사 근처에 맛집으로 알려진 ‘스시쟁이’에 가서 초밥을 먹었는데, 문득 드는 기분은 ‘아 행복하다.’였습니다. 이 행복은 초밥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오늘 해야 할 일이 끝났다는 후련함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생기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취업 후 근 2년이 지나고 일이 익숙해질 무렵 이 일을 왜 하는지, 내

가 진정으로 행복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금전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였고, 진정한 삶은 퇴근 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도구라고 하기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중이 크다보니 단순히 의무적으로 다니기에는 괴로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진로문제로 고민하던 시점에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울YWCA에서 주최하는 3년차 이상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리더십 스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3년차가 되기엔 아직 조금 모자라지만 다른 직장 여성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솔직히 12주 간 수강하며 강의 자체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결국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답은 각자의 몫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 제 삶에 좋은 영향을 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12주 중 6주 동안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시간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등의 본질을 캐묻는 질문들에 의해 몇 주간은 꽤 고생했습니다. 강의가 거듭될수록 강사님의 수업 방식에 적응되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진 못했지만 나를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존재가치선언문’을 작성해보고 다른 여성들과 공유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바뀌지 않을 가치를 정했습니다. 존재가치선언문은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이 되는 헌법과 같은 것으로 내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가치 몇 가지를 선택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나타내는 글귀입니다. 작성해보시길 추천합니다.

6주가 마무리 되어갈 즈음 나를 생기 있게 만드는 자리가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강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 본인의 자리를 찾아 사표를 내신 분도 있고, 자기돌봄을 위해 장기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정도의 결정을

하지 않은 걸로 보아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스시쟁이 초밥을 먹는 상황으로 돌아와서, 제가 느꼈던 행복은 삶의 생기였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날에 그것도 야근까지 하면서 스터디를 마친 순간 피곤하기는커녕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찾아가며 나의 가치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 12주간의 강의에서 저에게 던져진 캐물음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자리의 의미와 가치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흔들리고 고민하겠지만, 초밥을 먹으며 삶의 생기를 생각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나의 간증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며

| 정재곤 |

어떤 글에서 “인생은 축구경기와 같이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어서 90분 풀타임의 축구경기와 같다.”라고 한 말에 많이 공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말을 되새겨 보니 내 인생의 시점은 대략 후반전을 시작한지 이제 5분 정도 지난 시간쯤 일겁니다.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가장 실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시점인 것이죠.

내 인생의 흘러가버린 전반전을 묵상해 봅니다.

이십대 초반까지는 말수가 적고, 평범하며 어딘가 어두운 분위기의 어린이, 청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다닐 기회도 많았지만, 계속 피해 다니면서 그 시절 보통 청년들처럼 음악다방에서 괜히 폼 잡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지요. 즐겁고 행복한 기억보다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 밖을 떠돌면서 친구들과 어울리

기만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잘 견디고 스스로를 다잡아 가며, 좋은 선배와 몇몇의 멘토 덕분에 대학교라는 곳에도 입학하고, 운동권 학생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어중간하게 지내며 연극도 보고, 혼자서 등산도 열심히 다니고 하다가 결국에는 새문안교회 청년회에 까지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 시기의 화두는 “열정과 도전”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나를 바꿔가며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번민의 가족사를 잊어버리려는, 나와 내 가족에 대한 독립운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집사람(박연미 집사)을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25살 꽃다운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의 새민족에서도 볼수 있는 김종원 장로님과 몇몇의 교우들과 30대 초반까지 내 인생의 새로운 행복과 열정의 하나님을 만나며 행복한 20대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 힘들었던 가족사의 고민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되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나만의 소중하고 희망을 담는 30대 초반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31살의 화려한 봄날 새신랑은 환한 웃음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아들, 딸 잘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시절의 약 5~6년 동안의 시절이 내 인생의 가장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축구경기 전반전에서 한골도 안 먹고 동점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게 어디 기쁨과 행복만 있겠습니까!

중소기업의 박봉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차에 갑자기 창업의 기회가 왔기에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고 저질러 버리게 되었습니다. 집사람까지 동원해서 기를 쓰고 도전했지만 경험부족, 영업력부족, 자금부족이었습니다. 약 3년간의 어설픈 사업을 하다가 아이엠에프의 결정타까지 몰려오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폐업과 백수로 한동안 지내며 가장 춥고, 험난한 시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선제골 한 골을 먹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고단했지만 그 시기에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새민드림스 어린이 축구단, 송죽원과의 의미있는 활동, 김

준헌 목사님과 호흡을 맞추며 즐거운 마음으로 홍제동의 지역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는 것은 힘들어도 행복한 마음만은 잃지 말기를 바라는 은총의 비를 주님께서 내려 주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경훈 집사의 소개로 외국서적 출판 영업 직원으로 잠시 있으며 호구지책을 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오직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던 시기에, 새민족 교우들에게도 참으로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아이엠에프의 여운이 오래 가듯이, 교우들의 사는 여건도 쉽사리 좋아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지내던 따뜻하고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40대 초반의 중년의 입구에 와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즈음에 다시 제 본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고, 경기도 용인으로 공장을 정하여 조그마한 공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회사는 조금씩 커져갔지만 대량 실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경험과 사업 자금도 조성이 되어서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올인 하는 가운데 사람을 운영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자금은 날라 가고, 덩그러니 큰 공장만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의 지혜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죠. 연속 두꼴을 먹게 되었습니다.



호산나, 주님께 영광 돌리세

| 정 찬 영 |

1년 남짓한 시간 만에 돌아온 제 당번인, 올해 '삶'과 '신앙'의 연결고리는 단연 찬양대가 아닐까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당시 청년회장과 찬양대라는 중책을 겸직하고 있던 황다솜 교우에게 차년도 계획을 묻던 중 옆

에 있던 어느 찬양대원의 "찬영아, 이제 찬양대 할 때도 되었지?"라는 질문에 "아 네, 하긴 할 겁니다."라고 무심결에 답하듯 넘어가고, 그 시작은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Music is my life'라는 생각으로 볼품없는 청음감과 가창실력과는 상관없이, 장르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음악을 접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제 삶의 1/7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교회의 음악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네요. 어느 샌가 제 마음 속에 교회 음악 활동의 끝판왕인 찬양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묵직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지나 드디어 어른예배에 참석하게 된 대학생! 안타깝게도 저는 교회나 교회음악보다는 바깥세상의 모든 것에 흥미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발을 잘 들이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격주를 멀다하고 주말에 가는 각종 행사와 MT로 인해 매주 필참이 강요되는 찬양대의 주일성수는 제게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주일성수는 원래 그냥 중요한 겁니다.)

전쟁 같은 대학생활을 지나 홍 집사가 이미 밝혔듯 저도 의문인 졸업장을 받아내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니 제 삶은 타의에 의해, 정확하게는 급여에 의해 많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1년차를 보내며 이제는 교회생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곳보다 전문적이지 않지만, 어느 곳보다 깊은 감동 감화를 주는 새민족 찬양대에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직장인에겐 꿀 같은 주말 아침, 말도 안 되는 꼭두새벽에 일어나 연습을 하러 오는 그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즐겁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10시 지각 벌금체크로 시작(김 장로님 부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나 봅니다. 지각 '헌금'의 절반을 차지하니까요)해서 각자 집에서 챙겨온 커피와 빵 등 온갖 먹거리, 즐거운 웃음으로 오전 연습을 시작하여 한 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연습을 완성합니다. 본 예배의 중간 중간 자비송, 기도송 등을 지나, 메인 찬양, 예배 마무리 찬양까지. 점심식사를 한 뒤 보통 2시부터 시작되는 오후 일정 전에 30분이라도 다음 주 찬양을 사전연습까지 하는 것으로 찬양대로서의 주일 일정은 끝이 납니다.

새민족 찬양대 분위기는 화기에애합니다. 분기에 한번 씩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샵을 통해 실력을 가다듬기도 하고, 3쌍의 부부를 주축으로 높은 친화력을 보이며 단결도 잘 되고, 온갖 자화자찬으로 무장하여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이번 주 토~일 1박으로 김선희 교우와 함께하는 숙박 워크샵을 치르고 난 상태이니 더욱 고퀄리티로 성장해 있겠군요. (역시 자화자찬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연습하여 무대에 선다는 것은 준비한 사람으로 하여금 벅찬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보람을 매주 느끼고 있자니, 마치 제가 무어라도 된 듯한 으쓱함도 있네요. 그리고 청년회장과 '성가대'를 동시에 하고 있다 하니, 타 교회를 다니는 기독인들은 어린 청년의 깊디깊은 신앙심에 혀를 내두릅니다.

부족한 실력임에도 군말 없이 테너로 받아주어 함께해주는 찬양대원들, 매주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교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민족 찬양대,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졸업을 맞이하며

| 정 하 은 |

요즘 제 친구들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OT를 다니며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마지막 합격자 발표에서 예비가 빠지지 않아서 재수를 준비 중입니다. 낙천적이고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도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건 큰 충격이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예체능이라는 게 워낙 경쟁률이 세고, 그 중에서도 실용음악은 어

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러 오기 때문에 더욱 힘듭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네가 열심히 안한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고삼생활을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음악이 쉬운 길이 아닌걸 알면서도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학의 문턱이 높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음악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나? 계속해서 생각하고, 밤에는 꾸지 않던 꿈까지 꾸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선택이 어떤 것이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그제 답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도 지금은 선택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옳은 길일까를 열심히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 청소년교회를 졸업하면서 발표했던 진급 소감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차근차근 무언가를 해 나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뒤쳐진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전 사실 고등학교 때 “당연히 대학 어디든 가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다 떨어지고 난 직후에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낮은 학교도 쓸 걸 그랬나? 어디든 일단 다 넣어볼걸 그랬나? 제 욕심이 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가는 시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소에는 무언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걸 안 좋아하기도 하고 복잡한 건 딱 질색이던 제가 요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어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거창하게 뭔가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쓰고 나니까 우울한 글이 된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대학을 어딜 가건 음악을 계속하고 싶고 지금 뭘 선택하건 마지막엔 음악을 선택할 거라고 다짐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어쨌든 새해는 밝았고 작년을 후회해 봤자 되돌릴 순 없겠죠! 저도 그렇게 모든 분들이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보낼 수 있도록 늘 서로 기도하

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대한 스승

| 정현정 |

1

첫 번째 스승님은 내 나이 29세에 만났다. 직장생활 6년차 즈음. 그런데 나는 배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분이 나의 스승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배움을 2년 동안 보류하고 있었다. 2년이 지난 뒤 나는 이분을 모셨다. 직장도 그만두고 배워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분에게서 새로운 배움을 시작했다. 때론 온갖 짜증과, 내 특유의 실험정신(?)으로 스승님을 무지무지 괴롭혀드렸다. 쉬운 길도 어렵게 가려했고 간단한 것도 복잡하게 생각하려했다. 그래도 스승님은 불평 몇 마디만 하고 지켜봐 주셨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승님은 사람들이 수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 여기서 사랑이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해 나가는 의지이다. 나는 이런 사랑에 아직도 미숙하다. 한걸음 씩 한걸음 씩 배우고 있다.

2

두 번째 스승님은 내 나이 34세에 만났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배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애썼고 스승님 또한 내가 알지 못했던 많

은 것들을 보여 주셨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지만 배움의 즐거움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스승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조금씩 가르쳐 주고 계신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양보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 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다. 고립되어 있는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도록 가르쳐 주신다.

3

세 번째 스승님은 갑작스럽게 만났다. 내 나이 36세. 이제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벅찰 정도였다. 세 번째 스승님은 나에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잠시 멈추고 웃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어느날 갑자기 나는 내가 너무 웃지 않고 지낸다는 것 알게 되었다. 종일 무표정하게 지내다 보면 나의 생활도 무표정해지고 무미건조하다. 그런데 세 번째 스승님은 언제나 웃고 계신다. 나에게 삶의 기쁨을 즐거움을 일깨워 주신다.

스승님들께 배우면서 때론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고 때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떼쓰기도 한다. 스승님들께 배우는 게 잘 안 되어서 작년부터 일주일에 한번 씩 과외(?)도 받고 있다. 이제는 조금씩 스승님들께 삶을 배워가는 게 익숙해지고 있다. 아직도 내속에 나의 예고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나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한다. 그래도 나의 스승님들은 나를 지켜보면서 애정 어린 눈빛으로 끊임없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승님 고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18:3)



일상이 주는 행복

| 조 성 진 |

안녕하세요? 다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새민족 교우들이 이 글을 보실 때쯤, 저는 부산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꼭 다녔던 교회에서 가족과 오랜 지인들이랑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면 꼭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 집 앞 벤치에서 커피 마시는 겁니다. 별거 아니네 싶으시죠? 맞습니다. 별거 아니죠. 하지만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읽은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가 쓴 수필집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인데요. 신이 3일만 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 뭘 하고 싶은지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책에서 그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숲에 다녀온 사람에게 어땀냐고 물었을 때 ‘별거 없던데’라고 대답하는 게 이상하다고 합니다. 저마다 감촉이 다른 많은 나무들과 새가 있고 물이 흐르는데…… 자신은 그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보고 싶은데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녀가 3일간 하고 싶은 일을 적은걸 보면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스승인 설리번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산과 들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는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기에 평생에 자신에게 주어진 단 3일을 그것에 쓰고 싶은 것이죠.

저에게 소중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봐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친구랑 맥주마시며 밤늦도록 수다 떨던 때, 집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던 일들…… 흔히 있었던 작은 일들이라서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지나

고 보니 그런 것들이 행복으로 기억에 남아있네요……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돈을 벌어 물건을 샀던…… 그런 것들은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보내려고 그 두 가지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 시장에 다니던 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친구가 커피 마시자고 하면 슬리퍼 질질 끌고 가서 친구 집 앞 벤치에 앉아 자판기 커피 마시며 얘기 나눌 때가 즐거웠습니다. 물론 그때의 그 느낌이 똑같이 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지금대로 재미와 행복이 있을 겁니다.



새해맞이 청소년 수련회에 다녀와서

| 조 희 원 |

정말 오랜만에 주보에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글도 쓰고 제 얘기도 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번 주 처음 주보에 글을 써보면 어땠겠느냐는 말에 그냥 다 좋다고 했는데 막상 써보니 무척 어렵기만 합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겨울 방학이 끝나고 봄방학이 옵니다. 요번 겨울방학은 공부를 별로 하진 못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여 별로 보람찬 겨울방학을 지낸 것 같진 않아도 엄마가 “공부하자.” 라는 말썸만 하시면 방에 숨고만 싶습니다. 막상하면 괜찮은데 자꾸 하기가 싫은 기분은 뭘까요?!

중학생이 되면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이날에 선물 받지 않으며 교통비도 더 비싸집니다. 무엇보다 공부도 부지런히 해야만 하는데 처음 4~5학년 때에는 그저 중학생이 되면 뭔가가 좋을 것이라 고만 단순하게 생각만 했는데 막상 중학생부로 올라가니 실감도 안 나고 지금 소망은 초등학교 7학년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등부 캠프 준비물 나누어주는 종이를 받았을 때 예원이와 저는 들떠

서 얼른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중등부 캠프면 얼마나 다를 지, 얼마나 재밌을 지 많은 생각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어린이부의 만연니가 아니라 더 이상 김진희 선생님께 “만연니다워야지!” 하는 잔소리도 안들을 뿐만 아니라 동생들에게서 해방(?)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되자 처음으로 방학 때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빠 출근도 보았고 엄마는 “그렇게 좋으면 집나가서 살아라.” 하여 웃기도 하였습니다.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오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엄마 때문에 혼자서 교회 가기 싫어 엄마 갈 때 따라 나갔는데 오전 9시반 정도 도착했습니다. 사실 캠프는 오후 2시까지여서 막상 교회 가보니 정말 심심했습니다.

나중엔 너무나 심심해서 위층 가서 만화책이든 동화책이든 그냥 다 읽고 피아노도 혼자 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시 정도 예원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나도 반가워서 울컥 하고 눈물이 나올 뻔 했습니다. 나중엔 너무 심심하고 속이 언제부터 상했는지 입만 다물고는 엄마가 밥을 안 먹을 거냐고 물어보니 화가 나서 안 먹는다 하니 나중엔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하여튼 점점 언니, 오빠들이 많이 와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단 많이 무섭고 키, 덩치도 커서 무섭기만 했습니다. 예원이랑 저는 마치 다가가면 안 되는 성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있다 점점 적응이 되고 특히 큰오빠들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언니들의 수다는 꼭 어린이부의 저희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솔직히 반성도 했습니다).

청소년 선생님도 정말로 친절하시고 저희 막내들을 잘 해주셔서 덕분에 더욱 적응하기 쉬었습니다. 밤에 온갖 삼겹살 파티를 하던 날도 재밌었고 게임도 하던 날도 재밌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요리대회는 도저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추운 날에 시장을 갔다 와서 죽을 뻔 했고, 난생처음 요리의 요도 안하던 제가 감자를 깎았고 요리대회에서 이기던 날도 무척 뿌듯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들도, 밤에 라면 먹다

가 배수관이 막힌 것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렇게 캠프가 끝나니 무척 아쉽기만 합니다.

먼저 모두들 건강히 지낼 수 있었고 재미선사하고 무뚝뚝한 큰오빠들과 벌칙으로 웃긴 다형이 오빠, 요리 열심히 하는 종엽이 오빠, 회장이 된 걸 무척 축하하는 유근이 오빠, 오빠들 보다 무서운 언니들과 열심히 채소 깎고 쌀 씻은 담준이 오빠 등등…… 고기 굽고 첫날에 너무나도 고생 많으신 최현수 아저씨, 노래방 보내주신 김진오 선생님, 설명 잘 해주시던 민혜경 선생님 등…… 많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재미있게 읽어 주세요!

세월을 아끼라

| 주 혜 주 |

지난주 생일축하를 위해 앞에 나와 한 마디씩 하던 교우들이 생각난다. 마흔을 앞둔 생일에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기억을 더듬어 본다. 힘들어 하는 내게 지도교수님께서 미국에서도 마흔 생일과 쉰 생일은 크게 해준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난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레알 나는 오십대 이 나이가 넘넘 좋다. 늘 경제적으로 쫓기고, 양쪽 부모님 다 챙겨야 하고, 아이들 챙기느라(실제한 건 하나도 없는데도 신경은 무척 많이 쓰이는 일이다!) 정말 30대, 40대를 정신없이 살았다. 게다가 채워지지 않은 내 내면의 욕구에 끌려 다니느라 늘 내 문제에 코 박고 살았다. 불쑥불쑥 밀려드는 억울함에 남편도 나도 많이 힘들었다.

이제 고아가 되어(!) 챙겨야 할 양가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두 딸아이는 다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으니 가정적으로 무척 한가하다. 내 나이 또래들은 자녀 결혼문제로 또 머리가 아플지 모르지만 결혼이야 자신

들 기호대로, 할 때 할 거라고 굳게 믿기에 경제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편안하다.

몇해 전까지 난 ‘착한 딸’ 증상에 빠져 있느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여행 빼고!). 이화여중고 6년동안 학원문턱에 기본적인 읽기는 물론이요, 참고서를 한 권도 안사고 사촌에게서 물려받아 썼다. 그러니 뭔가 잘하는 게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잘 하는 게 ‘말’ 외에는 하나도 없다.

자기성찰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 존재 뒤에는 나는 착한 딸이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배경이 늘 있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내려놓았다. 물론 아직도 50여년 동안 굳건히 자리 잡은 습관이 문득문득 발목을 잡지만 그럴 때마다 분별하고, 하고 싶은 걸 억제하는 게 효과적인지, 돈이 들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판단한 후 내가 선택한다.

금년 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지난 16년 간 정신과병동에서의 경험을 책으로 쓰는 거다. 12월을 기한으로 잡았다. 짧은 글은 써봤어도 책을 쓰는 건 처음이라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학원이라고는 운전학원 밖에 안 가봤던 내가 책 쓰기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몇 십만원 하는 글쓰기 과정을 들었고(덕분에 주일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또 한 과정을 듣고 있다.

이제 60대를 코앞에 둔 내게는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이자다. 그래서 내가 정한 삶의 모토가 “남은 생애에는 돈 주고 제대로 배우자”이다. 예전 같으면 책 쓰기, 자기계발 강의하기 등을 다 셀프로 독학하느라 애썼겠지만 이제는 좋은 강좌가 있다면 기꺼이 거액(내게는 거액이다!)을 내고 참석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같이 행복하기 위해 아침마다 강사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잘 하는 게 내 목표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면서 TV 다시보기에서 명강사들의 강의를 꾸준히 보고 있다. 또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배울 게 있다고 여겨지는 강의에는 바빠도 달려간다. 글쓰기에 전념하기 위해 민하에게 알바비용을 쥐가면서 집안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당분간 교회생활도 예배와 새민족카페 봉사 외에는 최소한으로 하려 한다. 글쓰기는 음악이나 미술과는 달리 재능보다는 엉덩이와 손목에 달려있다는 김미경 집사님의 말에서 큰 힘을 얻는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6)



내 아들 우형이

| 주 혜 진 |

1985년 9월 7일. 내 아들 우형이를 세상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었으며 젖을 빠는 힘도 약하여 제대로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형이는 세상에 태어나 적응하기를 힘들어 하였습니다. 생후 1년이 되었는데도 걷지 못하였고, 말도 하지 못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였을 때 고맙게도 우형이는 조금씩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고 어눌하지만 말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모든 순간순간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우형이를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몇 년 후 저항력이 약하여 중이염이 낫지 않고 계속된 상태로 아파하다가 뼈 속까지 스며들어 수술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한 쪽 귀는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형이는 늦게나마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며, 우연히 특수학과에 다니시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글을 다 깨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구구단도 줄줄이 외울 수 있게 되었고, 어눌한 말을 고치게 하려고 언어치료도 받게 하였습니다. 솔직히 우형이를 키워오면서 정상인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어떻게든지 나의 욕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아이의 부족함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현실을 회피했으며 원망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를 더 힘들게 할뿐이라는 것을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형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좋은 선생님을 만난 덕분에 어려울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우형이는 가족 중 그러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넥타이를 매고 성경·찬송가를 들고 장난감 마이크를 가지고 목사님놀이를 즐겨하였습니다. 티 없이 맑은 표정을 하고 목사님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누구보다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 계시는 친척분의 도움으로 방배동 기독교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공부는 따라가기가 힘들어보였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수업 중 우형이가 찬양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았었는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도 그 친척분의 소개로 어린이교회 전도사로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정확하지 못한 발음과 체력부족 등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가 그 직책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낀 우형이는 교회에 갔다 오면 늘 우울해 했으며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하여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남편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형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우형이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하며 장애인 복지관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쉬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취업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할 때면 늘 기다려달라는 응답만으로 일관했으며 정확한 기한도 없이 수년에 걸쳐 어설픈 훈련만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얼마나 열악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도를 거쳐 우형이는 생전 처음으로 부모와 멀리 떨어져 대구에 있는 장애인 훈련소에 내려가 5개월간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말 다행인 것은 그 힘든 와중에도 우형이는 웃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걱정하는 나를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형이 삼촌의 소개로 집에서 가까운 패스트푸드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9개월째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형이는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에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주일에는 반듯하게 양복을 입고 동네 교회에서 보조 전도사로서 일하며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들 우형이 덕분에 아침마다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이란 큐티 책을 갖고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들과 나누는 교제는 더욱 나를 은혜롭게 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만해도 아빠가 알람이 꺼져있는 것을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우형이가 걱정이 되어 깨워줘서 무사히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면을 보일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 도와주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들 우형아!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지금까지 우리 우형이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속에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아들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 진 정 희 |

요즘 하늘은 높푸르고 주위의 나무들은 울긋불긋 곱게 물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올 해는 유난히 단풍색이 선명하고 고운 것 같습니다. 단풍잎이나 은행잎은 말할 것도 없고 벚나무, 느티나무, 계수나무, 층층나무 등 거의 모든 나무들이 어느 해보다 아름다운 색을 띄고 있네요. 한겨울 혹은, 한여름 더위와 가뭄 그리고 태풍까지 견뎌낸 나무들이 겨울이 오기 전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는 듯합니다. 이런 가을날에는 문득 어디론

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곤 하는데 올 가을에는 제 마음이 분주하네요.

올 해를 돌아보니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당연히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뚜렷한 인생의 목표, 별다른 욕심이나 열정도 없이 하루하루 그저 무덤덤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제게 올 해는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해 준 해입니다.

40대에 들어서고 인생 100세 시대라는데 무언가 새롭게 제 2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9월부터 사회복지공무원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제한이 없어져 이 나이에 시험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한 공부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 비해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계획대로 학습 진도가 잘 나가주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동영상 강의 몇 시간 듣다보면 곧 점심시간이고, 점심 먹고 책상에 앉아 무거워지는 눈꺼풀과 씨름하다 머리가 돌아갈 만하면 저녁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오늘저녁은 또 뭘 해 먹나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마음은 불편하고 자신감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대규모 사회복지공무원 추가임용시험이 12월 10일에 치러졌습니다. 저는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였기에 시험장 분위기도 익힐 겸 경험삼아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보통 시험장에서 잘 떨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많이 떨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되어서 그랬나 봅니다. 막상 시험을 쳐보니 예상대로 영어독해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만 국어와 사회복지지는 쉽게 출제되었고 그 두 과목은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의 손도 못 대고 시험장에 갔던 국사와 행정법이 문제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실전경험을 하고 나니 좀 더 부지런히 준비할 걸 하는 후회가 되면서 내년에는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나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되고 계속된 수험생활은 그러나 작년의 반복이었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한창일 때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렇

게 공부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에 하루 종일 책을 손에 잡을 수 없는 날도 있었지만 작년 경험을 되새기며 마지막까지 포기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9월 22일 아침, 전날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에 머리가 멍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시험장인 압구정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영어 지문은 길고, 국사는 학력고사세대인 제게는 낯선 수능형 사료문제가 대부분이었고 행정법 문제보기들은 왜 또 그렇게 길던지…… 100문제를 100분에 풀고 마킹까지 끝내야하기에 여러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제를 풀었지만 영어에서 시간이 초과되어 결국 마지막에 푼 행정법 몇 문제는 찍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급하게 마킹하다 확실히 아는 국사 두 문제를 잘 못 마킹해 날렸지만 답안지를 바꿔 쓸 시간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험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채점을 해보니 생각보다는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찍은 행정법 문제도 50% 이상 정답이었고 불합격생의 60% 이상이 어느 한 과목에서 40점 이하의 점수를 얻는 과락으로 탈락한다는데 과락 없이 대체로 고르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커트라인을 약간 밑도는 점수에 합격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발표일 아침 필기합격자 명단에서 제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12월 시험에서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과 실력자들이 대거 합격해 빠져나간 덕이었나 봅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가 노력한 것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런 시도와 노력이 없이는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하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제 노력에 더하여 그 이상의 것을 주시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최종합격이라도 한 것 같은데, 아직 면접시험이 남았습니다. 요즘은 면접이 강화되어 전공지식과 서울시 정책, 구체적인 상황질문까지 구술시험이라고 합니다. 면접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필기 때보다 더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향심기도

| 차 옥 영 |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 가족이나 타인이 보았을 때 외적으로 그다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나 자신은 또한 미안함과 답답함만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향심기도를 만난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처음 수녀원을 찾아가 100%의 호기심으로 수녀님 강의를 듣고 향심기도를 배우고 그곳 특유의 분위기인 조용함과 평안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즐기면서 개신교 신자가 나만이 아닌 목사님과 여러 집사님들이 계시는 것을 알고 반갑고 신기했다.

수녀님은 강의 도중 목사님께도 질문을 했고 마침기도 또한 목사님께 부탁도 하고, 그곳의 분위기는 굳이 구교 신교의 구분이 없이 똑같은 하느님을 고백하고 하느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은 참 훈훈하고 좋았다.

향심기도는 가톨릭 신자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동양에서는 선이나 명상을 찾는 것을 알고 오래전 사막의 교부들로 시작되어 중세를 거치고 우리시대의 토마스 머튼이나 토마스 키딩 신부님들을 통해 전승된 우리 기독교 고유의 기도법이다.

향심기도는 원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도(Centering Prayer)’의 번역어이다.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 즉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도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참자아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우리의 숨결보다 호흡보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절대 신비이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기도다.

이렇게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도록 동의해드립니다

로써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도록 맡겨 드리는 것이다.

향심기도는 1999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확산 중에 있고 불교의 위파사나 수행법과 비슷하다.

나는 얼마 전부터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다. 좌선 30분 보행 30분을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거의 하루 두 시간 운동과 함께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기도 시간만큼은 하느님 안에서 쉬는 것으로 고백하고 나를 점검하기도 한다. 내 마음속에 화를 만나기도하고 스트레스로 알고 있는 두려움도 점점하고 부족한 나 자신도 돌아본다.



청소년교회 회장으로 뽑힌 나의 일상

| 최 유 근 |

안녕하세요? 2011년도 청소년교회 회장으로 뽑힌 최유근입니다. 음~~ 청소년교회에서는 다들 임원이 되기 싫어합니다. 아 저도 물론 하기는 싫었습니다. 어찌다보니 회장이 되었네요. 회장 말고 다른 임원은 상관없는데 하필 회장이 되었네요. 그래도 회장이 되었으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신은주 집사님께서 주보에 올릴 글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거절을 할 수 없으니 하기로 하였습니다. 역시 회장이 되면 이런 걸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회장에게 주어진 일이니 열심히 해야죠.

저번주 주일에(1/23) 식사후 새임원들(저, 김민주, 정하은)과 김진오 집사님과 2011년 첫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의 내용은 올한해 청소년교회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교회의 행사가 남자중심적이었는데 올해는 여자중심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자, 여자 모두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거의 매번 예배가

끝나면 밥을 먹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집에가는 것보다 공동체로 함께 재밌는 것을 하면서 어우러질 수 있게 매주 재미있는 행사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팬츠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일에 최선을 다하는 최유근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으로 올라갑니다. 16세와 17세의 어감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6세는 좀 어린 느낌인데 17세는 갑자기 확 늙은 느낌이 드는 듯…… 아는 형, 사촌형 수능 볼 때 매번 약올렸는데 이제 제 차례이네요. 코앞이 수능이네요. 하~~ 굉장히 두렵습니다. 특히 저는 공부하고 채질이 안 맞고 오히려 스포츠, 운동에 맞아서 걱정입니다.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도와주셈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의 잔소리보다 이제 칭찬을 많이 듣고 싶고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은데 많이 어렵네요. 초당때 스키선수할 때 코치님이 진짜 스키선수의 길로 가는 걸 권유 하셨었는데…… 아무것도 모를 그 시절 코치님의 말을 거부 한 것이 정말 후회되네요. 그래서 중3 초반기때 코치님께 다시 전화드렸더니 제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늦었다네요. 스키로 대학은 갈수 있는데 스키국가대표는 할 수가 없대네요. 그래서 스키의 길을 포기 했습니다. 그 때 스키를 계속 할 걸…… 요즘도 무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스키를 포기하기 전 학교에서 매년 전교생 스키캠프를 가는데 중2때 보드를 타기 시작하고는 그 후 스키장에 가면 스키를 안타고 보드를 탑니다.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졌네요.

대한민국은 너무 공부에 몰입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집 동네(목동)는 강남, 분당, 대치동 등등 다음에 속하는 공부의 도시입니다. 정말 지옥같은 곳이죠. 이곳에는 제가 2살쯤에 왔는데, 부모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까지 오랫동안 정착할 생각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엄마, 아빠가 이사가자고 하면 제가 절대로 안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안 갔다네요. 참 그 때 제가 참 명청했죠. 결국 목동은 이리 안 좋게 변하고…… 다들 이사를 갔으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동생님께서 이사 거부를 하십니

다. 저희 집안 대대로 이사를 안할 건가봐요.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도 갈 예정이고 해서 동생도 곧 책상이 필요해지는데 책상은 하나고 방은 2개밖에 없어서 동생과 제가 책상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고민이네요. 머 제가 비키면 되니 동생은 공부 밖에 몰라요. 참 나쁜놈이죠. 나중에 제가 동생한테 빌붙어서 살아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집 근처에 백화점, 서점, 영화관 의류기관 등등 있을 건 다있고 작은 집에서도 가끔 다툼 등이 있어도 웃음으로 가득하고 특히 저희 가족은 대화가 많은 거 같아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이 선교원 간다

| 한 경 란 |

올 해로 네 살 된 손재현.

우리집에 하나밖에 없는 둘째 아들.

할아버지의 넘치는 애정속에서 울고 떼쓰고 한방의 애교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굳건히 믿으며 이날까지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는 똥배짱 열혈 영아.

이대로 두면 애 성질 버린다는 주변의 염려를 받아들여 형인 규현이가 다니고 있는 선교원에 보내기로 전격 결정.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는 말도 잘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는 애를 어딜 보내냐며 극구 반대.

그러나 아침이면 형 따라가겠다고 울어 제끼는 손재현을 보며 어쩔수 없이 양보.

3월 2일 손재현 대망의 재영GK영어선교원 입학.

예쁘게 옷 차려입고 빠알간 선교원 가방을 멘 너무나 귀여운 울 아들

손재현.

형아들한테 맞거나 하면 어찌나며 걱정 한가득이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뒤로하고 너무 신나 날아가는 손재현.

그 날 오후 선교원에 다녀와 신난 손재현과 다르게 너무나 지쳐보이는 손규현.

엄마 : 규현아 재현이랑 선교원 잘 다녀왔어?

규현 : (고개를 숙이며 걱정스런 얼굴로) 엄마 내일부터 재현이 선교원 안왔으면 좋겠어요

엄마 : (놀람) 왜? 무슨일 있었니?

규현 : 선교원에서요. 재현이가 자꾸 벌떡 일어나 파워레인저 노래 불러서요. 선생님이 경찰아저씨가 그러면 잡아간다고 했어요. 저는요. 경찰아저씨가 손재현 잡아갈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해서요. 너무 힘들어요.

평상시 남에게 주목받고 싶거나 자기 기분이 좋거나 뭔가 필요한게 있거나 등 등 등 아무튼 아무 때나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손재현이 목소리는 정말 크다. 뺨골에서 울려퍼지는 엄청난 소리) 파워레인저 주제곡을 부른다. 나름의 절도있는(?) 울동과 함께……

아마도 처음이라 낯설고 물설어서 나름 자신을 알리고자 한 행동일 텐데…… 5시간 선교원 가 있는 동안 10번이 넘게 불렀다니 선생님이 뭐좀 하려면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을 우리의 손재현.

선생님의 급피로가 걱정되어 선교원에 전화 한통.

엄마 : 선생님 재현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선생님 : 예…… 보통 어머님들이 아이에 대해 얘기하면 그보단 아이가 훨씬 얌전하고 말을 잘듣던데 재현인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더라구요. 어머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더라구요.

엄마 : (걱정 한가득 늘어놓다.)

선생님 : 제가 최선을 다할테니 걱정마세요. 그래도 재현이 웃을 땐 귀엽더라구요. (웃을 때만)

지금도 손재현인 선교원에서 벌떡 일어나 노래를 부른다.

집에서 아무리 살살 달래봐도 안부르겠다는 약속은 안한다.

아침이면 정말 신이나 선교원에 간다.



감사의 제목

| 한 지 경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한 해의 감사한 일들을 모아 모아 한꺼번에 크게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하나 꿈꿈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나온 날들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일들로 가득한 날들이지만. 때때로, 아니 아주 자주, 살아가다 보면 항상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날들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랑 아빠랑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게 마련이지요. 우리들 사는 게 궁금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한별이나 한울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려야 하는데, 어느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한별이가 평소에 속 썩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이야기만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식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만은…… 저도 부족한 부모인지라 제가 잘못 키운 점을 생각하기 보다는 애들이 왜 이럴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종종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주로 한별이와 티격태격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게임과 공부입니다. 뭐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요즘 남자아이들이 특히나 빠져있는 게임에 한별이도 폭~ 빠져있는 중이고…… 그러면서 공부는 약간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격렬한 논의 중이지요. 뭐 매일매일 게임에만 빠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좀 속이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엄마이다 보니 엄마가 없을 때도 좀 알아서 공부도 숙제도 잘 챙겨서 하고, 자기 할 일들은 스스로 잘 챙겨서 하면 좋겠는데 아직도 애 같은 모습을 보일 때면 스스로 속상해서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나무라기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 나이 또래에 아이들은 한 때 다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 한별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소중하고 이쁘고 감사한 아들입니다.

항상 엄마가 일하느라 힘들지나 않나, 혹시 아프지나 않나 제일 걱정해주는 사람도 우리 장남 한별이고…… 엄마가 힘들까봐 일주일에 3일은 설 거지도 도맡아서 해 주고 빨래 걷고 꺼내오기는 기본인데다가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에 가끔은 화장실 청소까지…… 이제는 덩치도 제법 커져서 엄마가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옆에 와서 스윽~ 하고 아주 시크한 표정으로 짐을 들고 가는 듬직한 모습과 따뜻한 마음 씬씀이까지.

생각해 보면 아주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아들인데도 항상 저는 부족한 면만 보고 거기만 집중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감사의 제목을 마구마구 놓치고 사는 거지요.

오늘은 한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오늘 제가 할머니 빨래 걷는 거를 도와 드렸는데, 할머니가 정말 감동 먹으셔서 가지고 거의 눈물을 흘릴 지경이셨어요. 엄마도 내가 그런 거 도와줄 때 할머니 반만큼이라도 표현해주면 내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또 한 번 크게 반성했습니다. “아! 그래. 난 참 감사할 거리, 칭찬할 거리가 많은 아들에게 항상 당연한 듯이 받기만 했구나.” 하는

생각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제 생활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 정말 너무나도 많아서 손가락이 모자라 손으로 다 꼽기도 힘들 정도네요.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 안타까워 하시는 부모님, 너무나도 사랑하는 새민족 공동체 식구들,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 아껴주는 직장 동료들, 무섭게 군기만 잡는데도 엄마라면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해 주는 아들들, 듬직한 남편까지.

오늘부터 제가 놓치고 살아가는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아인아빠!

| 함 소 성 |

아인 아빠, 아니 현권 오빠 안녕! 저 소성이예요.

1993년에 예비역으로 과에 돌아온 오빠를 만나 친남매처럼 지내오다 항상 삼겹살이 빠지지 않던 술자리에서 우스갯소리로 오빠에게 잘 어울리는 새언니를 꼭 만나게 해 주겠다 했는데 그 새언니가 내가 될 줄이야. 인생 참 재미있어요.

1998년에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오빠의 강한 의지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고 천사같은 아이의 웃음소리는 11년이나 지난 후에 우리에게 온 아인이를 통해 들을 수 있었죠.

현실에 발을 딛기보다 내가 그리고 나를 진정 필요로 하는 즐거우면서도 행복한 직업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바꾸는 시기에 결혼 2년만에 찾아온 아인아빠의 뇌종양수술은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지요. 당신처럼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평온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생명의 소중함

을 온몸으로 느끼며 서로 사랑하며 생활하다보니 우리인생에는 없을 것 같았던 아인이가 선물처럼 태어나 진정한 엄마, 아빠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죠.

둘의 생활에 익숙해 난 모성애가 없을까봐 걱정한 적도 있었는데 황달 걸린 아인이를 혼자 신사동 가로수 길에 있는 병원에 두고 목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아기도 없이 들어가서 며칠을 울면서 있을 때 처음 느끼는 가슴에서 터질 듯 샘솟던 그 감정, 모성애를 느끼며 진정한 엄마가 되는구나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하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네요.

어느덧 4살이 된 조아인 양!

성산동으로 올해 3월 이사를 하면서 공동육아로 아인이가 좀 더 자유롭게 자연도 느끼고 좋은 친구들과 낮엔 즐겁게 잘 놀고 잘 먹고 밤엔 잘 자고 우리부부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며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사 온 이후로 그렇게 맘에 들어 했던 성미산 자락아래 햇살 좋은 집의 기운이 나와 잘 안 맞는 것 같다며 당신이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던 것의 원인이 악성 뇌종양의 재발일줄이야…… 7월 27일 3기로 진행된 악성뇌종양의 제거 수술 후 퇴원해서 운전병출신인 당신의 3일 속성 연수를 받고 위태롭게 강변북로를 달리는 겁 많은 나의 불안한 운전으로 매일 인내를 요하며 성실하게 받으러 갔던 30회의 방사선 치료와 날마다 먹는 어마어마한 약들…… 보람도 없이 다시 쓰러져 입원 퇴원을 반복하며 그사이 10월 17일 다시 재발한 종양의 제거수술, 조직검사 결과 이것만은 절대 아니길 바랬던……

앞으로 1년에서 1년 4개월이 평균수명이라는 4기 교모세포종으로 판명되어 우리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희망마저도 앗아가 버리는 잔인한 날들도 있었죠.

큰 욕심 없이 건강하게 병원에서 지키라는 것 잘 지키면서 살면 아인이 대학갈 때 까지는 충분하겠지 했는데…… 이걸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만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만 다시금 고개를 드는 의문. 도

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시는 거죠?

친정어머니는 너무 슬프셔서 세상에서 나쁜 일만 저지르는 놈은 오래 살고 아들보다 더 아들같은 우리 사위 현권이처럼 조용하고 착하기만 한 좋은 사람을 빨리 데려가려 한다며 불쌍해서 어찌냐고 매일매일 우시고 염창동 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시고 병원에 엄마 아빠가 있는 동안 처음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이리 저리 강릉, 속초, 과천으로, 염창동으로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모집에 있으면서 말도 없어지고 원래 눈물 많던 아인이는 슬픔이 차곡차곡 쌓이며 진정한 눈물의 여왕이 되어버렸죠.

수술 후 퇴원하며 항암치료를 시작한지 5일 만에 다시 입원해 MRI결과 종양이 또 생겨 11월5일 수술 후 무사히 퇴원. 이후 2차 항암치료를 하고 오늘에 이르는 동안 여름, 가을, 겨울 세 계절을 맞고 있어요.

그동안 힘들기는 했지만 아인이가 몰라보게 부쩍 자랐어요. 헤어지기 싫다며 서럽게 울던 아인이는 이제 아빠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 머리가 안 아프길 기도하고 자기가 우리를 돌봐주겠대요. 키도 크고, 발음은 여전히 새지만 말도 잘하고, 잘 먹고 마음썸썸이도 깊어지구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족, 이웃, 새민족교회 등 함께 아픔을 나눠 주시는 고마운 일이 가득 하네요.

아인 아빠! 우리는 절대 미래없이 우리만 간혀있는 외롭고 캄캄한 섬이 아니라 많은 섬들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끈을 놓지 말고 좋은 생각하고 요즘처럼 일부러라도 소리내어 웃어서 더 행복해져요.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어 버리듯이 가장 힘들고 아프겠지만 끝까지 당당하게 버텨서 의학적으로도 더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우리 끝까지 함께 살아남아요. 저랑 아인이 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사랑도 열린 마음으로 받고 그 사랑 다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나누어주세요. 당신이 어떤 모습을 하든지 상관없이 사랑해요.

• 함소성 집사의 남편 조현권 교우는 2015년 7월 22일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편집자 주)



거울 속의 나

| 허담원 |

내 방의 침대 앞에는 기다란 전신 거울이 있다. 1학년 때 선물로 받은 뒤 지금까지 6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붙어있었다. 옛날엔 학교 가기 전에 몇 번 보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요즘은 한번 보면 거울 속의 나와 눈을 떼기가 힘들다.

뭐랄까. 보통 내 또래의 친구들처럼 외모에 신경 쓰느라 계속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다. 거울을 계속해서 바라보다보면(눈동자를 오래 마주치다 보면) 내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처럼 낯설게 느껴진다. 그럴 때면 깜짝 놀라며 정신이 현실에 머무르지 못한다. “이 사람은 누구지? 이게 나야? 이 사람이 나란 말이야? 그럼 난 계속 이런 사람으로 사는거야?” 그렇게 계속 질문이 떠오를 때면 내가 어릴 적 기억, 앞으로 겪게 될 일 등이 차르륵 스쳐간다. 그러면 그 때쯤 움찔하며 혼자 생각에서 깨어난다.

이런 이상한 기분을 나만 느끼는 건가 싶어 친구들한테 말해 보려고 하면 나도 잘 설명을 못하겠고, 친구들도 잘 이해를 못 한다. 어떻게 자기 얼굴이 낯설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할 뿐이다. 친구들은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아예 없는 것 같다.

며칠 전 꿈속에선 나를 보았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난 기억할 수 있었다. 우리 둘 다 말이 없었고, 바라보기만 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했다. 그 순간, 난 시원함과 고요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평화로움과 따뜻함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상쾌하고 기쁜 감정이었다. 꿈에서 깬 후 생각해 보니 그 순간 동안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원하고, 고요한 나의 하나님을.

나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자 중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다. 내가 어떤 시련을 겪든, 하나님께선 늘 곁에 지켜주실

테니까. 가끔씩 생각과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거울 속의 나, 하나님의 나를 보며 내 모습을 잃지 않고 씩씩하고 멋지게 중학교 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21세기 유목민의 삶과 애환

| 허욱 |

요즘 내 생활은 거의 유목민과 같다. 비행기, KTX 등 교통수단의 발달과 도로의 확대로 우리나라 전역이 일일 생활권이 되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전국 어디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자 메시지와 카톡은 쉼 없이 휴대폰을 두드린다. 전국의 연수원이나 교육장을 찾아가 강의를 하는 나는 현대판 유목민인 셈이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저서 『호모 노마드(Homo Nomad)-유목하는 인간』에서 국경 없는 경쟁, 사람과 지식의 이동이 자유로운 세계화 시대에는 노마디즘(유목주의)이 진보의 주요 동인이며 역사 발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성벽을 두른 자는 망하고, 이동하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인류역사의 교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탈리는 나아가 “현대 사회는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가 머무르는 곳이 나의 고향이요 터전이며,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굉장히 멋지게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니다. 자크 아탈리의 명언은 이동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자유가 확보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임을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다. 이동이 자유가 아닌 의무와 강제가 될 때 전국을 생활권으로 하는 광복의 이동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를 몰고 온다. 기업교육 강사에게 4~6월은 매우 타이트한 일정으로 짜여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부, 자치단체, 기업들이 이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부터 천안, 대전까지의 충청권은 물론 부산, 울

산, 경주의 영남권, 광주, 목포 등의 호남권까지도 일일 생활권으로 다녀야 할 때가 많다. 4월에는 경주와 구례(지리산 한화콘도), 다시 경주로 가서 강의를 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서 경주는 운전하는 데만 4시간 30분 이상이 걸린다. 경주에서 구례까지 가는데도 호남고속도로가 그렇게 막힐 줄은 몰랐다. 한 밤에 트럭 뒤를 줄줄 쫓아가며 4시간 이상을 줄임과 싸우면서 가야 했다. 서울에서도 청소년교회 조성진 선생님과 식사를 못하다가, 5월 초 조 집사가 집에 잠시 내려가고 나는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강의하러 가는 길에 구포역에서 만나 그 인근에서 점심을 함께 했다. 5월 넷째 주 일정은 환상적(?)이었다. 월요일은 울산 현대중공업, 화요일은 양평에서 한국중부발전, 화요일 저녁은 서울 독산동 가산디지털센터 한화 S&C(녹화), 수~금요일은 충북 제천에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강의를 했다. 이런 일정을 맞추려면 일요일 저녁에 비행기로 울산에 내려가야 하고, 월요일 저녁에 강의를 끝나자마자 울산공항으로 달려가야 비행기 시간을 맞출 수 있다. 그런데 퇴근길에 차가 밀려 택시 안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화요일 아침 일찍 양평 더힐하우스로 달려가 오후 4시에 강의를 마치고, 다시 독산동까지 2시간이 넘게 이동해서 한화그룹 핵심가치 관련 강의를 녹화했다. 이러닝을 위해 방송작가가 준비하기로 한 내용과 강의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아 긴급회의와 수정 작업을 하느라 밤 10시에 마치기로 한 녹화 시간이 수요일 새벽 1시에 끝났다. 스튜디오를 나와 24시간 운영하는 커피점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며 제천 청풍리조트로 향했다. 교통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160km의 과속을 해가며 새벽 3시 15분에야 겨우 도착했다. 씻고 잠시 눈 붙였다가 6시 30분에 일어나 강의 준비를 한 뒤 7시 반에 아침식사를 하면서 함께 강의를 하는 강사들과 함께 강의 공통 사항에 대한 협의를 했다. 수요일엔 강의를 마치고 저녁을 먹자마자 숙소로 돌아가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웠지만 숙면을 못하고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정착생활에 길들여졌던 몸이 과연 이런 광폭의 이동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나의 경우 “아니다.”이다. 4월말부터 목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

었고, 통증을 느꼈다. 주말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효과가 없어서 정형외과에서 근육이완 주사와 더불어 근육이완 약을 2주일가까이 먹었으나 차도가 없었다. 급기야 목 디스크 같으니 종합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 보라는 의사의 권고를 받았다. 지난 주 월요일 강의가 없고 오후에 회사에서 회의를 하기로 한 날이라 서울의료원에 가서 정형외과 과장에게 특진을 받은 뒤 일단 MRI를 찍기로 했다. 그러나 MRI 촬영도 예약을 해야 했고, MRI 사진의 판독을 위해 정형외과 과장 일정과 나의 강의 일정을 조정하여 진찰 일정을 잡으니 20일 이후나 가능했다. 이런!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한 후 회사의 오후 회의 일정을 저녁으로 연기하고 강북자생한방병원으로 가서 진찰과 치료를 받았다. 엑스레이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목 디스크는 아니지만 장시간 운전과 컴퓨터 작업으로 경추(목뼈)가 일자 목으로 변형되었고, 목 디스크로 갈 위험이 많다고 했다. 자크 아탈리도 현대판 유목민의 이런 실상은 몰랐을 것이다. 6월의 유목 생활은 또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주여!



나의 어린시절

| 홍경숙 |

무슨 글을 쓸까 고민을 하다 나의 어린시절을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자랄 때는 어느집이든 비슷하게 형제가 많아 부모님의 관심을 많이 받으며 자라지는 못했다. 평범했던 우리집도 마찬가지였다. 그당시 막 시작하는 일일학습지가 있었는데 나는 그 학습지가 너무 하고 싶었으나 해달라는 말을 하지는 못했다. 아마 졸르거나 때를 썼다면 못해줄 그런 형편은 아니었는데 왜 굳이 말을 안하고 속으로만 늘 그 학습지를 받고 싶어했는지 학습에 대한 열의가 없었던가 아니면 소극적인 성격 때문인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선생님의 눈에 띄는 학생은 따로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공부를 잘하거나 말썽을 많이 부리는 아이는 관심학생이었겠지만 나는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말썽을 피우지도 않는 늘 조용한 아이였던 거 같다. 내가 기억하는 우리반의 이충은이라는 전교 부회장이 있었다. 물론 그 아이는 나라는 아이를 기억도 못하겠지만 공부도 발표도 어쩔 그리 잘하는지 그리고 늘 그 아이의 엄마가 학교를 자주 오셨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 외에는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잘 오지 않는 그 시절에 학교에 오시던 충은이 어머니는 어린 내가 볼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정작 내가 애들을 학교 보내놓고 어린시절 부러움의 대상이던 충은이 엄마처럼 학교를 열심히 갈 것 같았지만 나는 오히려 학교 찾아가면 알려지라도 생기듯 오히려 무심하게 애들 학교일은 무관심했다.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던 내가 어느날 예정이라는 예쁜 친구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공부도 잘하고 잘사는 집 딸인 예정과 친구가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친구와의 기억은 지금도 내 초등학교 시절을 기억할때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집이 있던 예정네는 모든 주거형태가 오래된 양옥에 여러가구가 모여사는 우리집과 달리 단독 양옥에 살았다.

2남 1녀의 외동딸인 예정네는 잘생긴 중학생 오빠와 귀여운 남동생이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그집에 가면 언제나 친절함 모습으로 또한 예쁘게 화장하고 플레어 스커트(그때는 그 치마가 플레어 치마인지도 몰랐다)를 입고 토스터기에 식빵을 구워주는데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빵은 그때 처음 먹어보았다. 먹거리가 귀했던 시절인만큼 아마 더 맛나게 느껴진게 아니었을까? 빵이 익으면 자동으로 올라오는 모습도 신기했고 빵과 빵 사이에 잼을 넣어 주는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지 싶다. 언제나 친절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맞이해주는 예정네 모습은

자라면서 언제나 내 기억 속에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다.

졸업하기 전에 예정네가 방배동으로 이사를 갔다. 그때는 방배동이 어디쯤인지도 몰랐는데 예정과와의 관계가 각별했기에 기억속에서 잊혀지지 않는지 방배동이라는 지명이 내게는 아직도 기억되고 있다. 아마 지금은 그 친구도 다자란 대학생을 둔 학부형이 되었겠지만 너무 오래전의 일들이라 그저 기억 속에만 간직하고 있다. 요즘의 발달된 통신기술로 마음먹으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내가 결혼을 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자동 토스터기였다. 아직도 골드스타라는 오래된 상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커서 내가 그 기계에 빵을 넣어 먹어보니 오히려 딱딱하고 그리 맛있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나는 그 오래된 기계를 버릴 수가 없다. 평소 조금이라도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버리고 조금 지나서 정작 필요할 때는 버린 것을 후회하곤 하는데 이 토스터기만은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라 그런가 늘 우리집 어느 구석을 한자리 차지하고 있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즈음 이글을 쓰면서 잠시라도 아주 오래된 기억속 날들의 추억여행이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여러분의 ‘진로’는 무엇인가요?

| 황경희 |

8월의 마지막, 이제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는 가을바람이 선선히 불어옵니다. 모두 여름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더니, 직장인의 시간은 그보다 몇배는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도 없고, 새학기도 없는 직장인의 시간은 참 아무렇지도 않게 갑니다.

그래서인지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스스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도 주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빠르게만 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혜경 집사님과 정선희 교우와 함께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경력단절여성’이다 보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둔 후 10년 이상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아줌마’들을 주로 만나게 됩니다. 40대가 되어서도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여성들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문득 문득 합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이런 생각들 말이죠.

지난 6~7월 동안 센터의 운영법인인 서울YWCA에서 하는 ‘직장여성 리더십 교육’을 들었습니다. 강의 내내 나의 비전과 진로에 대해 자꾸만 생각하게 하는 강의였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 내용 중에 뻔하지만 공감했던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의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내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동료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까지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조금 월급이 적고, 작은 역할만 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삶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돈, 명예보다는 가족과의 여가를 즐기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의 가치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여성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역할 때문에 생기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강사는 저희에게 여성이라는 피해의식, 사회적 편견에 대한 패배감이나 좌절감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쫓을 필요도, 패배감을 가질 필요도 없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직업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뜻하고 가볍게 요즘 저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했는데, 뭔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에 가면 진로고민을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네요. 스스로 선택하는 것보다 선택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익숙한 저희 세대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어쩌면 더 오랜 시간동안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어떤 가치를 쫓아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이니깐요.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하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보면 제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날이 오겠지요?



국제시장

| 황 다 숨 |

몇 주 전에 부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난생 처음 가는 부산에 가면 무엇을 봐야 하나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국제시장의 꽃분이네가 요즘 핫(?)하다고 하여 부산의 명물인 비빔당면과 부산어묵도 먹을 겸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역시나 영화 ‘국제시장’ 덕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꽃분이네 앞에서 열심히 셀카를 찍고 있더군요. 영화 속의 꽃분이네처럼 골동 수입품들을 팔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양말들과 겨울옷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죠, 그것들도 중국 수입품일지. 아무튼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하고 그곳에 5분도 있지 않고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국제시장’을 너무 재미있게 본 1인입니다. 사실 그 영화를 안 보려고 했는데 먼저 영화를 본 김정희 여사가 강력 추천을 하여 반신반의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제 가족들은 영화 취향이

매우 달라 선불리 추천했다가 욕먹은 경우가 많았답니다.)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울리고 웃겨서 사막 같은 제 마음이 영화 덕분에 오래 간만에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군인을 뺀 온 가족이 같은 날 다른 시각에 각자 영화를 보고, 다들 집에 모여 영화를 보고 각자 어느 부분에서 제일 눈물샘이 터졌는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등 즐거운 문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의 외할머니이신 이옥연 여사님도 이 영화를 보고 오셔서 탄력을 받으셨는지 3대를 얹히시고 피난 시절부터 당신 고생하면서 사신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짝 훑어 주셔서 할머니에 대해서 평소 몰랐던 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영화 하나로 인해 오래 간만에 가족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을 할 수 있음에 무엇인지는 모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한 영화 평론가의 발언에 의해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더욱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요약하자면, “국제시장을 보면 아예 대놓고 이 고생을 우리 후손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 다행이라는 식이다. 정말 토가 나온다는 거다. 정신 승리하는 사회라는게.” 저는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와 이렇게 뼈뺏어졌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을 보며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 해야지.’라는 (금방 사라질) 마음을 갖게 된 것뿐인데 말이죠. 영화 평론가니깐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스쳐 지나갔는데 머지않아 종편 채널에서는 이 발언을 가지고 그 평론가를 아주 과립치한 좌파 평론가 취급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발끈한 그는 “영화 평을 한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이야기 한 것.”이라고 저로선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고 있질 않나.

하여튼 이런 것들에 질려 관심을 끊고 싶었는데, 영화를 본 사람으로서 저절로 영화 ‘국제시장’ 관련 기사가 뜨면 기사에 손가락이 가게 되더군요. 오히려 이런 해프닝으로 더욱 홍보가 되어 관객 수가 대통령 포함 1,3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관람 후,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애국심을 가

지면 어찌고저찌고 하는 것을 보고, 같은 영화를 보고도 애국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 저는 그 평론가가 된 듯 그때서야 살짝 토 끼(?)를 느꼈습니다. 그저 단순한 상업 영화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영화의 메시지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더 나아가 내가 무식한 것인가, 무관심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나는 아직은 순수하다고 깨닫게 해 준 기분 좋은 영화이었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보고 재미있으면 그만이고, 얻은 게 있으면 더 훌륭한 것이니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서로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 황다솜은 일단 강력 추천이니 저를 믿으신다면 보러 가시고, 그래도 제 취향이 조금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뺀 1,300만 관객을 믿으시고 영화 내리기 전에 꼭 보러 가세요!



나 홀로 여행

| 황 다 찬 |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귀국소식을 접한 나는,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한 듯 이때까지 누리고 있던 자유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해방이 이렇게 쉽게 두 달여 만에 끝이 나는 것인가?’ 하는 아찔한 생각에 난 황급히 여행계획을 세웠다. 어린나이에 한국을 떠난 탓일까? 나는 오히려 한국에 유학을 온 느낌이었다. 새로운 나라에 가면 관광하며 놀러 다니고 싶은 것 같이, 난 한국여행을 하고 싶었고 경험해보고 싶었다. 1박 2일에서 보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고 싶었고, 풍성한 먹거리들도 먹어보고 싶었다. 평소엔 원하던 여행과 부모님이 오신다는 엄청난 동기가 합하여지니 게으른 내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내일로’라는 좋은 프로그램도 알게 되어서 점점 기대에 부풀며 코스를 짜기 시작했다. 참고로, 내일로는 여름과 겨울에만 파는 기차표로, 만25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만 파는 일주일 무궁화호+새마을호 자유이용권 같은 것이다. 이곳저곳 정보를 모은 결과, 나는 내일로의 성지라 불리우는 순천을 시작으로 순천-통영-안동-부산을 가기로 정했다. 친구들에게 같이 동행여부를 물었지만, 모두 시간이 맞지 않아 혼자 떠났다. 사실은 혼자 떠난다는 것이 사실은 더 나를 들뜨게 했다. 편하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더 좋았다.

여행 첫째 날, 새마을호를 타고 순천까지 내려갔다. 기차 안에서는 나와 같은 내일러(내일로를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난 것을 새삼 느끼고 사람들과의 담소를 즐겼다. 순천에 도착하여 낙안읍성에 갔다. 작은 읍이자 성으로써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실제 거주를 하는 지역도 있었다. 대장금 촬영장도 지나고, 예전엔 정말 사용했을 것 같은 우물도 지나고, 마지막엔 성곽위에 올라가 경치를 감상했다. 저녁때 즈음이었는데, 밥을 짓는지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게 내가 그리워하던 것들을 보니 참으로 인상 깊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즐기는 평화는 달콤했다.

통영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올라갔다. 케이블카는 생각외로 꽤 시간이 길고 높아서 나중에는 약간 무서워지기까지 했다. 케이블카에 내려, 짧은 패기로 빠른 시간에 정상에 도달하고, 내려오는 길에 ‘미래사 1km’ 표지판을 보았다. 아! 난 대한민국의 사찰방문 또한 이번여행에서 기대했기에, 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가파른 산을 내려가다 보니 점점 사람들 소리도, 케이블카의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힘들게, 그리고 마침내 미래사에 도착했다. 미래사는 규모는 작지만 보존이 잘 돼 있고, 무언의 힘이 느껴지는 듯했다. 미륵산의 정기를 받는 미래사에서 쉬니 시원하고 참으로 평온해지는 시간이었다. 산에서 내려와 명계비빔밥과 꿀빵을 먹고 통영시내의

야경을 감상했다. 풍성한 먹거리와 멋진 야경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었다.

다음날은 소매물도에 가는 첫배에 올랐다. 티셔츠가 다 젖을 만큼의 땀을 흘리며 경사를 오르고 나니 엄청난 절경이 눈에 들어왔다. 크~ 정말 여행의 모든 피로가 가실 듯한 시원한 바람과 저 끝에는 하늘과 바다가 합쳐지는 듯한 광경을 보니 여행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강렬했는지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풍경이 눈에 아른하다.

산과 바다를 누빈 여행의 처음 세 날들이 기억에 남는다. 목적지만 정하고 무계획으로 발길가는 대로 가니 만족도도 높고, 새롭게 가는 곳에서는 무엇을 경험할지, 누구를 만날지 항상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여행이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안동 봉정사에서 기도시간에 참여한 후, 거기 계시던 어느 할머니와 같이 내려오며 대화를 했다. 할머니는 나에게 어디서 왔으며, 혼자 여행하는지 등등 여쭙보셨다. 마지막엔, 멀리 인천에서부터 충각이 애인도 없이 혼자 여행한다며, 토마토주스를 사주셨다. 신선한 주스가 정말 맛있었지만 달지만은 않았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역사도 만났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큰 재미 중에 하나였다.

2

세민족의
기도

자연처럼 스스로 새 날을 만들라하시니

김은경

하느님, 언제나 우리들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새벽이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014년 새해를 여시니 새 날이 밝아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하느님이시지만 또한 매일 우리에게 다른 새 날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 한숨소리가 전쟁같이 들려오고,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기업이 저지르는 만행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질 않아 참담하며, 학교가,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경쟁으로 떠밀어 절벽 위에 세워놓으며, 정치가, 기업이, 국가가, 이웃이 매일 우리를 배신하니, 마치 우리에게겐 절망만 남아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느님은 우리 앞에 새 날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선 우리들 스스로가 그 새 날을 만들어가라 하십니다. 꽃이 새로 피어나고, 나비가 허물 벗고 날아오르며, 언 땅에서도 새로이 싹이 틔우고, 얼어버린 강물도 녹아 흘러가지요. 이렇듯 자연은 우리에게 새 날을 어찌 만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어제와 다르고 2013년과 다른 2014년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겐 하느님이 희망입니다. 새 날엔 그 희망이 있을때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희망을 말씀하시고, 찬양대가 희망을 노래하니 그들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 교회 각각의 자리에서 봉사하게 될 교우들을 더욱 사랑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1월)

한 해 동안 어둠에 물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김 종 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해의 첫 달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첫 달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 안에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둠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정의 그리고 권능의 원천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받아 주십니다. 특히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가난한 이들 그리고 가장 고난에 처한 이들을 받아 주십니다. 여섯 해 전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생명을 잃은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그 세월 동안 애통해 하며 싸워 온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평범하고도 욕심 없는 삶을 간절히 바라는 해고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위로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웃들의 고난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순종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했던 일에 실패함으로 실망하는 사람들,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인생에서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여 삶의 시간이 절망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 고난당하며 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고난의 현장과 고난 받는 이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나라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속히 임하시어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따라 오너라, 와서 보시오.” 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새민족의 신앙을 실천하도록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선한 일들을 하는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의 짐을 함께 지며 기쁘게 공동체를 키워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나라에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어둠 속에 비취는 빛과 같이 빛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삶과 같이 가도록 돌봐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빛을 비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2015년 1월)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삶을 살게

김 정 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행동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과거의 안 좋은 경험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피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주님 나를 드러내지 말게 하옵소서. 무엇이든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묵묵히 일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과 행복한 삶을 나누며 주님의 세

밀한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새로운 한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의 명절인 설을 가족과 친지들과 덕담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민족 공동체도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며 음식을 나눌 때 풍성함과 기쁨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새 일을 계획할 때도 함께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제직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있을 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많은 제직들이 참여하여 의논할 때 서로에게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소서.

새민족 공동체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며 나아가 우리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소서.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닮아 가도록 기도하며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공동체가 서로에게 편히 쉬게 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해 수고 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게 하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고 함께 나가는 길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깨닫는 시간되게 하소서.

한사람 한사람의 존재를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로 한결을 한결을 잘 내닫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함께 가는 길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14년 2월)

진실이 햇살처럼 비추이고, 거짓은 불태워 없어질 것

정재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저희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신앙으로 세운 새민족 공동체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민족교회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대형교회가 물질과 탐욕으로 매몰될 때에 한줄기의 소망이 되고자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교회 갱신과 부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작은 소망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지라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더욱 더 새롭게 시작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교우들의 생활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깊이 고통과 번민으로 힘들어 하는 교우들,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힘든 교우들 있으면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새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직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제직들이 모여서 한 해를 더욱 알차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제직들이 지지 받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아기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은혜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늘 은혜와 행운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진실이 가리워지고 거짓과 반칙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이 햇살처럼 비추일 것이며 거짓은 불태워 없어질 것임을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소외되고 궁핍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본의 탐욕과 불의로 해고되어 싸우는 이들, 정치적인 박해로 감옥에 있는 이들,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며 형제자매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새민족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이 예배를 통하여 힘과 용기와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 2월)

우리의 기도가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이 경 아

따뜻한 봄별이 오는 길목에서 가는 겨울이 아쉬웠는지 추운 바람을 며칠 몰아부쳐 땅에서 올라오던 새순들도 얼어버리고, 겨울눈의 껍질을 열고 올라오던 산수유의 노란색 꽃봉오리들이 머리들만 세상 밖으로 내밀었다가 멈춰서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한 고통과 기다림이 마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몹시 같아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몸도 성전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는 다른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 불평, 열등감, 거짓, 냉랭함들은 밀어내고 따뜻함과 용서와 이해와 감사와 은혜를 늘 칭송하는 내 몸 성전을 만들어 가도록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한걸음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꾸짖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내가 주님께 구한 기도가 나만의 요구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지, 사람의 입장에서만 구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들 누군가의 뜨거운 중보기도로 인해 내 몸에 기운이 됨을 느끼면서 극복해 나갈 힘을 얻게 합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세월호에서 숨진 단원과 학생들의 부모님들에게도 향하고,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목요초콜 기도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중보기도로 확장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일만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생각과 자세는 과감히 버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생각과 하나님나라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묵상하며 결단하여 신앙적으로 한 두 단계 뛰어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3월 신학기가 되어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에게도 호기심과 긴장이 같이 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좋은 벗들은 주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주님의 선물을 올해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늘 환하고 웃음이 넘치는 빛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른들 또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따스한 햇빛이 되어 주변의 어두움들을 물리치게 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며 이제 침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입니다.

(2015년 3월, 사순절)

약자 편에 서고, 그들과 연대하고

이 경 한

바람이 아직 차지만 곳곳에서 봄을 느낍니다. 봄이 상징하는 긍정의 의미를 느끼려 애쓰고 있습니다. 희거나 붉은 색을 품은 매화 꽃망울. 물가 나무들에 달린 버들강아지, 정월 대보름달을 숨죽여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희망을 찾기에는 우리 신앙이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러 절제와 극기를 해야 하나?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를 통해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모은 내 에너지와 시간을 나보다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내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오늘을 여성주일로 정해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의 태반을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지만 자녀들과 남편들이 그 고를 당연하고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분노가 치밀고 보상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식구들과 대결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다만 화내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결혼하지 않은 비혼 여성으로서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선이 불편합니다. 원가족 내에서도 잉여의 일손 취급을 당해 집안일에 동원되기도 자주 합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이들이 내 선택과 행동을 이해하도록,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소서.

직장에서 남자 동기들보다 부분적인 일을 담당하고, 승진이나 임금에서 격차가 벌어져도 내 능력 없음으로 스스로를 단속하는 모호한 자리에서

있기도 합니다. 힘들고, 살벌하게 경쟁해야 할지라도 결국엔 약자 편에 서고,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직장인이 되게 도와주소서.

새민족교회를 돌봐 주소서.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목회자에게 힘과 열정을 보태주소서. 향존직과 각 부일을 맡은 이들에게 맡은 일에 의욕과 흥미를 느끼도록 도와주소서.

(2015년 3월, 여성주일)

평화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이 재 황

길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하나님!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믿는 이들이 주일 아침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새 봄을 알리는 자연 앞에 당신이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찬미하고 싶지만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한반도에 봄은 언제쯤 올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양심을 움죄어 매고 사상을 검열하는 어두운 독재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의 종말로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부정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게 되는 겨울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일구어 놓은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은 폐쇄되어 버렸고, 100년 전처럼 한반도가 미국 중국 등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 나라의 주권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제 나라의 역사를 말살하고자 교과서를 국정화해 버렸습니다. 일제시대

엄청난 만행을 당한 위안부 할머니가 당한 아픔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친일의 역사, 독재정권의 역사가 왜곡되어 오도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요합니다.

희망, 사랑, 평화, 열정, 낙관, 기대, 평등과 같은 아름다운 말은 없어지고 폭력, 테러, 절망, 전쟁, 불안, 불평등과 같은 어둠의 말들만 무성합니다.

사순절 주간입니다. 당신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하지만, 그 끝에 생명, 평화,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빛의 주님,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덮고 있지만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듯이 이 땅에 평화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가득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6일 벌써 두 해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아무런 진상도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시간은 흘러만 갑니다. 유가족이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대통령이나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그날까지 잊지 않겠다고 한 우리들의 다짐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세월호 유가족과 진실을 밝히고자 온 힘을 다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함께 아파하시고 소망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2015년 3월, 사순절)

이웃의 속울음을 읽을 수 있는 예민한 마음을

김진은

낮은 곳을 향하여 자신을 버리고 홀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은 이곳에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 취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주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자꾸 의심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깊은 묵상을 통해 주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의 삶을 따르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두가 힘에 겨워 탄식하는 세상, 절망이 커 희망조차 꿈꾸기 어려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밀양과 군산의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 등 신음하고 고통 받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크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조금 떨어진 우리의 이웃을 보는 따뜻한 시선과 함께 내게 늘 가까이 있어 소홀하기 쉬운 나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직장 동료, 지인들을 세심히 바라보는 눈을 주옵소서. 세상은 봄기운이 가득차고,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지만, 꿈꿨던 얼어붙어 꽃피울 엄두조차 못내는 그들의 마음

을 따뜻한 온기로 살피게 하옵소서. 그들의 속울음과 말없는 절규를 읽을 수 있는 예민함을 주시고, 부드러운 위로의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새민족 공동체가 새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알맞은 때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따사로운 햇빛을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끊임없는 기도로 서로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죽음의 이 세상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을 이루는 예수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꿈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사로, 찬양대로, 애찬당번으로, 반찬당번으로 봉사하는 교우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있는 듯 없는 듯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께서 매일매일 매순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14년 3월, 사순절)

종려가지를 흔들며 새 희망을 노래

이 명 희

호산나!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길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십자가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

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지만 또한 주님을 외면하고 배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길을 살아왔는지 늘 하던 대로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십자가를 더 얹어 놓고 방관하며 지낸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봄꽃 소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그림니다 추위에 웅크렸던 어깨를 펴고 씩씩하게 걸어가 봅시다. 얼었던 땅속에서 새생명을 피어 올리는 새싹들을 보며 새 희망을 이야기해봅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찾아 이 자리에 모였으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큰 사랑과 믿음을 함께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새 희망을 구합니다. 학대 받는 아이에게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의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강자의 억눌림에 고통 받는 자에게 평등을, 진실을 원하는 세월호에 정의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에 위로와 치유를, 나라의 일꾼을 뽑는 국회에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분단으로 고통 받는 우리 민족에 평화적 통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민족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30년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 30주년 준비위원회가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려합니다. 어떠한 활동의 결과물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나라의 뜻을 쫓고 행하여 나가는 새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에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희망을 심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고난주간에 있을 예배에 새민족 가족들이 많이 동참하여 고난예배를 통해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며 그 안에서 고난의 기쁨을 맛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며, 매일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침묵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2016년 3월, 종려주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민 혜 경

하느님! 예수가 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화하고 느끼고 먹고 사랑할 수 있는 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하루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차가운, 고통의 깊은 바다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키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재난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마음 속 깊이 분노하게 되고, 한편으로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누구의 잘못인지 자꾸만 묻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의심하게도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쪽으로 만들 수 있는지 사람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차가운 바다에서 고통당했을 그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큰 슬픔에 빠진 희생자들의 가족에게 하느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해 안전 불감증에 빠져 편법과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사고가 이 땅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하느님나라에 대해 바로 알고 실천하므로 이 땅에 만연한 자본의 횡포와 권력의 독선, 그리고 귀한 생명을 씌어질 물건보다 하찮게 여기는 물질주의를 넘어서게 하시고, 돈보다 경제보다 인간존재와 그 생명들을 더 귀히 여기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들과 주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먼저 이 땅이 좀 더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고, 신뢰가 회복되며, 사람이 사람답게,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 정의, 평화, 생명의 공동체를 꿈꾸는 하느님나라를 만드는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민족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 생각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안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와 바른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승리하심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승리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소원하며,

온 생명이 평화롭게 살기 위한 세상을 꿈꾸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14년 4월, 부활절)

절망의 땅에도 봄꽃은 피어나고

박 연 미

할렐루야! 절망과 죽음을 넘어 희망과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

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절망과 죽음 안에 이미 부활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절망의 땅에 몸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새롭게 열릴 하나님나라를 꿈꿉니다.

궁핍을 베푸시는 하나님.

해마다 이맘때면 꿈틀거리는 생명의 설레임으로 봄을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이후 우리에게 봄은, 이해할 수도 대신할 수도 없는 아린 아픔을, 그저 짐작만 하며, 그 억울함을 위해 함께 통곡할 수밖에 없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참사의 진상이 낱알이 드러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다는, 자식 잃은 부모들의 비장함이 우리를 반성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그들만의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버릇처럼 그들 뒤에 숨어 버리는 저희에게 어깨 걸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참사 당시 가졌던 그 안타까움과, 목까지 차올랐던 울음과,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하는 정부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었던 그 기억을 다시 새롭게 떠올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포도원에 온 일꾼도, 저녁나절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하루 필요한 품삯을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답게 노동하고 싶었던 한 노동자가 여러 차례의 자살시도와 우울증으로 힘겹게 삶을 지탱하다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노동탄압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돈 쓰는 사람이 우대 받는 손님이 왕인 시대에, 이사야 예언자가 노래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합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탄압 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다음 차례는 나와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거대 로마와 부패한 종교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단호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 가르쳐 주십시오.

소망을 샘물처럼 베푸시는 하나님.

절망의 땅에도 봄꽃은 피어나고, 저희는 또 부활의 삶을 다짐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다짐을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루 안의 콩나물이 그렇게 자라듯 생명을 향한 저희 믿음 또한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머리로는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살피게 하옵소서. 가슴으로는 이웃과 못 생명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게 하시고, 몸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부활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며, 이제 침묵하면서 하늘의 뜻에 귀 기울입니다.

(2016년 3월, 부활절)

절망만 가득했던 한국 정치에 비와 빛과 희망을

유민지

메마른 곳에 비를, 어두운 곳에 빛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어두컴컴하고 절망만 가득했던 한국 정치에 비와 빛과 희망을 주셔서 또 다시 우리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유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세력을 심판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숨 줄을 더 쉽고 빠르게 잘라내겠다는 이들을 심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조아리지 않는 국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이들을 심판했습니다. 한사람이 가진 강력한 힘이 아니라, 시민 한명 한명이 가진 작은 힘이 모여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냈

습니다. 결과를 본 후에야, 인간의 머리로 예단하고 실망하기 앞섰던 우리를 반성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또 앞으로 나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아직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상처를 입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그들의 위세는 대단하며, 그들을 대신한 이들 또한 과연 얼마나 약속을 지켜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실천이 필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주여, 우리가 쉽게 자만하는 시험에 빠질 때, 이정도면 됐겠지하며 적당히 타협하려 할 때 우리를 붙들어주소서.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자본가의 악랄한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그의 뜻을 이어가려는 동료들이 차갑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시청광장이 내려다보이는 빌딩 꼭대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다시 봄을 맞이한 이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으로 당선된 후보들에게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반성하지 않은 오만한 권력자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만이, 우리의 적당한 타협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소서.

새민족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새 서른살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마굿간에서 시작한 새민족이 광야시대를 지나 정착했습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듬고 만들어 번성해야 할 과제가 새민족 앞에 놓여있습니다. 푸르렀던 스무살 때 함께 꿔던 꿈이 아직 영어가지지 않았습니다. 떠난 이들도, 지친 이들도, 실망한 이들도, 포기한 이들도,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회복해주소서. 다시 우리가 꿈꾸게 하소서. 서로 서로를, 새민족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손을 꼭 잡고, 한걸음씩 발 맞추게 하소서. 각자의 공간에서 새민족을 위해 일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허리를, 목소리를 더욱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16년 4월)

노동자들의 아픔에 함께

신 윤 복

부활의 왕으로 오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모습이 있지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지만, 더불어 함께,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힘들다고, 때로는 쉬고 싶다고, 위로받고 싶다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우리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부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독성 물질이 우리를 폐를 굳게 해 죽음으로 몰아버리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부를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안, 세월호 사건을 보며 우리 바로 앞에 성큼 다가온 위협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봅니다. 이웃과 함께 한 삶, 어려운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한 삶이 나를 지키게 하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보게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을 때 그 고통이 나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8시간 노동을 위해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딛고 탄생한 날입니다. 1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희생이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조선 노동자들의 수천 명 대량 해고를 시작으로 줄줄이 다가올 해고가 노동자들의 삶을 옥조이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오소서, 이웃의 아픔에 눈을 돌리게 하시고 그 아픔에 함께함이 이웃사랑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총선을 통하여 확인된 민의가 정당들의 욕심의 칼이 되어 다시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외면하지 않고 깨어 있게 하여 주소서.

어린이주일을 맞아 어린아이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소서.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어른의 잣대로 아이들을 구별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새민족 30주년을 준비하는 손길이 지치지 않게, 함께 나누며 참여하는 새민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민족을 통하여 예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걷게 하여 주소서.

아버님을 잃고 슬픔에 빠진 홍경숙 집사님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장례 절차에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들에게 성실과 봉사,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나누어 주고, 이제 귀촌의 삶을 준비하는 이경아 집사님께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노동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침묵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2016년 5월, 노동주일/어린이주일)

이 사회를 지탱해 주신 어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신재필

쉽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초록의 자연을 주시고 따뜻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더라도 주님을 뒤편에 모셔두지 않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날이며, 교회에서는 어버이주일과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새민족 공동체가 자라나도록 도와주신 교회 어른신, 그리고 이 사회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신 어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맘몬주의에 빠진 것도 문제지만 윗세대와 아랫세대 간에 지켜져야 할 규범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걱정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스승으로서의 의미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서 더 의미를 두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거리에서 청소년들의 일탈을 더 이상 어른들이 꾸짖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긋난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날개 짓이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그 어긋난 것들을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이 바로 세워져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이를 근간으로 사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의의 하나님. 박근혜 정부는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오만하며 소통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개혁해야 할 권력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은 개혁하지 못하면서 힘없는 근로자들을 개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임금피크제로 청년세대와 장년세대를 구분하더니, 이제는 선진국에서 도입했다 폐지하는 성과연봉제를 효율적인 제도인양 홍보하며 기업들에게 도입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조직분위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제대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올해는 새민족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준비위원회 분과별로 3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30년간 새민족 공동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30년에 대한 비전을 잘 준비하여, 우리가 위치한 망원동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마포구, 서울시로부터도 사랑을 실천하는 매신저로 인정받는 우리 새민족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길 황남덕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2016년 5월, 아버지주일)

건강한 새민족의 어린이로

김 한 울 (어린이교회)

하나님, 오늘 예배에 모든 어른과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항상 말썽도 많이 부리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잘 길러 주신 부모님께 많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민족교회의 모든 어른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 어린이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라라는 어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밝고 씩씩하고 건강한 새민족의 어린이로 무럭무럭 잘 자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멋진 찬양을 준비하신 찬양대, 항상 맛있는 밥을 만들어 주시는 애찬담당 집사님, 그 외에도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저희 어린이들도 보고 잘 닮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어린이들도 조금 길지만 예배시간에 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또 한주일 힘차게 지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아버지주일/가정주일)

청년들에게 강인함과 지혜를

황 다 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맑은 바를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에게 위로와 원동력이 되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며 오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저희는 주님께 솔직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평소 나의 머리와 가슴속에는 온갖 잡념과 불안, 불평이 가득하나, 이곳에서 예배하는 지금에서야 의무감에서 하는 회개와 알곡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이런 저희의 연약함과 오만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오폭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칠포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꿈과 희망으로 가슴이 항상 설레어야 할, 다시는 오지 않을 아름다운 시기에 청년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며 캄캄하고 높은 고용 절벽 끝자락에 매달려 울고 있습니다. 주님, 과연 우리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기성세대들의 탐욕과 독선으로 만들어진 제도와 ‘열정페이’라는 이름하에 청년들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고, 꿈과 희망조차 갖지 못하게 조롱하며 절벽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본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더 이상 청년들이 물질로, 헛된 희망으로 농락당하지 않도록 청년들에게는 강인함과 지혜를, 기성세대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포용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의 하나님, 아시아의 이웃나라 네팔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네팔은 수차례의 강진으로 많은 이들이 아픔과 슬픔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 잔해에 갇혀 아직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하여 팔 걷어 구호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지진을 통해 또 한 번, 자연 앞에서는 인간은 언제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시지만, 어리석은 저희는 공존은커녕 자연을 지배하고 그 섭리를 거스르려고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만들어진 미세먼지, 오염수,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많은 원전들. 주님, 끊임없는 소비와 생산의 질곡에 빠져버린 이 땅과 이 사회를 고쳐주시고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내려주소서.

평화의 하나님, 저희 새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립 30주년을 앞둔 새민족 공동체. 많은 일들을 겪고 그 일들을 통해 성숙함과 변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달라도 서로를 위한 연민과 관심, 사랑, 주님을 향한 올바른 공동체적 신앙 가치관 등 가장 기본적인어야 하는 것들이 잘 나누어져 있나, 30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나와 세대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동안 다가가지 못하고 심지어 멀어져 있는 교우가 있나 생각해 봅니다. 알량한 자존심으로 껍질이 굳어져 있는 나의 목이 그 교우들을 위해 먼저 고개가 숙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각자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살아가면서 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나의 이기심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넘치는 배려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입니다.

(2015년 5월, 청년주일)

청년들이 하나님나라 운동에 주체적인 존재로

정 찬 영

언제나 저희를 굶어살피는 하나님 아버지, 1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금 청년주일을 맞아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은혜로운 한 해를 보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36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기리며, 청년주일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날 죽어간 사람들의 넋을 기리기 위함인지, 사람들이 죽어가며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대의를 꿈꾸기 위함인지, 518과 함께 이 땅 위의 모든 청년의 안위를 챙기기 위함인지, 청년주일 예배의 의미를 저희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압니다. 그 날 죽어간 사람들의 넋도 제대로 위로되지 못했고, 민주주의의 대의는 외려 점점 더 잃어가고 있고, 이 땅 위 청년의 안위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자라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사회의 주체적인 존재로, 국가의 허리로 자라나야 할 청년들이 그 기회조차 잃었음을 잘 압니다. 대구에서 대학교의 입학식을 가려던 수많은 청년들은 지하철 참사로 영영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수백명이 모인 강당의 지붕은 무너졌고, 수학여행을 가던 수백명의 학생은 그대로 수장되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맞는 청년주일의 자리에서, 지난 1년 간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 땅 위의 청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제자리걸음은 커녕, 퇴보하는 듯 한 개개인의 모습에, 사회의 질서에, 국가의 정책에 이러한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36년 전,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광주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청년 시민들의 모습은 간 데 없고,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기 바쁜 미력한 존재들만 남아 있습니다. 혹자는 각자의 노력이 부족하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

자신의 존재에 대한 온전한 가치관 형성이 부족하다 라고들 하지만,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이렇게 몰리게 된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우린 아직 알지 못합니다.

저를 비롯한 새민족의 청년들이, 이 땅 위의 청년들이 조금 더 자신의 삶에, 한반도의 통일 대한민국에, 하나님나라 운동에 주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갈구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 어디서부터 바라보아야 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소서.

올해는 청년 새민족이 서른살을 맞는 해입니다. 이제 새민족은 완전한 청년으로서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새민족 또한 구성된 개개인의 삶에 좀 더 평화와 안정이 가득하기를, 하나님나라 운동에 주체적인 존재로서 주변을 굽어살피는 존재로 나아가는 30주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며 살피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6년 5월, 청년주일)

분열된 이 땅에 화합의 씨앗을

김 미 경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뭄 끝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 고단하고 분주하게 살아내던 우리를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과 친구를 주셔서 연대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이 땅에 단비가 내려 절망과 시름에 빠져있던 농부는 다시 희망을 품고 씨를 뿌립니다. 농부에게 희망의 단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의 단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5년이 이미 반이나 지나갔

다고 절망과 시름 속에만 빠져있게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뜻을 씨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올해는 광복 70년, 6.15 공동선언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완의 광복이 완성되고 정전협정이 종전협정이 되도록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노력들에 우리가 앞장서게 해 주십시오. 분열된 이 땅에 화합의 씨앗을 뿌리며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해 주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세월호의 아픔이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며,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져 정의가 이 땅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름을 틀림이 아닌 다양함과 풍성함으로 받아들여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벌써 2015년 상반기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세웠던 많은 목표가 수정되거나 보완될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뤄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실천이 우리를 분열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뤄지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우리의 실천이 이웃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실천이 오직 주님과 이웃을 향하게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뜻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힘들고 고은일마다하지 않은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굴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봉사하는 손길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건강을 잃고 힘들어 하는 교우에게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교우에게 더 이상 닫힌 문이 아닌 열린 창을 보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에 힘입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둔한 입술로 미처 아뢰지 못한 것 주님은 아시오니 다 이뤄주시고 오늘 함께 하지 못한 교우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6월)

편견에 의한 차별에 눈감지 않게

김 군 육

모든 살아 숨 쉬는 것들의 생명을 주관 하시는 하느님!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걸어 다니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얼마 전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성수수자 축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억압받아왔던 그래서 숨어서 밖에 지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들이 인간으로써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기독교에서 동성애를 악으로 여기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약자일수록 밖에 없는 이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우리사회에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와 다르게 생겼다고 차별하고,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차별하고,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고,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여성이라고 차별하고, 장애인이라고 차별하고, 성소수자라고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힘없는 사람들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편견에 의한 차별을 눈감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정의의 하느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일년하고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바라는 실종자 완전수습과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과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지연시키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유가족들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실꺼라 믿습니다.

(2015년 7월)

어둠의 세상에서 작은 빛이라도 만들기 위해

문 종 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던 고통 받는 이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민족만을 위해 수많은 어린이를 죽음에 몰아넣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인가요? 세월호라는 민초들의 커다란 희생을 외면해버리려는 위정자들도 있습니다. 왜 나라는 이런 위정자들이 더 득세하는 세상이 될까요? 주님, 저희가 이런 것들로 실망하여 마음속에 어둠의 자리가 많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어둠의 세상에서 작은 빛이라도 만들기 위해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폭격에 총탄에 희생당하는 작고 어리고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그 참혹한 전쟁이 빨리 종결되도록 마음이나 마 하나로 모으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

세월호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비바람이 치는, 한 여름 뜨거운 태양 빛 한 가운데 광장에서 단식으로 그들의 바람을 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체력과 심력을 보살피 주옵소서. 그들이 뜻하는 소망이 위정자들이나 위정자들에게 동조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순수하게 전달되어 이 안타까운 상황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새민족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민족 공

동체와 함께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저희들은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늘 깨어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편리와 감흥에 맞게 풀이하게 하지 마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마음의 상처 자국은 지워지게 하옵소서. 늘 즐거운 마음 갖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온전한 힘을 주옵소서.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가 우리 교인들의 생활에 흠뻑 적혀져 하나님의 슬기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일하는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함께함으로 서로 즐거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14년 8월)

어려운 이들에게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주 혜 진

우리의 삶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4박 5일의 일정으로 프란체스코 교황의 오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과 가까이 지내며 일상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감사도 놓치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약자의 인권이 짓밟히는 암울한 우리의 여건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용산 참사 피해자 가족, 강정마을과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 쌍용차 해고 노동

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도 함께 드리오니 이 어려운 이들에게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눈 감고 귀 막은 이 땅의 권력자들이 눈 뜨고 귀를 열게 하시고, 자기의 주머니만이 커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소서.

세월호 유족들은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며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지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식을 앞세운 참척의 슬픔을 가누지 못하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십자가를 짊어진 채 800km를 순례하며 진실규명을 외치는 세월호 유족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있던 약자들의 소리가 더욱 힘 있게 관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장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다시 깨달음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간은 목사님의 휴가로 손은정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애끓는 마음으로 붙잡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침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입니다.

(2014년 8월)

정의와 평화가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강 성 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례전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길을 걷고자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여름수련회는 각자의 일터와 교회에서의 노고와 피로를 잊고 휴식을 주제로 한 2박3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교우들 간에 화합하며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돌아 온 소중한 시간이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름수련회를 통해 축적된 에너지를 기반으로 교회에서 추진되는 30주년 기념사업 등 대내외적인 여러 활동들이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세월호 유족들의 염원은 점점 잊혀져만 가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진상규명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모자라서 시작조차 못하도록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들에게 힘주시고, 어려운 시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정권 장악을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불법 사찰, 무차별적인 인터넷 여론 몰이 댓글 등 현 정권의 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도 침묵하며 모른 척 합니다. 오히려 언론을 장악한 거대 권력으로 또 다른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역사 왜곡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를 대부분 제외시킴으로 그들의 친일 역사의 치부와 군부 독재 시절의 횡포를 조직적으로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절망을 떨치고 희망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수난 속에서도 곳곳이 빛난 예수님의 열정(passion)을 가슴에 담길 원합니다.

(2015년 8월)

우리민족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상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어느덧 무더운 날씨가 한풀 꺾인 8월 마지막 주, 성령강림절 후 열두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며 광화문에서 46일간 단식을 했던 유민이 아빠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자식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던 유민이 아빠가 하루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세월호 참사 10명의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자식을 잃고, 아픔을 딛고, 안전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과 유민이 아빠가 비운 자리를 대신해서 국민 동조단식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 정책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앞에서는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승인하는 등 남과 북은 다시 대결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대결로 나아갈 때 우리민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평화와 통일에 무감각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민족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복원하여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노동현장에는 차별로, 비정규직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받는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우리도 외면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아서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새민족 공동체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2014년 8월)

기쁨의 공동체, 살림과 돌봄의 공동체가 되게

허 욱

우리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민족교회 창립 28주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때뿐 아니라 시련 중에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고자 모인지 28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회운영에서 벗어나 종교개혁의 정신인 평신도 교회를 이루고자 모인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옳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진하고 부족했던 점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 자신부터 열심이지 못했습니다. 새민족공동체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도 이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망원동 시대를 연지 4년 차가 되어가지만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조금씩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민족 3.0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황남덕 목사님을 보내 주셔서 새민족공동체가 안정 속에 진전을 이루어가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이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고민과 방황하는 중에도 신앙을 키워가고, 미래의 주역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새교우들도 늘어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새민족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쁨의 공동체, 살림과 돌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계획만을 앞세워 공동체 자매와 형제들의 어려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세상을 향해 늘 깨어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최근의 한반도 주변 상황은 여전히 평화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경제는 어렵고, 국민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어제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가려다 막혀 그제부터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버스로 완전히 둘러싸서 막아 시민들의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팽목향 등대에서는 어제 대책위원회와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추모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아직까지 찾지 못한 열 명의 희생자들을 빨리 찾기를 바라며 풍등 5백여개를 하늘로 올려 보냈습니다. 희생자 수색작업이 마지막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40일 동안 단식을 하다 병원으로 옮겨진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단식으로 건강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정의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 협력을 통해 불의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창립 28주년을 맞는 새민족공동체를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세상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2014년 8월, 창립기념주일에배)

슬픈 추석을 보내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김 명 희

너무도 무덥고 치열했던 여름을 지나, 어느덧 아침 저녁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이 땅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엮드려 경배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아프게 한 것 반성합니다.

지난주는 한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을 보며, 훌쩍 커버린 아이들의 모습에 놀라고, 각자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응원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추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즐거운 명절, 제 마음 한켠 무거움을 벗을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살았던, 살고 있는 민중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먼 옛날 임진년 왜가 쳐들어오자, 궁궐을 버리고 도망간 왕을 보며 백성들이 맞이했을 슬픈 추석과 국민들에게는 안심하라는 거짓말을 하며,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도망간 대통령을 보며 맞이했을 슬픈 추석과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만 믿고 꽃 같은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사라져 가는 모습을 눈뜨고 지켜보아야 했던 오늘 이시대의 국민과 단원고 부모님들의 슬픈 추석은 시간이 흘러도 같기만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손을 잡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는 교황님의 8월 크리스마스 선물은 사라지고 그저 아이들이 왜 그렇게 속절없이 가야 했는지, 그 책임은 누구인지를 묻는 유가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저 선거 때만 넘기기 위해 거짓 눈물을 흘린 박근혜의 사악한 모습과 인간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악한행동들 뿐이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민중을 불쌍히 여기시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의와 평화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지치지 않게 기도하고 실천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당신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유민이 아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치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이제 여기 새민족교회와 함께 하셔서 목사님 말씀의 선포를 따르고 실천하는 새민족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옳은 것을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 라고 말하고, 스마트폰보다는 바람의 소리를 듣고, 푸른 하늘, 길가의 꽃을 바라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새민족교회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며 이제 침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입니다.

(2014년 9월, 추석주일)

성령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김 성 종

길ियो, 진리요, 생명이시고,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되시는 주님! 한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거룩한 날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겁던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합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한여름 태양과 농부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결실을 맺듯, 주님의 은총과 보살핌으로 저희들의 하루도 성령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고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구조 받지 못하고 바다 속에서 숨져간 꽃다운 아이들의 꿈들이 진상규명도 못한 채 200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벌인 자원외교와 4대강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고, 안전하지 못한 원자력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에 의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민족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희망이며, 사람이 희망인 교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보다는 험벗고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도울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경청하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찬양대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찬양소리가 온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님들에게 화평의 은사를 허락하시옵시고, 예배를 시작하는 지금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2014년 10월)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나라로 담대히 나아가게

김진오

긴 겨울을 뚫고 파릇파릇 새싹을 피우던 봄을 지나, 뜨거운 햇볕아래 열매를 살찌우던 여름을 거쳐, 황금빛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어 고개 숙인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일상에 파묻혀 나와 내 주위의 생명들에 대해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생명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일의 노동이 피곤한 사람들에게도, 그 매일 매일의 노동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이 어린 이들에게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그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한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날인 이 순간이라도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민하게 하시고, 잊고 있었던, 혹은 의식하지 못했던, 주위의 생명들에 대해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차가운 거리에서, 전광판 위에서, 굴뚝 위에서 생명과도 같은 일 자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쫓겨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외롭고 지난한 투쟁에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게 하시고, 늘 깨어서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욕심은 끝을 알 수 없어서, 더 가지는 것에 익숙하며, 나누는 것에 인색합니다. 재벌들의, 자본의 탐욕을 비난하는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도 남들 보다 더 가지고 싶은 욕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중에 먹기 위해 나누지 않고 몰래 숨겨 놓았던 만나가 썩어 없어졌던 것처럼, 내일 썩어질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리떡 두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를 바친 어린이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에,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관심을 쏟고 더 얻고자 애쓰기보다,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나의 감사
가 나만의 감사가 아닌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새민족 공동체를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새민족의 이름으로 모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살아온 지 어
느덧 삼십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무살의 뜨거웠던 열정이, 서른이 되
는 새민족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 주시고, 좋았던 기억들, 슬
프고 아팠던 기억들 모두 함께 울고 웃으며 간직하게 해 주시고, 그 속에
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감사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지난 서른 해 동안의 기억들을 잘 다듬고 매만져, 부
족했던 점은 조금씩 채우고, 잘했던 것들은 계속 간직하며, 더욱 성장하는
새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단순한 양적인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의, 평
화, 생명의 하나님나라를 향한 열정이 더욱 커지는 신앙의 성장이 되게 하
여 주십시오. 민족과 세계를 향한 큰 꿈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우리 옆
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소중히 여기며, 각 사람의 생각과 신앙을 존
중하고, 서로를 향해 더욱 열려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나라로 가는 길이 때론 가시밭길, 돌쫘 길 일지
라도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민족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치고 힘들수록 나 자신부터 한
발짝 더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
며,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나라를 향해 함께 진군하는 믿음의 동지
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나라를 향한 열정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나라를 향한 신앙이 씨 뿌려지고 가꿔
져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여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2015년 11월)

자본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일구는 사회임을 알게

김 현 숙

찬양 받으실 하나님!

지난 한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농부들의
노고와 그 노고를 잘 받아 준 자연의 덕분에 우리는 햇곡식과 햇과일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력한 대가를 돌려주는 자연에 비해 인간은 너무나 욕심이 많아 일한 댓
가를 제대로 주지 않고 그저 쉰 임금에 사람을 부리려고만 하는 사용주의
황포가 날로 극심해지고, 그 쉰 임금마저도 생계를 위해 포기할 수 없어
참고 또 참으며 감정노동을 하던 어떤 노동자는 생을 마감함으로 마지막
저항을 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무리 맘몬이 판치는 세상이라 하
나, 그래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노력하
며 살아갈 수 있게, 자본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일궈지는 사회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보
태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이 한해 어떠한 결실
을 맺었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많이 얻은 이는 많이 얻은 것에 감사하며 나누게 하시고, 적게
거둔 이는 적게 거둔 대로 그 각각의 소용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얻은 것보다 잃은 것으로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로
가족을 잃고, 송전탑으로 살고 있던 터전을 잃고, 비정규직으로 일터를 잃
고, 주님!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는 한계상

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읽어 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광야를 건너 가 나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온전히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민족 공동체를 지켜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이들이 모였지만 공동체의 이름으로 큰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고, 뒤에서 있는 이들도 기도로, 응원으로 함께 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학교를 위해 애쓰는 교사들을 지켜 주시고 그 곳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주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황남덕 목사님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컷병을 앓고 계신데,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교우들의 살아갈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좋은 찬양으로 기쁨을 주는 찬양대, 또 보이지 않게 준비하는 여러 교우들…… 우리의 마음도 열려 이 예배를 완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추수감사주일)

어깨 곁고 기대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나 성 립

계절을 통해 자연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고, 열매 뒤에 온전히 옷을 벗어 다음 해를 준비하는 나무처럼, 겨울을 통해 봄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기다림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들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나 예나 지금이나 헐벗은 이들이 있고, 외롭

고 고독하며 의지할 데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온도를 높여 반소매를 입고 지내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겹겹이 껴입고, 연탄 한 장 아끼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여전히 함께 합니다.

주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처음 시리아 아동이 바닷가에 밀려 왔을 때, 모두들 놀라고 마음 아파하면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뒤이어, 희생된 아이들이 발견되어도 관심은 줄고 보복과 공격으로만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부디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 서로서로 보듬어 안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주님, 축섭니다. 이렇게 많이 춥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오리라 믿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기 기다리는 동안 발을 헛딛지 않게 하옵고,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이 어깨 곁고 기대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저희들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부디 힘내고, 용기 내어 또 한 걸음 내딛어 걷게 하소서. 더디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토의하며 상대를 배려하면서 다시 또 출발하는 아침들을 주소서.

저 먼 곳에도 여기 가까이에도 주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 담대하게,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순~한 마음으로 손 맞잡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2015년 12월, 대림절)

선한 것에 선을 더하며 성실함으로 나아가게

홍 경 속

교회의 머리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떠들썩했던 2014년은 우리 가슴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응어리로 남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새롭게 밝은 2015년 을미년 새해를 희망차게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지나간 한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들은 평안함을 누리며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복잡하고 바쁜 삶 속에서 살지만 언제나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은 매일이 기적 같은 날들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부터 믿음의 자녀들답게 오직 사랑과 믿음 축복과 감사로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의 욕심을 자제케 하시고 성품을 더디 하며 선한 것에 선을 더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해 각자의 달란트에 맞추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애찬, 성가대, 교사, 숨은 봉사의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주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은혜의 과정들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맡은 본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때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하게 하시어 순간순간 어려움에 부딪칠지라도 지탱할 용기를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좀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향기 나는 사랑의 교회 모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 축복이 되게 하소서. 예배 후에 교우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영육간에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마음, 사랑과 은사로 드러지게 하옵소서.

(2014년 12월)



새민족 3대 뉴스

2007~2016

첫 번째 뉴스 | 새민족교회 선출직 선출! ● 231

두 번째 뉴스 | 신임 목회자 부임! ● 240

세 번째 뉴스 | 새민족교회 건물을 갖다! ● 300



첫 번째 뉴스

새민족교회 선출직 선출!

2007년 장로, 안수집사 선출

장로 | 김종원 신윤복

안수집사 | 김석환 김진희 손정일 주혜진

2012년 장로, 안수집사 선출

장로 | 문종철 박연미

안수집사 | 차옥영 최현수 허욱

2007년 제1차 교회위원회 회의록

일시와 장소 : 2007년 1월 16일 오후 8시, 교회 사무실

위원 : 김수강, 김종원, 신윤복, 유민지, 이근복, 주혜진, 진정희, 김석환

참석위원 : 김종원, 신윤복, 유민지, 이근복, 진정희, 김석환(참석 6명, 결석 2명)

- 의장인 김석환 위원장이 사회하다.
- 김종원 집사의 기도로 시작하다.

3. 직분자 선거 준비의 건

1) 일정 협의

- 4월 8일 부활절에 선거를 치르기로 하다.
- 안수집사 남녀 각 2명, 장로 2명을 선출하기로 하다.
- 안수집사, 장로 선출을 비롯한 이후의 계획도 정리하여 교우들과 공유하기로 하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당사자가 아닌 교우들로 구성하기로 하다.
- 위원장에 이영자권사, 위원으로 진정희/유민지(교회위 파송), 김태영/이경한집사를 선임하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월말까지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방법 등을 교회위원회로 제출하기로 하다.
- 바른 직분자 상에 대한 연구(규약의 정신에 근거한), 조직교회의 필요성, 조직교회 이후의 전망 등에 대하여 교우들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후보, 홈페이지, 등대를 통한 홍보와 토론을 하고 필요할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다.

2007년 제2차 교회위원회 회의록

일시와 장소 : 2007년 1월 30일(화) 오후 8시, 교회 사무실

참석위원 : 김석환, 김종원, 신윤복, 이근복, 주혜진, 진정희(불참 유민지)

- 의장인 김석환 위원장이 사회하다.
- 신윤복 집사의 기도로 시작하다.

4. 향존직 선거 준비에 관한 사항

- 향존직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근복목사를 위원으로 추가 선임(선거의 의의, 방향 제시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7년 제3차 교회위원회 회의록

일시와 장소 : 2007년 2월 22일(목) 오후 8시, 교회 사무실

위원 : 김석환, 김종원, 신윤복, 염명희, 이근복, 주혜진, 진정희(불참 유민지)

2. 향존직 선출 관련 활동 계획

- 1) 선출 방법은 규약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며, 선거일정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하다.
- 2)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조직교회 및 향존직 선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대화의 광장> 프로그램으로 열기로 하다.
 - 일시 : 3월 11일
 - 내용 : 다음과 같이 주제발표를 준비하기로 하다(주제는 '가칭'임)
발제1 : 발전적인 조직교회로의 발돋움을 위하여(교회위/교회위원장)
발제2 : 새민족교회와 바른 직분자상(선관위)

2007년 제4차 교회위원회 회의록

일시와 장소 : 2007년 3월 29일(목) 오후 8시, 교회 사무실

위원 : 김석환, 김종원, 신윤복, 염명희, 이근복, 주혜진(불참 유민지, 진정희)

1. 향존직 선거에 관한 사항

- 1) 추진 내용 : 후보자 설문조사, 장로후보 소견문과 공동공약
 - 투표소 설치(서대문구선관위 협조)
- 2) 선거 진행 : 교인총회 개회(교회위원장), 선거진행(선관위원장)
 - 후보발언은 설문 및 소견문으로 대신하고 소개만 함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혹은 2/3이상 득표자 없어도 3차 투표까지 실시

2007년 제5차 교회위원회 회의록

일시와 장소 : 2007년 4월 25일(수) 오후 8시 30분, 어린이교회실

참석위원 : 김석환, 김종원, 신윤복, 염명희, 이근복, 주혜진, 진정희(불참 유민지)

1. 조직교회 전환 및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1) 조직교회 이행 절차와 일정

- 노회 9월 시찰회에서 장로고시 청원, 10월 노회 회기 중 고시 치름
- 합격 후 연내 안수 및 임직
- 임직 일시 추후 결정함

2) 향존직 훈련 계획

- 임직 준비 교육계획을 담임목사와 아라가기등대가 수립하기로 하다.
- 5월 말부터 시작하기로 하다.

3) 조직교회와 목회구조 연구 소위원회 구성

- 조직교회 이행과 함께 전임목사(부목사) 임용 등 목회시스템 변화를 위해 준비, 연구하기로 하고
- 김석환, 김종원, 신윤복, 이근복, 이영자 등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다.

2007년 제7차 교회위원회회의록

일시와 장소 : 2007년 6월 20일(수) 오후 8시, 교회사무실

참석위원 : 김석환, 김종원, 신윤복, 염명희, 주혜진, 진정희, 이근복(불참 유민지)

- 의장 : 김석환 위원장

- 기도 : 주혜진 위원

2. 향존직 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독인연대 '평신도아카데미' 참석과 보고서 작성, 제출 / 6월

2) 훈련

- (1) 리더쉽 훈련
- (2) 관상기도 훈련
- (3) 선교현장방문과 선교활동 모색(예, 농촌교회와 연대 연구)
- (4) 섬김과 나눔 훈련

3) 학습과 연구

- (1)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
- (2) 교회의 본질
- (3) 공동체 활성화방안
- (4) 예배와 설교의 본질
- (5) 오늘의 상황인식 - 정세, 남북관계 등
- (6) 책 공부 : 세이비어 공동체 /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4) 나눔과 친교

- (1) 장로와 대화 : 강남향린교회 김동한 장로, 새문안교회 오장은 장로
- (2) 일박모임 : 단합과 팀웍, 역할분담과 조화

5) 협의사항

- (1) 향존직 모임설치 방안
- (2) 안수식
 - 7월 1일, 교육 대상자 회의 - 계획과 일정 등 검토
 - 초안을 중심으로 이근복 목사와 아라가기등대 김종원 집사가 협의, 확정

향존직 교육과 훈련 계획

2007. 8
아라가기등대

■ 목적

1. 4.8 향존직 선거에서 피택된 임직후보자들에 대한 임직 준비
2. 평신도 지도력과 목회 역량 향상
3. 향존직간 결속과 역할 등 신앙생활과 교회 활동에 대한 나눔과 섬김

■ 방향

1. 새민족공동체 정신과 신앙고백을 강화
2. 비전과 전략 추진을 위한 교회지도력 형성
3. 목회 역량 훈련

■ 기간 및 참석 대상

1. 기간 : 2007. 7 ~ 12 월
2. 대상 : 피택 및 현 향존직 전원

3. 운영방침

- 1) 전과정 출석 원칙
- 2) 출석하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학습(조사) 보고서 제출
- 3) 일부 과정은 기존 향존직도 참석

■ 프로그램

1. 학습과 연구

- 1) 성서신학
 - 도울 김용옥 선생 강의(평신도아카데미) 참석 및 보고서 제출/토론
 - 성서학당 이꿈이 교육
- 2) 교회론
 - 교회란 무엇인가
 - 사례연구 : 세이비어 공동체 /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 공동체 연구
 - 세계에큐메니칼운동의 흐름
- 3) 예배
 - 예전 연구와 성례전 바로 잡기
 - 설교와 실제
- 4) 오늘의 상황과 교회
 - 오늘의 세계와 세계교회의 신앙고백
 - 한국사회 현실과 교회의 사명

2. 현장과 함께

- 1) 교회와 공동체 현장
 - 평신도지도력 사례 : 김동한장로(강남향린교회)
 - 대안공동체 사례 : 아름다운마을공동체 기초생활공동체 참여
- 2) 선교 현장과 연대

2007년 제11차 교회위원회 회의록

일시와 장소 : 2007년 10월 31일(수) 오후 9시, 어린이예배실

참석 : 김석환, 신윤복, 주혜진, 진정희, 이근복

- 의장 : 김석환 위원장

- 기도 : 신윤복 집사

1. 향존직 임직식 및 조직교회 출범에 관한 사항

- 1) 임직식 계획 : 임직식은 12월 16일에 개최하고 살림소리등대와 이근복목사가 협의하여 11월 24일까지 계획안을 교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 2) 당회 구성 계획 :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법적 절차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다.

3. 활동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별첨 참조)

- 1) 등대는 현행 6개 등대에서 선교와 연대 등대를 에큐메니칼 등대와 사회 선교 등대로 나누어 전체 7개 등대로 재편한다.
- 2) 어린이교회 부장과 청소년교회 부장은 전문 분야 목회로 구분한다.
- 3) 등대목자는 평신도 향존직을 우선 활용하고 목회자는 지원과 필요시 참여한다.
- 4) 11월 11일 향존직 모임을 통해 2008년 역할을 협의하기로 하다.
- 5)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 활동을 위한 위원은 11월 18일까지 자원과 추천을 받는다. 활동 영역으로는 '예배/주보/홈페이지 운영/활동자료 정리/대화의 광장/애찬/관리'의 7개를 대상으로 한다. 몇 명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며 팀은 관련 등대로 참여한다.
- 6) 교회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향존직 3명"의 참여를 "장로 1명, 안수집사와 권사 중 2명"으로 규약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다.
- 7) 자발적이며 공식적인 소모임 구성을 적극 추진하고, 소모임 가나안반에 대하여 교회활동에 기여하는 공식적 소모임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다.

별첨 1

교회 활동구조 개편(안)

1. 왜 활동구조를 개편하는가?

- 1) 교회 비전 추진을 구체적이고 결속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 등대와 결합된 활동 전개
- 2) 향존직 증원으로 등대를 세분하여 평신도지도력을 발전시켜 역동적인 목회 구현

3) 교우들의 자발성을 높이고 공동체 신앙생활을 활성화 함

2. 개편 방향

- 1) 등대를 증설하고, 모든 등대는 성서학당, 교회운영과 기능적(위원회) 활동 그리고 고유한 선교활동을 전개한다.
- 2) 비전추진과 관련된 일부 활동을 특정 등대가 담당할 수 있다.
- 3) 교회운영과 활동의 필요, 그리고 사회이슈에 대응하는 활동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한다.
- 4) 자발적 소모임을 권장하고 소모임은 교회 활동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주요 개편 내용

- 1) 등대 구성
 - (1) 10명의 향존직(교역자, 권사 포함)을 등대, 전문분야 목회 등에 배치
 - 등대(7명) : 7개로 구성(한 개 증설)
 - 전문분야(3명) : 어린이교회 부장, 청소년교회 부장, 찬양대장
 - (2) 등대의 선교활동 추진
 - 환경, 에큐메니칼운동, 도농교류, 장애인, 이주노동자, 인권, 소수자, 평화통일, 노동 등 1등대 1선교활동 추진
 - (3) 등대에는 교회 운영 관련 기능적 활동을 하는 위원을 등대지기를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활동한다(예배, 인터넷, 주보, 관리, 애찬, 교육 등).
 - (4) 등대목자는 목회적 활동을 중점으로 하고, 등대지기는 교회운영 기능을 담당한다.
- 2) 특별위원회 설치
 - 공동육아준비위원회, 생명평화센터 추진위원회, FTA대책활동위원회 등
- 3) 자발적 소모임 활성화
 - 독서, 자원봉사, 반찬, 문화, 산행, 미래연구 등
- 4) 교회위원회 구성 개편 검토
 - 장로 2인을 당연직 교회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안
 - 장로대표 1인을 교회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안

4. 추진 일정

- 9월 29일 교회위원회 논의
- 10월 2,3일 향존직 수련회 논의
- 10월 21일 등대 토론
- 10월 31일 교회위원회 결정
- 11월 정기제직회 결의
- 12월 임시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규약 47, 48조)

2007년 제12차 교회위원회 회의록

일시와 장소 : 2007년 11월 28일(수) 오후 9:00, 어린이예배실

위원 : 김석환, 김종원, 신윤복, 염명희, 주혜진, 진정희, 이근복(불참 유민지)

- 의장 : 김석환 위원장

- 기도 : 염명희 집사

1. 향존직 임직/퇴임식에 관한 사항

1) 임직식 준비와 프로그램

- 설교 : 유경재목사(전 안동교회 목사)
- 상세 프로그램과 진행 계획, 준비 사항은 문종철/박연미 집사가 담당하기로 함
- 다음 주 수요일(12.5) 준비계획 자료 제출, 협의하기로 함
- 행사명칭을 '이영자권사 퇴임 및 장로, 집사 임직식'으로 하다.

2) 이영자권사 퇴임에 관한 사항

- '명예권사'로 위촉하고 감사의 선물을 증정하기로 하다.



두 번째 뉴스

신임 목회자 부임!

2008년 김영철 목사 부임

2013년 황남덕 목사 부임

2008년 목회자 청빙 자료

목회자 청빙과 교회 공동체 세우기

- 새민족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2008.12.2

발표 : 김종원

■ 청빙 활동 경과(2008년 1월-6월)

- 1.24(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이근복 목사를 선교훈련원장으로 선임
- 2.03(일) 교회위원회, 청빙위원회 구성(5인)
- 3.02(일)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대토론회
- 3.16(일) 담임목사 청빙 공고
- 4.18(금) 지원자 서류접수 마감(26명)
- 4.19(토) 청빙위원회, 서류심사 / 1단계 후보 5명 선정
- 4.25(금) 교회위원회, 청빙위원회가 2단계 후보자를 2~3명 선발하도록 결정
- 5.14(수) 청빙위원회, 2단계 후보 3명 선정
- 5.18(일) 등대교회, 담임목사 청빙 절차 및 결정을 위한 의견 나눔
- 5.25(일) 교인총회(청빙 절차, 후보자 선정 방법에 관한 결정)
- 5.28(수) 청빙위원회(후보자 압축 완료 / 의견 요청 과제 확정)
복수 후보자 의견요청서 전달
- 6.04(수) 의견요청서 제출 마감
- 6.07(토) 청빙위원회, 의견서 편집, 공람 준비 작업
- 6.08(일) 후보자 3인의 의견서 전교인 공람
- 6.14(토) 교회위원회 임시회의, 최종 후보자로 김영철 목사 결정
- 6.15(일) 최종후보자 공고
- 6.22(일) 교인총회에서 김영철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

■ 평가

1. 전체 일정

- 1) 이근복 목사의 NCC 선교훈련원장 부임 확정에 따라 청빙위원회를 재 구성하여 약 5개월에 걸친 청빙 활동 추진
- 2) 대토론회, 등대교회 모임, 제직회, 교회위원회, 교인총회 등 교회의 공

식적 활동을 통한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 과정 거침

- 3) 기간의 장단에 대하여는 청빙 절차와 과정, 방식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이번 청빙 일정은 보다 조직적이며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던 점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함

2. 청빙위원회 구성과 조직

- 1) 청빙위원회는 대표성, 지도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교회위원장과 교회 위원, 장로, 명예권사 등으로 교회위원회가 선임하였음
- 2) 청빙위원회 활동의 신뢰와 구심력을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교회위원회가 안을 제출하여 교인총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3) 목회자 청빙의 특별한 성격에 비추어 보면 현 담임목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3. 후보자 심사 및 선정 방법

- 1) 서류 심사 - 5배수 선정 - 3인 선발 - 1인 결정 - 청빙 확정 등 단계를 거치는 동안 토론과 심사, 의견서 평가 등의 다양하고 심층적 전형방법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높임
- 2) 단계마다 활용한 평가기준 및 항목과 의견서 등은 청빙 활동의 풍부한 내용을 갖게 함
- 3) 목회 경험과 실제 인지도, 평판 등 서류와 문서 이외의 평가와 판단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 4) 복수의 최종후보자들에 대한 면담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의견요청서를 통해 면담에 준하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됨(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나 최종후보자들이 주일예배 설교 등으로 교회 방문 및 소개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

4. 정보 공개의 문제

- 후보자 관련 정보, 청빙위원회 내부 토론 자료의 공개 범위와 수준에 대한 방침 설정과 이에 대한 전교우적 합의를 이루어야 함

5. 청빙 활동 과정에서 교우 참여 활성화

- 1) 청빙 활동의 중요성을 적극 고려하여 교우들의 의견과 참여를 실현하는 다양한 차원의 의견수렴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함
- 2) 교우들의 여론과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회 각급 지도력 - 목회

자, 선출직 평신도, 교회위원, 등대일꾼 등의 분명하고 공정하면서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이 절대 필요함

6. 총평

- 1) 담임목사 청빙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구성원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일치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함. 따라서 이러한 청빙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전체 교우들이 잘 인식하여 공동체적 합의와 일치, 결속을 실현하는 축제적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함
- 2)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청빙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보여 준 이번 청빙 과정에 대해 교회사적 평가를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목회자 청빙과 교회 운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3) 청빙 활동 전 과정을 통해 나타난 평가의 결과, 공동체 지도자(이끌이)들이 보다 교회운영과 활동에 집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 새민족교회 목회자 상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

[발제 및 토론 주제]

1. 새민족교회 신앙과 선교 방향
 - 새민족교회 헌장과 신앙고백
 - 교인 실천규범과 비전 그리고 선교 방향
2. 우리가 바라는 새민족교회의 목회자 상
 -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의 하나님나라 건설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새민족교회의 창립정신과 비전 실천
 - 평신도 목회 정신에 따라 평신도의 훈련, 교육과 민주적 교회 운영을 중시
 -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교회들간의 연대와 실천에 대한 의지
 - 기도, 교육 등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
 - 새민족교회의 정신에 합당한 성례전과 설교로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분
3. 새 담임목사를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
 -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공동 목회의 좋은 동역자로 맞이함

- 새민족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력
-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세운 뜻을 함께 바라보는 것
- 지난 20년 교회의 기초와 발전을 기반으로 새 담임목사가 본격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평신도 모든 교우들과 공동체가 협력해야 할 것

■ 청빙 공고 주요 내용

[자격]

1. 본 교단 목사로서 목사 안수 후 3년 이상 목회하신 분
2. 새민족교회 헌장에 동의하고 에큐메니칼운동에 헌신하는 분
3. 성별(남여) 구분 없음

[전형 방법]

1. 1단계 : 서류 심사
2. 2단계 : 목회계획서, 심층 면접 등(1단계 합격자에 한함)

■ 청빙 절차와 후보자 결정 방법

1. 1안 : 교회위원회가 단수후보 결정 → 교인총회 청빙 결정
 - 탈락한 후보에 대한 배려. 교회 내 의견 대립과 갈등 방지 기대
 - 교우들의 참여 및 의견 수렴 제한(최종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만, 단수 후보에 대한 선택권 제약)
2. 2안 : 교회위원회가 복수후보(2인) 결정 → (교인총회 최종후보 선택) → 교인총회 청빙 결정
 - 교우 참여 및 의견 반영한 결정(복수후보에 대한 자료에 근거한 판단)
 - 후보자 각자에 대한 지지 표명에 따라 의견 대립과 갈등 우려

■ 청빙 심사 평가기준(1단계부터 적용)

평가 항목	평가 요소
1. 목회계획과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민족교회 헌장과 정신에 부합하는가 • 새민족교회 비전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 자신의 목회비전이 뚜렷한가
2. 에큐메니컬 운동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 및 지역, 사회 그리고 전체적인 에큐메니컬운동 활동 경력 • 앞으로 에큐메니컬운동에서 주도적 역할 가능성

3.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로서 활동한 경험이 많은가 • 교인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가 • 평신도 공동목회의 열린 사고를 하는가
4. 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미래와 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능력과 기획력이 있는가 • 새민족교회에 적합한 목회의 전문지식(목회, 성서, 신학, 선교 등)이 바탕이 되어 있는가
5.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단력, 책임감, 성취욕구가 있는가 • 성실한가 • 실천력, 왕성한 활동력이 있는가

■ 청빙 관련 의견 요청서

1. 새민족교회 미래보고서에 나타난 비전과 전략에 대해 평가해 주시고, 새민족의 비전과 전략과 관련하여 목사님의 목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2. 평신도와 의 공동목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방법(교회구조와 조직, 프로그램 등)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평신도의 목회역량(지도력) 강화와 예수살기 신앙 세우기라는 관점에서 새민족교회 전교인 교육훈련에 대한 구상과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4. 교회공동체에 의견 대립이나 갈등이 있어 혼란과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려고 하시겠습니까?
5. 현재 기독교운동 상황에 비추어 본 새민족교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새민족교회 담임목사로서 에큐메니컬운동 및 사회운동 참여 계획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담임목사 청빙 관련 규약 내용]

제24조(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교회위원회의 결의와 교인총회에서 유효투표 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2.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교인총회에서 유효투표 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교인총회 기능)

2. 각 직분자(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회위원, 감사 등) 선출과 위임 및 해임

제34조(교회위원회 기능)

6. 목회자 및 사무직원 청빙에 관한 심의

제38조(제직회 기능)

7. 전임목사(부목사), 비전임목회자의 청빙과 연임

새민족3.0추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서

- 새민족공동체 3.0을 향한 변화 목표와 과제
- 목회자 청빙 활동 보고 및 평가

차례
I. 새민족공동체 3.0을 향한 변화 목표와 과제
1. 추진 배경과 경과
2. 새민족3.0추진위원회 활동 목표
3. 활동 방안과 원칙
4. 새민족의 현재와 문제
4-1 교회 상황에 대한 평가
4-2 교회 활동과 운영 점검
5. 새민족의 변화 목표
6. 새민족의 변화 과제
7. 변화 과제 추진 계획
II. 목회자 청빙 활동 보고 및 평가

2013년 10월 13일
새민족3.0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종원 장로
위 원 김진오 집사
박연미 장로
손정일 집사
이영자 권사

I. 새민족공동체 3.0을 향한 변화 목표와 과제

1. 추진 배경과 경과

- 1) 새민족3.0추진위원회 구성과 활동 배경
 - 몇 년 동안 쌓인 교회공동체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소, 극복하기 위해 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함을 교회 전체적으로 공감
 - 담임목사 청빙 시기와 맞물려 새민족의 대전환을 향한 과제와 현안을 체계적이며 실현 가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 변화와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과 청빙 활동을 수행하기로 함
- 2) 경과
 - 확대 제직수련회에서 ‘(가칭)목회발전위원회’ 제안 (2013.2.2)
 - 1차 제직회에서 ‘(가칭)새민족2.0추진위원회’ 구성을 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함(2.3) - 전교인에게 2013년 교회 운영 방안과 ‘(가칭)새민족3.0추진위원회’ 구성과 목표, 활동 방향에 대해 교회위원장이 설명(2.17)
 - 2월 교회위원회에서 ‘새민족3.0추진위원회’ 추진 승인과 위원 임명(2.24). 위원: 교회위원회 3인(김진오, 박연미, 손정일), 교인 추천 2인(김종원, 이영자)
 - 1차 모임에서 3.0추진위 위원장에 김종원 장로, 서기에 김진오 집사를 임명(3.3)
 - 13차 모임에서 3.0추진위 활동 보고와 평가를 통해 3.0추진위 활동을 마무리함(9.28)

2. 새민족3.0추진위원회 활동 목표

- 1)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이해
 - 우리 교회의 현실과 문제, 목회 평가
- 2) 변화하는 교회상과 목회상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의 변화 가능성과 과제를 모색함
 -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 도출
- 3) 목회자청빙의 새로운 과제를 탐색하고 청빙 활동 수행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옴
 - 변화를 가능하게하기 위하여 교회 구조(목회자, 교단 등)는 어떻게 정

립해야 하는가?

- 목회자를 청빙한다면 바람직한 방안과 절차는 무엇인가?

3. 활동 방안과 원칙

- 1) 새민족3.0추진위원회와 제직정책협의회, 등대모임, 집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를 선정하였음
- 2) '대화의 광장' 또는 '교인총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 함
- 3) 제시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과 방향을 설정함

4. 새민족의 현재와 문제(2013년 초, 새민족3.0추진위원회 발족 시점)

4-1 교회 상황에 대한 평가

- 1) 공동체에 대한 확신(신뢰)와 조직력(결속력)이 약화
 - 망원동 이전(2010년 1월) 후 장기간 이전 추진에 따른 피로감, 갈등 상존
 - 조직교회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운영의 불안정성과 지도구심력 부족
 - 출석, 재정 등 여러 여건의 악화(출석 : 2008 상반기 70명, 2009 상반기 61명, 2010 상반기 58명, 2011년 이후 50명 전후의 최저 출석 상황 지속)
- 2) 공동체 인원 감소 등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교회 활동 전반에 걸쳐 활력이 떨어지고 총체적 어려움에 봉착했고 이것은 위기적 상황으로 상존, 지속되어 왔음
- 3) 이러한 진단은 2011년부터 교회의 심각한 상황을 예고하였으며 근본적이고 전환적인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4-2. 교회 활동과 운영 점검

- 1) 교회 활동방향과 목표
 - 지역성이라는 명분과 마포지역운동에 기대어 기초 연구와 의지의 결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교회 또는 마을교회라는 교회성격과 방향을 설정하여 구호로 그침
 - 새민족 2026비전을 항상 점검, 확인하고 이와 연관된 활동 목표와 운영 관행이 약함
- 2) 에큐메니컬 운동과 연대활동

- 교회의 전반적 활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이것 역시 일회성(현장기도회, 교회의날 등) 활동 그것도 참가자가 현저하게 적고, 목회자 또는 관련 활동가 소수 활동으로 그침

- 에큐메니컬운동의 중심적 교회로서의 역할과 활동력이 약화된

3) 예배

- 준비된 예배의 느낌이 점점 없어지고 있음

- 예배시간 지키기, 순서 담당자 준비 상태, 예배순서와 진행 구조 등 예배의 온전성에 미흡한 형편임

-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 봉헌기도, 찬양, 찬송 등에서 감동과 용기, 삶의 충전, 새민족 신앙의 긍지를 확인하는 메시지와 예배 행위를 교우들은 원함(예배 모든 순서와 행위 에서 표현과 수사, 분위기, 흐름이 준비되고 정제된 느낌을 주며, 예배가 주는 감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4) 교우 돌봄

- 심방 활성화 되지 못함(심방 기피 현상). 심방의 일상화 필요

- 소극적 교우들에 대한 배려, 소속감 느끼도록 교제와 돌봄 필요

5) 등대교회

- 등대활동이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구조를 갖지 못해 교인조직의 중추로 기능하지 못함

- 등대목자 교육과 훈련이 없어 교회 목표와 목회 방향을 실현하는 운영에 한계를 보임

6) 교육교회

- 교사 충원이 늘 어려워 교육교회로서의 토대 구축이 약함

- 기독교교육의 목표와 성격, 새민족 신앙교육에 입각한 교회교육의 바탕 형성이 절실함

7) 회의 및 운영 기관

- 교회위원회 : 교회 내 정보 교류와 의사소통에 기반한 교회운영 논의 구조가 되어야 함. 교회위원들의 활동력과 책임감 강화 필요(출석, 소관분야 책임)

- 제직회 : 출석 문제, 연간 계획과 일정을 고려한 회의 개최와 준비 필요

- 당회 : 예배와 교육, 돌봄 등에 대한 상시적 활동(협의와 실천) 부족

- 목회위원회와 향존직 모임 : 거의 열리지 못하여 목회지도력 구조를 형성하지 못함

- 당회, 목회위원회, 항존직 모임은 목회활동과 교우돌봄 등 지도력들이 교회와 교우 상황을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곳이므로 정상화해야 함

5. 새민족의 변화 목표

1) 변화를 조직하기

- 갱신을 향한 갈망 : 갱신을 향한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
- 교우들의 관심, 참여, 주도적 활동
- 에너지와 활력
- 가치와 목표를 끊임없이 물음, 그리고 분명히 표현

2) 인생과 생활양식의 급진적인 재조정

- 새민족교회의 교우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 우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신앙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우리 그리고 새민족교회는 이 지역에 기쁜 소식인가?
- 개인적 헌신(회심) : 인생과 생활양식의 급진적인 재조정

6. 새민족의 변화 과제

1) 예배와 신앙 영역

구분	과제	추진방안
예배	[예배의 갱신] • 예배의 이해, 공유 • 예배 순서의 변화 : 회중응답송, 평신도설교, 공동체축도, 찬양대 선곡, 찬송가 중심 탈피, 국악, 회중 참여 확대 • 예배 문화 : 장식, 성구(성물), 성찬식, 의상 (인도자, 찬양대, 설교자, 순서자 등), 예배 통일 (내용, 방향, 의상 등) • 예배 장면 SNS 소개	• 당회, 예배문화부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점검, 계획 • 사례조사 : 타교회 방문, 자료 수집 등 • 2014년부터 시행
선교	• 새민족 선교정책 모색 : 새민족선교정책협의회 구성과 활동, 활동가 양성 • 비전2026, JPIC센터 등 재점검 • 지역활동 모색 : 지역조사 등 기초활동 • 섬돌향린 등 지역교회 연대 • 에큐메니칼 선교훈련과 연대 : 에큐메니칼 및 고난 현장과의 연대 와 참여 활성화 및 활동가 양성	• 선교부서 연합 활동 • 비전 실현에 집중 • 30주년 기념사업회 조직, 활동 연계

교육	• 신앙교육훈련 계획 연구, 시행 • 새로운 교회, 대안교회 공부, 공동체 변화 모색 • 평일교육프로그램 개설, 공동체 활력 • 교육교회 전면 점검 : 교육목표 일치, 교사교육, 교재, 음악 등 • 청년선교 및 신앙훈련 중점	• 교육위원회 구성 : 당회, 교육관련 기관 등 • 청년선교를 위한 특별기구 조직
교제	• 등대 교제 프로그램 개발 • 새교우 프로그램 • 일상적 교제 프로그램 : 세대별, 세대 간, 성별, 근무지별 등 • 소모임	• 평일 프로그램 시행 : 교육과 교제 병행 • 등대목자그룹에서 주로 담당

2) 조직과 운영 영역

영역	과제	추진방안(안)	기타
리더십	• 섬김과 돌봄의 리더십 강화 • 중간/청년 지도력 양성	• 선출직 모임에서 돌봄, 신앙훈련, 친교활성화 중점 논의 • 3~40대/청년 모임 활성화 (정기적인 모임 추진)	• 교육 프로그램 병행 추진
운영구조	• 행정과 신앙 영역의 2원화	• 행정/운영 : 교회위-제직회 • 신앙/돌봄 : 당회-선출직 모임	• 제직부서 • 등대모임
행정과 실무	• 행정 간사 제도 유지	• 교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행정 간사 유지	• 목회자와 명확한 역할 분담
소통과 문화	• SNS 기반 선교 • 교회거점 만들기 • 지역연대 기반조성 • 홀로교우-가족교우 묶어 주기	• 페이스북 교회 계정 만들기 • 평일 프로그램 활성화 • 섬돌향린과 정기적인 친교 모임 활성화(토요 축구모임) • 대부-대모-대가족 제도 도입	

7. 변화 과제 추진 계획(방안, 일정 등)

1) 추진 방향

- (1) 전 구성원이 참여하고 만드는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과 실천 행동
- (2) 비전과 목표의 조직적 체화
- (3) 결정된 계획(실천 행동 등)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형성
- (4) 자신을 포함한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 형성
- (5) 변화 추진을 위한 새로운 2기 위원회 구성

2) 방안

- (1) 현 새민족3.0추진위원회는 변화 과제를 도출하는 활동에서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2기 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함
- (2) 2기 위원회는 1기 활동의 연계와 새로운 지도력 양성 측면에서 위원을 선정함(연계와 쇄신)
- (3) 변화 과제 추진은 새민족 30주년 사업과도 연계가 되어야 함
- (4) 교회위원회는 새민족3.0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보고,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함
- (5) 다만, 변화과제의 실천과 실행을 제직회 또는 교회 기관 단위에서 분담하여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교회위원회가 판단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이 경우 2기 위원회를 구성 하지 않음)

3) 일정

- (1) 9.28(토) 새민족3.0추진위원회 최종 회의, 보고서 작성
- (2) 10월 교회위원회, 새민족3.0추진위원회 보고서 제출 및 향후 계획 결정
- (3) 제직회 또는 2014년 계획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 (4) 2기 위원회 또는 각 부, 기관에서 변화과제 추진

새민족의 변화를 위한 전교인 집담회 계획

■ 일시 : 2013.3.24(일) 오후 1시 30분

■ 목적

1.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이해
2. 변화하는 교회상과 목회상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의 변화 가능성과 과제를 모색함
3. 2008년 청빙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목회자청빙의 새로운 과제를 탐색함

■ 진행 순서 : 사회 - 김종원 장로

1. 집담회 취지와 일정 소개 (3분): 사회자
2. 새민족의 현 상황과 목회 평가(10분) : 김진오 집사
3.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회를 위한 가능성 모색(10분) : 김종원 장로
4. 2008년 청빙 활동 평가(5분) : 김종원 장로
5. 집담회 토론(최대 90분)

■ 토론 주제(흐름)

1. 우리 교회의 현실과 문제, 목회 평가
2.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
3. 변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교회 구조(목회자, 교단 등)는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4. 목회자를 청빙한다면 바람직한 방안과 절차는 무엇인가?

기존 목회 활동 평가와 현재 새민족교회 당면 과제

■ 기존 목회 활동 평가

- 우리가 바라는 새민족교회의 목회자 상(2008.3.2 목회자 상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의 하나님 나라 건설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새민족교회의 창립정신과 비전 실천
 - 평신도 목회 정신에 따라 평신도의 훈련, 교육과 민주적 교회 운영을 중시
 -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교회들간의 연대와 실천에 대한 의지
 - 기도, 교육 등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
 - 새민족교회의 정신에 합당한 성례전과 설교로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분
- 분야별 목회 활동 평가

구분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비전 실천	• 생명/평화 비전에 대한 구체화 시도(예 : ‘환경’에 집중)	• 계획성, 지속성 부족
평신도훈련/교육	• 다양한 교육 방식 시도(동영상 등) • 새교우 교육+친교	• 계획성, 체계성, 지속성 부족
민주적 교회운영/평등 사고	• 평신도 중심의 기존 교회 운영구조를 내에서 교회 운영	• 작지만 소중한 새민족 전통 간과(여성호칭 먼저, 파송의 말씀은 인도자가... 등) • 가끔 가부장적 언행 • 학벌 등을 중요시 하는 듯한 언행
에큐메니컬	• 활발한 에큐메니컬 활동 • 성미산 지키기, 합정동 홈플러스 대책위 등 지역 시민단체 연대 활동	• 목사님 개인 활동에 한정됨 • 교우들을 에큐메니컬 활동으로 이끌어내는 리더십은 부족
공동체 돌봄	• 새교우, 환우에 대한 돌봄과 심방	• 심방시에도 그 가정에 집중할 말씀보다는 자기 중심적 발언(심방예배 준비 부족)

성례전	• 동영상, 그림을 이용한 설교 • 어린이를 위한 설교 준비	• 성례전(재의 수요일, 성찬식 등)에 대해 고민 부족/즉흥적인 준비
설교	• 정치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확한 비판과 진보적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잘 이야기하심	• 가끔 준비 부족이 보임(인용구절을 길게 읽음) • 마음으로 전달되는 진정성이 부족

※ 본 평가는 발제자의 주관적인 평가임.

3. 총평

- 적극적인 대외활동과 에큐메니컬 활동 참여는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만, 개인 활동에 머물렀으며, 교우들을 함께 참여시키지 못한 점은 아쉬움.
- 대외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 돌봄, 설교, 성례전과 같은 교회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더 많음.
- 기본적으로 성실성, 계획성, 진정성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엔 부족.
- 한편으로는 교우들의 목회자에 대한 불만들을 평신도 지도력이 잘 파악하지 못했던 점도 함께 반성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목회자 청빙 시 반영사항

- 현재 교우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상은 크게 네가지 (지난 새3추위 모임 내용)첫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둘째 은혜로운 설교,셋째 교우와 함께 하는 에큐메니컬 활동, 넷째 목회적 돌봄.
- 기본적으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실성. 화려한 경력이나 말씀씨 보다는 성실하고, 겸손한 품성의 목회자가 필요.
- 목회자 후보들에 대한 많은 대화의 시간, 그리고 주변 평가 적극 수집 필요.

■ 새민족교회 당면 문제

1. 신앙적 성향에 따른 교우들 간 불일치

- ‘영성’과 ‘에큐메니컬’은 새민족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 두 개의 바퀴와도 같다는 것을 모두 공감해야 함.

나. (새로운 목회자와 함께) 새민족 현장, 실천 규범 등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수정/보완하면서 공통의 신앙, 공통되는 지향(비전)을 합의해 나가야 함.

2. 평신도 지도력과 평신도간의 간극

가. 평신도 지도력-특히 선출직에 대한 기대/의지가 크면서도 견제 심리도 함께 갖고 있는 모순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

나. 일반 교우들이 스스로 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게 지속적인 격려와 추동 필요.

다. 선출직들은 지속적인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자기 평가 필요.

3. 쌓여가는 교회 적자

가. 금번 교회 빚 갚기 활동을 통해 적자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나. 적자의 증가 → 활동력 쇠퇴 → 교우들의 이탈 → 적자의 증가 악순환

다. 교회가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쓰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 필요.

라. 좋은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활성화 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임.

4.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교우들, 교회 내 경제적 양극화

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도 존재하며, 한국 경제상황 침체와 함께 더욱 늘어나고 있음.

나. 시혜성 차원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나 단기 지원도 필요함. (예> 목적헌금이나 교회 예산 중 일정부분 구제비 책정 등.)

다.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성 활동 필요.

■ 새로운 교회, 새로운 리더십 - 새민족의 교회상과 목회상

1. 교회상

가. 교회의 변화 - 다양한 교회들의 등장

- 새로운 교회는 왜 등장하는가?

- 교회생태계의 변화 원인 : 거대 대형교회들의 문제 노출, 기독교신앙의 저급성, 문화적 요구

- 새로운 교회들은 교회의 전통과 복음에서 비껴있는가?

- 우리교회는 새로운 교회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가?

나. 새로운 교회들의 유형

- 공동체교회

- 대안교회

- 탈교회운동

다. 특징과 가능 요소

- 성례전 전통의 혁신과 벗어남 : 예배의 변화

- 공감과 소통 : 교회에 절망, 기독교의 부정적 행태로부터 이탈한 그룹들의 대안적인 소통 통로

- 시민사회 아젠다에 즉각 반응

- 협업의 패러다임 : 성례전과 교회운영 전반에 평신도 중심의 협업 구조 형성, 지속성이 문제

- 디지털 미디어(SNS 등) 활용 장점 : 교인 유입 통로

- 기존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공동체)로 조직

- 목회자 또는 교인들로 구성된 현장활동 조직과 인문학 등의 소모임 조직 활성화

2. 목회상

가. 목회

- 진리 : 말씀과 연합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지 가르치는 것

- 관계 :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신뢰를 쌓아가는 것

- 온전함 : 인격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실천적 거룩함

- 사명 : 비전과 목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나. 목회자

- 사도 : 보냄받은 사람, 모든 상황을 감독

- 선지자 : 아는 사람. 상황의 실제적 분별

- 선교사(복음전도자) : 제자의 삶으로 복음의 전달과 실천

- 목양 : 돌보는 사람

- 교사 :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 그리스도의 명령을 배우도록 함

다. 교회 리더십

- 목회자 리더십(목회자에 의한 목회)
- 평신도 리더십(평신도에 의한 목회)

라. 목회자상(자질)

- 知性 :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의 이치(흐름)
- 感性 : 풍부한 감성
- 人性 : 목회 이전에 사람으로서 기본자질
- 靈性 :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 유머감각
- 리더십 : 교인들의 에너지와 비전을 창조, 혁신
- 열정 : 좌절, 실패에도 다시 일어서는 열정
- 비전과 목표를 제시
- 인간 관계의 형성
- 가르치는 능력과 배우려는 열정
-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 도덕성
- 신체적으로 건강

3. 새민족의 변화를 위한 교회상과 목회상

가. 변화를 꿈꾼다

- 교회의 현재 모습을 총 점검하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급진적인 리모델링 필요
- 통섭과 융합의 창조적 결합 : 선택과 집중에서 연계와 협력으로
- 상상(꿈)할 수 없다면 해낼 수 없다

나. 교회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모색

- 거룩한 불만족을 장려
- 전복적인 문제 제기
- 초심자가 되라
- 변화의 분위기 만들라

다. 목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점검

- 사역영역 : 예배, 선교, 교육, 교제
- 조직영역 : 리더십(목회, 가르침, 리더십), 구조(부서형, 위원회형, 회중기반형), 운영시스템(직무, 관리와 평가, 회계/정보시스템), 문화

(문화관리, 의사소통, 예배, 건축물, 일 중심-사람 중심, 합리성-은혜 중심, 권위-참여형, 지배-하위문화 등)

* 중심은 분명하고 가장자리는 흐릿하게

라. 목회상

- 예배의 갱신 : 예배, 설교 등에서 감동과 실천의 의지를 일으키는 변화
- 새로운 교회 생태계를 진단, 교회의 혁신을 창조하는 목회(창의적 목회)
- 공감(공명), 소통, 치유의 목회
- 교우들을 춤추게 만드는 목회
- 신앙 성장을 위한 탄탄한 프로그램과 내용을 가진 교육목회
- 무엇보다 시대의 사도로서 예수살기를 실천하는 목회

■ 위원회 활동 일정과 계획

1. 추진팀 구성 : 완료(3월)
2. 변화의 필요성 공유 : 3월(제직회와 전교인 집담회)
3. 추진계획 수립 : 3월
4. 변화의 내용 설계 : 4~5월(등대모임, 집담회 등)
5. 변화 내용에 대한 의견과 공감(동의), 동참 : 5월(제직회, 교인총회 등)
6. 실행 : 6월
7. 평가와 개선

[대화의 광장 2013.4.28]

교회 구조 정립과 목회자 청빙 관련 공청회

- 의견 수렴과 방향 설정을 위하여

1. 목적

- 새민족 3.0을 향한 교회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당면한 과제와 현안을 체계적이며 실현가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안별, 단계적 의사결정을 모색함

2. 추진방안

- 새민족3.0추진위원회와 제직정책협의회, 등대모임, 집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를 선정하였음
- ‘대화의 광장’ 또는 ‘교인총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 함
- 제시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과 방향을 설정함
- 각 사안에 대해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한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리함

3. 의제

가. 교회의 기반과 구조

1) 교회 목회 구조에 대하여

가) 목회자를 두지 않는 교회 운영

(1) 긍정적인 면

- 대안교회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
- 교회의 민주적 운영, 평신도 중심의 성례전과 교회 운영
- 목회자(또는 출신)는 교회 구성원일 뿐임
- 설교목회자 또는 설교전담자(평신도 포함)를 둘 수 있고, 설교자와 설교 없는 예배(퀘이커모임 등)를 중심으로 교회 운영
- 교단에 속할 수 없어 교단정치나 교리로 부터 자유로움

- 교회운영과 성례전 등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 교인들의 높은 헌신과 자발성, 신학적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음
- 목회자 인건비가 없어 교회 재정의 어려움(대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선교와 교육, 시설 유지와 관리 등 교회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음

(2) 어려운 점

- 교회의 목회와 행정의 중심을 한결같이 유지하기가 어려움
- 평신도 교인들의 높은 헌신과 집중을 요구하나 지속성의 측면에서 기대하기가 어려움
-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이며 역동적인 교회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목회자가 주는 상징성과 대외적 대표성으로 인해 대외 관계나 연대와 연합활동에서 취약한 조건이 될 수 있음
- 목회전문가로서의 담임목회자로부터 상담, 심방, 교육, 경조사 등 목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 설교의 계획과 설교자 편성 등이 어려움
- 목회자의 역량과 지도력, 대외인지도 등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교인 수 증가, 공동체의 활력 등 긍정적 변화를 향유할 수 없음
-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 양성을 할 수 없음

나) 담임목회자가 있는 교회 운영

2) 교단 소속에 대하여

가) 소속 교단이 없는 독립교회

- 다수의 복음주의권 개혁적 교회(새민교회, 박득훈 목사 등)와 대안교회들
- 교단이 없으므로 상회(노회 등)에 대한 법적, 막대한 재정적 의무를 지지 않음
- 교단 정치와 제도로 부터 자유로워 직제(당회 구성 등 교회구조, 직분자 선출 등)에 대한 자율적인 구축과 운영이 가능함
- 새민족 신앙과 신학에 부합하는 목회자를 청빙하기가 쉽지 않음

음(물론 무소속 교단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목회자가 있다면……)

- NCC, 시민사회와 연대 등 에큐메니칼 활동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임

나) 현재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측 교단

-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한 교단이며, 대외적으로 인식된 상황임
- 예장 통합의 진보적 교회 그래서 상징성과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대외적 이미지이며 정체성이기도 함
- 이런 조건으로 교단 내 진보적 목회자들의 선포의 대상인 교회임
- 그러나 교단의 성격상 우리 교회에 부합하는 목회자 후보군이 크지 않은 것 같음
- 노회 등 교단정치가 우리 교회 운영에 여러 가지 부담과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음(상회비 등 재정 부담, 장로선출 등 교회정치와 직제 관련 문제 등)
- 그러므로 예장 통합 교단 소속은 목회자의 라이선스 유지에 필요한 정도라고 할 수 있음

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타 교단 소속으로

- 현재 우리교회의 성격과 가장 어울리는 교단은 기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연대활동에서도 기장 소속 교회들과 오히려 더 활발한 관계를 가짐
- 감리교에도 진보적인 교회가 있으나 소수이며 목회자 중심 활동임
- 기장의 경우 우리 교회와 맞는 목회자 확보가 예장보다는 쉬울 수 있음
- 그러므로 기장 교단의 진보적 특성에 의해 노회나 총회 등 교단내 연합 활동이나 에큐메니칼 활동에 더 나은 활동 여건을 가질 수 있음
- 타교단으로 이전은 교우들이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나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나 주변에서 상당한 우려와 반대가 있을 수 있음

나. 목회자 청빙

1) 청빙 방법

가) 공개 청빙(공채 방식)

- 2008년 방식과 같이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확보,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후보자군을 좁혀가며 최종 1인을 선택함

- 지원자가 많고 따라서 다양한 목회경력의 후보자들을 접할 수 있음
- 청빙 일정을 정하기가 비교적 쉬움(공고, 서류심사, 면접, 최종 결정 총회 등)
- 그러나 우리 교회에 맞는 후보자들은 결국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자 가운데 허수가 많음
-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면접(설교, 면담 등)을 실시해야 하며, 평판 조사도 함께 해야 함.

나) 추천, 탐색을 통한 청빙

- 공고를 통한 공채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잘 맞는 후보자를 물색하여 일정한 후보군을 형성시켜 다양한 전형(서류, 설교, 면접, 평판조사 등)을 통하여 청빙
- 후보자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추천자와 관련된 인사들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비교적 넓고 깊은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음
- 청빙 과정과 일정, 후보자 인원수 등 명확한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
- 공개청빙 보다는 후보자 선택의 폭이 작음

2) 시기

- 가) 즉시 청빙 : 청빙위원회 즉시 구성, 활동 시작, 상반기 내 청빙 종료
 - 목회(성례전, 심방, 상담, 정책 기능)와 행정의 빠른 안정화 기대
 - 담임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공동체 구심점과 새로운 활력 형성을 기대
 - 목회자 공백 문제를 담임목회자 청빙으로만 해결하려는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음

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 올해 중 청빙

- 교우들의 교회공동체에 대한 지속가능한 헌신과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로 삼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 담임목회자 공식 가운데 공동체 변화 과제를 모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담임목회자 장기 공식에 따라 공동체의 구심점이 약해지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며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음
- 설교자 선정 문제, 유동적이고 매우 가변적인 교회 운영으로 혼란과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음

교회 구조 정립과 목회자 청빙을 위한 설문 응답 결과

2013.5.8

2013년 4월 28일과 5월 5일 두 주에 걸쳐 조사한 설문내용 결과이며, 응답자는 47명임. 개인에 따라 복수응답을 한 경우도 있고, 응답하지 않은 항목도 있음.

■ 교회의 기반과 구조

1. 교회 목회 구조

- ① 담임 목회자를 두지 않는 교회 운영 (설교 목회자만 두는 구조) [5명]
- ② 담임 목회자가 있는 교회 운영 [41명]
- ③ 기타
(교회 목회자와 청소년부 설교 전문 목회자/
1년간 목회자 없이 운영하고 2015년도 정도 청빙/
목회자 없는 교회 운영을 1~2년간 실험적으로 해 볼 필요 있다.)

2. 교단 소속

- ① 소속 교단이 없는 독립교회(예 | 새길교회, 벅커1교회 등) [10명]
- ② 현재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 [36명]
- ③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타 교단 소속 [1명]
- ④ 기타 (잘 모름 [1명])

3. 올해 2~4월 담임 목회자가 없는 교회 운영 중 느낀 점을 써주세요.
(응답내용 별첨)

- ① 긍정적인 면 (무응답 [12명])
- ② 부정적인 면 (무응답 [16명])

■ 목회자 청빙

선호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세요. 적당한 항목이 없을 경우, 기타 란에 의견을 적어 주세요.

1. 목회자 청빙 방법

- ① 공개 청빙(공채 방식) [14명]
- ② 추천 및 개별 접촉을 통한 청빙 [26명]
- ③ 기타 (① + ② [6명], 위의 어떤 방법도 좋음.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됨)

2. 목회자 청빙 시기

- ① 상반기 내 청빙 완료 (즉시 청빙위원회 구성 및 활동 시작) [13명]
- ② 올해 중으로 청빙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 [26명]
- ③ 기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검증해서 청빙./ 기간을 정하지 않되 가능한 빨리/
최대한 천천히/ 9~10월중 청빙/ 내년에-3명/
시기 정한다고 그 안에 청빙할 목사님은 안계실 듯, 그러니 우선 후보자
를 정하면 시기는 자동으로 정해질 듯)

3.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아래 항목 중 상위 3가지 선택)

- ① 설교능력 [27명]
- ② 목회적 돌봄 [22명]
- ③ 리더십(비전/목표, 방향 제시) [15명]
- ④ 성실성 [11명]
- ⑤ 진정성 [25명]
- ⑥ 교인들과의 소통능력 [22명]
- ⑦ 에큐메니컬 활동(사회적 실천) [17명]
- ⑧ 기타
(교인들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훈련시키는 능력/
교인들이 새민족 정신에 맞는 생각과 실천을 하도록 훈련시키고 견인
하고 독려하는 목회자세)

성별 남(), 여()

연령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별첨] 3항 올해 2-4월 담임 목회자가 없는 교회 운영 중 느낀 점을 써주세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p>1. [1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 좋다 - 폭넓은 설교를 들어서 좋다 - 여러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 	<p>1. [1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불안(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목자 잃은 양 같은) - 구심점 허림 - 리더가 없는 느낌
<p>2. [1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우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와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 - 책임감 때문에 교인들의 활동이 많아졌다 -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 교인들의 교회운영 참여가 증가 - 교인들의 자발성... 	<p>2. [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자 부재로 인한 신앙의 어려움 - 교우 개별적 유대를 갖는 목회자 부재 - 돌봄 부재 - 상담 부재 - 목회적 돌봄이 없어 아쉬움. 의지할 Figure가 부족
<p>3. [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문제 없고 오히려 더 활력이 있는 것 같다 - 활발한 기운 - 목회자가 있을 때보다 교회가 활력이 있다 - 갈등요인 해소로 인한 활기가 느껴지고 다양한 설교말씀으로 은혜 충만하다. 	<p>3. [6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교가 매주 달라 설교 방향에 적응하기 어려움 - 맥이 이어지지 않고 단편적인 느낌이다 - 설교의 일관성 부족
<p>4.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상 목회자가 없으니 진정한 평신도 교회가 된 것 같음 - 자유로움 - 너무 잘해서 	<p>4.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나 체계가 안정되지 않은 느낌 - 큰 흐름이 없이 단기적 대응으로 불안정감이 있다 - 새 교우 조직의 어려움 발생할 것
<p>5.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p>5.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조사, 대외적 행사 때 부재 느껴짐.
<p>6.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인들이 합심해서 잘 해나가는 분위기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 교인들끼리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 	<p>6.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자 대신 일하는 평신도 지도력들이 지는 부담 클 것임 - 말은 이들에게 일이 집중됨
<p>7.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구조, 신선감 	<p>7.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다
<p>8.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다 	<p>8.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렇게 잘해서 누구도 안오실까봐
	<p>9.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문화부의 역할이 커졌으나, 개인 사정들로 인해 깔끔하게 예배 준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II. 목회자 청빙 활동 보고 및 평가

1. 청빙 활동 경과

- 2.24(일) 교회위원회
 - 새민족3.0추진위원회 추진 승인 및 위원 임명
 - 교회위원회 3인(김진오, 박연미, 손정일), 교인 추천 2인(김중원, 이영자)
- 3.3(일) 새민족3.0추진위원회 1차 모임
 - 위원장 김중원, 서기 김진오 임명
- 3.3~7.14 총 11차 모임
 - 목회 구조, 새민족교회 변화 과제, 목회자 청빙
- 3.24(일) 새민족 전교인토론회
 - 2013년 교회 운영 등 논의 (다수 교우들이 담임 목회자 청빙 선호 의견)
- 4.28(일) 대화의 광장
 - 새민족3.0추진위 경과보고 및 목회 구조 등 토론
- 4.28~5.5 2주에 걸쳐 전교인 설문조사
 - 다수 교우가 담임 목회자 구조, 예장 통합 교단 유지, 올해 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청빙, 추천/개별접촉 방식 선호
- 5.19(일) 교회위원회
 - 새민족3.0추진위원회의 목회자 청빙활동 개시 승인
 - 최종 후보는 1명으로 정하여 교회위원회 보고 결정 후 교인 총회에서 의결함
 - 목회자 청빙 시까지 새민족3.0추진위는 청빙위원회의 역할 수행
 - 신임 목회자 처우 확정 : 급여는 월 300만원, 년 3,600만원. 퇴직금은 연 300만원(연금 또는 일시불 선택), 기타 명절 선물(설, 추석 각 10만원)
- 목회자 청빙 활동
 - 5.26(일) 전교인 공지
 - 5.27(월) 홈페이지 공고 및 추천, 청빙위 직접 후보 지원 요청
 - 5.27(월) ~ 6.8(토) 서류접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설교원고 3편)
 - 6.9(일) ~ 6.30(일) 1차 서류 심사(대상자 3인)
 - 6.30(일) 10차 새민족3.0추진위, 2차 면접 대상 후보를 2인으로 확정

- 7.6(토) 후보자 2인에 대한 심층 면접 실시
- 7.14(일) 11차 새민족3.0추진위, 심층면접 및 최종 심사, 최종후보자로 황남덕 목사 선정, 최종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견 요청 및 심사
- 7.3(수) ~ 24(수) 청빙 기도회
 - 4주간 매주 수요일
- 7.21(일) 교회위원회
 - 새민족3.0추진위원회의 목회자 청빙 승인의 건을 참석 교회위원 만장일치로 승인(김진오, 민혜경, 박연미, 손정일, 정찬영, 주혜진)
- 8.4(일) 등대모임
 - 담임 목회자 최종후보자 선출 과정 공유 및 최종후보자 소개
- 8.18(일) 임시 교인총회
 - 52명 투표 51명 찬성으로 황남덕 목사 담임목사 선출 의결
- 9.1(일) 황남덕 목사 부임 예배
 - 환영식 및 목회 협약서 서명(담임목사, 교회위원장)

2. 청빙 활동 평가

1) 전체 일정

- (1) 김영철 목사의 사임(2013년 3월)에 따라 교회목회구조 변화와 청빙 관련한 활동을 전개 하고 3월부터 약 6개월에 걸친 청빙 활동 추진
- (2) 집담회, 등대교회 모임, 제직회, 교회위원회, 교인총회, 청빙기도회 등 교회의 공식적 활동을 통한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 과정, 참여와 공동체 결속을 위한 활동 전개

2) 청빙위원회 구성과 조직

- (1) 청빙위원은 대표성, 지도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교회위원장과 교회위원, 장로, 명예 권사 등으로 교회위원회가 선임하였음(새민족3.0추진위원회)
- (2) 3.0추진위가 청빙 활동을 수행하기로 하여 교회의 현안과 변화를 위한 과제를 이해, 공감하며 청빙 활동을 전개한 것은 청빙이 담임목사를 선임하는 것을 넘어 교회와 목회 전반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3) 위원 각자 모두가 청빙의 목표와 원칙 등에 입각하여 치밀하고 성실

한 활동을 수행하여 청빙의 신뢰도를 높여 왔음

3) 후보자 심사 및 선정 방법

- (1) 서류 심사 - 1단계 합격자 2인 결정 - 면접 - 청빙 확정 등 단계를 거치는 동안 토론과 심사, 자기소개 및 의견서 심의, 면접(인터뷰) 등의 다양하고 심층적 전형방법을 적용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임
- (2) 단계마다 활용한 평가기준 및 항목과 의견서 등은 청빙 활동의 풍부한 내용을 갖게 함
- (3) 목회 경험과 실제 인지도, 평판 등 서류와 문서 이외의 평가와 판단 자료 확보를 위해 추천인 의견 청취, 평판 탐색 등 활동을 통해 심의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음
- (4) 새민족교회에 지원할 목회자군이 크지 않은 조건에서 청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후보를 물색하고 추천과 청빙 지원 요청을 하여 실질적인 후보들을 지원, 확보할 수 있었음

4) 정보 공개의 문제

- (1) 후보자 관련 정보, 청빙위원회 논의 및 결정 사항 가운데 후보자 심사 결과는 최종후보자 선정까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청빙 활동이 보안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활동 추진을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음
- (2) 다만, 일정이나 후보자에 대해 비공개 및 보안에 철저하여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만들어 내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과 문제제기가 있었음

5) 청빙 활동 과정에서 교우 참여 활성화

- (1) 청빙 활동의 중요성을 적극 고려하여 교우들의 의견과 참여를 실현하는 다양한 차원의 의견수렴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특히 기도회는 청빙의 중요성, 성서적 바탕, 바람직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회자상에 대해 이해를 도왔고, 이를 신앙공동체의 일치를 바탕으로 청빙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함
- (2) 청빙위원회의 최종후보자 확정과 교회위원회의 후보자 결정 및 교인총회 소집 시점에서 교우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후보자 확정과 교인총회 개최를 신속하게 알려 최종후보자에 대한 교우들의 여론 형성과 의사결정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였음(문자메시지로 공지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도 하였음)
- (3) 교우들의 여론과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선출직 평신도, 교회위원,

등대목자 등 교회 각급 지도력들의 공정하면서 일치되고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이 절대 필요함

6) 총평

- (1) 담임목사 청빙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구성원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일치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함. 따라서 이러한 청빙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전체 교우들이 잘 인식하여 공동체적 합의와 일치, 결속을 실현하는 축제적 과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 청빙위원들이 2008년 청빙 활동의 경험과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또한 3.0추진위를 병행하고 있어 교회 전반의 문제와 과제를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새민족 신앙과 교우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목회자 상을 확정하고 이를 청빙 활동 전체과정에서 적용, 실현함
- (3) 이번 목회자 청빙은 담임목사 유고, 평신도 행정간사를 통한 교회 일상 운영 등 교회의 위기적 상황에서도 교우들이 청빙위원회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높은 지지율로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었음
- (4) 청빙은 우리가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이끌어 왔음을 고백함

담임목사 청빙 공고

새민족교회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나라 운동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1. 인원 : 한 명
2. 자격
 -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 목사
 - 나. 새민족교회 헌장과 신앙고백에 따라 목회 하실 분
 - 다. 성별 구분 없음
3. 지원서류 제출
 - 가. 서류
 - 이력서 한 통(사진 포함, 별도 파일로 첨부 가능)
 - 자기소개서(별첨 양식) 한 통
 - 본인 설교원고 세 편
 - 나. 제출 기간 : 2013년 6월 8일
 - 다. 제출처 : xxxxxx@xxx.xx.xx (이메일로만 접수함)
4. 목회 조건
 - 가. 교회 규약에 따라 임기를 정함
 - 나. 급여는 교회가 정한 기준에 따름
5. 심사 방법
 - 1단계 : 서류 심사
 - 2단계 : 심층 면접 등(1단계 합격하신 분에 한함)
6. 문의 및 연락
 - 교회 02-363-3236
 - 교회위원장 김진오 집사 (xxxxxx@xxxxxx.xxx)
 - 청빙위원장 김종원 장로 (xxxxxx@xxx.xx.xx)

2013년 5월 27일
새민족교회 청빙위원회
www.saeminjok.or.kr

자기소개서

성명 :

문항 마다 최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폰트 11pt 기준)

- 성장 과정, 학업, 가족 관계 등 자기 소개
- 목회 경력 및 에큐메니컬 활동 경험(경력)과 평가
 - 설교
 - 목회적 돌봄
 - 리더십(비전, 목표, 방향 제시)
 - 성실성
 - 진정성
 - 교인들과 소통능력
 - 에큐메니컬 활동(사회적 실천) 등
- 다음 목회 역량 중 자신이 가진 강점에 대해 기술
- 새민족교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
(현장, 신앙고백문, 규약, 조직, 운영, 활동 등 ; 홈페이지 참조)
- 자신의 목회철학과 새민족교회 목회 계획

- 추천인(본인을 추천한 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추천인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력서

2013년 월 일

1. 인적 사항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우편번호		팩스번호	
	주소			

2.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최종학력	직업	동거여부

3. 학력사항

기간(년.월~년.월)	학교명	학과/전공

4. 경력사항

기간(년.월~년.월)	단체/교회 명	직책(직위)	비고

청빙 서류심사 평가기준

평가 항목 (각 20점)	평가 요소	점수
1. 목회계획과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민족교회 현장과 정신, 신앙고백에 부합하는가 ● 새민족교회 비전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 자신의 목회비전이 뚜렷한가 	
2. 에큐메니컬 운동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 및 지역, 사회 그리고 전체적인 에큐메니컬운동 활동 경력 ● 앞으로 에큐메니컬 활동과 기독교운동에서 주도적 역할 가능성 	
3.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로서 활동한 경험과 역량이 많은가 ● 교인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가(소통능력) ● 평신도 공동목회의 열린 사고를 하는가 	
4. 목회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미래와 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능력과 기획력이 있는가 ● 새민족교회에 적합한 목회의 전문역량이 바탕이 되어 있는가 (목회 전반, 돌봄, 설교, 성서와 신학적 기반, 선교 역량 등) 	
5. 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단력, 책임감, 성취욕구가 있는가 ● 성실하며 진정성이 있는가 ● 실천력, 왕성한 활동력이 있는가 	
의견		점수 합계
종합평가	1. 꼭 청빙하고 싶다. 2. 될 수 있으면 청빙하는 것이 좋다. 3. 어느 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 4. 청빙하고 싶지 않다.	

채점 기준 **A**(20~18) 각 부문에서 탁월함
 B(16~14) 대체로 우수함
 C(12~10) 다소 부족한 여지가 있음
 D(8~6) 부족한 점이 많음

청빙 심층면접 참고 자료

2013.7.4

- 심층면접의 방향
 1. 교회의 다섯 가지 역할에 대한 확인 - 예배의 기획과 실행, 설교, 교육, 친교, 섬김(선교와 봉사)에 대한 목회 계획
 2. 우리 교회의 사정과 비전에 맞춘 구체적인 목회 계획 점검, 확인
- 목회 계획에 대한 심사
 1. 교회의 비전과 사명, 현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에 따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2. 실행 가능성, 역량 확인 - 지원자가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목회자의 소명(자질)과 깊은 내면을 보기
 1.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 영역과 부합하는가
 2. 목회에 대한 소명, 목회 철학, 신학적 사유가 깊이 있고 풍부한가
 3. 목회 과정에 겪었던 문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4.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 목회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교인들 사이 갈등, 교인과 목회자의 갈등, 교회 지도력들과의 갈등 등
 5.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소하는가
- 면접 문항
 1. 자기소개서와 목회계획서 내용과 관련된 질문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목회, 예배, 신앙 교육, 에큐 활동 등) - 신앙 과정 등
 2. 우리 교회의 상황 제시와 해결 관련 질문 - 우리 교회 선교 활동 중 부족한 것은? - 청소년, 청년 출석 문제 해결 방안은?
 3. 개인적 질문(일상 생활과 소명) - 인터뷰 질문지 참조
 4. 예배와 설교 - 설교 준비는 어떻게?
 5. 목회적 돌봄, 상담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6. 행정 업무에 대한 이해 - 교회 행정, 사무 업무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담임목사 청빙 최종후보자 황남덕 목사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

2013.7.20(일)

새민족3.0추진위원회 청빙위원회

■ 담임목사 청빙 관련 규약 내용

규약 제24조(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교회위원회의 결의와 교인총회에서 유효투표 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2.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교인총회에서 유효투표 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연임이 결의되면 6개월간의 유급 안식기간을 가지며, 이 안식기간은 임기에 산입된다.
4.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하면 해당 년의 말일을 기준으로 임기를 종료한다.

■ 청빙 및 시무 조건

1. 교회 규약에 따라 담임목사로서 규약이 정한 대로 시무함
2. 교단 헌법에 따라 담임목사(임시목사, 3년, 연임)로 시무함.
단, 위임목사 청빙 여부는 시무 기간 중 결정함
3. 시무 시작 일시 : 2013년 9월 1일부터

■ 황남덕 목사 소개

1962년 생(만 51세)

가족 : 아내 김정희(48), 딸 황다솜(26), 아들 황다찬(23)

학력 : 철도고등학교(1980), 서울장신대학교(1985), 장로회신학대학원(1988)
The Divinity school of Silliman University(B.Th)(2005)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New York(S.T.M)(2007)
Hartford Seminary in cooperation with the Exeter University
(Ph.D)(2013)(박사학위논문 “The God of all the Earth: Contextual
Theology in a Globalizing World: The Example of Korea”)

경력 : 노동/민중목회훈련(영등포산업선교회)
새나루교회 개척, 목회
일하는 예수회 사무국장
독일 팔츠주 기독교 사회봉사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선교교육국
영등포산업선교회(국제연대부)
롱아일랜드 한인교회교육담당(영어목회)
WCC-United Nations Liaison Office in New York(Consultant)

■ 최종후보자 황남덕 목사에 대한 심사 및 선정 결과

1.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에 따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 새민족에 맞는 신학적 사유와 목회 철학을 깊고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새민족공동체와 목회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열정적인 의지가 있음
- 자신의 신앙과 방향(노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지지를 가짐
- 새민족 정신을 늘 확인, 점검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천명함
2.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 영역과 부합하는가
- 우리 교회 상황과 여건, 문제점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목회 계획의 일관성 있는 흐름을 갖고 있음
- 성례전, 설교, 교육, 선교와 실천 등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 영역을 제시함
예) 새민족의 큰 그림 구상 - 평화
주기도문 학교, 하나님나라 학교, 공동체성서연구 등 제시
에큐메니칼 활동의 국제적 연대와 연결 역량
청년세대의 신앙과 교회 활동, 선교 프로그램 제시
- 에큐메니칼 활동 및 지역, 사회 연대활동에 평신도와 함께 하는 활동 참여를 강조함
- 마포와 망원 지역에 대한 지역 선교와 활동 구상을 제시함
3. 목회와 삶
- 대전 민중교회, 독일, 필리핀, 미국 등 해외에서의 공부와 목회, 국내외

자기소개서

성명 : 황남덕

1. 성장 과정, 학업, 가족 관계 등 자기 소개

저는 이복이 고향이신 부모님 슬하에서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이산가족이 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민족분단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도시빈민가에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동네사람들 대부분이 행상을 하며 어렵게 살았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미션 스쿨인 영락중학교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3년간 장학금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졸업 후 철도청에 다니면서 서울장로회신학교 야간 신학부를 졸업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장로회신학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런 열정은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공부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현대신학연구회라는 동아리 모임에 가입하여 신학생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실시하는 노동목회자 훈련에 참여하여 영등포와 부천에서 9개월간 공장 노동을 하고 노동훈련 후 3개월간 사회과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2. 목회 경력 및 에큐메니컬 활동 경험(경력)과 평가

1년간의 노동훈련을 마친 후 신탄진에서 새나루교회를 개척하여 민중목회를 하였습니다. 노동청년을 위한 문화교실, 가난한 맛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 등을 중심으로 지역 선교에 힘쓰고 지역의 목회자들과 목회자 인권운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신탄진에서 3년간의 목회 이후 '일하는 예수회'의 사무국장이 되어 전국에서 노동/빈민 목회를 하는 교회들을 네트워크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독일 팔츠주 교회와의 민중교회간의 자매관계를 맺는데 국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에큐메니컬 활동 등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 신앙과 신념에 대한 확신을 통해 일관성 있는 길을 걸어 왔음

- 국제 에큐메니컬 활동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감각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청년선교를 가능케 하는 역량을 가지게 됨

4. 교회의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 목회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지난 우리 교회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회 내 아픔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 치유와 위로, 극복을 위한 의지를 보였으며, 향후 교회 내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대해 목회자로서 적극적인 대처와 중재 등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짐

■ 총평

1. 새민족의 신앙과 정신에 가장 부합하고 새민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교회운영 구조나 성례전, 제반 활동 등 모든 부문에서 서로 익히고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새민족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 주고 있음
3. 노동, 평화, 국제연대 등 에큐메니컬 활동 경력이 풍부하며 이를 토대로 교회의 선교활동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4. 새민족 교우들과 늘 친화력 있게 관계를 가져왔으며 이 점은 교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목회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책임감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함
5. 지금 우리 교회는 내부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며 내실을 기해야 될 시점인 것을 강조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려고 함
6. 최근 몇 년간 힘들고 어려운 교회 상황을 이겨내며 교회공동체를 지켜 온 모든 교우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이 과정을 지나온 교우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함
7.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같이 사역하는 새민족교회의 정신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1996년 독일교회의 사회봉사(디아코니아) 활동에 대해 배우기 위해 독일에 가서 기독교 사회봉사국에 근무하며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외국인노동자 실태를 알게 되었고 실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정치적 망명자들을 위한 모임, 목회자후보생들의 훈련, 유치원 교육 내용 등, 독일교회의 사회선교 현장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구 동독지역을 방문하여 그곳의 목회자들과 대화하며 독일교회가 통일의 과정 속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 듣고, 동시에 통일 이후의 독일교회의 당면한 과제 등에 관한 경험을 들으며 한반도 통일에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개신교회 목사들과 가톨릭 신부들과 스위스에 있는 보세이 에큐메니칼 훈련원에서 WCC의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미래의 선교적 과제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독일에서의 배움의 길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교육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선교교육국의 업무는 장애인복지선교, 도시농어촌선교, 에큐메니칼 신학연구, 평신도교육선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장애인선교관련 업무는 교단을 뛰어넘어 소외 받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교회가 연합하여 선교하는 일로 정기적인 교회순회예배를 통해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한국교회가 장애인 선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도시농어촌선교를 위해서는 범 교단이 함께 효율적인 선교적 협력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동기는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외국교회, 특히 미국교회와 독일교회로부터 협력과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시기 선교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아시아 도시농어촌 선교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훈련하기 위한 아시아 도시농어촌(URM)-디아코니아 훈련원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그래서 국제연대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연대부를 통해서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와 공동으로 아시아 도시농어촌(URM)-디아코니아 훈련원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지역의 현장실무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교육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시아 현장의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아시아기독교협의회가 주최하는 국제모임에도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교회가 당면한 선교과제를 각종 강의와 세미나, 현장 방문을 통해 배우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아동노동실태, 태국의 매춘실태, 인도 빈민들의 삶 등의 사례를 접하면서 아시아의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세계화로 인해 빚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도시농어촌 디아코니아 훈련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필리핀에 있는 실리만 신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미국에 있는 뉴욕신학교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위해 유학을 갔고 박사과정 코스웍만 마치고 유니온신학교에서 STM 과정을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세계교회협의회-유엔 사무실에서 9개월간 컨설턴트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유엔에서의 중요한 각종회의에 참여하여 국제적 이슈에 대해 경험하였는데 예를 들면 수단의 다르푸르 문제, 케냐의 정치분쟁에서부터 지구온난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유엔의 컨설턴트의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Hartford신학교에서 Religious Studies를 전공으로 박사과정(Ph.D)에 있습니다. 2년간의 코스웍을 마치고 지난 2월에 논문을 제출한 상태이고 구두시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논문은 세계화시대의 상황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와의 삶과 현실을 민중해방신학과 종교간의 대화의 관점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3. 다음 목회 역량 중 자신이 가진 강점에 대해 기술

- 설교
- 목회적 돌봄
- 리더십(비전, 목표, 방향 제시)
- 성실성
- 진정성
- 교인들과 소통능력
- 에큐메니칼 활동(사회적 실천) 등

저는 민중교회목회, KNCC의 근무, 영등포산업선교회의 국제연대부 활동 등 다양한 에큐메니칼 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힘은 사회정의 실천이 하나님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신앙고백과 교회가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실천적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깊은 의사소통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 목회자로서 목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에큐메니칼 운동이 단순한 기구운동만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통해 열매를 맺고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러 분야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목회에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에큐메니칼 운동의 의사소통 경험을 교인을 만나고 대화하는 목회적 돌봄을 위해 성숙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요즈음 새민족교회에는 그간에 알고 지내던 교우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옛 교우들을 만나고 깊은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직장의 문제, 자녀문제, 부부간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등 모든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겠습니다. 교우들 사이에 서운한 점이나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서 풀고 새민족의 정신에 따라 미래를 함께 내다보며 깊은 심호흡을 하는 일에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맺은 새민족교회와의 관계는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동체 훈련이나 갈등해결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인전체가 참여하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경험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이민교회의 분열은 목회자와 교인간의 깊은 대화가 부족하여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이어지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목회를 할 것입니다. 대화의 목회는 곧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행정과 교육, 선교, 외부적 연대 사업 등 모든 일들은 교회위원회, 제직회와 상의하여 역할분담 할 것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여 일을 함께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배우고 훈련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에 대해서는, 저의 설교는 성서 본문을 중심으로 예언자적인 말씀 선포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나라를 지향하는 설교입니다. 교리 중심적, 전통주의에 사로잡힌 설교가 아니라 성서에 흐르는 해방의 전통을 오늘의 상황 속에서 추구하는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아픔이나 영적 갈등함을 전혀 무시한 설교는 더욱 아닙니다. 저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함께 지향하는 설교를 늘 해 왔습니다. 또한 저의 설교 스타일은 본문과 상황을 연결시키며 쉽게 전달하는 설교입니다. 저는 민중신학이 복잡한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민중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신학임을 주장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쉽게 전하는 이야기식 설교를 합니다. 예화도 가능하면 성서본문에서 찾으며 오늘의 문제와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서의 깊은 말씀을 교회공동체가 새롭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회자 개인의 끊임없는 성서연구에도 매진할 것입니다.

4. 새민족교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

(현장, 신앙고백문, 규약, 조직, 운영, 활동 등. 홈페이지 참조)

저는 새민족교회에서 정식으로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협동목사를 제외하고...)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 출석하여 교회가 생기게 된 동기와 정신, 비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와의 연대, 사회정의, 민족통일 등이 새민족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기 위해 현장, 신앙고백문을 읽었고 다시 한번 새민족의 정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JPIC)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는 자세를 다시금 진지하게 느꼈습니다. 새민족교회 교인 실천 규범은 가정 속에서,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신앙인의 모습과 자세입니다. 그러나 현장(1993)과 실천 규범(1993) 등이 벌써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한다는 차원에서 다소 보완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민족 2026 비전 선언문을 보면서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됩니다. “2026년까지 JPIC 센터를 건립”하고 “새민족교회와 선교의 비전을 함께 하는 분가교회 5개”를 세운다는 장기 계획은 새민족교회

의 내일의 역사를 내다보고 새민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또 다른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 교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첫 발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일세대 새민족교회 교인들이 다음세대들과 함께 하는 평화운동을 위해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는 일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5. 자신의 목회철학과 새민족교회 목회 계획

저는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성서 속에 나타난 민중해방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고역에 시달리던 히브리(합비루)를 해방 시킨 하나님의 민중해방사건, 구약의 예언자들의 활동, 그리고 갈릴리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의 맥을 이 시대에 이어나가는 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분명한 해방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목회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산업문화의 악의 구조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생명문화를 창출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목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비인간화된 사회 속에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상처 받고 힘들어하는 교인들의 자아회복과 깊은 영성을 위해 기도하고 아픔을 함께 할 것입니다. 교회 목회는 여리고 언덕에서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강도가 나타나지 않게 먼저는 평등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지만 동시에 강도 만난 이의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는 일도 소중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을 더욱 명확히 보는 동시에 개인 실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 속에서 자식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모들, 이혼한 가정들을 보면서 넓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파생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동시에 깨어진 자아와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용기를 주는 것도 소중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목회는 교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과 함께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인 실존의 아픔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상담과 심방에 애쓸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등대모임에 참여하여 등대모임을 기도모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회복되고 가정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 모두가 하나님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서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신앙과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성서 읽기와 말씀 묵상을 위해서 공동체성서연구를 시도해 볼 것입니다. 교리 중심의 기존의 성서 읽기에서 탈피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삶의 나침을 지향하는 새로운 성서연구가 될 것입니다. 수요기도회는 기도와 공동체 성서연구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선교로서는 생명문화를 일구는 망원동 지역의 새민족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망원동은 마을차원에서 주민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예, 성미산 살리기 백인합창단의 경험) 새민족교회가 주민의 일원이 되어 마을살리기 주민운동에도 기여하는 일을 선교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일을 위하여 가능하면 목회자 가정이 교회 가까이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목회적 차원에서도 고려한 것입니다.)

저는 9년반이라는 시간을 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선교 계획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자세는 새민족교회 정신에 의거하여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교인들과 함께 하는 지역선교를 찾고자 합니다. 현 시점에 우리의 역량(물적, 인적)에 맞는 선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대화의 광장을 통해 교인들과 논의할 것입니다. 끝.

새민족3.0추진위원회 목회자청빙 추진 경과 (2013.2 ~ 2013.7)

작성일 2013.7.21

- 2.24(일) 교회위원회
 - 새민족3.0추진위원회 추진 승인 및 위원 임명
 - 교회위원회 3인 (김진오, 박연미, 손정일)
 - 교인 추천 2인 (김종원, 이영자)
- 3.3(일) 새민족3.0추진위원회 1차 모임
 - 위원장 김종원, 서기 김진오 임명
- 3.3(일) ~ 7.14(일) 총 11차 모임
 - 목회 구조, 새민족교회 변화 과제, 목회자 청빙
- 3.24(일) 새민족 전교인토론회
 - 2013년 교회 운영 등 논의 (다수 교우들이 담임 목회자 청빙 선호 의견)
- 4.28(일) 대화의 광장
 - 새민족3.0추진위 경과보고 및 목회 구조 등 토론
- 4.28 ~ 5.5 2주에 걸쳐 전교인 설문조사
 - 다수 교우가 담임 목회자 구조, 예장 통합 교단 유지, 올해 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청빙, 추천/개별접촉 방식 선호
- 5.19(일) 교회위원회
 - 새민족3.0추진위원회의 목회자 청빙활동 개시 승인
 - 목회자 청빙 시까지 새민족3.0추진위는 청빙위원회의 역할 수행
- 목회자 청빙 활동
 - 5.19(일) 7차 새민족3.0추진위 ~ 7.14(일) 11차 새민족3.0추진위 : 총 5차 모임
 - 5.26(일) 전교인 공지
 - 5.27(월) 홈페이지 공고 및 추천, 청빙위 직접 후보 지원 요청
 - 5.27(월) ~ 6.8(토) 서류접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설교원고 3편)
 - 6.9(일) ~ 6.30(일) 1차 서류 심사
 - 6.30(일) 10차 새민족3.0추진위, 2차 면접 대상 후보를 2인으로 확정
 - 7.6(토) 후보자 2인에 대한 심층 면접 실시
 - 7.14(일) 11차 새민족3.0추진위, 심층면접 및 최종 심사, 최종후보자로 황남덕 목사 선정, 최종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견 요청 및 심사
- 7.21(일) 교회위원회
 - 새민족3.0추진위원회의 목회자 청빙 승인의 건을 참석 교회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김진오, 민혜경, 박연미, 손정일, 정찬영, 주혜진)
- 청빙 기도회 : 7.3(수)부터 24(수)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교인 총회 공고

새민족교회 규약 24조, 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 청빙(선출)을 위한 교인총회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3년 8월 18일(주일) 2부 예배 후
- 장소 : 새민족교회 1층 예배실
- 안건 : 담임목사 청빙 의결에 관한 사항

담임목사 후보자



성명 : 황남덕
 생년월일 : 1962년 2월 1일(음)
 가족관계 : 아내 김정희, 딸 황다솜, 아들 황다찬
 경력 : 새나루교회 개척/목회
 일하는 예수회 사무국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교육국
 영등포산업선교회 (국제연대부) 등

- 안건 상정 근거 : 교회위원회 목회자 청빙(안) 승인
(2013년 제7차 정기회의의 7.21)

2013. 7. 21

새민족교회 교회위원장

2013년 (임시) 교인총회

일시 : 2013년 8월 18일 오후 1시
 장소 : 1층 예배실
 의장 : 김진오 집사(교회위원장)
 서기 : 유희정 집사(제직회 서기)

- 기도 : 문종철 장로
- 회원 점명(서기)
- 개회 선언(의장)
- 회순 채택
- 안건 토의

1. 담임목사 선출의 건

- 목회자 청빙 경과 보고 : 김종원 장로(청빙위원장)
- 질의/응답
- 투표 관리위원 선출
- 담임목사 선출 투표
- 결과 발표

- 기타 토의
- 폐회 선언(의장)

담임목사 청빙 최종후보자 황남덕 목사에 대한 청빙을 위한 교인총회 의결 요청서

2013.8.18(일)

새민족교회 교회위원회

새민족3.0추진위원회 청빙위원회

■ 의결 요청 사항

새민족교회 규약 24조(담임목사), 29조(교인총회 기능), 34조(교회위원회 기능), 59조(전임자 보수) 등에 근거하여 청빙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선정(2013.7.14)하고, 교회위원회가 승인 확정(2013.7.21)한 황남덕 목사를 대한 예수교장로회 새민족교회 담임목사로 교인총회가 선출할 것을 의결 요청함

신임 담임목사의 청빙 조건

- 1) 교회 규약에 따라 담임목사로서 규약이 정한 대로 시무함
- 2) 교단 헌법에 따라 담임목사(임시목사, 3년, 연임)로 시무함
단, 위임목사 청빙 여부는 시무 기간 중 결정함
- 3) 급여는 월 300만원 년 3,600만원
퇴직금은 연 300만원(연금 또는 일시불 선택)
기타 명절 선물(설, 추석 각 10만원)
급여 및 처우는 변동될 수 있음
- 4) 시무 시작 일시 : 2013년 9월 1일

규약 제24조(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교회위원회의 결의와 교인총회에서 유효투표 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2.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교인총회에서 유효투표 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연임이 결의되면 6개월간의 유급 안식기간을 가지며, 이 안식기간은 임기에 산입된다.
4.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하면 해당 년의 말일을 기준으로 임기를 종료한다.

■ 황남덕 목사 소개

1962년 생(만 51세)

가족 : 아내 김정희(48), 딸 황다솜(26), 아들 황다찬(23)

학력 : 철도고등학교(1980), 서울장신대학교(1985), 장로회신학대학원(1988)

The Divinity school of Silliman University(B.Th)(2005)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New York(S.T.M)(2007)

Hartford Seminary in cooperation with the Exeter University

(Ph.D)(2013)(박사학위논문 “The God of all the Earth: Contextual

Theology in a Globalizing World: The Example of Korea”)

경력 : 노동/민중목회훈련(영등포산업선교회)

새나루교회 개척, 목회

일하는 예수회 사무국장

독일 팔츠주 기독교 사회봉사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선교교육국

영등포산업선교회(국제연대부)

롱아일랜드 한인교회교육담당(영어목회)

WCC-United Nations Liaison Office in New York(Consultant)

■ 최종후보자 황남덕 목사에 대한 심사 및 선정 결과

1.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에 따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 새민족에 맞는 신학적 사유와 목회 철학을 갖고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새민족공동체와 목회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열정적인 의지가 있음
- 자신의 신앙과 방향(노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지지를 가짐
- 새민족 정신을 늘 확인, 점검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천명함

2.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 영역과 부합하는가

- 우리 교회 상황과 여건, 문제점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목회 계획의 일관성 있는 흐름을 갖고 있음
- 성례전, 설교, 교육, 선교와 실천 등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 영역을 제시함

예) 새민족의 큰 그림 구상 - 평화

주기도문 학교, 하나님나라 학교, 공동체성서연구 등 제시

에큐메니칼 활동의 국제적 연대와 연결 역량

청년세대의 신앙과 교회 활동, 선교 프로그램 제시

- 에큐메니칼 활동 및 지역, 사회 연대활동에 평신도와 함께 하는 활동 참여를 강조함
- 마포와 망원 지역에 대한 지역 선교와 활동 구상을 제시함

3. 목회와 삶

- 대전 민중교회, 독일, 필리핀, 미국 등 해외에서의 공부와 목회, 국내외 에큐메니칼 활동 등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 신앙과 신념에 대한 확신을 통해 일관성 있는 길을 걸어 왔음
- 국제 에큐메니칼 활동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감각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청년선교를 가능케 하는 역량을 가지게 됨

4. 교회의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 목회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지난 우리 교회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회 내 아픔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 치유와 위로, 극복을 위한 의지를 보였으며, 향후 교회 내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대해 목회자로서 적극적인 대처와 중재 등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짐

■ 총평

1. 새민족의 신앙과 정신에 가장 부합하고 새민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교회운영 구조나 성례전, 제반 활동 등 모든 부문에서 서로 익히고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새민족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 주고 있음
3. 노동, 평화, 국제연대 등 에큐메니컬 활동 경력이 풍부하며 이를 토대로 교회의 선교활동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4. 새민족 교우들과 늘 친화력 있게 관계를 가져왔으며 이 점은 교인들과 상호 작용하는 목회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책임감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함
5. 지금 우리 교회는 내부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며 내실을 기해야 될 시점인 것을 강조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려고 함

6. 최근 몇 년간 힘들고 어려운 교회 상황을 이겨내며 교회공동체를 지켜 온 모든 교우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이 과정을 지나온 교우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함
7.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같이 사역하는 새민족교회의 정신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새민족3.0추진위원회 목회자청빙 추진 경과 (2013. 2 ~ 2013. 8월 현재)

- 2.24(일) 교회위원회
 - 새민족3.0추진위원회 추진 승인 및 위원 임명
 - 교회위원회 3인 (김진오, 박연미, 손정일)
 - 교인 추천 2인 (김종원, 이영자)
- 3.3(일) 새민족3.0추진위원회 1차 모임
 - 위원장 김종원, 서기 김진오 임명
- 3.3(일) ~ 7.14(일) 총 11차 모임
 - 목회 구조, 새민족교회 변화 과제, 목회자 청빙
- 3.24(일) 새민족 전교인토론회
 - 2013년 교회 운영 등 논의 (다수 교우들이 담임 목회자 청빙 선호 의견)
- 4.28(일) 대화의 광장
 - 새민족3.0추진위 경과보고 및 목회 구조 등 토론
- 4.28 ~ 5.5 2주에 걸쳐 전교인 설문조사
 - 다수 교우가 담임 목회자 구조, 예장 통합 교단 유지, 올해 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청빙, 추천/개별접촉 방식 선호
- 5.19(일) 교회위원회
 - 새민족3.0추진위원회의 목회자 청빙활동 개시 승인
 - 목회자 청빙 시까지 새민족3.0추진위는 청빙위원회의 역할 수행
 - 신임 목회자 처우 확정 : 급여는 월 300만원 년 3,600만원. 퇴직금은 연 300만원(연금 또는 일시불 선택), 기타 명절 선물(설, 추석 각 10만원)
- 목회자 청빙 활동

- 5.19(일) 7차 새민족3.0추진위 ~ 7.14(일) 11차 새민족3.0추진위 : 총 5차 모임
- 5.26(일) 전교인 공지
- 5.27(월) 홈페이지 공고 및 추천, 청빙위 직접 후보 지원 요청
- 5.27(월) ~ 6.8(토) 서류접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설교원고 3편)
- 6.9(일) ~ 6.30(일) 1차 서류 심사
- 6.30(일) 10차 새민족3.0추진위, 2차 면접 대상 후보를 2인으로 확정
- 7.6(토) 후보자 2인에 대한 심층 면접 실시
- 7.14(일) 11차 새민족3.0추진위, 심층면접 및 최종 심사, 최종후보자로 황남덕 목사 선정, 최종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견 요청 및 심사
- 7.21(일) 교회위원회
 - 새민족3.0추진위원회의 목회자 청빙 승인의 건을 참석 교회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김진오, 민혜경, 박연미, 손정일, 정찬영, 주혜진)
 - 청빙 의결을 위한 교인총회를 2013. 8. 18 주일에 개최하기로 함
 - 청빙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공감 형성을 위해 8.4일 주일에 등대모임에서 토 론과 의견을 나누기로 함(청빙과정과 후보자 선정, 청빙과 교우들의 역할 등)
- 청빙 기도회 : 7.3(수)부터 24(수)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 청빙위원회와 등대가 주관
- 8. 4(일) 등대모임에서 담임목사 청빙 경과와 최종후보자에 대한 토론
- 8.18(일) 담임목사 청빙 의결을 위한 교인총회

2013년 (임시) 교인총회

일시 : 2013년 8월 18일 오후 1시

장소 : 1층 예배실

의장 : 김진오 집사(교회위원장)

서기 : 유희정 집사(제직회 서기)

- 기도 : 문종철 장로가 대표 기도 올린다.
- 회원 점명(서기)
 - 2013년 새민족교회 재적회원 명단 80명 중 총 53명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다.
- 개회 선언(의장)
 - 재적회원 3분의 1의 교인이 참석하였으므로, 의장이 교인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 회순 채택
 - 의장의 제안과 교인들의 동의로 담임목사 선출의 건을 회순으로 채택하다.
- 안건 토의
 1. 담임목사 선출의 건
 - 목회자 청빙 경과 보고 : 김종원 장로(청빙위원장)가 발표하다.
 - 질의/응답 : 질의 교인이 없어 진행하지 않다.
 - 투표 관리위원 선출 : 정재곤집사, 이경한집사 2명을 교인 추천과 제청으로 선출하다.
 - 담임목사 선출 : 준비한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교인 투표를 실시하다.
 - 결과 발표 : 총 5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51명, 반대 1명으로 담임목사 선출안이 가결되다.
- 기타 토의
 - 제안된 안건이 없어 진행하지 않다.
- 폐회 선언(의장)
 - 의장의 선언으로 오후 1시 50분에 폐회하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계획

- '성령의 새민족공동체'를 이루는 청빙

2013.6.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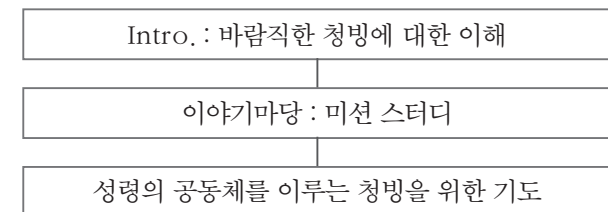
새민족3.0추진위원회 청빙위원회

1. 기도회의 목적

- 1) 하나님 백성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와 교인들을 목회하는 목회자 청빙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는다.
- 2) 목회자 청빙을 맞아 교회의 본래적 모습에 비추어 우리 교회의 현재를 인식하여 새민족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기회로 만든다.
- 3) 청빙 과정에 교우들의 역량과 뜻과 마음을 존중하여 토론과 합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 민주적이며 공정한 청빙 활동이 되도록 한다.
- 4) 모든 교우들이 청빙 과정을 통해 영적인 훈련과 신앙 성장을 이루도록 한다.

2. 기도회 프로그램의 방향과 구성

- 1) 방향
 - 영성훈련을 기본으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함께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 바람직한 청빙을 위하여 목회자의 역할과 교인들의 자세에 대해 인식을 나눈다.
- 2) 구조



3) 프로그램 구성

(1) Intro.

-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청빙
- 청빙과 교인의 역할
- 교인의 참여와 자세
- 뽑았으면 책임지세요

(2) 미션 스터디

- 1주 : '만인제사장' - 그리스도인의 신분
- 2주 : '소명' - 삶의 위치로 부르심
- 3주 : '교회' - 흠여지는 공동체
- 4주 : 새민족의 역사성과 비전, 그리고 새 담임목사

(3) 기도

-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청빙이 되기 위하여
- 제사장(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하여
-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찾기 위하여
- 세상을 사랑하여 흠여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새민족의 비전을 성취하는데 새 목회자와 교우들 모두가 헌신하기 위하여

3. 프로그램 진행 계획

1주 - 7.3(수), 담당 : 1등대(사회 : 등대목자)

7:30 찬양

7:40 Intro./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청빙 / 청빙위원

7:50 미션스터디 / '만인제사장' - 그리스도인의 신분 / 사회자

'주의 종', '그리스도인의 신분', '만인 제사장',
'목회자와 평신도의 복음적 동역'

8:20 기도

-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청빙이 되기 위하여
- 제사장(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하여
- 마무리 기도 : 사회자

8:35 폐회 - 공동체 축복 기도

2주 - 7.10(수), 담당 : 2등대(사회 : 등대목자)

7:30 찬양

7:40 Intro./ 청빙과 교인의 역할 / 청빙위원

7:50 미션스터디 / '소명' - 삶의 위치로 부르심 / 사회자

'신앙과 소명', '삶의 현장에서의 소명의식',
'교회운영에서 소명에 따른 헌신과 사역 방안'

8:20 기도

-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청빙이 되기 위하여
-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찾기 위하여
- 마무리 기도 : 사회자

8:35 폐회 - 공동체 축복 기도

3주 - 7.17(수), 담당 : 3등대(사회 : 등대목자)

7:30 찬양

7:40 Intro./ 교인의 참여와 자세 / 청빙위원

7:50 미션스터디 / '교회' - 흠여지는 공동체 / 사회자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8:20 기도

-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청빙이 되기 위하여
- 세상을 사랑하여 흠여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마무리 기도 : 사회자

8:35 폐회 - 공동체 축복 기도

4주 - 7.24(수), 담당 : 4등대, 청년등대(사회 : 등대목자)

7:30 찬양

7:40 Intro./ 뽑았으면 책임지세요 / 청빙위원

7:50 미션스터디 / 새민족의 역사성과 비전, 그리고 새 담임목사 / 사회자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우리 교회의 비전', '어떤 목회자인가',
'새 담임목사를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

8:20 기도

-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청빙이 되기 위하여
- 새민족의 비전을 성취하는데 새 담임목사와 교우들 모두가 헌신하기 위하여
- 마무리 기도 : 사회자

8:35 폐회 - 공동체 축복 기도

4. 준비 계획

- 1) 등대별로 운영함
 - 모든 교우들이 참석하고 등대별로 진행함
 - 등대목자는 찬양 선곡, 마무리 기도 준비
 - 모임 시작 시간 지킴
 - 마치는 시간은 9시가 넘지 않도록 함
- 2) Intro. 순서는 청빙위원이 맡음
- 3) 미션스터디 자료는 청빙위원회에서 제공함
- 4) 기도는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간구함

목회 협약서

새민족교회는 황남덕 목사를 새민족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며, 새민족교회와 황남덕 목사는 상호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1. 협약 주체

- (1) 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새민족교회(서울시 마포구 방울대로7길 49)
- (2) 담임목사 : 황남덕(1962년 2월 1일 생)

2. 청빙 조건

- (1) 시무 기간 : 2013년 9월 1일 ~ 2019년 8월 31일(6년간)(교회 규약 제24조)
- (2) 보수 : 새민족교회 전임자 보수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교회 규약 제59조)
- (3) 연임 및 정년 : 교인총회에서 유효투표 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하면 해당년의 말일을 기준으로 임기를 종료합니다. (교회 규약 제24조)
- (4) 사임 : 담임목사의 임기와 관련한 사항은 교회 규약 제24조를 따릅니다. 목사 본인의 사정으로 임기 도중 사임할 경우, 후임 목회자가 부임한 이후 사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를 이행하기가 불가한 경우 사임 1개월전에는 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목사의 교회에 대한 협약

- (1) 목사는 새민족교회의 규약에 동의하며, 규약에 근거한 목회를 합니다.
- (2) 목사는 새민족교회의 목회 원칙과 새민족교회가 추구하는 가치(헌장, 신앙고백, 규약, 비전과 사명)를 충실히 이행하며, 선한 목자로서 교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설교, 성례, 심방, 교육, 선교 등 목회 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4. 교회(교인)의 목사에 대한 협약

- (1) 교회(교인)는 담임목사 청빙조건을 보장하며, 목사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목사의 목회 사역을 최대한 지원하고,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 가는 협력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 (2) 교회(교인)는 교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이웃과 사회, 한국교회를 위한 목사의 에큐메니칼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2013년 9월 1일 새민족교회

교인대표 : 교회위원장 김진오 (서명)

담임목사 : 황남덕 (서명)



세 번째 뉴스

새민족교회 건물을 갖다!

망원동 교회건물 매입(2009년)

교회이전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2009.2.14(토)

I. 경과 및 개요

1. 설치 근거

1) 교회위원회 2009년 제2차 회의(2009.1.30 금)

2) 내용

- 1/22(목) 마포구 망원동 소재 건물 낙찰. (가격 385,780,000원)

- 향후 추진 과정은 구성된 교회이전추진위원회에서 진행기로 하다.

- 교회이전추진위 구성(이하 명칭은 임의적인 가칭)

* 재정, 법률(비용, 이전에 관한 법률적 업무)과 기획시설(이전을 전후로 한 프로그램, 교회비전, 공간배치 등) 두 개의 팀으로 구성

* 구성 : 김종원(위원장), 유무상(재정/법률팀장), 손정일(재정/법률팀), 이미영(기획시설팀장), 김진오(기획시설팀), 이재황(기획시설팀), 박정이(기획시설팀)

2. 교회이전추진위원회(약칭 '이전위')의 성격과 위상

1) 교회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활동을 교회위원회의 결의로 설치된 전담 기구

2) 교회위원회가 추진하는 교회이전 관련 활동에 대해 기획, 연구, 자문

3) 따라서 이전위의 모든 내용은 교회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필요로 함

3. 교회이전추진위원회의 활동 범위

1) 교회 이전 관련 전체 활동에 대한 틀과 세부 내용 작업

2) 취득 물건의 후속 조치 : 법률적 사안, 협상과 대책

3) 재정 계획

4) 교회 실내 디자인 및 공사

5)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결정 및 이해와 의지 높이기 : 교회위원회의 몫이지만 이전위가 관련 프로그램과 내용을 기획

6) 지역 환경 및 분위기 탐색

4. 구성 및 역할- 모두 7명(2팀)

1) 팀별 역할

[재정법률팀]

- 법률 : 등기, 유치권, 세입자 대책, 교회등록
- 재정 : 재정확보계획서 작성(소요금액 - 시기별, 용도별)
재정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건물구입비용, 내부시설 및 집기 비용, 기타 운영비

[기획시설팀]

- 기획 : 이전 추진 일정 계획과 시기별 교회운영 프로그램 기획
- 시설 : 외양, 내부, 비품 / 디자인, 공간 활용 / 조명, 음향, 초점, Color, 배열 Layout, 상징(십자가, 배너, 성구)

5. 교회이전 활동의 주요 방향과 원칙(약속)

- 1) 교회를 개척한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추진한다.
- 2) 교회이전과 활동 과정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배출한다.
- 3) 새민족교회 비전과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 4) 충분한 기도, 신념과 열정, 일치와 결속의 3박자 활동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

6. 이전 후 활동

- 1) 교회위원회 혹은 이전위가 계획
- 2) 중요한 것은 '이전예배' 계획 - 첫 예배로 은혜와 감격, 그리고 결단을
모임

II. 안건토의

1. 활동계획에 대한 확정

- 1) 방향과 원칙
- 2) 구성과 역할
- 3) 기초 자료 확보 : 기타

2. 활동 일정과 계획

1) 낙찰 후 할 일(법정 절차)

-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 명도 및 배당

2) 전체 일정 계획

- 단계별 일정
- 일정별 주요 계획

3) 팀별 활동 계획

- 재정법률
- 기획시설

3. 1차 재정 확보(대금납부) 계획

4. 기타

2010.4.11(일) 오후 3시

1. 교회이전 및 공사 보고 | 교회연혁

1986년 8월 31일 성동구 화양동
 1989년 8월 성동구 성수동
 1991년 4월 광진구 자양동
 1993년 4월 성북구 동선동
 1996년 5월 서대문구 홍제동
 2003년 8월 서대문구 홍제동 송죽원
 2005년 5월 서대문구 충정로 기장 선교교육원
 2010년 1월 마포구 망원동
 (23년간 여덟 번째 보금자리)

2. 망원동 건물 구입 및 공사, 이전

2009.01.22 마포구 망원동 소재 건물 낙찰, 낙찰가격(385,780,000원)
 2009.03.03 매입 대금 완납
 2009.11.12 인도명령 집행 완료(소유권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 완료)
 2009.12.01 리모델링 공사 시작(사업자 디자인포)
 2010.01.15 공사 공식 완료, 공사비 6천만원, 가구 기기 등 포함 7천여만원
 2010.01.17 교회 이사
 2010.01.24 이전 첫예배

3. 교회 건물과 공간

- 규모 : 191.4m²(건평 약 60평)
- 공간 : 1층 예배실, 2층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사무실
- 설명 :
 - 1층 예배실은 전체가 둥근 모양. 곡선. 여성의 자궁-어머니의 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돌아감.
 - 십자가에는 도자기로 산, 물, 강, 땅,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됨.

- 휘장 :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 두 줄은 신성 예수님과 인간 예수
- 예배실 돌레와 모퉁이마다 벤치와 무대와 같이 디자인. 어디에서든 무대로 그리고 예배의 중심 강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예배당에서 회당으로...
- 마을교회로...
-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중의 쉼터, 배움터를 위한 공간.
-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의 에큐메니컬 선교센터로...
- 이전 헌금, 헌물, 공사 작업 참여, 이전추진위원들, 해방의 영성을 실천, 기도, 실천, 기를 성원해 주시는 분들, 특히 컨설턴트 최창식 선생, 건물 탐색과 매입에 염명희 집사, 재정 유무상 집사, 공사와 공간설치, 기계 김태영 집사 등 감사.

1. 경과

[설치 근거]

1) 교회위원회 2009년 제2차 회의(2009.1.30 금)

2) 내용

(1) 조직구성

- 1/22(목) 마포구 망원동 소재 건물 낙찰. (가격 385,780,000원)
- 향후 추진 과정은 구성된 교회이전추진위원회에서 진행기로 하다.
- 교회이전추진위 구성(이하 명칭은 임의적인 가칭)
- * 재정, 법률(비용, 이전에 관한 법률적 업무)과 기획시설(이전을 전후로 한 프로그램, 교회비전, 공간배치 등) 두 개의 팀으로 구성
- * 구성 : 김종원(위원장), 유무상(재정/법률팀장), 손정일(재정/법률팀), 이미영(기획시설팀장), 김진오(기획시설팀), 이재황(기획시설팀), 박정이(기획시설팀)

* 김태영집사, 리모델링 공사부터 위원으로 참여

(2) 건물 매입

- 2009.01.22 마포구 망원동 소재 건물 낙찰. (가격 385,780,000원)
- 2009.03.03 매입 대금 완납
- 2009.11.12 인도명령 집행 완료

(3) 공사

- 2009.12.01 리모델링 공사 시작
- 2010.01.15 공사 공식 완료(추가 공사 제외)

(4) 이전후

- 2010.01.17 교회 이사
- 2010.01.24 이전 첫예배

2. 재정 및 결산(별첨 참조)

3. 미결 및 추가 작업 사항

1) 미결 사항

- 교회 간판(현판) 제작 구입
- 가구 : 예배실 의자 겸용 테이블, 제단 등

2) 작업

- 외벽 전면부 도장

3) 기타

- 지붕 방수
- 외벽 전면부 교회명 디자인
- 입구 기둥(좌) 보완
- 지하 출입구 : 여름철 경과 후 판단

4. 현물 내역

물품		현금		비고
김진오 한지경	전자피아노	김종원	500,000	십자가, 탁자, 설교대, 의자, 수납장, 가구, 간판 등
류향신 이미영	전자피아노	손영주	1,100,000	
손정일 이명희	음향장비 및 시공	유무상	500,000	
애찬위원	가스레인지	주혜주	500,000	
		최현수	500,000	
		홍이화	300,000	
		무명	300,000	
		계	3,700,000	

5. 기타

- 1) 추가 및 미결 작업은 김태영집사와 관리재정부에서 담당하여 처리함
- 2) 재정 결산 및 추가 작업 사항 등 관리재정부와 인수인계함(3.14)
- 3) 교회이전 관련 모든 자료를 수집, 종합하여 문서로 보관하기로 함
- 4) 추후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4

새민족의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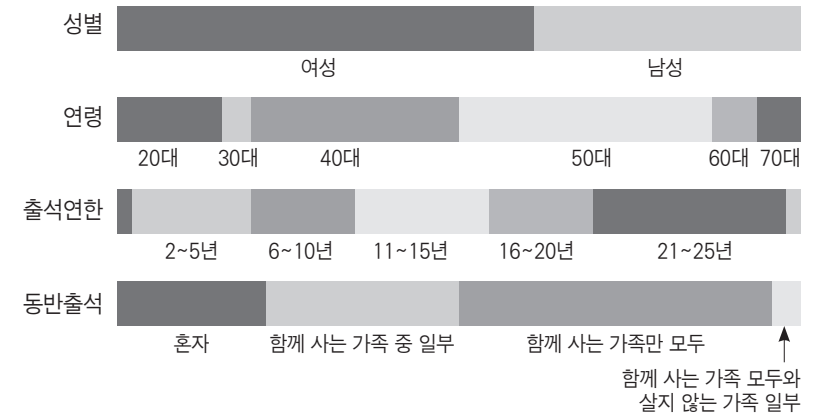
새민족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결과 • 311

전교인 신앙의식과 교회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 322

새민족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결과

- 교회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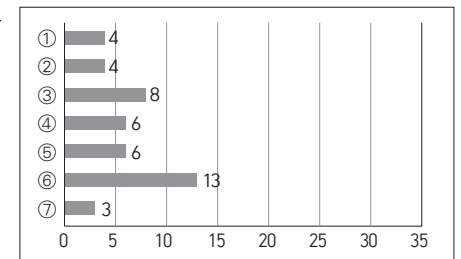
■ 설문자 기본 사항



■ 신앙생활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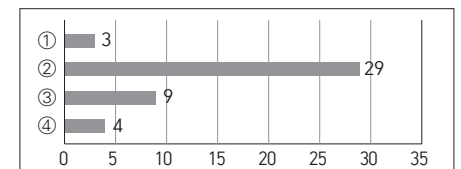
1. 새민족교회의 특성 중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성례전(예배)의 형식과 내용
- ② 목회자의 설교
- ③ 교우들과의 친분관계
- ④ 사회참여적인 선교활동
- ⑤ 민주적 교회 운영
- ⑥ 성서해석과 신학의 진보성
- ⑦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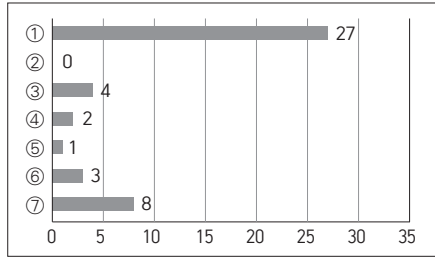
2. 주일예배를 포함하여 어느 정도 교회출석을 하십니까?

- ① 매주 2회 이상
- ② 매주 1회
- ③ 매월 3~4회
- ④ 매월 2회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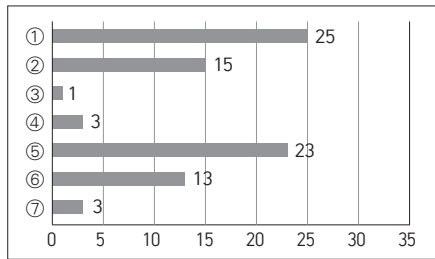
3.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나님나라 실현
- ② 교회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
- ③ 인간관계와 친교
- ④ 영혼 구원
- ⑤ 물질적 축복(건강, 부 등)
- ⑥ 마음의 평안
- ⑦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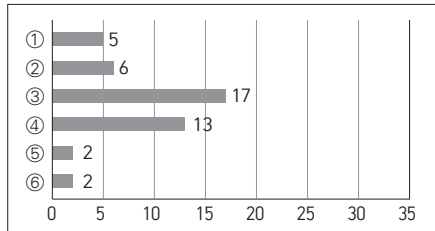
4.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① 주일예배 출석
- ② 기도생활
- ③ 헌금생활
- ④ 교회 봉사활동
- ⑤ 사회참여 등 실천 활동
- ⑥ 성경 공부
- ⑦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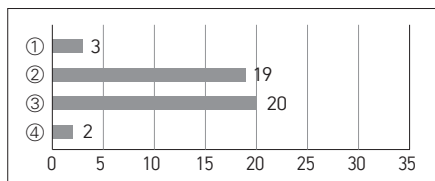
5. 기도는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식사기도 제외)

- ① 매일 규칙적
- ② 매주 3~4회 규칙적
- ③ 어려운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 ④ 생활이 곧 기도이므로 별도로 하지 않는다.
- 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 ⑥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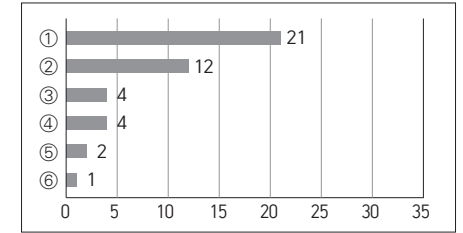
6. 헌금생활(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① 정확하게
- ② 대체로 정확하게
- ③ 형편대로
- ④ 제대로 못 한다.
- ⑤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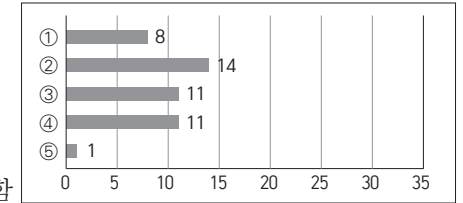
7. 성서는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주일 예배 설교 본문 외)

- ① 월 1회 미만
- ② 월 1~3회
- ③ 매주 1회
- ④ 2~3일에 한 번
- ⑤ 매일
- ⑥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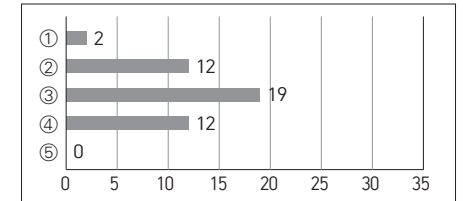
8. 교회 내 봉사 활동(애찬, 교사, 청소, 찬양대 등)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 ① 적극적
- ② 대체로 열심히
- ③ 조금
- ④ 거의 안함
- ⑤ 예배 외 봉사활동은 전혀 안함



9. 에큐메니컬 활동을 포함하여 사회참여 실천 활동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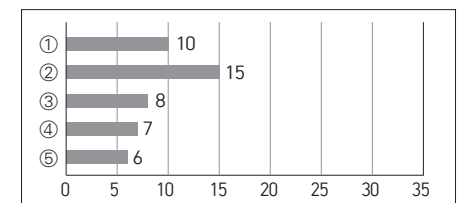
- ① 적극적으로
- ② 대체로 열심히
- ③ 조금 하는 편
- ④ 거의 하지 않는 편
- ⑤ 전혀 안한다



■ 신앙의식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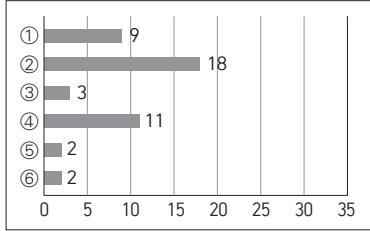
10. 사후에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있다
- ② 있을 것 같다
- ③ 없을 것 같다
- ④ 없다(내세: 종교적 메시지)
- ⑤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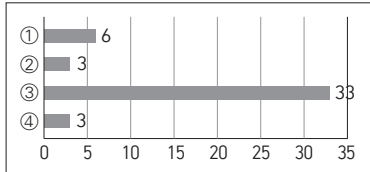
11.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존재
- ②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 안에 내재
- ③ 무한한 기 또는 에너지 같은 존재
- ④ 인간의 이상향이 투영된 신앙적이고 상징적 존재
- ⑤ 모르겠다.
- ⑥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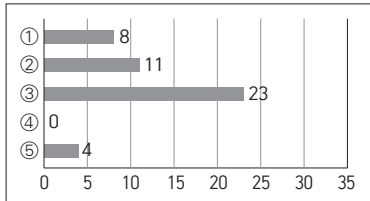
12. 하나님나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사후 세계(천국)
- ② 내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
- ③ 이 땅에서 이뤄지는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
- ④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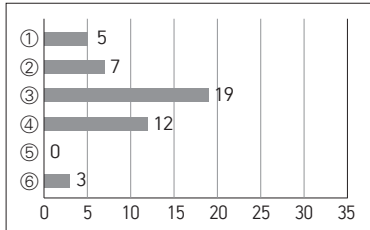
13.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
- ② 확신하진 않지만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예수의 위대성을 표현하기 위한 신앙적 의미로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 ④ 모르겠다.
- ⑤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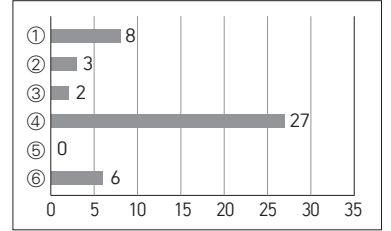
14. 예수의 부활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죽었다가 육체적인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 ② 이전의 몸이 아닌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 것이다.
- ③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되살아난 예수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 ④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과정의 상징적 표현이다.
- ⑤ 모르겠다. ⑥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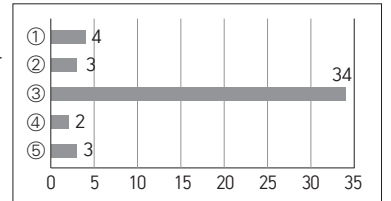
15.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영적 구원자
- ② 사람들의 삶에 훌륭한 조언과 가르침을 주신 위대하신 선생님
- ③ 육체적, 정신적 병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낮게 하신 치유자
- ④ 이 땅에 정의 평화의 하나님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혁명가(개혁가)
- ⑤ 모르겠다. ⑥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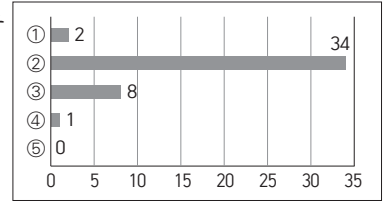
16.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 ② 다른 종교를 통할 수도 있으나 기독교가 구원을 받는 가장 명확한 길이다.
- ③ 다른 종교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 ④ 모르겠다.
- ⑤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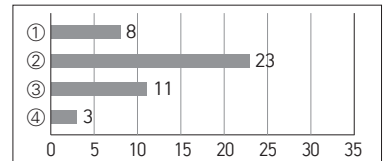
17. 성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나님의 영감(지시)대로 문자적으로 한 획 한 자씩 기록되었다.
- ② 성서 기자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자신의 신앙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지식, 우주관, 제도 등이 반영된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고백한 것
- ③ 성서 기자들이 역사를 기술하듯 역사적인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
- ④ 모르겠다. ⑤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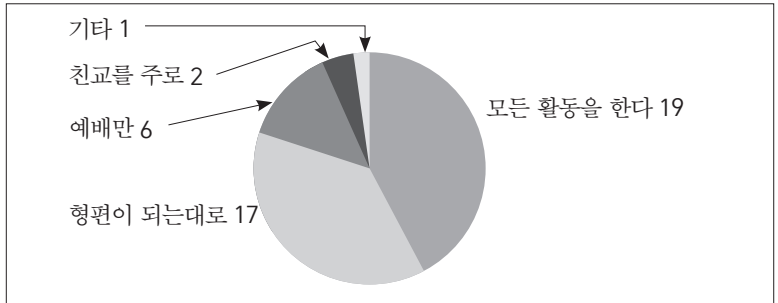
18. 성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많이 있다.
- ② 약간 있다.
- ③ 별로 없다.
- ④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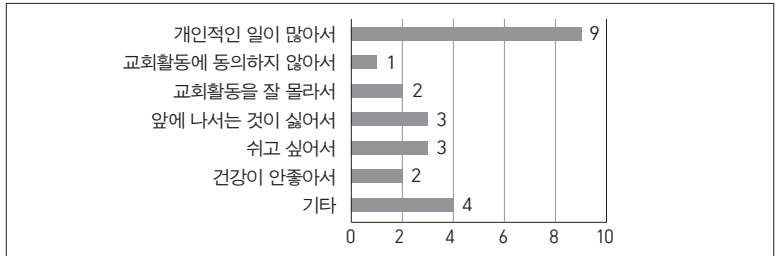


■ 교회운영과 활동에 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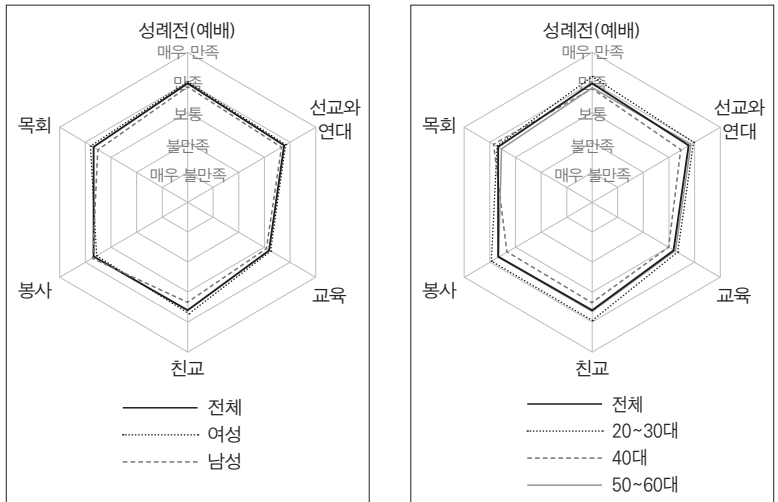
19. 주일에 교회에서 어떤 활동(일)을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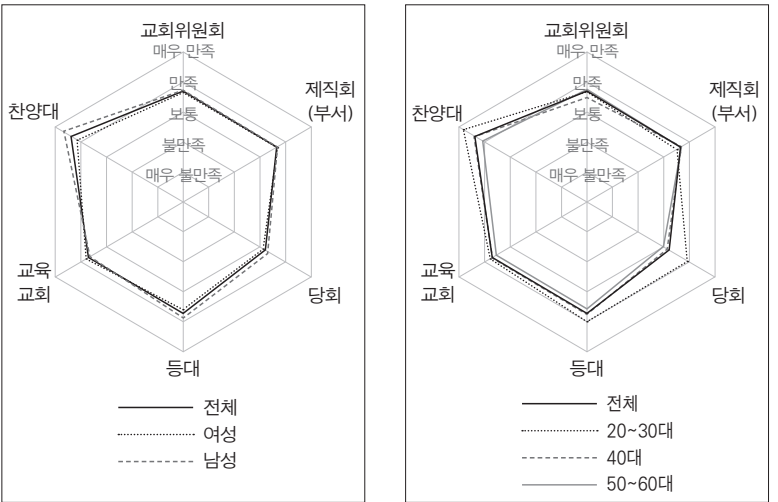
19-1. ②, ③, ④, ⑤에 대답에 대한 이유는?



20. 현재 우리 교회 활동 각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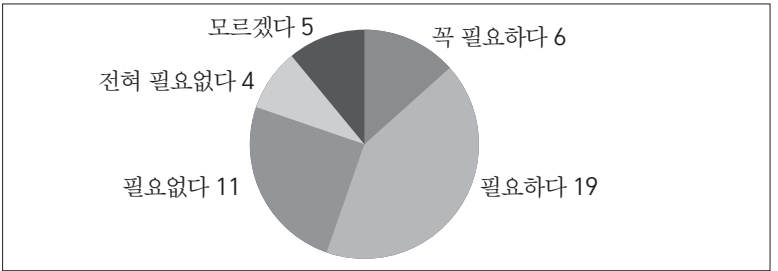


21. 현재 교회 각급 조직(기관과 부서)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2. 2004년부터 선출직(장로, 안수집사)을 뽑고 조직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1 교회를 유지, 운영하는데 선출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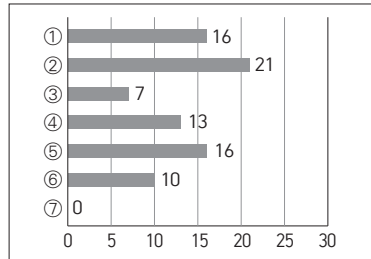


22-2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열심히 함으로 -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할 것이라 믿음 - 평신도도 모두 교회운영에 참여, 봉사, 활동함 - 교회위원회가 있어서 필요 없다 - 민중교회, 수평적 구조 - 고착화된 직분이 무거워 보이고 평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 안에서 이질감을 가질 수 있다. - 조직의 경직 -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음 - 평신도간 계층화 우려 - 비선출직 책임감 결여 유발 - 역할이 불분명하다 - 책임이 집중되어 피로감이 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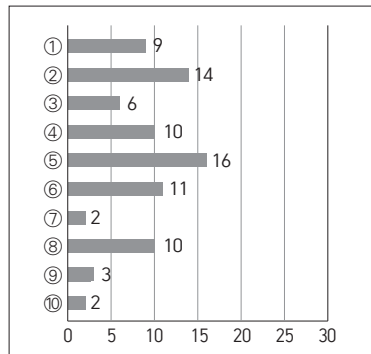
22-3 선출직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 선택)

- ① 교인들의 신앙을 보살핌
- ② 교회 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
- ③ 선교와 연대 활동의 중심
- ④ 평신도 대표로서 목회자와 공동사역
- ⑤ 교회 공동체 내부의 통합과 일치
- ⑥ 신앙생활의 모범
- ⑦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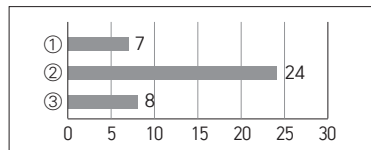
23. 현재 우리 교회가 중점적이며 해야 할 일(과제)는 무엇입니까?(2개 선택)

- ① 2026 비전과 목표를 실현
- ② 에큐메니칼운동과 연대
- ③ 지역선교
- ④ 양적 성장
- ⑤ 신앙교육과 훈련
- ⑥ 영적 생활
- ⑦ 성례전(예배, 설교 등) 갱신
- ⑧ 나눔과 친교
- ⑨ 지도력 육성
- ⑩ 기타 ()



24. 10년 후 새민족교회는 다음 중 어떤 모습을 갖게 되면 좋을까요?

- ① 교인 증가와 분가 교회 개척
- ② 다양한 방면에 걸친 왕성한 선교 활동
- ③ 노후 공동주거 시설 등 생활공동체



24-1. 위 답변 항목 외 10년 후 기대하는 모습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공동체를 위하여

“새”새민족이 태어났으면
60~70대의 멋진 선교활동모습
가족과 같은 평안한 나눔을 갖는 공동체
개방을 위한 개방
교우들이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교인 관심사별 다양한 활동

교인들 공동체 주거시설 개척

교회내 모든 활동에 모든 교인이 골고루 참석하는 것
금기가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나눔과 섬김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
다들 건강하게
다양한 세대 포용
동네에서 사랑방 같은 교회
마음 편하게
물질, 마음을 서로 나누며 사는 공동체
별 탈없이
살아있으시길

서로 마음을 나누며 정의 평화의 하나님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
지치지않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본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진보를 위한 진보 지양
차없는 마을
충만하게
편이 없는 자유로운 관계
평신도교회를 꿈꿔 평신도 설교 등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지만 솔직히 다 좋지 않았다
함께 멋지게 성장하고 늙어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공동체
함께하는 내모습
회의를 안해도 모든 활동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

성장

30~40대가 주도하는 활기 찬 교회

교인증가 분가교회개척
교인증가와 분가교회 실현
교회학교 청년이 잘 양육되기를
두꺼운 교인층
분가교회 있다
새민족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많은 이들
선교 일꾼들이 많아짐
양적성장
은사 계발 또는 세워줌으로 성장하는 리더십을 발휘한 서너명이 눈에 띈다
청년들의 왕성한 활동
마을 공동체
청년들이 많아져 젊은이교회가 운영됨
청소년교회 성장
활발한 청년들의 활동모습

신앙

개인의 영적성장/부름
공동체성서일기를 하며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과 사람이 많아지기를
등대 안에서 신앙 고백과 기도로 힘을 받을 수 있기를
새민족교회에 다니는 모든 교우들의 구원과 확신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성서/신학/인문학강의와 토론포럼 많아짐
영적 성장을 이룩하여 깊은 신뢰와 신앙을 이룬 공동체

선교

농촌/노동/해외교회와 직접적이며 활발한 교류연대
예규/지역/통일/놀이문화/선교 등 신바람 나는 교회
이웃 교회와 선교적 실천을 열심히 하는 모습
지역교회
지역사회선교(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통일에 관심(참여할 수 있는 것 찾기 등)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교센터

25. '새민족교회'하면 떠오르는 단어(표현)을 생각나는 순서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친구처럼



교우들의 큰 웃음소리
끈끈한
못난이 친구
바라만 봐도 괜히 좋고 흐뭇하고 징글징글한 사람들
서로 세워주는
승부욕(호승심)
영적 동지들
인생
울보들의 모임

기억 속에 있는 것을 꺼내보면

설교
영성교육
수련회(와 뒷풀이, 재미있는 가족)
예규메니컬 운동과 연대(12, 사회참여 등)
절기예배
점심 애찬 나눔
축제
평신도설교
함께 다양한 현장에 서다
친교(2)
힘들었던 날

칭찬하며, 사랑하며

30년의 역사와 전통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
무기명헌금/회계의투명
기대되는 교회(예수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
젊은 교회
새롭게 변화됨을 추구하는 교회
등대 나눔과 돌봄
신앙공동체
소박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어려울 때 더 잘 뭉치는 공동체
예배의 독특성
은혜로운 찬양대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이런 방향으로

power
교회
개혁(3)
기대
나눔
다양함
대안
민중교회(3)
섬김
생명/정의/평화(2+4+2+2)
자유(4)
진보(8)
청년(2)
책임과 도전
통일
통일선교
평등추구
평신도교회(4)
하나님나라(2)
혁명
협조적

아파하며

가족중심
교양 부족
꼰대
개인의 구원 말씀보다는 사회적 운동에 더 치중을 두는 듯함
답답하다
모순
무늬만 진보
보이지 않는 벽
분열
성향 간의 대립(갈등)
소통의 부재
아픔이 남는 평가
은근히 자기 검열
일 중심
자만
정체
정치색이 강하다
조심스러움
탈출
조화롭지 못한 수평적 사고
지독한 회의론자
회의(3, 많고 긴, 수많은)

새민족교회 창립 30주년 전교인 신앙의식과 교회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2016년 9월
새민족 30주년 준비위 역사분과 설문정리팀
| 김종원, 김진오, 문종철, 황남덕 |

새민족 30주년 준비위 역사분과에서 전교인 설문조사를 처음 기획하였을 때는 현재 새민족교우들의 교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보완이 필요한 영역들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교회위원회 검토 과정을 통해 30주년을 맞아 실시하는 전교인 설문조사이니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볼 수 있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항목의 수정을 거쳐, 2016년 5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교회 주일 출석인원이 교육교회 어린이, 청소년을 제외하고 평균 54명 정도인데, 이중 약 90%에 가까운 4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문항이 다소 어렵고, 모호한 부분도 있어서 교우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통계/조사 전문가들이 아닌 분석자들의 역량적 한계로 각 항목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교차분석과 같은 깊이 있는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적인 분석은 아니더라도, 설문을 통하여 나타난 교우들의 생각을 가늠하고 정리함으로써 긍정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개선하여, 보다 나은 새민족교회의 미래를 만드는 토대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당회를 중심으로 설문정리팀을 구성하여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 교회 활동에 반영 되어야 할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I. 신앙생활과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과 해석

1. 신앙생활에 대한 의식

가. 새민족교회에 대한 인식

44명이 응답한 <문항 1>에서 우리 교우들이 생각하는 새민족교회의 특성은 ‘성서해석과 신학의 진보성’(29.5%, 13명)이며, 다음으로는 ‘교우들과 친분관계’(18.2%,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회참여적 선교활동’과 ‘민주적 교회운영’이 각각 13.6%(6명), ‘성례전(예배)와 설교’는 각각 9.1%(4명)였다.

교우들이 인식하는 새민족의 특성은 대체로 진보성 또는 진보적 교회라는 이미지이다. 성서와 신학의 진보성, 사회참여적 선교, 민주적 운영과 성례전 등 75%의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진보적, 민주적 교회로 생각하고 있다.

나. 신앙생활과 실천에 대한 인식

<문항 2번>에 따르면, 교우들의 71.1%(32명)가 주 1회 이상 교회 출석을 하고 있고, 20%(9명)의 교우들은 월 한 두 번은 결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주 세 명 중 한 명이 주일 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써 그 원인을 살펴서 예배와 친교공동체로서 주일 생활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문항 5번>에서는 37.8%(17명)가 ‘어려운 일이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28.9%(13명)은 ‘생활이 곧 기도이므로 별도로 하지 않으며’, 4.4%(2명)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매주 3,4회 또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교우는 24.4%(11명)였다. 이와 같이 71.1%(32명)의 교우들이 기도 생활을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기도 한 동시에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생활이 곧 기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헌금생활에 관한 <문항 6번>에서는 ‘정확하게 한다’는 응답과 ‘그렇지 못하다(형편대로 한다)’는 응답이 절반씩(각 22명) 나뉘었다. 이것은 경제적 이유이거나 교회 출석 빈도, 또는 헌금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원인을 추론할 수 있

으며, 현재 교회 재정 상황과 관련하여 대안 모색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7번〉에 따르면, ‘성서를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읽고 있는’ 교우들이 47.7%(21명)인 것을 비롯해 모두 75%(33명)의 교우들이 월 3회 이하로 성서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계획적인 성서 독서를 하는 사람은 22.7%(10명)에 불과해 생활 가운데 성서가 멀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민족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성서 읽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예찬, 교사, 청소, 찬양대 등)에 관한 〈문항 8번〉에서는 49%(22명)가 참여적인 반면, 비슷한 수(51.1%, 23명)의 교우들은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와 배경은 〈문항 19번〉에서 알 수 있다. 교회 운영을 위한 교우들의 봉사와 협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문항 9번〉의 ‘에큐메니칼 활동을 포함하여 사회참여 실천 활동’에는 31.1%(14명)가 열심히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69%(31명)는 참여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우들이 사회참여적 신앙을 가지면서도 선교와 연대 그리고 현장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교우들의 현실과 생활에서 새민족 신앙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신앙생활의 목적과 중요한 것, 그리고 상관관계

〈문항 3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교우들의 60%(27명)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나라 실현’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라고 응답한 17.8%(8명) 등 인간관계와 친교, 영혼 구원, 물질적 축복과 같이 40%(18명)의 교우들이 개인적 차원의 신앙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문항 4번〉으로는 주일예배 출석(55.5%, 25명), 사회참여 등 실천활동(51.1%, 23명), 기도생활(33.3%, 15명), 성경공부(28.8%, 13명), 교회 봉사활동, 헌금생활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앙생활에서 사회참여와 실천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실제 참여도는 낮으며, 헌금생활과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은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그 적극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문항 1번〉에서는 75%의 교우들이 성서와 신학, 성례전의 진보성, 사회참여적 선교, 민주적 운영 등 우리 교회를 진보적이며 민주적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문항 3번〉에서는 40%의 교우들이 인간관계와 친교, 영혼 구원, 물질적 축복과 같이 개인적 차원의 신앙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보적 신앙의식을 따라 사회선교와 실천에 적극적이어야 하나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 신앙과 신학적 주제에 대한 이해

가. ‘하나님’과 ‘하나님나라’에 대한 이해

〈문항 11번〉과 같이 교우들은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는 분’(40%, 18명), ‘인간의 이상향이 투영된 신앙적이고 상징적 존재’(24.4%, 11명), ‘무한한 기(氣) 또는 에너지 같은 존재’(6.6%, 3명) 등 71.1%(32명)가 전통적인 신론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존재’라는 응답은 20%(9명)이다.

그리고 〈문항 12번〉에서는 위 문항과 비슷하게 73.3%(33명)가 ‘하나님나라’는 ‘이 땅에서 이뤄지는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라고 응답하였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후세계(천국)’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3%(6명)였다. 그리고 〈문항 10번〉에 따르면, 54.3%(25명)가 ‘사후에 내세가 있거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32.6%(15명)는 ‘내세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명)이다. ‘하나님나라’에 대하여는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실천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내세’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예수에 대한 이해

〈문항 13번〉에 따르면, 절반의 교우들(50%, 23명)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즉 예수의 위대성을 표현하기 위한 신앙적 의미로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이해하였다. ‘역사적 사실이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응답은 41.3%(19명)이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문항 14번)에 대해서는 82.6%(38명)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우들은 부활을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되살아난 예수에 대한 신앙고백’(41.3%, 19명)으로 또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과정의 상징적인 표현’(26.1%, 12명) 그리고 ‘이전의 몸이 아닌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 것’(15.2%, 7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육체적인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10.9%)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라는 두 사건에 대해 역사적,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 각각 50%와 82.6%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문항 15번〉의 ‘예수’ 이해에 대해 58.7%(27명)가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혁명가’라고 응답하였고, 17.4%(8명)가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영적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위대한 선생’(6.5%), ‘치유자’(4.3%)로 인식하였다. 혁명가와 선생 등 교우들의 65.2%가 전통적 그리스도론의 입장에서 벗어난 역사적 예수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라는 두 사건에 대해 역사적,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 각각 50%와 82.6%로 크게 차이가 나지만, ‘처녀 탄생’을 수용하는 응답이 41%이고, 약 20%가 예수를 ‘영적 구원자’, ‘위대한 선생’, ‘치유자’로 응답한 것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예수를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전통적인 신앙고백이 교우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성서에 대한 이해

〈문항 17번〉에서 성서는 ‘성서기자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자신의 신앙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지식, 우주관, 제도 등이 반영된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고백한 것’이라고 73.9%(34명)가 응답하였고, ‘성서 기자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17.4%, 8명), ‘하나님의 영감으로 한 획 한 자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4.3%, 2명)이라고 응답했다. 성서를 축자영감설이나 문자주의 해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18번〉의 성서공부에 대하여는 17.8%(8명)만이 ‘체계적이고 충분한 과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서공부를 ‘한 적이 약간 있거나’(51%, 23명) ‘별로 없고’(24.4%, 11명) ‘전혀 없는 것’(6.7%, 3명)과 같이 82.2%(37명)의 교우들이 성서공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타종교에 대한 이해

〈문항 16번〉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교우들은 ‘다른 종교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73.9%(34명), ‘다른 종교를 통할 수도 있으나 기독교가 구원을 받는 가장 명확한 길’(6.5%(3명)이라고 응답하며 타종교를 수용과 인정하는 응답이 80.4%로 나타났다. 네 명만이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교우들의 세계와 인간의 역사 이해, 그리고 종교와 사상의 폭과 깊이가 크고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신앙생활과 신앙이해에 대한 종합 분석

교우들은 새민족교회의 성례전, 사회 참여, 성서 해석, 신학의 진보성 등의 측면에서 새민족교회가 진보적이며 민주적인 교회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관련 설문 문항 전반에 걸쳐 비교적 일관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세계교회의 신학과 신앙 즉 에큐메니칼 신학과 역사적 예수 이해에 바탕을 둔 성서 해석과 하나님의 선교, 실천적 신앙과 행동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영혼 구원 보다는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나라에 의한 구원을 중시하며 타종교를 인정하고 진리를 수용하는 포용과 관용의 신앙인의 태도를 또한 갖고 있다. 이것은 분명 한국 교회 일반의 교인들과 다른 신앙과 신학적 이해로서 새민족교회의 정체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신앙 이해와 인식에 비해 실천적이며 행동적인 신앙생활이 부족한 것은 성례전과 성서 연구, 평신도 사역, 선교 훈련, 고난 현장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새민족의 신앙과 실천의 일치라는 통전적 신앙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신앙생활과 신앙의식에 대한 목회적 과제

새민족 30주년을 맞아 실시한 금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생각만 옳고 다른 생각은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재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설문조사를 통해 교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의 실천을 주로 어디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이 공동체가 함께 보강해야 하는 영역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다.

설문 결과를 보면 대다수 교우들이 교회 출석 이유를 성서해석과 신학의 진보성을 포함하여 사회참여를 하는 선교활동에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시대의 과제에 응답하는 진보적인 신학을 지속적으로 지향하며 더욱 발전시킬수록 교우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우리교회의 신앙적 지향에 동의하는 새로운 교우들이 유입 되어 건강한 공동체의 성장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

매주 3분의 1에 해당하는 교우가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설교와 찬양 등을 통해 주일예배 성수가 갖는 의미를 개개인의 교우들이 가질 수 있게끔 감동과 의미가 있는 기쁨의 예배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앙생활의 측면에서는 기도생활과 성서읽기가 일상화되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신앙생활교육의 측면에서 기도와 성서읽기의 의미를 교우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기도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기도의 중요성을 신앙적으로 일깨워주고 공동체내에서 기도모임을 마련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성서읽기는 신학공부와 다른 영역이다. 성서를 알지 못하면 신학공부는 이론적인 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진보적인 신학을 추구하면 할수록 성서를 읽고 깊은 영성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개인적인 성서읽기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성서읽기 소모임을 만들어 성서를 함께 읽는 것도 소중하다. 하지만, 단순한 성서읽기에 대해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교우들을 위해 성서에 대한 지식도 얻으면서 성서 읽기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하겠다.

하나님, 예수, 성서, 타종교에 대한 신앙의식 분야에서는 대체로 진보적인 신학적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전통적인 교리 해석으로 이해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신앙의식교육의 측면에서 조직신학적 관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학공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앙의식이 정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서연구와 신학학습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서연구와 신학학습이 지적인 만족감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선교와 실천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공동체를 통해 신앙의 반성과 결단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 교회운영과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과 해석

1. 교회운영과 활동에 대한 의식

가. 주일 교회활동에 대한 의식

〈문항 19번〉에서 응답자의 42%(19명)가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38%(17명)는 형편이 되는 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80%의 교우가 최소한 형편이 되는 대로 교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항 8번〉에서 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50%가 안 되었다는 점에서 보이듯이 상당수 교우들이 교회활동에 ‘단순 참여’는 하고 있지만, 교회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9-1번〉에서 ‘개인적인 일이 많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개인생활과 교회활동을 어떻게 병행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나. 교회활동 영역에 대한 만족도

〈문항 20번〉에서 현재 교회 활동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교육’이다. 이것은 〈문항 18번〉에서 성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적이 별로 없거나(24%), 전혀 없는(7%)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가 된다는 점, 그리고 〈문항 23번〉에서 현재 우리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첫 번째가 ‘신앙교육과 훈련’이라고 응답한 점에서도 나타난다. 매년 성서 학당과 대화의 광장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오고 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인다.

다. 교회 기관에 대한 만족도

〈문항 21번〉 교회 기관(조직)에 대한 평가에서 당회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매주 주일예배를 통해 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찬양대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온 점과 비교가 된다. 이것은 당회 활동에 대한 불만족이라기보다, 당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교우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라. 선출직에 대한 의식

〈문항 22-1번〉 선출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56%)의 교우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문항 22-3번〉 선출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회 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25%), ‘교회 공동체 내부의 통합과 일치’(19%), ‘교인들의 신앙을 보살핌’(19%) 순으로 나타났다. ‘평신도 대표로서 목회자와 공동사역’(16%)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로 꼽혔다. 〈문항 22-2번〉 선출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역할의 모호성, 평신도간 계층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선출직들의 부담감이나 피로감 누적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마. 현재 중점추진 과제와 10년 후 교회 모습에 대한 의식

〈문항 23번〉에서 현재 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신앙교육과 훈련’(19%), ‘에큐메니컬운동과 연대’(1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항 24번〉에서 10년 후 교회 모습에 대한 의식에서는 다수(62%, 24명)의 응답자가 ‘다양한 방면에 걸친 왕성한 선교 활동’을 꼽았다.

바. 기타

〈문항 24-1번〉 10년 후 교회의 모습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서는 30~40대가

주도하고, 청소년, 청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활기찬 교회 모습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것은 40~50대가 주도하는 현재 교회의 모습에 대한 불안함의 반증이기도 하다.

2. 교회운영과 활동에 대한 종합 분석

교회활동에 있어서 다수(80%)의 교우가 교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참여에만 머무르지 않고 활동을 주도하는 교우로의 성장이 필요하다. 교회활동보다 개인생활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보이는 것은 교회활동의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거나 덜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기관 만족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당회’에 대해서는 교회조직적 측면에서 당회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교우들과 공감할 필요가 있다.

조직교회로의 10년을 대표하는 ‘선출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우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그 제도를 유지하되, 평신도간 계층화와 같이 교우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새민족 교우들은 현재 ‘신앙교육과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10년 후 교회의 모습을 다방면에 걸친 왕성한 선교활동을 꼽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교우들은 현재 보다는 더 활동력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가 상상 속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신앙교육과 훈련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교회운영과 활동에 대한 과제

교회활동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우들의 욕구는 ‘교육’이다. 체계적인 성서공부, 조직신학 관점에서의 신학학습, 나아가 교회활동 전반의 근간이 되는 ‘신앙교육과 훈련’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욕구는 단순히 지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닌 듯하다. 교우들 스스로도 진보적인 의식이 실제 교회활동이나 사회활동으로 연결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 진보적인 사회활동 참여로 이어지는 ‘신앙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새민족교회의 교회조직적 측면에서 당회의 위치는 '성례전과 신앙 교육 영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 교회위원회 중심의 실질적인 교회운영과 함께 교우들을 활동하는 신앙인으로 단련시키는 역할을 당회에게 부여한 것이다. 앞서 교육활동 영역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신앙교육과 훈련'의 부분을 당회가 책임을 가지고 담당할 필요가 있다. 즉, 당회가 신앙교육과 훈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교우들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기관으로서의 당회에 대한 교우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현재 교회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선출직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선출직들의 피로도와 평신도간 계층화에 대한 교우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30주년 심포지엄에서 제안 되었던 '선출직 임기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것은 자칫 누적된 피로도로 활동력을 잃을 수 있는 선출직들에게 안식을 주는 의미와 함께 차기 리더십을 양성하는 의미도 있다.

많은 교우들이 10년 후 교회의 모습을 다양한 선교영역에서 활동하는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만큼, 30~40대가 주도하고, 청년, 청소년으로 이어지며 교회의 지도력들이 재생산 될 수 있도록, 지도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III. 맺음말

설문을 통해 나타난 새민족 교우들의 요구사항은 향후 당회와 교회위원회를 통해 실제 활동의 영역에서 좀 더 깊이 검토 되고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적인 제약 사항과 역량 부족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의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첫걸음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새민족 서른 즈음에 미래를 꿈꾸다

2기 새민족3.0추진위원회 보고서 • 335

창립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 • 354

비전의 재구성팀 활동보고서 • 383

새민족 서른 살의 다짐팀 활동보고서 • 388

새민족3.0추진위원회(2기) 활동 최종보고서

- 새민족3.0을 향한 변화 목표와 과제

차례

- I. 새민족3.0추진위원회 활동 경과
 - II. 새민족 변화과제 추진계획(안)
 - III. 6대 30주년 기념사업 과제 세부과제별 추진 계획(안)
 - IV. 9대 비전 변화과제 추진 로드맵(안) 및 소요 예산(예상)
 - V. 9대 비전변화 과제 세부과제별 추진 계획(안)
 - VI. 새민족 변화과제 추진계획(안)에 대한 등대별 토론 결과
-

2014. 10. 19

새민족3.0추진위원회(2기)

위원장 김진오 집사

위 원 김석환 집사

민혜경 집사

정찬영 교우

황남덕 목사

I. 새민족3.0추진위원회 활동경과

1. 새민족3.0추진위원회 1기(2013년)

- 새민족3.0추진위원회 추진 승인과 위원 임명(2013.2.24, 교회위원회)
교회위원회 3인(김진오, 박연미, 손정일), 교인 추천 2인(김종원, 이영자)
- 1차 모임 : 3.0추진위 위원장 김종원 장로, 서기 김진오 집사 임명(3.3일)
- 13차 모임 : 3.0추진위 활동 보고와 평가를 통해 활동 마무리(9.28일)

2. 새민족3.0추진위원회 2기(2014년)

- 새민족3.0추진위원회 2기 위원 임명(2014.1.5, 정기교인총회)
김석환, 김진오, 민혜경, 유무상, 정찬영, 황남덕
- 1차 모임 : 3.0추진위 위원장 김진오 집사, 서기 김석환 집사 임명(1.19일)
유무상 집사 불출석으로 5명 위원으로 운영하기로 함
- 2차 ~ 7차 모임 : 새민족 변화과제 도출/협의
2월부터 월 1회 모임
- 8차 모임 : 새민족 변화과제 추진계획 보고서 작성/검토(8.3일)
- 교회위원회, 제직부서장, 3.0추진위원회 연석회의(8.24일)
- 새민족 변화과제 추진계획(안) 전교우 설명회 및 등대별 토론회(9.14일)
- 9월 정기제직회 안건토의(9.21일)
- 9차 모임 : 등대별 토론 내용 반영 자료 수정 방향 논의(10.5일)

3. 향후 계획

10월 교회위원회에 새민족3.0추진위원회 2기 활동 최종보고서 제출

II. 새민족 변화과제 추진계획(안)

1. 새민족 변화과제 추진

가. 새민족 변화과제 추진의 의미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역사와 시대의 소명을 자각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1986년 8월 또 하나의 교회인 새민족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새민족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난 27년의 역사를 걸어왔는지는 1993년에 제정된 교회 헌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새민족교회는 한국사회의 모순이 심화되어 가고, 교회마저도 물량주의와 비 민주적 권위주의 그리고 개 교회주의에 매몰되어 가는 현실을 직시하며, 1986년 8월 복음정신에 입각하여 시대와 민족에게 구원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의 전형을 창출하고자 창립하였다.”

헌장에 비추어 돌아보면 교회를 시작한 지 2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사회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고, 새민족교회는 여전히 시대와 민족의 구원의 등불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2006년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에 대한 새민족의 미래상을 함께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꾸려고 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한 채 이제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새민족3.0추진위원회는 이 꿈을 되살리고 구체화하기 위한 임무를 공동체로부터 위임 받아 새민족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과제들을 만드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새민족3.0추진위원회는 2006년에 세운 20년의 비전이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새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보다 현실적으로는 ‘정체성의 확립과 공동체성의 강화’는 비전 달성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민족3.0추진위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 ‘예배’, ‘교육’, ‘친교’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15가지 변화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특별히 3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6가지 30주년 기념사업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민족3.0추진위원회가 도출한 새민족 변화과제를 공동체 내부 관점으로부터 바라보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개 교회주의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출발한 새민족교회가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새민족교회는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나라에 거스르는 모든 세력에 맞서서 바람처럼 물처럼 흐르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선한 세력과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나. 새민족 3.0의 의미

- 새민족의 비전을 구체화/현실화 변화된 모습의 새민족을 의미
교회 창립과 기초를 다지던 1.0의 시기,
비전2026을 수립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던 2.0의 시기를 거쳐,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하는
시기를 3.0의 시기로 칭함
- 새민족 3.0의 시기별 분류
새민족 3.0은 시기로서의 의미 보다 내용으로서의 의미가 중요하지만,
편의상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
새민족 1.0 : 교회 창립 시기(1986년 ~ 2006년)
새민족 2.0 : 비전2026 수립 및 성장기(2006년 ~ 2016년)
새민족 3.0 : 비전의 구체화/현실화(2016년 ~ 2026년)

2. 새민족 변화과제 추진계획(안)

가. 새민족 변화과제 추진 목표 및 방향

예배, 선교, 교육, 친교 4대 영역에 대해 변화과제 목표와 추진방향 도출

영역	목표	추진방향
예배	예수를 따르는 신앙공동체로서의 영성 회복과 정체성 강화	- 삶이 나눠지고 소통하는 예배 - 문화적 정체성을 만드는 예배
선교	새민족 정신에 입각한 선교를 통해 정의·평화·생명의 예수살기 공동체 확장	- 새민족 선교 목표, 방식, 계획 도출 - 선교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체계 구축
교육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장, 교회리더십 재생산과 에큐메니컬 평신도 지도력 양성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교우들의 신앙적 성장 - 교육교회를 통한 재생산 구조 확립 - 에큐메니컬 평신도 지도력 양성
친교	삶과 신앙을 긴밀히 나누며, 새민족의 공동체성 강화	- 세대별·성별·지역별 다양한 형태의 친교 강화 - 교회 전체의 공동체성 강화

나. 15대 새민족 변화과제 도출

4대 영역별 목표달성을 위한 변화과제 도출 및 과제별 수행기간/주체 정리

영역	과제	기간	실행 주체
예배	삶이 나눠지고 소통하는 예배	단/중기	예배문화부, 선출직모임, 당회, 교회위원회
	문화적 정체성을 만드는 예배	단/중기	예배문화부, 선출직모임, 당회, 교회위원회
	교회 예배 용어의 개선	단/중기	예배문화부, 교회위원회
	30주년 기념 예배	단/중기	30주년 행사분과
	새민족의 노래 제정	단/중기	30주년 찬양분과
	새민족 찬양집 개편	단/중기	30주년 찬양분과
선교	새민족 선교 정책 방향 확립	단/중기	30주년 비전분과, 선교정책협의회
	새민족 30주년 역사 기록	단/중기	30주년 역사분과
	새민족 선교 센터 추진	중/장기	30주년 행사분과
	분가/대안교회 모색	중/장기	교회위원회, 분가/대안교회연구위원회
교육	교육교회 역량 강화	단/중기	교육교회, 교육훈련부, 당회, 교육위원회
	청년회 활성화	단/중기	청년회, 교육훈련부, 교회위원회
	신앙 교육 훈련 체계화	중/장기	교육훈련부, 당회, 교육위원회, 교회위원회
친교	소그룹 친교활동 강화	단/중기	친교봉사부, 교회위원회
	새교우 담당팀 구성	단/중기	친교봉사부, 교회위원회

다. 6대 30주년 기념사업 과제 중점 추진

- 15대 변화과제 중 6대 30주년 기념사업 과제 중점 추진
9대 비전변화 과제는 일상 사업으로 추진

6대 30주년 기념사업 과제

1. 새민족 선교 정책 방향 확립
2. 새민족 30주년 역사 기록
3. 새민족 선교 센터 추진
4. 30주년 기념 예배
5. 새민족의 노래 제정
6. 새민족 찬양집 개편

(별도 분과로 중점 추진)

9대 비전변화 과제

1. 삶이 나뉘지고 소통하는 예배
2. 문화적 정체성을 만드는 예배
3. 교회 예배 용어의 개선
4. 분가/대안교회 모색
5. 교육교회 역량 강화
6. 청년회 활성화
7. 신앙 교육 훈련 체계화
8. 소그룹 친교활동 강화
9. 새교우 담당팀 구성

(일상 업무로 추진)

- 비전분과, 역사분과, 행사분과, 찬양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추진

비전 분과	1. 새민족 선교 정책 방향 확립	새민족 선교정책협의회 구성 방안, 선교 목표, 활동 방식, 활동 계획 수립
		새민족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체계 개선
		새민족 서른 살의 다짐 정리
역사 분과	2. 새민족 30주년 역사 기록	2006년 이후 10년의 역사 기록 및 평가
		주제별 문서 자료 정리(주보, 기도문 등)
		사진 자료, 행사 및 활동 정리
행사 분과	3. 새민족 선교 센터 추진	예배 준비 소위 구성
		국악 예배 준비
	4. 30주년 기념 예배	지역사회 선교소위 구성(비전분과 협업)
		지역사회 선교프로그램 추진
찬양 분과	5. 새민족의 노래 제정	지역사회 선교활동 축하 마당
		가사 제정(비전분과 협업), 작곡 의뢰
	6. 새민족 찬양집 개편	새민족 찬양집 출판위 구성
		선곡, 악보 수집/작성/편집, 출판

다. 9대 비전변화 과제 추진

- 기존 제직부서를 중심으로 일상 사업으로 9대 비전변화 과제 추진

예배	1. 삶이 나뉘지고 소통하는 예배	평신도 설교 정례화
		삶의 고백과 나눔이 있는 예배
		다양한 교회 외부 인사 초청 설교
	2. 문화적 정체성을 만드는 예배	다양한 민족/나라의 예배 연구
		국악 찬송/다양한 민족 찬송 배우기
		국악 악기 배우기 소모임(30주년 행사 연계)
선교	3. 교회 예배 용어의 개선	예배 용어의 개선
		분가/대안교회 연구위원회 구성
		다양한 대안교회 조사/분석/학습/토론
교육	4. 분가/대안교회 모색	분가교회/대안교회 모델 제시
		정기적인 교사/예비교사 교육 추진
		교육교회용 교재 선정/집필
	5. 교육교회 역량 강화	교육교회 예배/찬양 연구/적용
		청년회 자체 교육 프로그램 추진
		해외 에큐메니컬 활동 추진
	6. 청년회 활성화	청년 등재 전환 추진
		교육위원회 구성
		기관별 교육 목표, 교육 방안, 교육 계획 수립
친교	7. 신앙 교육 훈련 체계화	신앙 교육 훈련 커리큘럼 작성
		외부 교육기관 연계 에큐메니컬 지도력 양성
		성별/연령대별/활동지역별 친목 소그룹
	8. 소그룹 친교활동 강화	취미별(악기, 영화, 독서, 신학강좌 등) 소그룹
		새교우 안내/교육/돌봄 담당팀 구성
		새교우 담당팀 구성

※ 1, 7번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

3. 새민족 변화과제 세부 추진계획(안)

가. 6대 30주년 기념사업 과제 추진 로드맵(안) 및 소요 예산(예산)

- 활동 기간 : 2014년 4분기 ~ 2016년 8월

- 총 소요 예산 : (누적) 900만원

2015년 : 150만원

2016년 : 750만원

사전 예산 확보 및 재능 기부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마련 필요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0주년 비전분과	1	비전분과 구성 비전분과 활동계획		새민족 선교 목표, 방식, 계획 도출			새민족 조직 운영 체계 개선, 새민족 서른살의 다짐 정리			30주년 기념예배	
소요예산											
30주년 역사분과	2	역사분과 구성 역사기록 방식 도출		자료수집			자료수집		초안검증/ 수정 편집	인쇄	
소요예산										200	
30주년 행사분과	3				지역사회 선교 소위 구성		지역사회 선교활동		선교활동 축하 마당 준비		
	4					기념예배 준비 소위 구성		기념예배 및 행사 준비			
소요예산							100			200	
30주년 찬양분과	5				새민족의 노래 준비소위 구성		새민족의 노래 작사		새민족의 노래 작곡		
	6		새민족 찬양집2 출판위 구성		새민족 찬양집2 자료수집/편집		새민족 찬양집2 출판				
소요예산							50	50	250	50	

※ 세부과제별 추진 계획(안) 참조

나. 9대 비전 변화과제 세부 추진 계획(안)

총소요 예산(안) : (누적) 1,600만원

연도별 예산(안) : 2014년 80만원

2015년 760만원

2016년 760만원

III. 6대 30주년 기념사업 과제 세부과제별 추진 계획(안)

1. 새민족 선교 방향 확립

목표/ 개요	목표	- 새민족 정체성 확립 및 공동체성 강화 - 새민족 선교 목표/방식/계획 수립을 통해 예수 살기 공동체 확장
	개요	-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 도출을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새민족 이 지향하는 선교 목표, 방식과 계획을 수립 - 새민족교회 정체성 찾기 : “새민족교회는 ○○○ 교회다.” - 등대별, 연령별(어린이/청소년 포함) 토론회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수련회와 같은 기회를 통해 “새민족교회는 ○○○ 교회다.”와 같은 몇 가지 합의된 명제를 만들어, 30주년 기념예배 시 ‘새민족 서른 살의 다짐’으로 정리/발표 - 새민족 정신에 입각한 선교 목표/방식/계획 수립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새민족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비전분과
	추진 방안	- 비전분과 구성(~2014.12) - 새민족 선교 목표, 방식, 계획 도출(~2015.6) - 지역사회 선교소위(가칭) 구성 방안 도출(~2015.6) - 새민족교회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 운영 체계 개선안 도출(~2016.8) - 새민족교회 정체성 찾기 추진(토론회 등)(~2016.3) - 새민족 서른 살의 다짐 정리(~2016.8)
소요 예산		- 별도 예산 편성 불필요
기타		- 핵심지도력의 일관성 있는 추진력 필요

2. 새민족 30주년 역사 기록

목표/ 개요	목표	- ‘청년 새민족’(2006년)이후 10년간의 역사 기록 및 평가
	개요	- 새민족 자료 정리를 통해 새민족의 역사를 정리하고 활동 정리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역사분과
	추진 방안	-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역사분과 구성(~2014.12) - 역사기록 방식 협의/도출(~2014.12) - 자료 수집(~2015.6) · 주보, 사진, 행사 기록(수련회 등), 연혁 등 · 주제별 문서자료 정리 : 삶과 신앙, 칼럼, 목회단상, 기도문 · 사진자료 정리 : 행사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정리 : 시간별 정리 · 행사/활동 정리 : 수련회, 에큐메니컬 활동, 지역사회 선교 등 - 자료 정리 및 편집(~2016.3) - 역사 기록물 초안 검증 및 수정 편집(~2016.6) - 30주년 역사 기록물 발간(~2016.8)
소요 예산	200만원	- 자료집 인쇄
기타		- 예산 확보 필요

3. 새민족 선교 센터 추진

목표/개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민족교회의 3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 구체화 - 지역사회 속에서 섬김과 나눔의 새민족 선교 모델 창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비전분과에서 수립된 새민족 선교 목표, 방식,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선교 소위 구성 - 지역사회 선교 소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선교 활동 수행 - 30주년 기념예배 시 선교 활동 축하 마당 행사 진행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행사분과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선교 소위 구성(비전분과와 협업)(~2015.9) - 집중 선교 프로그램 확정(~2015.12) - 지역사회 선교 활동 시작(2015.12~) - 선교활동 축하마당 준비(2016.5~8)
소요 예산	1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선교 활동 준비비 : 100만원(2015년 4분기) - 30주년 선교활동 축하마당 행사비 : 50만원(2016.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교 센터는 현재 교회 건물 효과적 활용 - 사회선교 프로그램 추진 실무자는 교회 내 인적자원

4. 30주년 기념 예배

목표/개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예배 - 온 교우가 신앙고백을 하는 고백 예배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예배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가 담긴 전통문화 예배로 준비 - 전통양식으로 성찬식 진행 - 예배 중 교우들의 신앙고백 시간을 가짐 (비전분과에서 작성한 '새민족 서른 살의 다짐' 고백)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행사분과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악기 배움 소모임 시작(예배문화부)(2014년 4분기) - 기념예배 준비 소위 구성(~2015.12) - 기념예배 및 행사 준비(~2016.8)
소요 예산	1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주년 기념예배 다과비 : 100만원 - 30주년 행사 준비비(플래카드, 인쇄물 등) : 50만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선교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주민들과 만나고, 가족 초청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노동자 등 포함) - 새민족교회 전임 목회자들 초청 - 새민족교회 옛 교우들 초청

5. 새민족의 노래 제정

목표/개요	목표	- 새민족 30주년을 맞아 새민족의 정신을 담은 '새민족의 노래' 제정
	개요	- 새민족의 정신을 담은 새민족의 노래를 제정하여, 30주년 기념예배 때 공표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찬양분과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양분과 구성(~2015.3) - 비전분과와 함께 새민족의 노래 작사(~2015.12) - 새민족의 노래 작곡(~2016.6) - 30주년 기념예배 시 공표(2016.8)
소요 예산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사 감사 사례 : 50만원(2016년 1분기) - 작곡 감사 사례 : 50만원(2016년 3분기)
기타		- 교회 재정 사황을 감안하여, 작사/작곡 재능 기부자 섭외 필요

6. 새민족 찬양집 개편

목표/개요	목표	- 국악 찬양 및 새로운 찬양들을 반영한 새민족 찬양집2 발간
	개요	- 국악/타민족 찬양 배우기 등을 통해 학습한 다양한 찬양들을 반영하여 새민족 찬양집2 발간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찬양분과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민족 찬양집2 출판 소위 구성(~2015.3) - 새민족 찬양집2 자료 수집/편집(~2015.12) - 국악/타민족음악/새찬양 배우기(기쁨의 콘서트 등)(2015.6~) - 교우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선곡(~2015.12) - 새민족 찬양집2 편집/발간(~2016.6)

소요 예산	300만원	- 악보 수집 및 구입 : 50만원(2015년 4분기) - 찬양집 인쇄비 : 250만원(2016년 2분기)
기타		예산 확보 필요

IV. 9대 비전 변화과제 추진 로드맵(안) 및 소요 예산(예산)

연도별 예산(안)		영역별 중기 예산(안)	
2014년	80만원	예배	450만원
2015년	760만원	교육	750만원
2016년	760만원	친교	400만원
총 소요 예산(안) (누적)	1,600만원	총 소요 예산(안) (누적)	1,600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예배 (예배문화부)	1	평신도 설교 정례화, 삶의 고백과 나눔 시간 확대, 외부 초청 설교									
	2	국악기 배우기 소모임 구성	국악기 배우기/타민족 전통 찬양 배우기				국악 반주 모임 창단	30주년 기념 예배 준비			
	3	교회 생활 용어 개선 방안 도출					교회 생활 용어 개선 확정(교우 토론회 등)				
소요예산		50	50	50	50	50	50	50	50	50	
선교 (교회위원회)	4	분가/대안교회 연구위원회 구성									
교육 (교육훈련부)	5	예비 교사 교육	교육교회 교재 연구/집필				교육교회 예배/찬양 연구/적용				
	6		청년회 자체 교육/친교 프로그램(청년 등대 전환)				청년 해외 에큐메니컬 활동 준비				
	7	교육위 구성	기관별 교육 목표, 교육 방안, 교육 계획 수립				신앙 교육 훈련 커리큘럼 작성				
소요예산		30	90	90	90	90	90	90	90	90	
친교 (친교봉사부)	8	친교 소그룹 구성	친교 소그룹 활동								
	9	새교우 담당팀 구성	새교우 안내/돌봄 활동								
소요예산			50	50	50	50	50	250	50	50	

※ 세부 계획과 예산은 각 제직부서 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V. 9대 비전변화 과제 세부과제별 추진 계획(안)

1. 삶이 나눠지고 소통하는 예배

목표 및 개요	목표	- 예배에 참여한 사람의 삶이 나누어짐으로써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다. - 예배의 일방성을 극복하고, 삶이 치유되는 경험 체험
	개요	- 평신도 설교 - 삶의 고백과 나눔의 시간 확대 - 다양한 외부 설교자 활용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교회위원회, 선출직 모임, 당회, 예배문화부
	추진 방안	- 평신도 설교(분기별 1회) - 삶의 고백과 나눔(월 1회) - 외부 초청 설교(분기별 1회) (※ 일정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소요 예산	분기별 30만원	- 외부 설교자 사례비, 내부 설교자 선물 등
기타		- 삶을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런 환경 조성 필요 - 타교단, 타종교 외부 설교자도 고려

2. 문화적 정체성을 만드는 예배

목표 및 개요	목표	- 다양한 민족과 나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폐쇄성을 극복 - 예배의 축제적 성격 고양
	개요	- 다양한 민족과 나라의 예배 형식, 용어, 내용 등을 알아본다. - 국악 예배, 국악기를 활용한 예배를 만들어간다. - 국악 찬송을 배우고 예배에 적극 도입한다. - 예배를 돕기 위한 국악 반주를 위해 국악 배우기 소모임을 만들어낸다.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교회위원회, 선출직 모임, 당회, 예배문화부
	추진 방안	- 국악기 배우기 소모임 구성(~2014년 4분기) - 국악기 배우기 모임 추진(~2015.12) - 타민족 찬양 배우기(~2015.12) - 국악 반주 모임 창단(~2016.6) - 30주년 기념예배 준비(~2016.8)
소요 예산		- 행사지원비 : 분기별 20만원 - 강사료 등은 자체 회비로 운영
기타		- 예배의 축제성을 살리고, 개방성을 높인다.

3. 교회 예배 용어의 개선

목표 및 개요	목표	- 교회 예배 용어를 원래의 의미에 적합한 용어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교우들의 올바른 인식 변화 추구
	개요	- 예배 용어의 개선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예배문화부, 교회위원회
	추진 방안	- 교회 예배 용어 개선 방안 도출(~2015.9) - 교우 설명회, 토론회 등 추진(~2016.12) - 교회 예배 용어 개선 확정(~2016.12)
소요 예산		- 별도 예산 불필요
기타		- 신학적 연구와 교우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추진

4. 분가/대안교회 모색

목표 및 개요	목표	- 정의/평화/생명의 예수살기 공동체 확장 - 새민족의 정체성에 기반한 선교 활동을 통해 예수살기 공동체 확장
	개요	- 대안교회/분가교회 사례 연구를 통해 공동체 확장 비전/계획 수립 - 분가교회 모범/실패 사례 연구 - 새민족교회 분가 원칙 수립 : 분가 기준 재적 교우 수, 분가 방식(재정, 목회자, 인력 배분안 등) 등 - 분가를 위한 실행 조직이 아니라 분가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는 연구 조직으로 활동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교회위원회, (가칭)분가/대안교회 연구위원회
	추진 방안	- 분가/대안교회 연구위원회 구성(~2016.12) - 사례 연구 : 자료 수집, 분가교회 관련자(향린공동체) 인터뷰 등(~2017.6) - 교인 토론회 개최(대화의 광장 등)(~2017.9) - 분가교회 추진 원칙 수립 및 규약 등에 반영(~2017.12)
소요 예산	80만원 (2017년)	자료 수집(도서 구입 등) : 30만원 회의활동비 : 50만원

5. 교육교회 역량 강화

목표 및 개요	목표	-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이 새민족의 정신을 계승하 는 진보적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함
	개요	- 기독교교육의 목표와 성격을 정립하여, 새민족 신앙에 입각한 교회교 육의 기반 마련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교육교회, 교육훈련부, 당회, (가칭)교육위원회, 교회위원회
	추진 방안	- 예비교사 교육(2014년 4분기) - 정기 교사/예비교사 교육 : 분기별 - 새민족 교육교회 교재 연구/선정(~2015년 4분기) - 새민족 교육교회 예배/찬양 연구 및 적용(~2016.12)
소요 예산		- 정기 교사/예비교사 교육 강사비 : 30만원(분기별)
기타		- '신앙 교육 훈련 체계화' 과제와 연계하여 교회 교육에 대한 정의 확립

6. 청년회 활성화

목표 및 개요	목표	- 청년회 강화를 통해 새민족교회 리더십 재생산 구조 확립
	개요	- 새민족 신앙의 후배를 양성하고, 청년들의 신앙 훈련을 통해 진보적 신 앙을 키워나가도록 함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청년회, 교육훈련부, 교회위원회
	추진 방안	- 청년회 일상활동과 친교 - 청년회 자체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화(~2015.12) - 청년회의 청년 등대 전환(~2015.12) - 청년 해외 에큐메니컬 활동 준비(~2016.12) - 청년 해외 에큐메니컬 활동 파견(2017년 이후~)
소요 예산		- 청년회 활동비 : 30만원(분기별)
기타		- 해외 에큐메니컬 활동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사업 필요 - 해외 에큐메니컬 활동에 대한 청년회 내부 공감대 형성 필요 - 교육교회 산하 젊은이교회에서 청년 등대로 전환하여 위상 격상

7. 신앙 교육 훈련 체계화

목표 및 개요	목표	-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통해 새민족교회의 지향점 공유
	개요	- 교육위원회를 통한 신앙교육훈련 계획 연구 및 시행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교육훈련부, 당회, (가칭)교육위원회, 교회위원회
	추진 방안	- 교육위원회 구성 : 당회, 교육관련 기관 등(~2014년 4분기) - 기관별 교육 목표, 교육 방안, 교육 계획 수립(~2015년 3분기) · 성서학당 재검토 : 전면적인 검토 및 체계화 필요, 새민족 만의 브랜드 화, 교우들의 참여 방식 고민

		· 신앙단계에 따른 신앙교육 실시 · 새교우 교육 커리큘럼 점검(신입 교육 뿐 아니라 청소년 교회를 졸업하는 교우들에게도 교육 실시) - 신앙 교육 훈련 커리큘럼 작성(~2016년 3분기) - 외부 교육과 연계한 에큐메니컬 평신도 지도력 양상(2015년 1분기~)
소요 예산		- 교육훈련비(외부 교육 지원 등) : 30만원(분기별)

8. 소그룹 친교활동 강화

목표 및 개요	목표	- 긴밀한 친교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
	개요	- 등대 모임 외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통해 교우간 유대감 강화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친교봉사부, 자발적 소모임 리더, 교회위원회
	추진 방안	- 친교 소그룹 구성(~ 2015. 1분기) · 자발적인 조직 구성 및 해체 원칙 · 친교봉사부에서 환경 조성(홍보, 활동비 지원 등) [주요 모임 구성(안)] - 취미별 소모임(운동, 영화관람, 독서 등) - 성별 및 연령별 주중 친교 소모임 - 직업군별 주중 친교 소모임
소요 예산		- 소모임 활동 지원비 : 50만원(분기별)
기타		- 기본적인 운영비는 소모임 자체 회비로 운영 - 우수사례, 교회 활동과 연계한 모임 시 활동비 지원 -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교봉사부가 소모임 활동 참여 유도 및 지원/관리

9. 새교우 담당팀 구성

목표 및 개요	목표	- 새교우의 빠르고 원활한 교회생활 적응
	개요	- 새교우들을 전담하는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기존 교우들의 견고한 인간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교우들의 소외감 해소
추진 계획	추진 주체	- 새교우 담당팀(교회위원회 임명) - 친화력 높은 교우들 중심으로 2~3명의 인원으로 구성
	추진 방안	- 교회위원회에서 새교우 담당팀 임명 - 1년 단위로 활동(연단위 전담팀 구성원 교체)

		[주요 활동] - 주일 아침 챙김 문자 보내기 - 예배 순서 안내 - 예배 후 점심 식사 동석 - 등대모임 등 교회 활동 함께 참여
소요 예산		- 별도 예산 불필요
기타		- 너무 과도한 돌봄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게 적절한 수위 조절

VI. 새민족 변화과제 추진계획(안)에 대한 등대별 토론회 결과

- 2014년 9월 정기제직회(9.21) 회의록에서 발췌

[안전토의]

2. 새민족 변화과제 추진계획(안) 검토

- 등대별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다.

● 1등대

- 새민족 선교 정책 방향 도출 시 새민족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가치관(통일 지향 등)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다.
- 모든 교우가 과제를 다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교우들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게, 너무 획일적으로 과제가 추진되지 않았으면 한다. (교회 생활 용어 통일 → 교회 생활 용어 개선)
- JPIC센터 보다는 새민족 선교 센터라는 용어가 조금 더 피부에 와 닿는다.
- 새민족 찬양집 개편의 의미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 새민족 노래 제정은 교회 재정상 재능 기부를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

● 2등대

- 9대 비전 변화 과제에 대하여
 - 대안교회/분가교회 모색 과제가 1번으로 되어 있어서 최우선 과제라는 인상을 준다. (중/장기 과제이고, 시급한 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교회 생활 용어 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들을 가리키는지 질문.

· 소그룹 친교활동 구성 관련

- 1) 양케이트 조사를 통해 교인들의 관심/주제에 따라 소모임 구성
- 2) 소그룹과 등대모임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검토

· 6대 30주년 기념사업과제가 구체적이듯이 9대 비전 변화과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 6대 30주년 기념사업과제는 주요 활동 계획이 있다)

→ 이 부분은 세부 계획이 있음에도 시간 관계상 설명이 잘 안 되었음을
김진오 3.0추진위원장이 보고하다.

- 영역 구분에 관하여

- 예배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한다.(예)예배/선교/교육/친교)
- 향후 역할분담이 주어진다면 전교인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 새민족의 노래 제정은 좋은 것 같다.
- JPIC는 지역선교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 교회의 건물/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 일상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이 10년 전에 추진한 내용과 거의 같다.
- 좀더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 하다.

● 3등대

- 지역교회에 대한 논의
- 지역교회로 갈 수 있는 사례
- 향린교회 분가교회 사례 등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다.

● 4등대

- 교회 리더십 및 인원과 재정은 한정적. 실현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고민.
- 일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 실행단위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업위주 과제는 도출되었는데, 교회 조직과 운영 영역의 과제가 빠져 있다.
- 교회의 날 위원회에서 찬양집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
- 20주년에 수립한 비전2026과의 연결성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자.
→ 새민족 변화과제가 기존 비전2026과 연결 되며, 비전2026 달성을 위한 중기 실천 과제임을 김진오 3.0추진위원장이 설명하다.
- 3.0은 시기가 아닌 질적 변화 필요한 시기이다.
- 사업, 프로그램이 아닌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어보자

- 교우들과 세상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고민하자.
- 카테고리는 잘 구성되어 있다.

결론

- 3.0추진위원회 2기가 등대별 토론 모임을 반영하여, 추가 수정/보완을 하고, 교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바람직한 조직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근복


목사,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조직교회 10년의 평가와 발전적 모색

바람직한 조직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이근복 목사
토론1 : 윤영수 집행위원장, 토론2 : 강성배 집사

새민족 조직교회 10년의 평가와 발전적 모색 - 김종원 장로
토론1 : 백창욱 목사, 토론2 : 민혜경 집사



• 일시 : 2016년 5월 22일(일) 2시 • 장소 : 새민족교회

1. 한국교회와 새민족교회

한국교회는 몹시 흔들리고 있고 목회자들은 벽에 부딪혀 있다.

교회학교는 반토막을 넘어섰고 문 닫는 교회도 나오고, 매물로 나온 교회당이 심심찮다. 신대원 졸업생의 10~20%만 온전하게 임지에 부임한다. 개인 교인수가 조만간 400, 500만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교회는 물질적 세속화로 인하여 영적인 힘을 잃고 공공성을 상실하여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였는데, 부심하기도 하지만 변화와 회복의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교회개혁만 주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지하고 세워주는 공적지원체계가 더욱 요청되는 시대이다.

한국사회는 급속히 허물어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준전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헬조선'일 수밖에 없는 N포 세대는 절망하고,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빈곤과 자살이 확대되고 세계 1위의 존속살인율은 인간성 말살의 현상이 되었다. 교육과 종교는 사회의 기둥 역할을 하기는 커녕 우선적인 개혁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 사회의 변혁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이 현저하게 약해졌다.

곧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개혁과 동시에 사회변혁을 추동하므로 유럽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혁한 이 혁명에서 한국교회는 성찰할 바가 많다.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과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변혁도 가능하지 않다. 이제 한국교회는 새로운 각오로 우리 사회를 다시 세우

는 일을 감당할 결단을 하고, 개혁하고 대안적 교회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새민족교회가 교우들, 한국교회와 사회의 새로운 소망이 되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 교회가 “혁명과 신비의 결합”(한상봉)이라고 한 말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제도와 인간변화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민족교회는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우선 아름다운 교회상을 꿈꾸고, 토대를 튼튼히 하고 바람직한 조직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에 즐겁게 책임지며 풍성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

2. 직제와 조직교회

1) 성서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에베소서 4:11-12)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디모데 후서 1:11)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고,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고린도전서 12:28)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로마서 12:4-8)

2) 예장(통합) 헌법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제2편 정치, 제2장 <교회>, 제9조 지교회)

3) ‘새민족교회 20년사’의 기록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조직 교회로 가려는 구체적인 이유를 교우들이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왜 우리 새민족교회는 조직교회가 되어야 합니까?”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각 등대별로 토론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 글에서 이근복 목사는 조직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중심지도력 형성, 지도력 분담, 평신도 중심의 교회 구현, 에큐메니칼 운동의 참여와 교단의 개혁, 안정적인 목회, 개혁적인 교회구조의 정착 등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교회의 장로제도가 가진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임기제, 선거제도의 보완 등 제도적인 측면도 새민족교회에 맞게 만들어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등대별 토론회를 거친 후 교회위원회는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2004년 교회 규약을 제정하고 규약에 따라 안수집사를 선출한 후 창립 20주년이 되는 2006년 장로를 세우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청년예수! 새민족』 p. 108)

4) 신학자들의 견해

(1) 한스 쿨링(가톨릭 신학자)

“카리스마는 교회 내에서 결코 제한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다.”

“바울이 은사를 열거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그 누구도 모든 은사를 독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교회』 p. 260-261)

“기독교인은 교회 내에서 지위와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카리스마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카리스마를 타자와 전체에 봉사할 수 있는 은사로 생각해야 한다.”

“모든 카리스마는 공동체 구축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교회』 p. 266)

“그리스도는 자기 헌신 속에서 완전해진 희생으로 사제직의 진리를 궁극적으로 성취시키셨다.” (『교회』 p. 522-523)

“한 분 세대제사장의 사제직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제계급이 해소되고, 믿는 자들 모두의 만인 사제직이 대두되었다.” (『교회』 p. 527)

“모든 기독교인들은 -가장 넓은 의미의- 말씀선포의 부름을 받았다. 모든 자들은 -개인적인 증언의 의미로- 선포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자가 -엄격한 의미의- 설교나 신학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다.” (『교회』 p. 537)

“만인 사제직은 모든 자들이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교회』 p. 545)

“개개의 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권한과 공적으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주어지는 특별한 전권은 구분되어야 한다. 모든 기독교인은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와 세계 앞에서 신앙을 증언하고 ‘선교’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름받은 목회자(또는 그들의 위임을 받은 자)만이 공동체의 집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 모든 기독교인은 형제에게 사죄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목회자만이 공동체의 집회에서 공동체와 개인들에게 화해와 사죄의 선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 모든 기독교인은 세례와 성만찬을 공동으로 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부름받은 목회자만이 공동체의 집회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공동체의 성만찬을 책임적으로 거행할 권한을 갖는다.” (『교회』 p. 627)

“파송받은 자가 실제로 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공동체가 반드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파송을 통해 전권을 갖게 된 목회자는 복종하는 가운데 이러한 전권을 매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교회』 p. 628)

(2) 볼트만(루터교 신학자)

“모든 사역은 계급이 아니라, 회중을 인도하는 지도자일 뿐이다”

(3) WCC의 입장/ 이형기 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정리

“기독교는 초기부터 안수례 받은 교역직을 두었다. 그래서 안수례 받은 교

역자들은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을 무장시키며,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속에서 증언을 강하게 하는 일에 봉사하였다. 이들 특수 교역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교역을 위한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고, 목양적 돌봄을 담당하며, 선교에 있어서도 지도자가 된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신앙과 삶과 증거의 코이노니아를 강화시킨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p. 226)

“특수 교역직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봉사의 일(디아코니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

“특수 교역직은 설교와 성례와 목양과 교회 일치추구를 통해서 하나님나라를 이 땅 위에 선포해야 한다. 특수 교역직은 이 땅 위에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해서 평신도들의 은사들을 발굴하여 교육하고 훈련한 후에 이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일이다.”

“공동체와 특수 교역직은 불가분리한 유기체적인 몸을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p. 369-370)

(4) 이신건(서울신대 교수)

“케제만의 말대로 교회의 직무형태는 오직 복음으로부터, 그리고 복음의 일부로서 이해되는 직무이해로부터 결정되어야 하고, 바로 그렇게 형성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나라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와 자매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김의 정신,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야말로 교회직무의 진정한 본질이다.” (『조직신학입문』 p. 261-262)

“교회의 직무는 항상 역동적이다. 교회의 직무는 다양한 즐거움 속에서 항상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자유와 통치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며, 그를 뒤따르는 가운데서 남을 섬기고 있는가? 교회 직무의 진정성과 유익성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올바르게 응답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조직신학입문』 p. 263-264)

(5) 한상봉(‘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주필)

“예수가 전하는 으뜸자리는 ‘심부름꾼’의 자리다. 사람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노예의 길’이다. 이를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는 봉사(디아코니아) 직분이라고 부른다.”(『행동하는 신앙』 P. 51)

“교종은 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을 의식한 듯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날카로운 안목을 갖고 있는 양떼들도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종은 ‘단지 문을 열어놓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교회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권했다.”(『행동하는 신앙』 P. 65)

“프란치스코 교종은 ‘복음의 기쁨’에서 주교를 ‘목자’라 했고, 그 목자는 양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때로는 양들 한가운데 거닐기 때문에 양의 냄새가 물씬 나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행동하는 신앙』 P. 27)

(6) 루터의 ‘만인제사직’

모든 신자는 대제사장(사제, 중재자)은 필요없다는 주장이다.(벧전2:9; 계1:6; 5:10). 이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확고한 신념 곧 종교개혁의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다.

만인제사장설의 내용 속에는, ①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②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③ 하나님 앞에서 특수한 직위나 권위를 지닌 특별한 성직자나 집단을 있을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물론, 성경에서 언급된 공적인 사제직을 인정하기는 하나 그것은 예배(제사)를 위한 직무상의 직책일 뿐임을 강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3. 바람직한 조직교회를 위하여

1) 한국교회의 문제 성찰 - 크리스찬아카데미 ‘선교적 교회모임’

- 2015년 6월부터 월례모임 진행중

- 참석자 : 신학자 2인, 목회자 4인, 크리스찬아카데미 2인, 경영학자(장로)

3인(『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저자)

[일부 내용 요약]

- 지금은 교회가 양적 성장을 멈추어서 당황하고 허둥거리는 상황이다.
→ 장로교, 감리교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 성도들의 수준을 높이고 교회가 영적인 풍성을 누리려면 스킵, 비전, 사명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 높은 수준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과편화되고 복잡한 내용 말고, 사람이 변하려면 단순해야 한다.
- 높은 수준의 단순화가 만들어 내는 하나님나라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교회의 본질, 사명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집중할 수 있는 소신, 의지, 헌신이 중요하다. 교회가 단순하고 명확한 방향을 소신 있게 제시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은 저절로 따라온다.
→ 각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을까? 단순함의 핵심은 무엇일까?
- 교회의 침체 의미는 무엇일까?
→ 억지로 끌고 간다는 느낌, 일이 안 굴러 가는 것은 아닌데 메마른 느낌. 책임감과 의무감만 있고 은혜, 복음의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
→ 성장, 침체의 본질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지표가 필요하다.
→ 양적 성장이 필요 없는 것일까? 어떤 양적 성장이어야 하는가?
- 교회의 성장 동력, 영적 동력은 무엇일까?
→ 교회 성장, 침체 극복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
→ 은혜는 없고 프로그램 성과만 남는다.
- 목회자, 열심 있는 성도들이 너무 바빠 소진되고 있다. 교인간의 깊은 교제는 없어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일만 한다. 결국은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
→ 탈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 당회 운영에서 목회자와 장로 간의 소통, 역할의 균형, 시스템과 사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장로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대로 알게 하고, 당회와 교회 안에서 그 것이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 담임목사와 장로들의 원만한 소통 방안은? 어디까지 소통해야 하나?
누구의 문제인가?

- 회의, 말은 많은데 실행은 안 된다.
→ 왜 일까?
- 교회 내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구조가 없다. 특히 젊은 사람들.
→ 교인들의 다양한 욕구, 목소리를 담아낼 구조는?
- 장로가 안 된 안수집사들의 섭섭함이 때로는 심각한 교회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 안수집사의 역할을 세워주고, 자존감을 갖게 하는 방안은?
→ 중간 그룹이 건강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은?
- 교회에 교육만 있고 훈련은 없다. 교육으로 인해 많이 알고 머리는 커지는데, 아는 바대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훈련은 없다. 제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교회 안의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과는?
- 교회의 교육내용, 프로그램 등이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있다.
→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 변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 교회는 회사와 다른데 회사의 시스템, 소통 문화, 역량과 비교하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 교회라는 특수한 문화,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까?

2) 새민족교회의 비전과 지향성, 공동체의 토대에 대한 점검

바람직한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속에서 새민족교회의 비전과 지향성, 선교적 교회로서의 핵심가치와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새민족공동체의 기초인 등대와 위원회를 점검하고 세워야 한다.

그런 후에 새민족공동체가 지향하는 내용을 채우고 실현하는데 적합하고 걸맞는 형식과 구조를 세우고 제도화해야 하는 까닭이다.

사회적인 기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인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3) 조직교회로 나아가는 새민족교회에 대한 물음과 성찰

- (1) 교우의 신앙과 삶, 사회에 진보를 가져다주는 교회인가?
- (2) 처음 조직교회를 만들고자 할 때 제시한 근거와 이유가 타당한가?
지금의 구조가 새민족교회의 핵심적인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조직인가?
- (3) 소통하는 구조인가? 지나치게 제도와 형식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 (4) 공동체의 기초인 등대와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삶의 나눔과 고백(간증)이 있는 등대 - 집에서 같이 저녁식사, 온 가족들의 모임. 기초가 튼실하지 못하면, 교회의 조직은 형식적인 틀이 될 수 있다.
- (5) 사람을 세우는 조직인가?
핵심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구조가 필요한데, 선출직을 세우는 과정이 바로 교육 훈련 기회가 되지 않고서는 공동체는 발전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창의적인 교육훈련의 과정이 없이는 제직들은 발전하지 못한다.
- (6) 목사와 평신도의 협력과 결합구조인가? 아니면 갈등하는 구조인가?
흔히 새민족교회를 '평신도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정체성은 적합한 것인가? '공동목회 교회'가 더 적절.
- (7) 지역과 사회를 섬기기 위한 적절한 섬김의 조직인가?
교우들의 역량의 제고와 배분, 그리고 통합을 실현하고 있는가?
- (8) 지나치게 회의와 논의에 힘을 쏟는 조직은 아닌가?
무엇보다 논의보다는 실천에 초점을 두는 조직인가? 시스템의 유지 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과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람과 시스템의 균형이 중요하다. 주일에 교제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일의 회의 대폭 줄일 수 있을까?
- (9) 제도적 조직화가 불가피하지만 제도를 넘어서는 역동성이 나타나는가?
- (10)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오고 싶은, 처음 예배오신 분이 등록하고 싶은 아름다운 모습인가? 공간이 주는 공감메시지(꽃밭, 내부, 청결, 친절...)

4. 맺으며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그 사회를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다른 가치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끝입니다.”(신영복, 『담론』)

“불의와 싸울 때는
용감하게 싸워라
적을 타도할 수 없다면
적을 낙후시켜라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크기로 이기는 거다
미래의 빛으로 이기는 거다
인간은, 후지면 지는 거다

웃는 나의 적들아
너는 한참 후졌다”

(박노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중 ‘후지면 지는 거다’)

새민족교회는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에 새길을 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조직은 무엇인가?”란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새민족교회의 조직교회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입니다. “보완할 사항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성찰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회의와 말로 그쳐서는 힘만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남 탓, 정권 탓, 상황을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민족신앙공동체의 기초와 방향, 사람세우기와 조직에 대한 우리 자신의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새길을 여는 방안입니다.

우리 시대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교우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잘 편집하여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기도하며 실천하면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풍성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2

새민족 조직교회 10년의 평가와 발전적 모색

김종원
장로, 새민족교회

최선은 모든 확신이 없는 반면에
최악은 열정적인 맹렬함으로 가득하다네

The best lack all conviction, while the worst
Are full of passionate intensity.

(William Butler Yeats, “The Second Coming”)

1. 조직교회 10년, 발걸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나라 건설의 ‘전위대’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와 생명을 이 땅위에 실현하는, 선한 싸움의 제일선에 서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닌 영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영적 기관인 교회는, 개인 심령의 차원을 넘어서서, 역사의 현장에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갈릴리가 그들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소외당한 고난의 땅이자 가족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처음 하나님나라 운동을 시작한 이 갈릴리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위해 다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가장 소중한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시작함,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란 뜻이었습니다.

‘교회’하면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나, 당회나 제직회 등 제도와 조직을 생각함

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교회는 바로 사람인데,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버스, 지하철, 직장, 학교, 시장, 사업장에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은 큰 자부심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교회로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일들이 발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밤이면 어디나 교회의 십자가가 꽃발을 이루어도, “교회는 없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근복 목사, 교회창립 17주년 기념주일 설교, 2003.8.24)

가. 조직교회 논의의 태동

1) 교회의 물적 토대 구축을 위한 노력

- 1999년 송죽원 이후 안정적인 교회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
- 평신도교회로서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방안을 모색
- 기획위원회(2000) : 교회 각 부문 사업과 활동의 조정과 협의
- 운영위원회(2001) : 실무적 차원을 넘어 교회 전체 방향을 협의

2) 교회위원회 구성(2003)

- 조직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위상과 권한을 확보한 기구 필요
- 교회 부문별 대표로 구성
- 협의, 조정에서 각 기관을 지도, 교회 중장기적 과제 설정
- 교회 운영 틀을 갖추며 여기에 평신도들의 역량이 발휘되는 구조 만들

나. 조직교회로의 전개 과정

1) 교회 규약의 제정과 안수집사 선출

- 2003년 등대모임 등을 통해 규약 제정과 조직교회 조직을 위한 토론
- 2004년 3월, 공동의회를 교인총회로 개편, 조직교회 구성을 의결
 - 4월, 안수집사 선출(5명)
 - 8월, 교회 규약 제정, 안수집사 임직식
 - 10월, 안수집사를 등대목자로 하는 등대교회 시작

2) 장로, 안수집사 선출

- 2006년 교회 창립 20주년에 장로를 선출하고 조직교회 출발기로 계획함
- 안수집사 선출 이후 선출직 지도력의 충분한 기반 확보를 위해 장로 선출 시기 조정
- 2007년 1월, 교회위원회는 4.8일 부활주일에 안수집사 남녀 각 2명, 장로 2명을 선출하기로 함
- 2007.4.8 안수집사, 장로 선출
- 선출직 교육 훈련
- 2007.12.16 임직식

3) 조직교회 출발

- 장로 선출과 함께 당회를 구성, 교회정치에서 조직교회 출발
- 10명의 선출직(교역자 포함)을 등대와 전문분야 목회에 배치
 - : 7개 등대, 3개 전문분야(어린이교회 부장, 청소년교회 부장, 찬양대장)
- 선출직(장로, 안수집사)의 일정 인원을 교회위원으로 선출

2. 조직교회 활동의 평가와 과제

가. 조직교회 구성의 목적

- 중심지도력 형성과 지도력 분담
- 평신도 중심의 교회 구현
- 에큐메니칼 운동의 참여와 교단의 개혁
- 안정적인 목회
- 개혁적인 교회구조의 정착

나. 평가

- 새민족의 조직교회 : 기성교회 제도에 진보적 교회의 가치를 담음, 두 요소의 엇갈림

1) 중심지도력의 공식화와 집중

- 안수집사 선출 이후 교회 지도력이 형성되고 이후 장로 선출 이후 지도력

이 공인됨

-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직부서가 활발하면서 제직부서장 등도 지도력 그룹을 형성함
- 중심지도력이 선출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장기화하여 피로감 증가를 우려함
- ‘선출직 = 책임과 의무 집단’이라는 의식이 고착됨
- 이러한 배경으로 선출직이 의사결정에 중심이 되면서 갈등 상황에서 교우들과 대립 하고, 책임과 비판의 대상이 됨
- 선출된 직분(선출 항존직)과 직책(교회위원)의 역할 구분이 필요함

2) 평신도 중심의 교회 구현의 성과와 한계

- 목회자와 평신도(특히 선출직)의 공동사역과 목회를 추구해 온 과정임
- 평신도들의 자발성을 높이며 교회 운영과 관리에 책임성이 형성됨
- 공교회 제도(교회 정치)와 공동체 제도(규약 등) 사이의 갈등 요소(직제, 성례전, 정치 등)를 평신도 중심 또는 공동목회라는 목표와 조정, 조화시키는데 어려움

3)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할 vs 교단 개혁

- 교회 정치 제도에 기반한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단 운영에 조직교회 구조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진보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에는 자연스럽게 활발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공교회 직제에 따른 활동가 배치와 인정 구조가 작동하고 있어 조직교회의 장로라는 직분에 따른 역할과 지위를 갖게 됨
- 교단 특히 노회 조직 활동과 운영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여해 오지 않았음. 이는 이북노회라는 지역 기반이 아닌 상회 조직에서 개혁적 연대 활동(현의안 조직 등)을 만들기가 어려운 조건임. 다만 총회 차원의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교회로서 활동에 참가하고 있음

4) 안정적인 목회 조건 마련의 숙제

- 조직교회로서 책임과 지도력을 가진 다수 선출직 구조를 통해 교회의 물질, 양적 토대를 확대해 목회자의 경제적 안정과 충실한 목회 여건을 만들고자 하였음

- 목회자 교체와 교회 건물 구입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교회 운영이 오히려 약화되는 상황이 지속됨
- 규약에 따라 목회자 임기를 보장하였으나, 조직교회로서 부교역자 등 목회자 양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임

5) 개혁적인 교회구조의 정착과 조직교회

- 조직교회로서 개혁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모순되거나 둘 사이의 긴장 관계가 항상 나타남
- 개혁적인 규약과 조직구조로 공동체가 운영, 유지되고 있으나 교단(예장 통합) 정치와 맞지 않는 교회 성향과 구조로 인한 한계가 서로 갈등하고 있음
- 즉 교단에 계속 속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그룹으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3. 변화를 위한 과제

가. ‘교회의 목적’에 기반하는 새민족교회로서 조직교회 새틀짜기

- 교회와 교회 구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조직교회 관념을 넘어야 함
- 새로운 교회론을 연구, 교회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걸맞는 교회 조직 새판 짜야 함

나. 교회 각 운영 구조와 선출직의 역할 분담 재구성

- 책임과 의무의 사유화 극복 : 선출직에 책임과 의무가 집중되는 것
- 임기제라 할지라도 임기 종료는 곧 은퇴가 될 것임
- 무한 임기가 될 수 있는 안수집사의 임기를 정하거나 제도 폐지 필요
- 당회 활성화 : 성례전, 교육 훈련, 신앙생활에 대한 목회적 지도와 지원
- 선출직 전체의 목회 사역적 역량을 높여야 함 : 목회적 프로그램 시행 필요
- 교회 운영과 관리에 대한 교회위원회와 제직회의 역할 정립
: 교회위원회(심의, 의사결정, 교회 운영과 관리 점검), 제직회(집행과 실무)

다. 교회조직 형태를 변화

- 회원제 멤버십으로 전환 검토

- 새민족 공동체 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
- ‘교우(교인)에서 회원으로’ : 소속감

라. 공동체가 선출한 지도력의 목회사역적 위상에 대한 인정과 존중

- 장로, 안수집사/등대목자, 교육교회 등 각 사역 부문에서 권한과 권위 부여
- 공동체가 존중, 안수한 선출직의 성례전 집례, 말씀 선포 수행, 목회 역량 강화
- 전문목회자의 지도와 관리로 선출직의 사역적 역할 높임

마. 지도력의 에큐메니칼화

- 선교와 연대를 강화하고 선출직 지도력이 이 부문에 적극 역할
- 교회 안 역할과 활동에 한정되거나 또는 선교와 연대에 일부가 전담하는 방식의 활동 구조를 변화시켜야 함
- 역할 분담으로 할 경우 기간을 정해 전담자를 배치함

4. 마치는 글 - 새로운 교회를 위한 새로운 탐색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참으로 체제전복적인 반제국주의 메시지와 선교를 통해서, 그 급진적인 뿌리로 되돌아 갈 수 없다면 교회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 교회는 고통을 무디게 만들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에 불과하여 세상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사도적 권위라는 개념은 초대교회 이후 지도자들이 되고 싶어 했던 야심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편리한 픽션이며, 이 포부를 복음서를 근거로 신성한 것으로 만들려 했지만, 복음서의 기록은 사실상 그런 개념과 정반대이다. 바울은 사도적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와와의 개인적 만남의 결과일 뿐 자신의 권위가 다른 사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령이 각각의 최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고 가르쳤다고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로빈 마이어스, 『언더그라운드 교회』)

가. 공교회 직제에 바탕하는 조직교회를 넘어서는 새로운 조직교회 개념

- 이와 같이 급진적이며,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향유하면서, 예수를 삶의 모델로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 그러한 공동체로서 조직된 교회
- 조직하지 않는 조직교회 : 너무 많은 잡다한 일에 우리를 소모하고 있다. 덜 조직하고 무엇인가 생각나면 그냥 하도록 하자
- 탈조직, 탈성직 교회 : 제도교회라는 조직에 갇히지 않고, 성직주의를 걷어낸 대항신앙적인 공동체로 변화

나. 조직교회 보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

- ‘내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망각한 채 서로 다투는 집단이 되지 않는 것
- 보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미치기로 서약했다는 것을 서로 인정, 존중하여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 ‘사랑하는 공동체’는 이러한 것이며 새민족의 갱신과 개혁은 여기에서 시작됨

다. 새로운 교회의 탐색

1) 대안과 전환을 지향하는 교회로 탈바꿈 필요

- 지금 새민족은 충분히 보수적임
- 교회에 의해 유배된 모든 것들(구조, 의식, 문화, 제도...)로부터 철저한 변화 추구
- 교회를 문화적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전통에서 늘 물어야 함

2) 교회의 창조적 분화 : 연합 분가교회

-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경험과 활동을 토대로 새로운 교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현실화함
- 네트워크 내 교회들의 연구와 합의로 대안 교회를 분가, 설립
- 새로운 교회공동체를 실험, 대안교회운동을 전개

라. '이런 교회...'

-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 중요한 교회
-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적어도 모두가 배불리 먹기 전에는 서로 논쟁을 하지 않는 교회
- 예수님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을 놓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 서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을 분별하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 공동체 안에서 자체의 경제적 체계를 창조하는 교회
- 세례와 성만찬을 어떤 방식으로 거행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취소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신 것으로서 우리 모두를 단단히 하나로 묶어놓는 교회
- '교회가 죽은' 시대에 '그냥, 훨씬 더 재미있고 기쁜' 교회

바람직한 조직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윤영수

기독인연대집행위원장

1. 오늘이 있기까지

1) 향린교회

- 청빙위원회(2002년) / 정관 제정(2005.8) 활동
- 목회운영위원장(2006, 2007년)
- 장로 직무(2008.5월~2012년말)
- 분가교회(2013년)

2)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 평신도 중심의 연대활동
- 다양한 교회(후원교회, 관심교회, 평신도 강단교류 활동) 방문
- 집행위원(2003년부터 현재까지) 및 집행위원장

3) 새민족교회

-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활동을 통해 알게 됨
- 정관 제정 및 청빙(2회), 장로 선출 과정에 대한 이해
- 20주년 토론 참여 및 20년사 독서
- 취임 축사, 예배 참여 및 교회 방문, 親새민족교회

2. 조직교회

1) 조직이란?

- 의미 : 개인이 완수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협동,

수단, 시스템(체계)

- 요인 : 목적 또는 의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휘 관리와 역할 분담이 정해져 지속적인 결합이 유지

2) 조직교회

- 규정(헌법) :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 즉 장로의 선출을 전제조건으로 함
- 조직교회라는 개념은 교회는 장로를 통해서 조직이 구현하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장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 교회는 장로(사람)를 통해서 경영학에서 규정하는 조직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새민족교회가 조직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새민족교회 20년사』)
 - 중심지도력 형성, 지도력 분담, 평신도 중심의 교회 구현, 에큐메니칼 운동의 참여와 교단의 개혁, 안정적인 목회, 개혁적인 교회구조의 정착

3) 조직교회를 되돌아봄

-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조직이라는 익숙한 개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는지(강박관념과 익숙한 사고방식에 따라)
- 조직교회 출발 당시의 새로움과 참신함, 기대감 등이 10년의 세월 동안 퇴색
- 장로에 대한 교우들의 의존도 증대와 그에 따른 역할분담 의식의 감소
- 장로 선출과 관련한 교우간의 소통 문제 발생
- 교우들의 신앙 및 사회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센서스) 필요. 『향린, 우리는 누구인가? -전교인 신앙 및 사회의식 조사 보고서』(2012)
 - 인구통계학적 기본사항, 교회생활 관련 기본사항, 신앙생활의 모습들, 교회생활 관련 만족도, 교우들의 신앙관, 교우들의 사회의식

3. 바람직한 조직교회

1) 교회 공동체다운 활동들

- 예배와 선교, 친교는 교회공동체의 본질이므로 모든 프로그램의 중심
- 모든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권리) 또한 모든 교우들이 참

여하도록 권유(의무)

- 궁극적으로 하느님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꾼으로!
- 새민족교회 비전 추진 전략(20년사)에 따라 실행해나가도록 노력함

2) 명실상부한 조직교회로 운영

- 목회자와 장로를 통한 포괄적인 조직교회 운영에서 세부적인 활동/업무와 활동단위, 담당자를 연계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함
- 반복적인 업무와 과제 중심적 업무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활동 진행
- 주1회 모이는 교회활동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방안 모색
- 주요 활동(교사, 성가대, 대외활동 등)의 역할을 정기적으로 변경하여 교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우간의 원활한 소통도 도모함

3) 주체적인 교회 및 신앙 활동

- 교우들 각자가 중장기(3~5년) 신앙생활의 계획을 가짐(신앙이력서 작성)
-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여 신앙 경험의 다양함과 자기주도적인 활동 참여 가능
- 교회 밖 다른 교회/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함

4) 작지만 큰 교회

- 일정 기간(?) 후에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
- 연대활동에 대하여 교회 차원의 일정 역량을 공식적으로 배정
- 하느님나라의 일꾼, 평신도 활동가를 육성하여 교우들 각자의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할 뿐 아니라 하느님나라가 확장되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음

바람직한 조직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강성배
집사

1. 한국교회와 새민족교회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 상실의 원인을 현실적으로 파고 들면 재산 증식과 사유화, 권력화가 가능한 한국교회의 현실이 시발점이자 주원인이고, 10~20%의 중·대형교회를 제외하고도 소규모 대부분의 교회마저도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기존의 중·대형교회를 답습하려는 꾸준한 시도와 자체적인 재산 증식 노력, 이를 인정한다면 결국 현명한 젊은 세대들에게 외면 받는 교회의 대상의 범위는 일부가 아닌 전부이고 이를 극복하거나 개혁하려면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논제1]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과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려면

별도의 재단 설립 또는 기구 설립으로 각 교회의 사유 재산을 공공에 환원하고 재산증식 보다는 변혁을 주도할만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소망이 되기에 노력하며 환원된 재산의 일부를 목회자의 복지, 은퇴 자금 등으로 운영하여 목회자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종교 개혁에 준하는 조치가 어떨지 제안합니다.

예컨대 과거 감리교 파송제도의 부활 및 개선도 고려 가능한 제도가 아닐지, 교회 내의 권한 분산, 공공성 강화, 도덕성 회복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교회 종사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문제

2. 직제와 조직교회

[논제1] 10년간의 조직교회 시행 결과는 이전 미조직교회 시절보다 만족스러운가? (제도, 교회 일상, 대인 관계 등)

[논제2] 조직교회의 특성인 당회는 다른 의사 결정 기구인 교회위원회, 재직회와 구분되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주요 결정사항의 결정 주체, 역할 구분 등)

[논제3] 장로제도의 임기제(최대 10년)와 선출직(안수집사)의 평생 유지는 문제점이 없는가?

대부분 세대 또는 연령이 비슷한 구성원간 장로의 10년 임기는 책임감을 가중시키고 여러 구성원에게 분산된 책임을 부여할 기회를 막고 있는 제도는 아닐지? 선출직(안수집사)의 임기는 현실적인가? 의 문제는 물론 예장(통합)과 맞물릴 수 있으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출직에 우선된 책임이 과하진 않은가? 현 시대에 동떨어진 규정은 아닌지?

3. 바람직한 조직교회를 위하여

[논제1] 향후 10년~15년 후 새민족교회는 평신도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게 될지?

-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60대 또는 70대가 될 멀지 않은 미래에도 각자의 역할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 가정에서의 지위의 변화, 육체적·물리적인 노쇠 현상 등이 온다면 이를 위해 이근복 목사님께서 제시한 공동 목회의 제도적 도입 판단

[논제2]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와 욕구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지

- 미래의 평신도 교회 주역이 될 젊은 청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듣고 담아낼 시간과 공간,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은지
- 예배 이후 청년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 고려 / 재정적 지원
-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회 내의 비전 등 청년들과 생각을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

[논제3] 조직교회/평신도 교회를 지향하면서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역할의 불균형, 소통의 부재, 전문가적인 영역 구분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새민족 조직교회 10년의 평가와 발전적 모색

백창욱

목사, 대구새민족교회

1. 문제제기- 우뚝 서 있는가?

1) '조직교회 10년, 발걸음'에서

교회는 역사의 현장에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
갈릴리는 삶의 현장, 소외당한 고난의 땅, 가장 소중한 현장.
처음 하나님나라 운동을 시작한 곳.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시작하는 길.

2) 제주강정 해군기지 현장펜스에 적혀 있는 글,

“나는 자신의 안위만을 신경쓰느라 폐쇄적인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멍
들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원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우리는 이 말을 구두선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갈 길로 고백하는가?
갈릴리같은 삶의 현장에 얼마나 투신하는가?
민중이 수난당하는 현장의 평화활동.
평화통일운동과 청도 345kv 송전탑공사 반대활동에서 겪은 일들.

3)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면, 필히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부딪힘에서 오는 상처 와 희생이 따름, 요는 희생을 감당할 마음과 결의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 “싸우면서 다툰다.”는 말은 진실. 지금 멀쩡하다면, 안전하려는 욕망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2. 조직교회, 변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1) 회원제 멤버십으로 전환하여 소속감을 높인다.

시민사회단체나 친목단체 회원멤버십과 혼동할 우려.

교회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은 믿음에서 오는 자발적 동기에서 비롯함.

지난 시절 교회에 대한 회상, 교회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형제애 절실.

우리에게 절실한 덕목-관용, 용서, 수용성.

뭐가 자기와 조금만 안 맞으면 날 서고 각 세우는 성질 바꾸어야.

2) 선출직 지도력의 사역 역할 증대 방안

성례전 집례와 말씀 선포 수행은 전문적인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
또한 신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한스 쾅, 『교회』 627쪽(이근복 목사님 발제 참조) 설득력 있음.

선출직 지도력의 사역 방향을 에큐메니칼 선교와 사회참여로 선회하는 방안. (예, 여러 현안에 대한 기독교 대책위 역할분담과 교회 간 다리 역할)

3. 새로운 교회, 새로운 탐색에 대해

1) 로빈 마이어스의 글, 체제전복적인 반제국주의 메시지와 선교로 급진성을 행하지 못하면 교회는 죽어 마땅하다. 고통에 무디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 에 불과한 교회 비판.

이 말대로라면 거의 모든 교회가 죽어야 할 것.

말은 명쾌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 속에 교인들의 현실과 처한 상황은?

2) 실제 교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큰 현실과제.

자본독점,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 넘쳐나는 노동현실, 교회에도 직접
영향 줌.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실천할 수 있나?

변영신학은 이 지점에서 개인의 성공 이데올로기로 교인들을 선동함.

지금도 충분한가? 아니면 이판사판으로 변혁적 삶을 결단해야 하는가?
고민할 문제.

새민족교회 20년사 초창기 시절 취재 소감, 태반이 가나안 교인.

무신성과 물신성이 지배하는 시대, 신앙의 무신성은 우리 의식 깊이 들어
와 있음.

교회가 자행하는 반기독교 행태, 사람관계에서 생기는 상처와 단절,

자신의 불신앙적 자아를 생각하면 지금도 새민족교회 신앙을 간직하는 것이 기적같은 일.

정기적으로 우리의 신학과 신앙본질을 여러 형태로 신앙고백하는 일 필요함.

선언이나 신조 외에도 삶의 나눔이나 기도문, 간증 등.

4. 결론-끝까지 가봐야 안다

- 1)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지키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활동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속시키고, 하나님나라를 지향해야 함.
“덜 조직하고 무엇인가 생각나면 그냥 하도록 하자.” 공감함.
성령의 인도인가를 식별하면 역동적인 교회로 갈 수 있음.
- 2)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여백에 두고 교회를 섬김,
교인은 각박한 세상에서 실로 영혼의 안식처로서의 교회를 절실히 원함.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교회 되게 하는 것.
실제 목회방향과 실천이 고난 현장 참여 위주로 지속하면 교회는 정체성 혼돈과 피로감이 몰려올 것.(예, 예수목회세미나-희망찬 교회의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천막카페’의 경우)
그동안 그럴듯한 교회와 사람들 많이 봐 왔다. 그러나 지금은?
‘새민족교회는 내 운명’이라는 소명의식 공유해야.

새민족 조직교회 10년의 평가와 발전적 모색

민혜경
집사

1. 조직교회 10년을 통해 과연 새민족교회는 변화되고 성장하였는가?

안정적인 교회 운영과 교회 지도력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교회를 만들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새민족교회는 그 조직교회를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였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민족교회의 규모와 인력, 발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력으로 선출된 사람들(선출직)에게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돌리고, 나머지 교우들은 교회 활동에 한발짝 떨어져 있으며,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교회 10년 동안 교회를 유지 운영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음으로 인해, 교우들은 지쳐가고 나이를 들어감으로써 활력과 동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세대를 키우고, 만들어 내는데 실패해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평신도교회(대안적인교회)와 조직교회는 충돌하지 않는가?

평신도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평신도교회를 조직과 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교회의 틀로써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좀더 수평적인 체계가 필요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새민족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평신도교회라고 하는데 새민족교회의 목회자의 역할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역할인지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평신도교회에서 과연 목회자가 필요한가?’ ‘교단에 남아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새민족교회는 계속 평신도교회라는 타이틀을 계속 쓸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좀더 새로운 대안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4. 새민족교회만의 브랜드가 이제는 필요하다

새민족교회는 3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에큐메니컬 정신과 사회적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한계(일부사람들의 활동에만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세대를 키우거나 영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질적인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우들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비전의 재구성팀 활동보고서

1. 과제

비전2026이 채택된 지 10년. 처음, 비전2026은 우리가 가야할 지점을 보여 주는 이정표였고, 새민족교회를 통해 하나님나라 운동을 확장하는 동기와 동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서 비전은 수행해야만 하는 과제로서 부담이기도 했다. 특히 JPIC 센터 추진이나 분가교회 등은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돌아보면, 지난 10년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고, 일정 정도의 성취도 있었다. 다만, 비전2026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성취의 기쁨을 나누기 보다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가져왔기 때문에 비전2026이 실천의 동력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30주년 준비위원회 비전분과에서는 비전연구팀을 구성하여 비전의 재구성과 함께 구체적 실행조직을 논의하여 보다 선명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구체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비전 2026 중 실현된 내용을 정리한다.
- ② 비전 2016 중 향후 10년간의 과제를 정리한다.
- ③ 가능한 현재 조직 구조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 연구팀 구성

팀장 : 박연미 장로

서기 : 함소성 집사

팀원 : 황남덕 목사, 최현수 집사, 신재필 집사

3. 경과

비전연구팀은 새민족20년사의 비전부분과, 3.0추진위원회 2기의 보고서, 그리고 제직회 정책협의회 회의록 등을 참고로 비전을 재구성하였으며, 총 4번의 모임이 있었다.

- 1차 모임(3/20) : 비전연구팀의 과제를 공유하고 함소성 집사를 서기로 선출하였다.
- 2차 모임(4/3) : 참고자료를 점검한 후 3.0추진위원회 2기 보고서를 중심으로 '6대 30주년 기념사업 과제'와 '9대 비전변화 과제'중 실현된 내용을 논의하였다. '6대 30주년 기념사업 과제' 중 '새민족 선교센터(JPIC)추진'은 9대 비전변화 과제로 이행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 3차 모임(5/2) : 2차 모임과 연결하여 과제들을 실행 중인 것과, 향후 10년간 시행해야 할 것,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 혹은 수정되어야 할 것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완료 하였다.
- 4차 모임(5/8) : 3차 모임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조직을 선정하였다. 이 때 실행조직은 현재 제직회 실행부서가 맡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5월 29일 : 제직회 토론
- 6월 12일 : 교회위원회 검토
- 6월 19일 : 등대모임 토론
- 7월 3일 : 교회위원회 확정, 교인총회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4. 결과

총 37개의 과제 중 대부분이 이미 진행 중에 있었고, 그 중 10년 이내 실행해야 할 과제가 7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폐기 혹은 수정 제안하는 과제가 4개이다. 실행조직은 제직회 실행부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타 기관의 협의와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1) 6대 30주년 기념과제는 각 분과별로 진행 중이거나 실행완료 되었음

30주년 기념 과제 중 새민족 선교센터(JPIC센터) 추진은 9대 변화과제로 이행하여 구체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9대 비전 변화과제에 포함하여 논의함.

2) 9대 비전 변화 과제 중 폐기 혹은 수정을 제안하는 사업

① 국악 악기 배우기 소모임

-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 되었던 부분이며, 실제로 추진되었던 적이 있지만, 신청자 부족으로 개설하지 못하였다.
- 변화 과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욕구가 있으면 개설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폐기하는 것을 제안한다.

② 분가교회

- 분가교회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5개의 분가교회라는 버거운 과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논의하였다.
- 분가교회를 5개 교회에서 1개 교회로 축소하고, 10년 이내에 1개 분가교회를 실현한다. 단, 분가교회의 형태는 현재의 새민족과 같은 체제는 물론 다양한 대안모델도 가능하다.

③ JPIC선교센터

- JPIC선교센터는 새민족의 신앙적 가치를 확대하여 실현시킴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다짐 중 하나였다.
- 그러나 10년간 간간히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여건(물적 인적 자원)들이 여의치 않아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JPIC선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지도력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로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 JPIC선교센터라는 이름 없이도 JPIC정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숙제처럼 떠안고 있던 부담을 덜고, 새로운 방식으로 내용을 채워가자.

④ 교육위원회 구성

- 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은 그동안 여러 번 있어왔다. 교육교회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목표와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
- 그러나 현재 우리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6대 30주년 기념사업 과제

분과	사업 과제	주요 내용	기타(실행여부)
비전 분과	① 새민족 선교정책 방향 확립	새민족선교정책협의회 구성 방안 - 선교목표, 활동방식, 활동계획 수립	비전의 재구성에서 정리
		새민족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체계 개선	제직회 실행부서
		새민족 서른 살의 다짐 정리	진행 중
역사 분과	② 새민족 30주년 역사 기록	2006년 이후 10년의 역사기록 및 평가	진행 중
		주제별 문서 자료 정리 (주보, 기도문 등)	진행 중
		사진 자료, 행사 및 활동 정리	진행 중
행사 분과	③ 30주년 기념예배	예배 준비 소위 구성	30주년 행사분과 진행 중
		국악예배 준비	30주년 행사분과 진행 중
	④ 새민족 선교센터 추진	지역사회 선교 소위 구성(비전분과 협업)	진행 중
		지역사회 선교 프로그램 추진	진행 중
		지역사회 선교 활동 축하 마당	
찬양 분과	⑤ 새민족의 노래 제정	가사 제정(비전분과 협업), 작곡 의뢰	진행 중
	⑥ 새민족 찬양집 개편	새민족 찬양집 출판위 구성	진행 중
		선곡, 악보수집/작성/편집, 출판	진행 중

9대 비전 변화 과제

분야	변화 과제	주요 사업	실행 상황	담당 조직	협업지원
예배	① 삶이 나뉘지고 소통하는 예배	평신도 설교 정례화	진행 중	예배문화부	당회
		삶의 고백과 나눔이 있는 예배	진행 중	예배문화부	
		다양한 교회 외부 인사 초청 설교	진행 중	예배문화부	
	② 문화적 정체성을 만드는 예배	다양한 민족/나라의 예배 연구	10년 이내 추진	예배문화부	
		국악찬송/다양한 민족 찬송 배우기	10년 이내 추진	예배문화부	
		국악 악기 배우기 소모임(30주년 행사 연계)	폐기		
선교	③ 교회 예 배 용어의 개선	예배 용어의 개선	진행 중	예배문화부	
	④ 분가/대 안 교회 모색	분가/대안교회 연구위원회 구성	10년 이내 추진	교회위원회	
		다양한 대안교회 조사/분석/학습/토론	10년 이내 추진	교회위원회	
		분가교회/대안교회 모델 제시	10년 이내 추진	교회위원회	
교육	⑤ 교육교회 역량 강화	JPIC선교센터	폐기		
		정기적인 교사/예비교사 교육 추진	진행 중	교육훈련부/ 교육교회	
		교육교회용 교재 선정/집필	진행중 (기독교인연대)	점검(교육 훈련부)	
	⑥ 청년회 활성화	교육교회 예배/찬양 연구/적용	진행 중	예배문화부/ 교육교회	목회실
		청년회 자체 교육 프로그램 추진	청년들의 욕구 조사 후 추진	청년회	
		해외 에큐메니컬 활동 추진	진행 중	청년회	목회실
	⑦ 신앙 교 육 훈련 체 계화	청년 등대 전환 추진	청년들의 의견 청취 후 추진	청년회	
		교육위원회 구성 - 기관별 교육 목표, 교육 방안, 교육 계획 수립	폐기		
		신앙 교육 훈련 커리큘럼 작성	진행 중	교육훈련부	
		외부 교육기관 연계 에큐메니컬 지도력 양성	진행 중	교육훈련부	
친교	⑧ 소그룹 친교 활동 강화	성별/연령대별/활동지역별 친교 소그룹	10년 이내 추진	친교봉사부	
		취미별(악기, 영화, 독서, 신학강좌 등) 소 그룹	10년 이내 추진	친교봉사부	
	⑨ 새교우 담당팀 구성	새교우 안내/교육/돌봄 담당팀 구성	진행 중	친교봉사부	

새민족 서른 살의 다짐팀 활동보고서

1. 활동 목적

새민족 교인 실천 규범이 제정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이 먼 옛날처럼 느껴질 정도로 한국 사회는 역동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민족 30년을 맞이하여 회미해진 그때의 약속을 되새기며 새민족 헌장의 정신을 민족과 교회, 이웃, 내 삶에서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다짐들을 새롭게 정립해보고자 합니다.

2. 팀 구성

팀장 : 한지경 집사 | 서기 : 강성배 집사 | 팀원 : 신윤복 장로, 황남덕 목사

3. 활동 일시

- ① 2016.04.24 1차 회의 : 첫 인사, 팀 역할 공유
- ② 2026.05.01 2차 회의 : 기존 교인 실천 규범 분석 및 다른 교회 자료 공유
- ③ 2016.05.08 3차 회의 : 서기 강성배 집사 선출, 다짐 회의 틀 공유
- ④ 2016.05.21 4차 회의 : 기존 교인 실천 규범 항목 정리해서 선별
- ⑤ 2016.05.29 5차 회의 : 선별된 내용으로 문구 만들
- ⑥ 2016.06.05 6차 회의 : 문장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
- ⑦ 2016.06.12. : 주보글을 통한 안내
- ⑧ 2016.06.19 : 등대별 의견 수렴
- ⑨ 2016.07.02 7차 회의 : 김미경 집사 참석
- ⑩ 2016.08.14 8차 회의 : 선언문의 제목을 '새민족 삶의 다짐'으로 결정, 내용 최종 확정 의결, 교회위원회 보고 및 교회위원회 의결
- ⑪ 2016.08.28 : 새민족 30주년 창립주일 공표

4. 문장 작성 원칙

- ① 새민족 헌장의 정신과 일치해야 한다.
- ② 쉬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 ③ 분량이 많지 않아야 한다.

- ④ 비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 ⑤ 한 문장에 하나의 내용만 담는다.
- ⑥ 신앙고백과 중복되는 내용은 가능한 제외한다.
- ⑦ 전문과 마지막 다짐 글을 넣는다.
- ⑧ 원론적, 선언적이지 않고 구체적, 도전적이어야 한다.
- ⑨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기쁨이어야 한다.

5. 이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새민족 삶의 다짐

우리는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합니다.

1. 하나님과 교회

- 1) 나는 주일을 모든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 2)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의 십일조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 3)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공동 목회를 실천하겠습니다.

2. 사회와 민족과 이웃

- 4)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5) 교회와 사회, 가정의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적 태도를 지킵니다.
- 6)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3. 자연과 환경

- 7) 생명의 근원인 농업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4. 개인의 삶

- 8)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대안적 삶을 살겠습니다.
- 9) 부모와 자녀는 서로 존중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겠습니다.
- 10) 왜곡되고 변화하는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활동에 기쁘게 참여하여 내 삶과 새민족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8월 28일
창립30주년을 맞이한 새민족 교우 일동

6. 우리 모두가 함께 약속한 '새민족 삶의 다짐'입니다

새민족 삶의 다짐

우리는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합니다.

- 1) 나는 주일을 모든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 2)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의 십일조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 3)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공동 목회를 실천하겠습니다.
- 4)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5) 교회와 사회, 가정의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적 태도를 지킵니다.
- 6)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 7) 생명의 근원인 농업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 8)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대안적 삶을 살겠습니다.
- 9) 부모와 자녀는 서로 존중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겠습니다.
- 10) 왜곡되고 변화하는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활동에 기쁘게 참여하여, 내 삶과 새민족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8월 28일 창립30주년을 맞이한 새민족 교우 일동



